

2016년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사서, **813.8** 2016  
어린이책을 말한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편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6

2016년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813.8<sup>1)</sup>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6

발행일 2016년 12월 13일

지은이 2016년 경기도사서서평단

기획및편집 정은영, 이대건

발행처 경기도·경기도사이버도서관

주소 (1625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흥로23번길 68 (신흥동 123-69)

전화 031)252-5237

홈페이지 [www.Library.kr](http://www.Library.kr) / [www.BookMagic.kr](http://www.BookMagic.kr)

디자인 친친북스+책마을해리

인쇄 현대원색

ISBN 978-89-93395-59-4 13020

※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있습니다. 상업적인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은 2016년 경기도사서서평단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책 속 서평과 목록은 경기도 독서포탈 북매직([www.BookMagic.kr](http://www.BookMagic.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6029856)

1) 813.3은 한국십진분류법(KDC)의 '어린이문학' 분류기호입니다.

2016년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사서, **813.8** 2016  
어린이책을 말하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편

경기도·경기도사이버도서관

## 보다 나은 사서가 되기로 작심했습니다

사서들의 서평 쓰기는 보다 사서답기 위한 경기도 사서들의 자구책입니다. 바쁜 일에 치여 책 읽을 겨를도 없지만 그래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기 위해서 서평을 씁니다.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결국엔 ‘책’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평을 쓰기 위해서는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어떤 책을 고를까, 이 책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 할까, 누구에게 권하면 좋을까를 고민합니다. 수서할 때도, 정리할 때도, 문화행사를 기획하거나 실행할 때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민원에 응대할 때도 말이죠. 그렇게 책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수록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나은 도서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보다 나은 사서가 되기로 작심하고 서평을 쓴다고 표현한다면 너무 과한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짐만은 그 못지않기 때문입니다. 사서들이 서평을 쓰는 이유. 스스로 조금씩 더 발전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담아 올해도 서평집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6』을

발간합니다. 벌써 8번째 서평집입니다. 본 서평집은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신간들 중에서 서평대상 도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서들이 도서관 신착자료에서 많이 찾아서 읽어보고 선택하곤 합니다. 새로 나오는 책, 도서관에 소장된 책의 수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이 서평들이 책을 고르고 읽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책이 우리의 삶에 소통의 매개체로 그 역할을 마땅히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서평을 써주신 ‘경기도사서서평단’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오늘도 도서관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도서관 관련자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004    퍼내는 글
  
- 011    그림책
- 012    매미 애벌레, 먹어야 할까요? — 이시영
- 014    자그마치 7년이라나…… — 김새롬
- 016    사육사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 — 공정자
- 018    아기 꿈은 어디 있을까? — 유향숙
- 020    사서 선생님들이란 이런 분들이예요 — 이시영
- 023    우리 모두 친구야! — 이시영
- 025    고철 덩어리의 놀라운 변신 — 이시영
- 027    따뜻한 행복을 나누고 더하고 — 강동연
- 029    대추 한 알이 익기까지 — 김보라
- 031    느림보 아니야, 차근차근 천천히 할 뿐이야 — 홍미정
- 033    고마워, 미안해 — 이수경
- 035    팔랑팔랑 내 마음 — 이수경
- 036    해적, 달나라에 가다 — 이수경
- 039    일상이 마법이 되는 순간 — 이수경
- 041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 — 이수경
- 044    세상의 모든 미영이들에게 — 이수경
- 046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지? — 이수경
- 048    작은 배추의 성장 이야기 — 이민지
- 050    좀 더 크면 채소가게로 갈 수 있을까요? — 박지원
- 052    순리 대로 생긴 대로 — 유향숙
- 054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 유향숙
- 056    낡고 불품없는 물건의 재발견 — 이가영
- 058    내 친구, 꿈! — 이민혜
- 060    어디로 갔지? — 이민지



- 064 이런 삶, 어떠세요? — 김정옥
- 067 내 친구 반려동물 — 유옥환
- 070 난 왜 친구가 없을까? — 이민혜
- 073 “불만을 받아 드립니다” — 이민혜
- 076 아이의 “잠깐만” 에 잠시 멈추기 — 유향숙
- 079 먹기 싫은 음식, 재미있게 먹는 법 — 김새롬
- 081 우리 할머니는 마귀할멈 — 이단비
- 084 외나무다리에서 친구를 만나다 — 이단비
- 087 혼자인 그림자는 없어 — 이영
- 090 진짜 실패는 포기하는 거예요 — 이연수
- 092 이젠 정말 망했어! — 정은영
- 096 혼자서도 할 수 있어! — 이민지
- 098 나쁘게 구는 거, 더는 못 참아 — 유향숙
- 100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 이연수
- 102 촌수와 가족 호칭, 어렵지 않아요 — 이연수
- 104 ‘너무떨어자세하~별’ 에서 온 왕자 — 유향숙
- 106 “어른들은 몰라요” — 유향숙
- 108 웃음은 힘이 세다? — 김새롬
- 110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아이들 — 이은주
- 112 따뜻함이 비처럼 나를 적시다 — 유현미
- 114 쥐가 열두 띠 중 1번이 된 이유 — 박지원
- 116 나눔의 즐거움 — 유향숙
- 118 엄마,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 유향숙
- 121 작은 일에 감사하기 — 유옥환
- 123 어머니, 잘 지내시지요? — 유옥환
- 125 생명, 그 끝없는 전진이 주는 숭고한 감동 — 유현미
- 128 물고기라는 꽃 — 유향숙
- 130 나와 다른 그 녀석과 친구 될 수 있을까? — 공정자
- 132 소리가 들려주는 바닷소리 — 이은주
- 134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투명인간일까? — 공정자
- 137 아까, 그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 — 유향숙

- 140 봄 숲 친구들 — 유향숙
- 142 해학이 있는 도깨비 이야기 — 유향숙
- 144 내일은 어떤 날일까요? — 이선희
- 146 세상을 바꾸는 생각 — 이영
- 148 그뻐 그랬지 — 이연수
- 150 와이파이존을 찾습니다~ — 이선희
- 152 나도 가끔 이상한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다 — 이선희
- 155 우리 모두가 꽃이다 — 홍미정
- 157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이다 — 유향숙
- 159 잠이 안 올 땐 달님과 산책해요 — 유향숙
- 161 나만 아는 소중한 친구 — 이선희
- 163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의 행방 — 홍미정
- 165 텅 빈 냉장고가 모이면 — 이가영
- 167 화가 호레이스 피핀의 일생 — 공정자
- 169 존경하고 사랑해마지 않는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 공정자
- 171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 — 오은아
- 175 아무리 어른이라고 소시지를 두 개씩이나 먹어도 돼요? — 이민혜
- 177 그리는 대로 될 수 있다면 — 공정자
- 179 외로움도 소중한데 — 이선희
- 181 제주4·3을 기억하다 — 박지원
- 183 혼자 못 하면 나하고 하지 — 이수경
- 186 이토록 단단한 이별 뒤에, 휘파람을 불다 — 이수경
- 189 어린이문학
- 190 로봇 친구, 괜찮아? — 이연수
- 192 소녀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 박지원
- 194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혀주세요 — 박지원
- 195 진실을 밝혀 억울함이 없게 하라 — 박지원
- 197 열세 살 연화의 눈에 비친 제주4·3 — 이수경
- 199 달령공주 대단해~ — 박지원
- 201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 박지원

- 204 매미들의 왕 초코파이6세, 인간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다! — 김정옥
- 207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지? — 이연수
- 209 잘하는 게 뭐야? — 유향숙
- 211 미니어처 공예가는 안 되나요? — 박지원
- 213 나는 단지 숨을 쉬었을 뿐이에요 — 박지원
- 215 집고양이 위에 길고양이? — 박지원
- 217 곰돌이 푸, 워니 더 푸 이야기 — 김새롬
- 219 나도 때론 화가 나는걸 — 이민혜
- 222 행동의 힘이 주는 위대함 — 이연수
- 225 아빠 마음에 감기가 걸렸어요 — 김새롬
- 228 이 통쾌한 동화의 맛! — 유현미
- 232 아이들의 우정, 무시하지 마세요 — 박지원
- 234 선, 도형, 색을 찾아서 — 박지원
- 236 진짜 슈퍼맨이 되려면 — 박지원
- 238 함께 하는 일등 — 이연수
- 240 당당한 1학년들을 위하여 — 박지원
- 242 화가 불뚝불뚝! — 박지원
- 244 빵 만들며 인체 탐험 — 박지원
- 246 옛날, 오래된 미래 — 박지원
- 248 똑바로 vs. 마음대로 — 박지원
- 250 우리가 몰랐던 어린이도서관 — 이연수
- 252 바이올린으로 다시 별을 만나다 — 공정자
- 254 물려받는 거 싫어! — 이연수
- 256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함께하는 우리 — 조수연
- 258 품위있는 삶을 말하다 — 이수경
- 261 착하면 바보 같나요? — 박지원
- 263 귀찮은 내 동생 — 박지원
- 265 얼굴을 바꿔 드려요 — 박지원
- 267 나의 성공을 남과 나눌 수 있을까 — 이민혜
- 269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식구들과 함께 먹는 밥 — 박지원
- 271 밤밤이와 안녕할 시간 — 박지원

- 272 스스로 이름 짓다, 나는 강한 바다다 — 이수경
- 275 백수 삼촌을 위한 기도 — 이은주
- 278 정민이와 준호는 그림자도 친해 — 박지원
- 208 어린이비문학
- 281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알아가는 지식의 출발점 — 조수연
- 284 신기한 미생물의 세계 — 박지원
- 286 김해가 항구도시였다고? — 박지원
- 288 재미있게 익히는 수학 — 유향숙
- 290 고전에서 찾는 인성과 지성 — 조수연
- 293 쥐랑 햄스터가 다른 동물이라고? — 박지원
- 295 경제랑 친구하기 — 박지원
- 297 결과 속은 무엇이 다를까? — 공정자
- 299 인류 기록의 역사, 책의 역사 — 공정자
- 301 우리 집 경제대장 나백원이 간다! — 박지원
- 303 서평자 소개
- 328 서평 공모전 수상작
- 329 우수상 < 우리 집 경제대장 나백원이 간다! — 박지원
- 332 장려상 < 무서운 마니또 친구는 싫어요 — 김산정
- 334 장려상 < 친구의 소중함 — 이도현
- 336 장려상 < 맛있게 잘 익은 생각을 만드는 법 — 최혜정
- 339 장려상 < 소리질러 볼까요. 우리 모두 다함께! — 한정휴
- 341 2016 경기도사서서평단 추천도서목록
- 354 색인

# 그림책



## 매미 애벌레, 먹어야 할까요?

— 이시영(군포시중앙도서관)

7년 동안의 잠 | 박완서 글 | 김세현 그림 | 어린이작가정신 | 2015  
#그림동화 #영유아

박완서는 내가 많이 좋아하는 작가다. 사십이 넘어서야 문단에 데뷔하여 우리시대 대표작가로 자리매김한 것도 놀라울 뿐더러 옆집 아주머니 같은 푸근한 인상이 친근하기 때문이다. 동화로는 『자전거 도둑』 등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 책은 이번에 처음 발견했다. 『7년 동안의 잠』. 제목이 자못 진지하다.

첫 장을 펼치니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커다랗고 둥그런 애벌레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다. 어린 개미가 싱싱하고 큰 먹이를 찾아낸 것이다. 그림만 보아도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든다.

개미마을에 흉년이 계속되어 저녁이 되면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마을에 있는 수많은 광은 하나둘 비어가고 있었다. 그렇다고 대대로 내려오며 이룩하고, 늘리고, 가꾸고, 사랑해 온 마을을 버릴 수는 없는 일. 이런 걱정 속에 찾아낸 큰 먹이라 기쁜 마음에 어깨를 으쓱했다. 어린 개미가 커다란 애벌레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은 일개미들은 새롭게 기운을 차리고, 줄줄이 먹이를 보러 빠르고 힘차게 행진했다. 먹이는 살아있는지 열심히 꿈틀거렸지만, 개미들의 수가 워낙 많아 큰 먹이는 금방 새까만 개미 덩

어리가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늙은 개미가 모든 개미들에게 물러나라고 외친다. 마을에서 존경받고 있는 어르신 말씀에 젊은 개미들은 모두 물러났다. 늙은 개미가 먹이의 돌레를 한 바퀴 둘러보고 그 먹이가 매미의 애벌레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미들이 한여름 땀 흘려 일할 때 나무 그늘에서 노래나 부르는 팔자 좋은 매미를 생각하며 입맛을 다시고 있을 때, 개미마을의 어르신은 매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매미는 한여름에 노래를 부르기 위해 어두운 땅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이번에 찾아낸 매미 애벌레는 거의 7년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부터 늙은 개미와 젊은 개미들의 논란이 시작된다. 7년이나 어둠과 외로움 속에서 재주를 갈고 닦은 매미를 옹호해주는 늙은 개미와 노래 따위를 부르기 위해 7년 아니라 10년을 했어도 대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젊은 개미들.

이제, 굶주렸던 개미들이 찾아낸 큰 먹이, 매미 애벌레는 이제 어떻게 될까?

그림은 황색과 검정색이 주를 이루지만 단조로운 조합이라서인지 더욱 생생한 느낌을 전해준다. 개미들의 표정만 보아도 개미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박완서 작가의 환경과 생명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이 책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 자그마치 7년이라니……

— 김새롬(평내도서관)

7년 동안의 잠 | 박완서 글 | 김세현 그림 | 어린이작가정신 | 2015  
#그림동화 #영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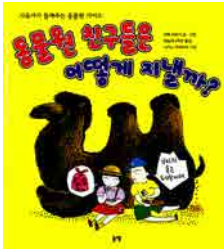
도서관 앞 화단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땅바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져 고개를 빼꼼 내밀어 보았더니 밤하늘보다 더 까만 개미떼 한 무리다. 자기몸집보다 큰 먹이를 들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갈라진 작은 틈 사이로 열심히 줄을 지어 기어간다. 아마도 박완서 작가의 책 『7년 동안의 잠』에 나왔던 땅 속 깊은 곳 수많은 광으로 이어져 있는 거대한 개미마을로 향하는 것이리라.

『7년 동안의 잠』은 수년 간 지속된 흉년에 배고파하는 개미마을 식구들이 모처럼만에 얻은 ‘큰 식량’인 매미가 되기 직전의 번데기를 두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책이다. 개미마을에 갑자기 찾아온 싱싱한 먹잇감이자 여름마다 찾아오는 친구이기도 한 매미 애벌레를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두고 개미마을 식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을 늘어놓는다. 매미 소리를 시끄러워했던 개미는 매미를 잡아먹자고 말하지만, 매미 덕분에 땅 위의 여름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던 개미는 매미를 살려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개미마을이 술렁거린다. 이 때, 현명한 늙은 개미가 나타나 이야기한다. 족히 7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버텨내고 마침내 매미가 될 준비를



끝낸 매미 애벌레를 살려주어야 한다고 말이다. 7년이라니……. 개미마을 식구들 중 어느 누구도 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현명한 늙은 개미만이 애벌레가 견뎌낸 7년의 세월을 통해 한여름 내내 울게 될 ‘매미’로서의 삶의 가치가 개미마을의 ‘먹잇감’으로서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매미 애벌레를 잡아먹는다면 당장의 배고픔은 면할 수 있을 테지만 앞으로 다가올 뜨거운 여름 날, 먹이를 찾아 헤맬 개미들을 위해 노래해줄 매미는 볼 수가 없게 된다. 그것뿐이겠는가. 매미가 울지 않는 여름은 결코 여름답지도 않을 것이다. 개미들은 긴 시간 이어진 배고픔 때문에 매미가 바빠 우는 여름의 아름다움을 잠시 잊고 있었다. 여름이 여름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말이다. 생각해보면 개미마을의 흥년은 땅이 땅답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콘크리트가 땅 위에 깔리고 건물이 들어서며 인간의 물질적인 삶은 편리해졌다. 반면에 인간은 넓고 푸른 들판을 잃었고 그 들판 밑 폭신한 땅 속에 터를 잡고 살아가던 개미들은 들판에서 풍요롭게 얻었던 먹이 터전을 잃었다. 땅은 땅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매미는 매미대로 그것이 주는 본연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았더라면 개미는 진작부터 매미 애벌레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온다.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문명의 발전은 필연적인 것이고 발전을 위해 본연의 모습은 현재에 맞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촉촉한 땅이 딱딱한 콘크리트 땅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하고 있는 편리한 삶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편리한 삶 이면에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는 모든 것들에 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사육사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

— 공정자(안성진사도서관)

동물원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 아베 히로시 글그림 | 햇살과나무꾼 옮김 | 논장 | 2013 #그림책 #유아~초등

『동물원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의 작가, 아베 히로시는 약 20년간 동물원 사육사로 일하다가 그 이후 주로 동물을 주인공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림책 작가가 되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히로시는 동물원에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날마다 그림을 그렸고, 사육사를 그만 두면서 동물을 잘 알리는 그림으로 또 다른 사육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동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책 속에서 사육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책 속에 나오는 동물은 책 표지에 나온 낙타부터 41번째 사람까지 다양하다. 각 페이지마다 동물의 특징을 담은 짧은 소개 글이 나온다.

동물 그림은 어떤 동물은 단독으로 그리고, 어떤 동물은 무리를 지어 그렸다.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그린 동물은 사진에서 보는 동물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글에 유머가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동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충실하게 알려준다. 갓 태어난 아기 캥거루는 손가락에 얹을 수 있고, 스컹크의 방귀는 독해서 목욕을 해도 1주일 이상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다. 코끼리는 코로 작은 땅콩도 질 수 있을 정도다. 다람쥐는 도토

리를 수시로 모으지만 어디에 두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사육사로 동물을 돌보며 알게 된 사실들을 재미있고 쉽게 소개한다.

만화와 같은 대화체로, 동물과 사람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등 읽는 내내 재미를 주는 책이다. 동물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그림책으로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오래 전에 출판되어 인기를 끌었던 『폭풍우 치는 밤에』 등 작가의 다른 작품을 함께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좋겠다..



## 아기 꿈은 어디 있을까?

— 유향숙(성남시판교도서관)

꿈의 노래 | 벤지맹 쇼 지음 | 엄명순 옮김 | 여유당 | 2014  
#그림책 #6세 ~초등2

이 책의 제목은 ‘꿈의 노래’이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의 제목을 ‘아기 꿈은 어디 있을까?’로 다시 붙이고 싶다. 그림책을 읽다보면 내용뿐 아니라 아기 꿈을 찾는 재미가 더욱 즐겁게 한다.

겨울잠을 자려고 누운 아빠와 아기꿈. 그러나 아기꿈은 꿀벌이 나타나자 꿀벌을 찾아 동굴 밖으로 나간다. 아빠꿈이 아기꿈을 찾아 밖으로 나가 보지만 숲속 복잡하고 다양한 동물이 있는 공간에서 아기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은 보통 그림책의 2배 반 정도로 큰 데 비해 아기꿈을 아주 작게 그리고 등장인물과 주변 그림을 많이 그려 넣어서 아기꿈을 찾아 보게 하는 숙제를 안겨준다. 복잡한 숲속, 복잡한 도시, 오페라관,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극장 안까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벌을 쫓는 아기꿈이 숨어 있다.

이런 종류의 책이 종종 있는데, 대표적으로 『월리를 찾아라』를 들 수 있다. 책 속에서 작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려있는 놀이공원 어딘가에 있는 월리를 찾아야만 한다. 이런 책은 읽다보면 그림책에 집중하게 되고 빠져드는 묘한 매력이 있다.

『곰의 노래』의 또 다른 이야깃거리 중 하나는 가족의 의미이다. 바로, 엄마곰이 아닌 아빠곰이 아기곰을 찾아다닌다는 점이다. 상황에 따라 또는 가정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아기를 돌보는 것이 엄마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낯설거나 이상한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아이를 생각하고 걱정하며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같다는 사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 책은 2015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 2015학교도서관저널 추천, 2015 책둥이 추천, 201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 2014 이탈리아 안테르센 상 수상, 2013 <뉴욕타임즈> 올해의 그림책 선정, 2012 프랑스 ‘처음 만난 책’에 선정되었다.



## 사서 선생님들이란 이런 분들이에요

— 이시영(군포시중앙도서관)

도서관이 키운 아이 | 칼라 모리스 글 | 브래드 스니드 그림 | 그린북 | 2015 #그림책 #초등~성인

도서관 르네상스 시대라 할 만큼 해마다 많은 도서관이 생기고 있다. 그만큼 도서관이 현대인들에게 자아를 계발하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며 영혼을 살찌우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한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가 쓴 그림책이 있다. 표지에는 행복한 아침독서 추천도서, 2007년 미국 북센스 어린이 도서상 수상 스티커가 자랑스럽게 붙어 있다.

그림은 미국의 어느 도서관 모습이다. ‘밤에도 낮에도 책을 읽는다’는 표어를 붙이고 책읽는 성을 지키는 철가면 로드 샐러드 경이 모습이 진지하다. 가방을 내려놓고 아주 편해 보이는 특별한 쇼파에 앉아 책 읽기에 빠진 한 아이가 있다. 멜빈이다. 멜빈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매일 도서관에 간다. 대출대에서 만난 사서 선생님들은 멜빈을 볼 때마다 반가워한다. 멜빈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학교가 재미있었는지 날씨는 좋은지를 묻는다. 멜빈 역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많은 것들을 사서 선생님들에게 묻는데, 도서관에 있는 세 명의 사서들은 멜빈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 책저 책을 권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어느 날 오후 멜빈이 뱀에 대한 책

을 찾자. 마즈 사서는 뱀을 키울 때 보는 책을 권하고, 베티선생님은 뱀을 이용한 공예품 내용이 있는 책을 권한다. 리올라 사서는 ‘뱀에 대한 시와 노래’ 책을 찾아 준다.

“사서 선생님들이란 이런 분들이예요.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고는 못 배긴답니다. 그래서 멜빈은 사서 선생님들을 좋아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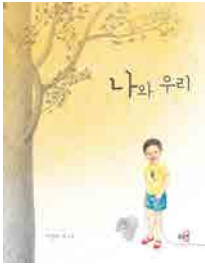
작가 스스로 사서로서의 자부심을 책 속에서 맘껏 드러낸다. 서가 꼭대기에 꽂힌 책을 넘어질 것 같이 아슬아슬한 자세로 찾고 있는 베티 사서의 평퍼짐한 엉덩이 그림이 우습다. 책 찾기에 그치지 않고 책을 읽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연결시켜주는 사서선생님들이 고맙다. 그래서 멜빈은 도서관 행사라면 빠지지 않는다. 멜빈이 참여하는 도서관 행사들은 여름독서교실, 방과후 특별 프로그램, 청소년 독서모임, 영화의 밤, 도서관에서 밤새워 책 읽기 등등이다. 그 중에서 밤새워 책 읽기를 가장 좋아한다. 도서관에서 유익한 시간을 많이 보낸 멜빈은 4학년 때 철자 알아맞히기 대회에 나가 1등을 하고 5학년 때 ‘태양계에 있는 모든 마을, 도시, 나라 이름 맞추기 지리 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받는다. 도서관을 다니며 멜빈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간다. 도서관에서 크는 아이, 이 얼마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일인가.

요사이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 도서를 대출하거나 반납하는 곳으로만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책 속의 보물을 찾게 해주는 숨은 조력자들을 활용하지 못한다. 그 조력자들이 바로 사서들이다. 현재 사서직들이 많지 않아 공공도서관 특히 자료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서들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질문한 내용에 불만족스러운 답을 얻고 실망하는 이용자도 있고 그것이 전체 사서들의 문제인 것처럼 과장되기도 한다. 사실 규모가 작은 공공도서관에는 전체 직원 중 사서는 한 두명 정도이고, 규모가 큰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각 자료실에 1명 미만인 경우가 많다.

경기도 공공도서관 어느 곳에선 제2의 마즈, 베티, 리올라 사서선생님들이 있다. 도서관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의 자양분이 되어줄 사서들에 관한 책 『도서관이 키운 아이』는 아이와 도서관을 즐겨 이용하시는 분, 도서관을 처음 이용하는 분들의 도서관 안내서가 되어줄 친절한 책이다.





## 우리 모두 친구야!

— 이시영(군포시중앙도서관)

나와 우리 | 이선미 글 | 그림 | 글로연 | 2014

#그림책 #유아~초등저학년

고무줄을 쥐고 있는 까까머리 소녀가 눈길을 당기는 책이다. 펼쳐보니 서울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선정도서, 국가인권위원회 추천도서, 한국교육문화진흥회 선정 ‘으뜸책’이라는 작지만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2013년 초판 발행되었으며, 2014년에 3쇄 발행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세심한 연필 스케치로 어느 마을 공터에 고무줄놀이를 하는 네 명의 소녀가 보인다. 그 뒤로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가고 있다. 까까머리 소녀가 이사 온 것이다. 이사 온 소녀는 고무줄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구경한다. 함께 하고 싶지만 친구가 없어 구경만 하다가 조그만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른다. 놀이 하던 아이들은 까까머리 소녀가 신발을 거꾸로 신었다고, 남자애인지 여자애인지 모르겠다며 이상하게 쳐다본다. 소녀는 눈물을 짙게 흘리고 방 안에서 혼자 고무줄놀이를 한다. 다음날은 신발도 똑바로 신고 머리피도 예쁘게 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간다. 그러자 한 아이가 ‘안녕?’하며 인사를 한다. 놀이에 끼지 못하는 놀이에 끼지 못한 소녀가 쭈뼛거리는 사이 한 아이가 화장실 가고, 영이가 고무줄을 잡아 달라고 해서 함께 놀게 된다. 다섯 소녀의 동그란 얼굴에 가득한 미소가 예쁘다. 마침내 아이들은 까까머리 소녀와 함께 동그랗게 모여 논다.

다음 장을 넘기니 책이 거꾸로 되어 있다. 편집이 잘못된 책인데 도서관에 들어 온 줄 알고 검수자를 찾았는데 앞 뒤 동시 펼침 구성의 책이란다. 다시 뒤집어 처음부터 읽는다. 이번엔 화자가 ‘우리들’이 되어 이야기가 시작된다. 우리는 신나게 고무줄놀이를 한다. 그러는 중에 고무줄놀이를 구경하는 낯선 아이가 보였는데, 친구가 신발을 거꾸로 신었다고 귓속말을 한다. 힐끗 쳐다보고 다시 고무줄놀이를 한다. “여자야?, 남자야?” 불쑥 말을 뱉어버린 친구 때문에 살짝 미안한 마음도 든다. 그러다가 갑자기 까까머리 소녀가 사라진 것을 알고 아이들은 “놀린 거 아닌데 바보 같다”고 한마디씩 한다. 다음날에도 모두 모여 고무줄놀이를 하는데, 영이가 먼저 인사를 건네자 까까머리 소녀도 인사를 한다. 고무줄놀이에 끼워주고 싶은데 짝이 맞지 않아 망설이다가 마침 현옥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고무줄을 잡아달라고 부탁한다. 현옥이가 돌아오자 친구들은 까까머리 소녀를 깎두기로 끼워주자고 하며 다섯 명의 소녀들이 신나게 논다.

어느 쪽을 먼저 읽든 상관없다. 하나의 이야기를 ‘나’와 ‘우리’의 시각에서 엮은 것이다. 하나의 상황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친구를 사귀는 방법, 따돌림을 없애는 방법, 모두 함께 소통하며 사는 방법 등, 가치있는 관계맺기를 알게 해주는 책이다.



## 고철 덩어리의 놀라운 변신

— 이시영(군포시중앙도서관)

누구세요? | 엠마누엘레 베르토시 글그림 | 북극곰 | 2014  
#그림책 #초등저학년

이 책은 이탈리아 작가 엠마누엘레 베르토시가 만들었다. 그의 수상 이력은 2011년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 세계민속축제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대상, 2009년 파도바 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2003년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2000년 보르다노 내셔널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심사위원 대상, 1999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1998년 보르다노 내셔널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프리울리 언어 부문 대상 등 매우 화려하다. 이렇게 화려한 수상 이력을 가진 작가의 그림책은 어떤 내용일까?

책은 ‘우리는 한때, 삽이었고 펜치였고 톱이었고 망치였고 못이었고 나사였고 그물이었고 흙받이였고 자물쇠였고 양동이 손잡이였고 파이프였고 손톱깎이였고 모자였고 돌이었던다’로 시작한다. 장문의 시 같다.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다음 장에는 시커멓고 차가운 느낌의 고철덩어리지만 누구의 눈처럼 보이는 사진이 나오는데, ‘지금은 무엇이 되었냐’고 묻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철공예 물고기가 돌맹이 위에 있다. 그리고 해적선이 보인다.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육지가 보이며, 돈키호테처럼 보이는 의리의 사나이도

있다. 그는 배가 고파 양을 잡아먹으려 한다. 양의 살려달라는 다급한 소리도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림들에게 누구냐고 물으니 ‘한때 돌이었고 자물쇠였고 망치였고 양동이 손잡이었다’고 답한다.

한때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었던 도구들이 낡고 녹슬어 못쓰게 되어 버려졌다. 버려진 고철덩어리가 된 것이다. 그 고철 덩어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었더니 물고기가 되고 배가 되고 양이 된다.

낡고 못 쓰는 고철 덩어리가 창의적인 생각이 더해져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다.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책이다. 그렇다고 화려하고 예쁘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고철덩어리가 차갑고 불품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더 이상 쓸모없어 보이던 것들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또 다른 무언가로 재탄생되는 놀라운 예술세계를 보여준다. 아이의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주기에 충분한 책이다.



## 따뜻한 행복을 나누고 더하고

— 강동연(수원선경도서관)

방긋 아기씨 | 윤지희 글그림 | 사계절 | 2014

#그림책 #영유아

그림책 『방긋 아기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웃어본 적 없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 번도 웃어 본 적 없는 아이에게 웃음과 행복감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왕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육아가 서툴기만 한 왕비는 웃지 않는 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일류 요리사의 최고급 음식, 비단으로 꽃수를 놓은 아름다운 옷, 흥미로운 공연을 준비한다. 하지만 어른의 시각이 아닌 아이의 입장에서선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아이를 웃게 하지 못한 왕비는 실망과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웃었다. 그런데 아이를 웃게 만든 것은 최고급 요리도, 좋은 옷도 아니다. 한 번도 웃어본 적 없는 아이를 웃게 만든 것은 우연히 터져 나온 왕비의 웃음이었다. 아이가 처음 웃던 벽찬 감동의 순간은 왕비님의 차가운 푸른빛 얼굴이 따뜻한 살구빛으로 변하며 극적으로 묘사된다.

아이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왕비에게 정작 자신의 행복을 돌볼 기회가 없었다.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단

순한 진리를 잘 보여준다. 부모와 아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이의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다. 공감과 교감, 모든 관계의 기본이지만 너무 당연해서 잊게 되는 행복의 조건을 되짚어 보게 된다.

『방긋 아기씨』는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섬세하고 우아한 그림을 보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전반적인 색채는 짙은 회색빛의 무채색이지만, 연필의 세밀한 질감을 잘 표현했으며, 전반부와 후반부의 반전된 스토리를 색채를 이용한 극적대비로 풀어낸다. 행복이 교감되지 않은 전반부의 등장인물들은 온기가 전혀 없는 차가운 파란빛 얼굴로 표현된다. 하지만 아이가 웃음을 찾은 이후의 상황부터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분홍빛 색감으로 그림책이 가득 찬다. 특히 엄마와 아이가 함께 웃는 장면은 보기만 해도 행복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느껴진다. 굳이 많은 글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림 속 인물과 주변 배경 등을 느끼고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고 소중한 그림책이다.



## 대추 한 알이 익기까지

— 김보라(화성시 병점도서관)

대추 한 알 | 장석주 글 | 유리 그림 | 이야기꽃 | 2015 #그림책 #유아이상

오래된 집 마당 귀퉁이에 대추나무 한 그루가 있는 듯 없는 듯 서 있다  
가 여름이 되면 슬슬 푸르러지며 존재감을 드러낸다. 아이들이 하릴없이  
마당에서 시시한 장난을 치며 뛰어다니다가 익지도 않은 푸른 열매를 따먹  
느라 정신이 없다. 아래쪽 손이 닿는 부분 대추들은 남아나지 않는다. 그  
런 일들이 몇 해간 반복된다.

내가 꼬마였던 시절의 일이다. 그 때의 집도, 마당도, 작은 키로 양껏 대  
추 서리를 못한 그 꼬마도 이제 없지만 아삭하고 들큰한 대추의 맛만은  
생생하다. 온통 초록인 열매가 있었는가하면 점점이 갈색으로 물들어가는  
대추도 있었고, 짙은 갈색으로 변해 꽤 달았던 것도 있었다.

시인 장석주는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썼다. 짧은 시지만, 꽤나 많은  
이야기가 담긴 시다. 시의 구절이 어떤 대형 서점의 입간판에 쓰인 적이 있  
어서 더욱 잘 알려진 시이기도 하다. 그 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  
려 여러 번 회자되었다. 그 시가 그림책으로 발간되어 색다른 감동을 주고  
있다.

한 알의 대추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진지하게 그리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다소 무거운 주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곡식이 익는다는 당연한 사실에 ‘어떻게?’ 혹은 ‘왜’라는 물음을 가져보는 것은 자연에 이해를 넓혀주는 자연스러운 호기심의 발로이다. 이런 책이라면 아이들도 쉽게 접근하기에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책 속 시어들은 유리 작가의 세밀하고 빛나는 그림들과 어울려 더욱 맵시가 살아난다. 탁 트인 벌판을 배경으로 천천히 대추가 익어가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들이 대추 한 알이 성숙해지기까지의 온 과정을 풍요롭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지면의 여백과 사계절을 그린 배경은 글로 쓰이지 않은 부분을 설명해준다. 한중간을 가득 차지하고 익어가는 대추 알맹이는 마음을 더없이 싱그럽게 만들기도 한다.

도심 속에서 자란 요즘 아이들에게 조금 낯선 풍경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엄마가 어릴 때는……’ 혹은 ‘대추가 저절로 저렇게 되었을까?’ 정도의 질문들과 함께 읽으며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기에 좋은 책이다. 생각 없이 대추를 따먹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대추 한 알의 비밀을 하나 둘씩 알아가고 있는 어른에게도 사색의 시간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 느림보 아니야, 차근차근 천천히 할 뿐이야

— 홍미정(화성시 병점도서관)

천천히 도마뱀 | 윤여림 글 | 홍정선 그림 | 웅진주니어 | 2015 #그림책 #유아이상

첫 장을 넘기면, 초록색 도마뱀 한 마리가 등장하여 이렇게 말한다.

“친구들은 나를 느림보라 부르지만 나는 느림보가 아냐. 무엇이든 차근차근 천천히 할 뿐이야.”

아하! 바로 ‘천천히 도마뱀’이로군! 자신의 느림을, ‘빠르다’의 반대 ‘느리다’와 ‘굵뜨다’가 아닌, ‘차근차근’이라 해석하는 여유와 당당함이 멋있다. ‘천천히 도마뱀’이 궁금해졌다.

‘천천히 도마뱀’은 색종이를 천천히 접고, 퍼즐도 천천히 맞추고, 책도 천천히 읽는다. 피아노도 천천히 치고, 밥도 천천히 먹고, 산책도 천천히 한다. 늘 친구들보다 뒤처지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반면 천천히 도마뱀의 친구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한다. 남들보다 빨리 했음에 우쭐해하고, 급히 서두르다 일을 그르쳤을 때 짜증내는 모습들은 외양적 성공에 목매어 바쁘게 살아가는 어른들의 모습을 얼핏 닮아있다.

이 책은 결코 빠름을 폄하하는 책이 아니다. 그렇다고 느림을 무조건 찬양하는 책도 아니다. 남들과의 경쟁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사는 바쁜 현대

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에 가만히 귀기울여보라 속삭인다. 일 때문에 조급하고 짜증이 났을 때, 우연히 만난 도마뱀과 같이 해바라기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작가는, ‘천천히 도마뱀’을 탄생시켜 우리들에게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의 말을 건넨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도마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즐거움과 행복감에 환한 미소 머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봄이 천천히 와도 괜찮아.  
그래도 봄은 꼭 오니까.”

본문 말미에 제시된 이 독백은, 거센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단단한 나무를 연상시킨다. 목표만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세태를 경계하고 있는 듯도 하다. 부디 이 세대가 목적을 간과하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단단한 세대이기를 희망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로! 나만의 숨고르기를 시작해보자.



## 고마워, 미안해

— 이수경(평택시립장당도서관)

사자가 작아졌어! | 윤여림 글 | 흥정선 그림 | 웅진주니어 | 2015  
#그림책 #영유아이상

진은영 시인은 '우리가 타인에게 마음을 쓰고 자기의 마음을 건네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일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진정한 정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에서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민주주의적인 삶의 태도는 '공감'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내가 너는 아니나 내 고통과 너의 고통이 다르지 않음을 안다는 것이지요.

초원의 왕 사자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사자에게 쫓기는 가젤의 심정을. 사자에게 엄마를 뺏긴 가젤의 슬픔을. 아주 아주 아주 작아지기 전까지는요. 사자가 아주 아주 작아지자 '나무도, 풀숲도, 들쥐도 개울도 너무 너무 너무' 커져버립니다. 꼬맹이 사자가 개울물에 빠져 허우적대자 가젤이 구해줍니다. 꼬맹이 사자가 큰 사자였을 때 가젤의 엄마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으로 우는 가젤에게 너무나 미안한 사자. 미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다보면 누군가에게 사과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사과 한마디면 될 일이 점점 커져버리죠.

“고마워”, “미안해”.

세 음절 단어지만 “미안해”는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뉘, 내가 그렇게 잘못하진 않았어’, ‘난 원래 그래’ 또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기 싫어. 내가 진 것 같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고 있는 가젤에게 꼬맹이 사자는 이것저것 제안합니다. “꽃을 줄까? 노래를 불러줄까? 아프리카에서 가장 멋진 가젤로 만들어줄까?” 그 어떤 방법도 가젤의 슬픈 마음을 달래 주지 못합니다. 꼬맹이 사자는 마침내 말합니다. “○○○.” 이윽고 가젤은 슬픈 마음을 달래며 집으로 향하고 사자도 ‘느릿느릿’ 집으로 향합니다.

『사자가 작아졌어!』는 예쁘고 귀여운 그림책입니다. 알록달록 예쁜 그림 속에 삶과 죽음, 슬픔과 고통, 갈등과 성장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경쾌하게 진행되지만 주제를 허투루 다루지 않습니다. 들춰보다 작아졌던 사자는 진정으로 가젤에게 사과한 후 점점 커져갑니다. 진정 큰 사람은 진심어린 사과를 할 줄 아는 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부터 초등 전학년까지 갈등과 화해를 함께 생각해보는 자료로 활용하기 좋은 그림책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며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이들을 자주 봅니다. 드물게 사과하는 이들을 바보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진정 어른이 된다는 것은 ‘타인에게 마음을 쓰고 자기의 마음을 건네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이들을 가려 판단하는 혜안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어린 사과가 용서보다 먼저입니다.



## 팔랑팔랑 내 마음

— 이수경(평택시립장당도서관)

내 마음 | 천유주 글그림 | 창비 | 2015

팔랑팔랑 | 천유주 글그림 | 이야기꽃 | 2015 #그림책 #영유아이상

천유주의 그림책 두 권을 소개합니다. 『내 마음』, 『팔랑팔랑』입니다. 천유주의 그림은 봄날입니다. 그림책의 크기는 22X26cm, 작지 않은 그림책임에도 작고 섬세하게 느껴집니다. 나무 한 그루, 화단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운 그림 때문일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배경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놓인 화단이고 『팔랑팔랑』은 분홍빛 큰 벚나무 아래 벤치입니다. 두 책 모두 글은 간결하고 그림은 찬찬히 보아온 무언가를 그린 듯은 편안하고 아름다운 색을 입고 놓여있습니다.

『내 마음』의 더벅머리 아이가 걸어옵니다. 노랑, 주황, 하얀 꽃들이 소담스레 피어있고 초록 나무는 싱싱합니다. 화단은 봄이거나 초여름처럼 보이지만 아이의 옷차림은 가을 느낌입니다. 화사한 꽃들과 달리 아이는 표정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꾸지람을 듣거나 친구와 싸웠을까요? 그저 기분이 좋지 않은 하루일까요? 집으로 가지 않고 화단 중간에 있는 계단에서 도넛을 먹으려는데 비둘기들이 달려듭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화단 여기저기 동물들이 고개를 내밉니다. 아이는 비둘기와 한바탕 하느라 화단에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

다. 자전거를 타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새침한 짝꿍, 강아지를 찾는 아이도 혼자 있는 아이에게 말 걸지 않습니다. 아이는 바람 부는 계단에 고즈넉이 앉아있다 멍게구름 떠다니는 말간 하늘을 바라봅니다. 혼자 있기 싫어 여기 저기 말 걸던 아이는 고개 들어 하늘과 바람을 느껴봅니다.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아이의 입매에 슬쩍 웃음이 걸려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화단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걸까요? 썩 좋은 하루는 아니었지만 또 그렇게 나쁜 하루는 아니구나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내 마음』, 이제 둘이 있어 좋은 『팔랑팔랑』을 만납니다. 『팔랑팔랑』은 벚나무의 분홍꽃잎이 마음에 남습니다. 혼자 소풍 나온 나비와 책 읽으러 나온 아지는 벤치에 푹 떨어져 앉아 각자 할 일을 합니다. 꽃 잎 한 장이 스르르 떨어지며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나비와 아지 사이에 놓인 꽃잎은 어떻게 될까요?

큰 사건도 없고 서너 명의 등장인물이 나올 뿐이지만 천유주의 그림책을 보고 있으면 봄별을 쬐는 느낌입니다. 차디찬 겨울이 지나고 맞는 봄의 생기에 잠시 마음을 뺏기듯 그림 속 꽃과 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날 『팔랑팔랑』, 『내 마음』을 보고 있으면 ‘혼자여도 괜찮아’, ‘어, 뭐 혼자도 아니야, 꽃과 나무, 바람과 푸른 하늘이 이렇게 내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결한 글밥이 그림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림을 세심히 봐야하니 5~6세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 해적, 달나라에 가다

— 이수경(평택시립장당도서관)

해적: 바다에 살던 한 해적의 이야기 | 다시마 세이조 글그림 | 박종진 옮김 | 한림출판사 | 2015  
#그림책 #초등저학년

거친 바다에서 홀로 상어와 싸우고 문어와 친구 하고 낮잠도 마음대로 자는 해적. 다시마 세이조가 그려 낸 해적은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자유로움 자체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파도와 놀 때는 아이 같지만 성한 한 쪽 다리를 탐내는 상어를 한 눈으로 제압하는 해적은 용감합니다. 해적이 먹고 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섬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과 용감하게 싸워 잡아먹기도 합니다. 제 몫의 일을 톡톡히 하는 해적입니다. 어느 밤 해적은 뱃머리에서 울고 있는 인어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인어를 찾아다니며 해적은 바다 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바다가 병들어가고 있고 인어 또한 아프다는 것을. 사랑하면 알게 되는 걸까요? 바다 위에서 자유로이 살던 해적이 바닷속을 들여다보자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바닷속은 병들고 여울은 메워져 인어가 살 곳이 사라집니다. 해적은 바다를 살리고 인어를 살리기 위해 용감히 맞서지만 이내 쫓기게 됩니다. 섬사람들이 해적을 숨겨주어 드디어 바다 밑에 쓰러진 인어를 발견한 해적은 달을 향해 소리칩니다. 그리고 '해적선은 조용히 날아'갑니다. 까만 밤하늘을 밝히는 달나라로.

다시마 세이조는 해적과 인어의 예쁘고 슬픈 사랑 이야기 속에 개발로 병든 바다 이야기를 펼쳐놓았습니다. 병들어버린 바다에서 인어도 병들어

잡니다. 해초 샐러드를 나누며 사랑을 키운 해적과 인어는 사랑싸움을 해 보기도 전에 병든 바다에서 죽어갑니다. 해적과 인어만의 슬픈 사랑 이야 기일까요? 자연이 병들어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개발로, 쓰레기로 병들어가는 바다를, 자연을, 지구를 생각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 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떤 이들은 인류가 늘 해결책을 찾아왔기에 발 달된 기술력으로 오염된 지구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급속도로 생태계 동식물들이 멸종되는 지금, ‘스톱(stop)’을 눌러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 각 나라들이 개발 이윤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살뜰 히 모아야겠지요. ‘나 하나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의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부터 시작해야겠지요.

다시마 세이조가 이야기를 건네는 방식이 참 좋습니다. 바다를 살리자 소리치지 않아도 바다에 독을 푸는 큰 배와 맞서 싸우는 해적을 응원하고 인어의 죽음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럼에도 책은 신나는 해적 영화 한 편 보는 듯합니다. 해적은 참 유쾌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바다가 건강해져 서 달나라로 날아간 해적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 일상이 마법이 되는 순간

— 이수경(평택시립장당도서관)

위를 봐요! | 진호 글그림 | 은나팔(현암사) | 2014

#그림책 #영유아이상

수지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습니다. 휠체어 탄 모습이 싫어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저 창가에 앉아 내려다봅니다. 오가는 아이들과 강아지, 어른들의 머리꼭지가 ‘개미 같아’ 보입니다. 수지는 누구라도 자기를 봐 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위를 봅니다. 수지가 잘 볼 수 있도록 길바닥에 눕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수지가 볼 수 있도록 ‘모두 위를 봐요!’. 늘 아래를 내려다보는 수지도 다른 사람들처럼 위를 봅니다. 오랜만에 위를 보는 수지는 활짝 웃습니다.

어른들이 아이와 이야기할 때 시선을 맞추려 합니다.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도 시선이 달라 아이들은 어른들과 사뭇 다른 세상에 있는 듯 느껴 집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그것 외의 다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지도 그렇지요. 휠체어를 탄다고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도로 사정을 보면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다니기는 힘든 구조이긴 합니다. 수지는 다리를 잃은 충격과 휠체어를 탄 자신의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습니다. 한 아이가 수지에게 내려오라고 할 때 수지는 내려갈 수 없다고 합니다. 수지가 잘 볼 수 있도록 아이가 길에 눕는 순간, 수지는 자기를 옥죄고 있던 마음의 틀을

깨고 나와 남들처럼 위를 올려다봅니다. 수지는 휠체어를 옆에 놔두고 그 아이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봄이 올 것 같지 않더니 나무는 꽃을 피우고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는 분홍 꽃잎이 흩날립니다.

정진호의 그림이 남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시선의 높이 때문입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는 그림들을 바라보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조금 남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늘 보던 나무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니 나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블록을 깔 길바닥은 담벼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림책을 펼쳤을 때 나무가 늘어서 있는 풍경이 늘 보던 관점이 아니어서 이게 뭘까 한참 생각했습니다. 수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낮은 것들이 새로운 보입니다. 『위를 봐요!』는 2015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입니다. 흑백의 담백한 그림으로 관점을 달리했을 뿐이지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림책의 예술성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

— 이수경(평택시립장당도서관)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 | 다비드 칼리 글 | 세르주 블로크 그림 | 정혜경 옮김 | 문  
학동네 | 2015 #그림책 #초등전학년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은 27X34cm 시원한 크기의 책이다. 표지에 동그란 얼굴에 빨간 반창고, 팔깍스를 한 녀석이 헤벌쭙 웃고 있습니다. 화살표로 뒤표지를 보라고 안내까지 해 놓았습니다. 녀석의 뒷모습은 이 책과 싸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들춰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장면부터 남아아이들이 득시글한 초등학교 교실의 난장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노는 건지 싸우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이 장면. 이제 시작입니다.

도대체 싸움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걸까?(인류 탄생과 함께 태어난 싸움, 여전한 사소함)

싸움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싸움의 효능에 대한 상세설명이 글과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싸움은 어떻게 시작되는가?(길거리의 혼한 눈싸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절묘한 설명입니다)

싸움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말로 싸움의 종류를 가릅니다. 정의롭지 못한 싸움, 공정하지 않은 싸움,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진정한 싸

움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른의 입장에서 씩씩한 웃음이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난 끝에 싸움난다고 아이들을 타이르는 어른들이 아이들 운동 경기에서 숨넘어가는 경쟁심을 보입니다. 싸움의 원인을 짚어보기도 하고 여자아이들도 싸움을 하는지 궁금해 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한지 언제 끝나는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던지는 답 없는 질문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싸움이 끝난 뒤, 뭘 얻나요?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비드 칼리와 세르주 블로크가 함께 만든 『위대한 책』은 투닥대는 아이들의 싸움을 통해 무엇이 정의이고 공정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보아야 합니다. 어른들의 뒤를 쫓으며 크는 아이들은 어른들이 제대로 싸울 줄 안다면(싸움의 유형 중에서 정의롭지 않는 싸움과 공정하지 않는 싸움을 하지 않아야겠죠) 아이들도 선을 넘을 이유가 없겠지요.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 구르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크는 모습을 여유롭게 볼 필요를 느끼는 책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 있다면 잠시 험뜩이는 숨을 고를 때 읽어주기 딱 좋은 책입니다. 그 녀석들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고 더 넣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싸움에 관한 더 위대한 책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기왕에 아이들과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다시마 세이조의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와 하마다 게이코의 『평화란 어떤 걸까?』를 권합니다. 전쟁터의 참상을 그림 책을 통해서나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란 어떤 모습일까요?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다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이며 '너와 네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 대한 가장 위대한 책은 평화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 세상의 모든 미영이들에게

— 이수경(평택시립장당도서관)

미영이 | 전미화 글그림 | 문학과지성사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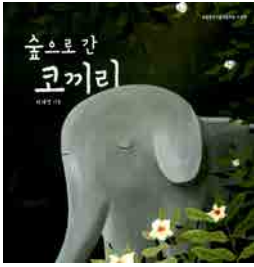
#그림책 #초등저학년 #상실

무표정한 미영이는 뒤표지에서 볼을 살짝 붉히며 웃고 있습니다. 미영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책을 펼쳐봅니다.

화장실에 간다던 엄마는 생일에도 오지 않고 미영이는 식구가 많은 집에 살러갑니다. 일도 많고 글자를 틀리게 쓰는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엄마랑 있을 때와 달리 미영이의 미간은 늘 주름져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아프지만 아무도 오지 않고 이마도 짙어주지 않습니다. 주인 없는 강아지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오자 미영이가 밥 주고 똥도 치우고 산책도 시킵니다. ‘강아지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온 날 입은 옷이 작아진 어느 날 엄마가 읊니다. 엄마 손에도 미영이처럼 설거지 냄새가 납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미영이의 말에 엄마는 읊니다. 미영이가 돌봐준 강아지가 쫓아왔습니다. 미영이 혼자 버스를 기다리던 그 버스 정류장 의자에 두 사람과 개 한 마리가 정답게 버스를 기다립니다. 미영이와 엄마는 여전히 살림살이가 어렵겠지요. 그래도 미영이의 주름졌던 미간은 펴질 거라 생각합니다. 미영이는 강아지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여백이 많은 화면에 먹선 같은 느낌의 그림과 간결한 대화가 도드라집니다. 텅 빈 듯 느껴지는 화면이 미영이가 느꼈을 외로움, 슬픔, 두려움, 불안, 상실감과 소외감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림으로 더 말해주지 않아도 미영이가 얼마나 아플지 짐작하게 합니다.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미영이는 집안일을 하고 오해를 감내하고 주인 없는 강아지를 돌보며 한 사람 몫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지은이의 『씩씩해요』의 주인공처럼 삶이 준 큰 상실과 고통을 매일 매일 성실함으로 메우고, 곁에 있는 엄마와 함께 극복해나갈 것입니다. 미영이는 사랑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자신처럼 엄마가 없어 찾는 이도 없는 강아지를 ‘예쁘지 않다’고 하면서도 살뜰히 보살핍니다. 미영이는 강아지를 보살피듯 자신을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합니다. 슬프고 외로웠던 미영이, 어른이 된 미영이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지?

— 이수경(평택시립장당도서관)

숲으로 간 코끼리 | 이재경 글 그림 | 보림 | 2007  
그림책 #영유아이상

아빠는 "이 세상에서 과연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라고 했다.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지? 하긴 뭘 해? 그냥 걸어 다니고, 놀고, 공부하고, 웃고 그러면 되지. 진짜 문제는 이 세상에서 뭘 할지가 아니라,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다. 예를 들어 상아 때문에 코끼리를 죽이는 짓은 하면 안 된다……. 이 세상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정말 많다.

- 『엄청나게 시끄러운 폴레케 이야기2』

상아를 얻기 위해 또는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 서커스단이나 동물원에 갇힌 코끼리들. 재미나 과시를 위해 이용되는 생명이 많습니다. 동물들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각성 없이 당연하다고만 여기다가 그림책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글 밥이 제법 있지만 그림도 글도 편안해서 5세부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다보면 '생명'있는 존재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 마음이 스스로 생깁니다.



생명존중과 더불어 일상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는 어른들은 코끼리의 고단한 삶에 감정이입을 할 것도 같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가볼 수 없는 길, 스스로 묶여 묶인 줄도 모르는 삶, 헤어 나올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삶을 산 코끼리. 어떻게 보면 한 치의 여유도 없이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현대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코끼리’가 어떻게 서커스단으로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부터 이곳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할’ 것이고 코끼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오고 싶어 온 것은 아니지만 왔으니 생의 순간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가끔은 원하지 않던 삶이었을 수도 있고, 꿈에 그리던 삶이지만 현실의 팍팍함에 잊고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서커스단에서 동물원으로 팔려갈 처지에 놓인 코끼리는 요정을 따라 숲으로 갑니다. 그 곳에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 진흙목욕을 합니다. 요정과 숨바꼭질도 하고 달빛내리는 나무 아래에서 편안한 잠에 빠져듭니다. 코끼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책을 읽는 동안 우리도 생각합니다.

책을 덮으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지?’ 코끼리와 함께 생각해봅니다. 나에게도 숲으로 인도해주는 요정이 나타나길 바라면 안 될까요?



## 작은 배추의 성장 이야기

— 이민지(의왕시글로벌도서관)

작은 배추 | 구도 나오키 글 | 호테하마 다카시 그림 | 이기웅 옮김 | 길벗어린이  
| 2015 #그림책 #유아

감나무 밑에 지푸라기 머리끈을 동여맨 배추가 눈에 띈다. 한 장을 넘기면 작은 새싹이 빼꼼 얼굴을 내민다. '작은 배추'라는 도서 제목과 표지만 보아도 배추가 자라나는 성장과정을 다룬 그림책임을 알 수 있다.

집에서 작은 화분들을 기른다. 씨앗이 자라 작은 새싹이 나오고 그 새싹이 자라 꽃이 되기까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서투른 나의 보살핌아래 꽃을 틔워준 화분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아마 혼자서 척박한 베란다 속에서 열심히 싹을 틔우려 노력했을 것이다. 이 작은 배추 또한 그러했지? 궁금해진다.

언덕 위에 오도카니 선 감나무는 웬만한 채소는 모르는 게 없다. 어느 날 감나무 밑에 배추 씨앗이 날아와 새싹을 틔운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작은 새싹은 감나무 밑에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조금씩 자란다. 작은 배추는 어느덧 동그랗게 알이 찬다. 그러나 밭에서 자란 배추들은 영차 하고 들어야 할 만큼 무거워 보인다. 수확기가 되자 다른 배추들은 다 트럭에 실려 채소가게로 가지만 작은 배추는 넓디넓은 언덕 밭에 혼자 남는다. 시무룩해진 작은 배추에게 감나무는 봄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봄이 되면 해님이 네 곁에 바짝 다가와. 그러면 포개 있던 속잎이 활짝 펼쳐지며 쑹쑹 크지.”

“쑹쑹 큰다고? 나도?”

“그럼! 꼭대기에 노란 꽃도 가득 피지. 햇살 닮은 나비가 왁자지껄 모여 든단다. 얼마나 즐거운지 아니?”(본문 24쪽)

감나무는 작은 배추에게 다른 삶도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채소가게에 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 또한 그렇다. 각자의 삶 하나하나가 즐겁고 소중한 일인 것이다.

추운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되자, 작은 배추 머리위로 쑹 뻗어 나온 줄기 끝에 샛노란 꽃이 왕관처럼 피어나고 하얀 나비들이 날아든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노란 꽃잎과 팔랑팔랑 나는 하얀 나비의 색깔이 어우러진 그림은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든다.

더 이상 작은 배추는 작은 배추가 아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디지만 잘 자라준 배추가 기특하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에게 작은 배추의 성장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어떨까?



## 좀 더 크면 채소가게로 갈 수 있을까요?

— 박지원(안성시립 공도도서관)

작은 배추 | 구도 나오코 글 | 호테하마 다카시 그림 | 이기웅 옮김 | 길벗어린이  
| 2015 #그림동화 #초등전학년

작은 배추. 말 그대로 다 크지 않아 어리고 작은 배추. 그런 어린 배추는 작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지도, 채소 가게로 가지고 가 팔지도 않는다. 작기 때문에 이 곳에 쓰지도, 저 곳에 쓰지도 못한다. 그런 어린 배추는 다들 볼품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선뜻 가져가지 않으려고 한다. 옆에는 작지 않고 건강해 보이는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작은 배추를 고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럼 그 작고 어린 배추는 자신이 나고 자란 텃밭에서 썩어가야 하는 걸까

‘작은 배추’라는 이름을 가진 이 책은 작은 배추와 그 배추가 자라나는 밭 옆에서 오랜 세월 지내온 감나무에 관한 이야기이다. 언덕 위 배추 밭에서 배추가 되기 전 떡잎 때부터 자신의 존재를 궁금해 하다 감나무에게 자신이 배추라는 이름의 채소라는 것을 듣는다. 그 이후 감나무에게 이것저것 배우며 자라던 배추는 찬바람이 불어올 초겨울 무렵, 다 큰 배추들과 함께 채소가게로 가고 싶었지만 작은 꼬마 배추였기 때문에 태워주지 않는다.

그리고 땅이 단단해질 만큼 추운 겨울 무렵 작은 배추는 다시 트럭에 올라타 다른 배추들과 떠나길 바라지만 자신은 작은 배추였기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한다. 결국 밭에 혼자 남겨진 배추는 외로워하다가 감나무의 위로를 받고 해가 쨍쨍 내리쬐고 나비가 날아다니며 꽃이 핀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결국 봄이 오고, 작은 배추는 더 이상 배추가 아니다. 작기 때문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했던 작은 배추가 나비가 물려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되었다.

작은 배추 곁에는 감나무가 있었다. 오랜 시간 좌절했던 작은 배추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어 채소가게보다 봄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해준다. 작은 배추를 잘 보듬어주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작은 배추가 조금 더 크면 자신도 채소 가게에 갈 수 있겠지 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귀여운 것 같아 웃음이 나오는 책이다. 배추 그림에 표정 한번 그려 있었던 적은 없지만 작은 배추의 감정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



## 순리 대로 생긴 대로

— 유향숙(성남시판교도서관)

난 수탉이 필요 없어 | 스벤 누르드크비스트 글그림 | 풀빛 | 2015  
#그림책 #유아~초등중학년

페테르손 할아버지 농장은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웠다. 암탉이 열 마리가 있고, 핀두스라는 개구쟁이이며, 장난도 귀여운 고양이가 있고, 무엇보다도 페테르손 농장주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이야기는 페테르손 할아버지가 수탉 카루소를 데려오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그간 암탉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던 고양이 핀두스는 수탉 카루소가 등장함에 따라 한순간에 관심 밖의 대상이 되었다. 더군다나 수탉 카루소는 힘차고 우렁차다 못해 시끄럽기까지 한 울음소리에 고양이 핀두스는 질투를 넘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설상가상 암탉들도 놀아주지 않고 고양이가 핀두스를 외면하자, 농장의 귀염둥이였던 핀두스는 외톨이가 되어 시무룩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때쯤 암탉들과 수탉 카루소가 닭장에 들어가 취침을 준비하게 되어 평화로운 저녁을 보낼 쯤에 고양이 핀두스는 페테르손 할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한다. 수탉 카루소의 울음은 시도 때도 없을 뿐더러 너무나도 시끄럽다고.

페테르손 할아버지는 다음날 수탉 카루소를 불러 듣기 좋게 타이른다. 이 부분에서 페테르손 할아버지는 참 공정하면서도 자상하며 멋지게 타이

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작가의 인격도 이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넌 훌륭한 수탉이고 굉장히 멋지게 울 수 있지. 문제는 다만, …… 솔직히 말해 너무 자주 운다는 거야……. 진짜 위대한 수탉이라면 이따금만 조금씩 우는 법이란다. …… 너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널 구스타프손에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을 게다.”

할아버지의 대화법을 배워보고 싶어질 만큼 훌륭한 설득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길 수도 있다는 마지막 카드를 던지면서 부드러운 면에서도 간곡하고 단호한 협상력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암튼 수탉 카루소는 이제 목청껏 울 수 없었다. 점점 위축되고 점점 움츠러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탉은 닭장을 탈출하여 자신의 울음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가 버린다. 페르테손 할아버지는 수탉을 한 시간 내내 찾아보지만 수탉은 보이지 않았다. 카루소가 떠나게 된 것이 핀두스의 지나친 간섭 때문이었다는 것을 핀두스가 고백한다. 핀두스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할아버지는 “부디 부끄러운지 알아라”라는 가벼운 핀잔으로 마무리한다. 농장에는 새로운 바람이 또 불 것이다. 새로 태어날 병아리들을 맞이하기 위해 페르테손 할아버지는 고양이 핀두스에게 병아리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

동물들의 개성이 녹아있으면서도 특별히 악의를 갖고 있지 않는 스토리로 어린이들이 읽기에 따뜻하고 감동적인 책이다.



##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 유향숙(성남시판교도서관)

엄마는 누구를 더 사랑해? | 조미영 글 | 조현숙 그림 | 주니어김영사 | 2015

#그림책 #4세 이상

예술이는 엄마랑 아주 많이 놀고 싶습니다. 오빠가 아직 학교에서 오지 않았기에 엄마와 숨바꼭질을 하고 놀 수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싶은 예술이는 오빠와 엄마의 사랑을 나눠가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오빠가 나타나자 엄마는 예술이랑 숨바꼭질을 하던 것도 잊었는지 오빠를 살뜰하게 챙겨줍니다. 엄마는 예술이를 잊었나 봐요. 예술이는 속상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사랑을 갈구하지요.

“엄마는 나를 하늘만큼 사랑해주요~, 오빠는 땅만큼 사랑해 주시구요!”

사랑을 독차지하고픈 4살 어린이의 간절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이제 예술이는 오빠가 경쟁상대입니다. 하늘이 넓은지, 땅이 넓은지 궁금해졌어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엄마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알아봐야 하나 까요! 토끼에게 물어보니 땅이 더 넓다고 합니다. 땅이 넓으니 하늘에 사는 새들도 땅에 놀러오잖아요. 돼지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땅이 더 넓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요. 예술이는 이제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엄마는 오빠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올빼미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예술이는 올빼미 할머니에게도 물어봤어요.

“엄마가 저보다 오빠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오빠는 땅만큼 사랑하



고 저는 하늘만큼 사랑하는데 모두들 땅이 더 넓고 좋다고 합니다.”

예술이가 훌쩍이며 말했을 때, 올빼미 할머니는 하늘을 날면서 말합니다.

“그래?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늘을 한번 볼래?”

예술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고 그것들이 땅을 덮어주었어요.

“또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비가 오고나면 무지개도 뜬단다.”

예술이가 모르던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또 하늘은 얼마나 높은지 올라가도 끝이 없다는 올빼미 할머니 말을 듣고 엄마에게 하늘만큼 사랑해 달라고 한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랑을 듬뿍 많이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인가 봐요. 오빠와 나눠 갖는 사랑으로도 부족하다고 샘을 내고 누가 더 큰가를 재 봐야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엄마들은 하늘도 사랑하고 땅도 사랑합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예술이를 하늘만큼 많이 사랑해”

이 책을 쓴 조미영 작가는 이화여대 영문학과와 국제대학원 프랑스 인시아드 MBA과정을 마치고 로이터 통신 기자로 일하셨습니다. 한국인 기자 최초로 회사에서 주는 ‘올해의 특종상’을 받기도 했으며 책의 수익금 일부는 조손가정과 미혼모 가정을 돕는 착한 마음을 갖춘 분입니다.

그림을 그린 조현숙 작가는 단국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어린이 그림책 『회사괴물』, 『방귀쟁이랑은 결혼 안 해』, 『아빠의 일기장』 등을 그렸어요. 아이 심리를 묘사할 때에는 아이의 얼굴을 크게 그려 아이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하였습니다. 그림이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단순, 선명하여 아이들이 빠져들기 좋은 그림입니다.



## 낡고 불품없는 물건의 재발견

— 이가영(평택시립안중도서관)

할아버지의 코트 | 짐 아일스워스 글 | 바버라 매클린톡 그림 | 이마주 | 2015  
#그림책 #초등저학년이상 #형제 #우애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비교적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연필, 지우개, 공책과 같은 학용품은 발에 치일 정도로 넘쳐나며, 옷이나 신발도 너무나 저렴해서 철철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입는다. 물건이 이렇게 흔해지고 귀중한 줄 모르게 되면서 우리들의 생활 또한 해피졌다. 이번에 소개할 『할아버지의 코트』라는 책은 우리의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기에 참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의 씹씹이가 해피지고,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던 시대만 하더라도 새 연필이 몽당연필이 될 때까지 소중히 여기면서 사용하고, 공책 한 장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도 주인공인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건너올 때 배를 타고 건너온 것으로 보아 시대적 배경이 과거로 꽤나 거슬러 올라가야 할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할아버지의 이런 검소함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짚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할아버지의 코트』에서는 코트의 낡음을 다양한 의태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면서 물건이 어떻게 변해가는 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낡은 코트는 '나달나달' → 낡은 재킷은 '너덜너덜' → 조끼는 '누덕누덕' → 넥타이는

‘낡고 닳은’ 과 같은 용어를 통해 옷이 어떻게 낡아가고 새롭게 재탄생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낡아가는 코트를 재킷으로, 조끼로, 다시 넥타이로, 인형으로 다시 만들어 내는 삶 속에는 가족과의 추억, 사랑이 깃들 어 있다. 낡아가는 물건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면 새로운 가족과의 이야기도 만들어 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이 책의 그림은 글과 함께 책이 우리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게 해 준다. 페이지마다 변해가는 할아버지의 코트가 책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추억과 자녀들의 성장이 시간 흐름에 따라 그려져 있어 책의 내용이 서사 구조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낡은 물건이 부정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이야기 를 풀어나가고 있다. 낡은 옷감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모습, 그것을 자르 고 꿰매서 쓸 만한 물건으로 만들어 내는 할아버지의 입가에는 항상 미소 가 머문다. 우리가 『할아버지의 코트』에서 나오는 할아버지처럼 사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연필 한 자루를 몽당연필이 될 때까지 써본다거 나, 유행이 지난 옷을 리폼해서 새롭게 입어본다면 우리의 입가에도 할아버 지와 같은 미소가 머물 것이다. 낡은 물건을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뿌듯함 과 이것을 고쳤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건을 재활용 해보는 것은 어떨까.



## 내 친구, 꿈!

— 이민혜(양평중앙도서관)

외톨이 꿈 | 이노루 글그림 | 책읽는곰 | 2015

#그림책 #영유아 #물건의소중함

어째서 인형은 귀엽고 사랑스럽게만 생겨야 할까요? 그건 인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해서 만들어 지기 때문일까요? 인형에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어른과 아이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외톨이 꿈 인형은 왜 그렇게 화가 난 상태로 있을까요? 아마 인형을 만드는 사람의 실수로 얼굴모양이 정해지게 된 것 같아요. 진짜 꿈 인형의 마음은 아무도 궁금해 하지도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화나있는 얼굴 그대로 만들어진 꿈 인형은 자신이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있는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게다가 주인아저씨는 꿈 인형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놓습니다. 그러자 인형은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꿈 인형은 점점 더 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꿈 인형의 몸은 계속계속 커집니다. 분노의 상태도 그만큼 커져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듯이 말입니다.

꿈 인형은 왜 그렇게 무섭게 변한 걸까요?

꿈 인형은 길거리를 헤치며 걷다 한 작은 아이를 봅니다. 역시나 겁을 잔

딱 주지만 자신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꿈!’하면서 인형을 따라다닙니다. 그러자 꿈 인형은 어느 순간 아이에게 동화되어 다시 작은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꿈 인형이 왜 화가 난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째서 진짜 화가 나게 된 건지, 어쩔 그렇게 쉽게 착한 얼굴로 돌아온 건지 자세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엄한 곳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는 느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책을 읽는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을 대할 땐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단다, 어딘가에 분명 너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단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들을 어른인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것들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실 처음의 꿈 인형 같은 사람에게는 다가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 사람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고 같이 있으면 힘들고 무서울 것 같아서 무작정 피하고만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꿈 인형은 다행히 꿈 인형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착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찌면 꿈 인형은 자신에게 꼭 맞는 친구를 만나려고 화가 난 얼굴로 태어났을 지도 모릅니다.

‘외톨이 꿈’의 표지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 뒤로 수많은 인형이 있습니다. 게다가 꿈은 어두워 그림자로만 살짝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빛나는 친구들도 좋지만 상처받은 친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진실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비록 편견과 겁이 많은 어른일 지라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 어디로 갔지?

— 이민지(의왕시글로벌도서관)

노란 장화 | 허정윤 글 | 정진호 그림 | 반달 | 2015

#그림책 #유아

기다랗고 노란 책. 먼저 책 모양이 눈에 띈다. 제목처럼 노란 장화처럼 생겼다. 어렸을 때 장화를 신기 위해 비 오는 날만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 주인공 아이 또한 노란 장화를 신기 위해 비 오는 날을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노란 장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

이 책은 노란 장화를 잃어버린 아이가 장화를 찾는 이야기이다. 노란 장화를 잃어버린 순간 아이 눈에는 모든 노란 물건은 다 장화로 보인다.

비 오는 날, 노란 장화를 신고 싶은 아이는 장화를 찾지만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새싹이 난 화분도, 칙칙폭폭 기차도, 뱅글뱅글 달팽이집도, 기다란 나무의자도 남자아이 눈엔 노란 장화로 보인다.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내 노란 장화...”(23쪽)

색연필로 어린 아이가 낙서를 한 듯한 그림과 파란색, 노란색의 표현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나타내는 듯하다. 파란색바다 위에 노란 잠수함, 하얀 하늘 위에 노란갈매기 가방 등 온통 노란 장화 같다. 장화를 잃어버린 아이의 마음과 원색의 색감을 사용한 그림은 무척이나 잘 어울린다.

“잃어버렸어. 내 노란 장화.”(20쪽)

노란 장화를 신고 신나게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무룩한 표정이 귀엽기만 하다.

“으아앙! 누구야, 누구!”

“내 노란 장화 돌려줘!”(25쪽)

어두운 밤, 노란 장화를 찾다 지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까? 다음날 누가 장화를 가져다 놓는다. 장화를 가져다 놓은 건 누구일까 찾아보는 것도 이 책의 매력 중 하나이다. 책 중간중간에 힌트가 깨알같이 나온다. 처음 읽어보았을 때, 두 번째 읽어보았을 때 느낌이 다르다. 4~7세 유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아이와 함께 과연 누가 아이의 노란 장화를 돌려주었는지, 아이는 노란 장화를 신고 빗속에서 놀 수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그림을 그린 정진호 작가는 처음 지은 그림책인 『위를 봐요!』는 2015년 볼로냐어린이도서전에서 라가치상을 받았으며, 『흙과 지렁이』로 인천시립 박물관 창작 동화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부엉이』로 한국 안데르센상 미술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글작가 허정윤은 아동학과 유아교육학을 전공하였으며, 지은 책으로는 『어부바』, 『원숭이학교』, 『투명나무』, 『하얀 소금』,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등이 있다.



## 장화는 비 오는 날 꼭 있어야 해!

— 정은영(경기도사이버도서관)

노란 장화 | 허정윤 글 | 정진호 그림 | 반달 | 2015

#그림책 #유아

비, 장화, 공룡. 무슨 상관관계일까?

노란색이, 셋노란색이 눈에 확 띄고, 좌우로 기다란 장정을 가진 그림책을 만났다. 제목은 『노란 장화』.

책을 펼치면 자기의 노랑고 말랑말랑한 장화를 찾는 아이가 등장한다. 노란 장화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보니 노란 화분도, 노란 기차도, 달팽이집도, 나무 의자까지도 모두 내 장화로 보인다. 집안에서 부터 시작해서 집 앞 화단으로, 공원으로, 바다로 하늘로 장화를 찾아가는 과정도 살펴볼 만 하다. 하늘 다음에는 어디로 찾으러 갔을까? 장화를 신고 있는 다른 아이들은 다 즐거운데 장화가 없는 나는 시무룩하다. 시무룩함은 속상함으로 발전하고, 결국 울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 장화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하루 종일 찾아봤지만 결국에 못 찾았다. 다음날 아침 노란 장화를 찾았다! 하지만 이미 비는 그쳤다.

필요할 때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타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애써 찾지도 않았는데 눈앞에 나타나는 일은 어른이든 아이에게든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인가 보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 때로는 먼지요정 때문이기도 하고, 도깨비의 소행이기도 하다. 가끔은 물건에 발이 달려 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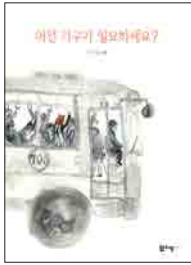


을 가기도 하고, 다른 물건의 공격을 받아 숨어서 일수도 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말하는 어른들도 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이 아무도 모르게 슬쩍 다녀가기도 한다.

이 책 『노란 장화』는 상상력의 집약체이다. 노란 장화로 보이는 갖가지 것들에 대한 재미와 ‘정말 공룡이 노란 장화를 빌려갔다가 가져 왔을까?’라는 상상도 멋지다. 또한 가벼운 듯 간단한 그림체도 매력적이다. 평소에 접하는 것 보다 좀 더 밝은 노란색 일색인 그림이 밝고 경쾌하다. 대비되는 파랑색과의 조화는 시야를 확 띄워 준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닳은 꼴 물건을 찾아보는 활동을 병행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어른이나 아이나 늘 같은 일상에서 같은 생활만 반복되는 일은 그리 유쾌하지 않다. 우리의 아이들은 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많은 아이들이 더 다양한 일상에서, 더 깊은 상상을 하고, 더 넓은 이해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다양하고 깊고 넓은 세상을 이런 책들이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의 그림을 그린 정진호 작가는 『위를 봐요』라는 책으로 2015년 볼로냐어린이도서전에서 라가치상을 받았다. 건축을 전공한 작가는 일반적인 방향과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탈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공간적 시각을 제공한다. 아이들과 만나서는 공감각적인 활동을 하기도 한다. 특히 2016년에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과 함께 주제별독서활동 프로그램 『책수리 마수리』 4탄을 같이 작업하고 있다.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런 삶, 어떠세요?

— 김정옥(평택시 자산초록도서관)

어떤 가구가 필요하세요? | 이수연 글그림 | 리젬 | 2015

#그림책 #유아~초등저학년

느릿느릿 가구를 파는 곰 아저씨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어떤 가구가 필요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구들은 다 다르다. 이 그림책에서 멧돼지 아줌마는 골동품으로 가득찬 방에 새로 산 그릇을 진열할 장식장을 주문한다. 아이와 단 둘이 사는 펭귄 아저씨는 커다란 책상을 주문하고는 하루 종일 소설을 쓰면서 아이와 함께 책 읽는 것도 잊어버린다. 열린 문 너머로 글을 쓰는 펭귄 아저씨와 혼자 저녁을 먹는 아이의 모습이 대비된다. 아코디언을 앉아서 연주할 좋은 소파를 주문했지만 연주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큰 소파에 무기력한 눈빛으로 TV 리모컨을 쥐고 있는 캥거루 아저씨 모습은 참 쓸쓸해 보인다. 온갖 상장과 트로피로 방을 장식하고 몇 십 벌의 양복을 보관할 옷장을 주문한 사자 할아버지가 바라보는 것은 가족사진이다. 끝없이 채우고 채우지만 예전보다 더 쓸쓸해지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듯하다.

어느 날 남들이 필요로 하는 가구를 열심히 팔아 회사에서 우수 사원으로 뽑혀 상을 받게 된 곰 아저씨는 자신이 원하던 순간이 왔는데도 이상

하게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쓸쓸해진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필요한 가구가 무엇인지 되묻는다. 그리고 곰 아저씨는 커다란 식탁을 만들어 그 사람들을 초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멧돼지 아줌마, 펭귄 아저씨와 아이, 캥거루 아저씨, 사자 할아버지는 곰 아저씨가 만든 큰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음식이 가득 담긴 그릇을 들고 온 멧돼지 아줌마의 음식과 캥거루 아저씨의 아코디언 연주, 양복을 입은 사자 아저씨와 다정한 눈빛을 나누는 아이 펭귄, 식탁에 둘러앉은 이들의 표정은 밝고 분위기는 따뜻하다. 자신이 원하는 가구를 가졌을 때도 한없이 우울해 보이던 이들의 얼굴에 비로소 온기가 돈다. 도란도란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이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쓸쓸하게 문을 여는 옆집 아저씨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더 이상 안 가져도 될 만큼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한없이 부족하고 허함을 느끼는 ‘풍요속의 빈곤’이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나를 돌아보고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여유를 가질 때 내가 원하는 행복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삶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저자는 가구로 이야기를 나지막이 건넨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나 가구는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이야기를 많이 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대변하기도 한다.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등장인물들을 동물들로 형상화한 그림과 간결한 글로 더불어 사는 삶.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 유아, 어린이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림책이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읽으면서 그림도 자세히 보고 이야기도 풀어나 가면 좋은 책이다.

이수연 작가는 실내 건축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가구를 파는 영업사원으로 3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 어느 날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영국에서 일러스트 공부를 하고 돌아와 현재까지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이사 가는 날』, 그린 책으로 『바람에 날아간 호랑이』가 있다.



## 내 친구 반려동물

— 유옥환(안양시립석수도서관)

신발 신은 강아지 | 고상미 글그림 | 스킨라 | 2016

#그림책 #초등저학년

연필화의 무채색 표지 그리고 상단의 2015년 미국 어린이도서관협회 선정도서라는 작은 글씨가 오히려 선명히 부각된 도서다. 연필 선의 농도와 명암만으로 세심하게 표현한 그림이 사뭇 인상적이다. 본문 속의 노란색 강아지 신발, 빨간색 목줄, 전체적인 연필화의 흑백 대비가 극명하다. 고상미 작가는 삽화작가면서 그림책 작가다. 그래서인지 그림과 글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일치미를 보여준다. 이 책은 그의 첫 번째 그림책이다. 그런데 첫 작품임에도 큰 찬사를 받았다. 볼로냐 국제도서전에서 해외출판 관계자의 눈에 띄어 미국에서 먼저 출간되었다.

도로 옆 인도 위 한쪽에 무엇에 놀란 양 커다란 동공에 노란색 신발을 신은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보인다. 주인공 미니는 엄마와 함께 외갓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도로 위에서 접촉사고가 날 뻔 한다. 바로 노란색 신발을 신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한 눈을 팔았기 때문이다. 귀엽고 예쁜 강아지를 데려가 키우고 싶은 미니의 마음은 차창 문을 내리고 환호하는 모습에서 역력히 표현되고 있다. 어차피 주인이 없으니 잠깐 데리고 있기로 하고 집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미니의 설레고 기쁜 마음과는 달리 강아지는 가족이 그림다.

가족과 떨어진 강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니는 온통 강아지에 몰입한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나선 공원에서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진 미니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강아지에게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어야겠다고 결심한다. 본래 주인에게 안기는 강아지를 기쁜 마음으로 보내준 미니는 엄마와 함께 유기견센터를 찾아간다.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인다. 비로소 자신만의 강아지를 갖게 된 것이다.

페이지마다 그림은 순간순간을 잘 묘사하고 있고 깊은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읽으면 좋겠다. 작가는 유기동물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에는 책임감이 따른다는 내용을 전하고 싶었나보다.

고상미 작가는 이 책을 조카가 신발 신은 강아지를 구조하고 주인을 찾아 주었던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했다고 한다. 연필화의 세심한 터치로 그려낸 사건의 장면 하나하나가 잘 어우러져 어린이 독자의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글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림만을 보면서 스토리를 이어나가기도 부족함이 없다. 표정이 살아있다. 놀란 표정, 즐거워하는 표정, 으쓱해 하는 표정, 안타까운 표정,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이라든가 애타는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일상이 그림이 되고 일상이 동화가 되며 일상이 그림책이 되는 사이클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가족행태는 외동이 많다. 함께 놀아줄 형제자매가 없다. 그래서인지 반려견을 키우면서 정을 나누며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공원에는 온갖 강아지들이 산책 중이었어요’라고 표현한 공원 그림은 우리가 사는 주변 공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처럼 친숙하기만 하다. 유기견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키는 한편, 반려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내용이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만큼 책임감도 따른다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해보자.



## 난 왜 친구가 없을까?

— 이민혜(양평군 양평중앙도서관)

두더지의 고민 | 김상근 글 그림 | 사계절 | 2015  
#그림책 #전연령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두더지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앗! 차가워!”

두더지는 고민에 쌓여 머리위로 눈이 쌓이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애야, 고민이 있을 때는 눈덩이를 굴러보렴.”

그때 두더지는 할머니가 해준 말씀이 생각이나 열심히 눈덩이를 굴립니다.

“난 왜 친구가 없을까?”

두더지는 생각에 잠겨 눈덩이 안에 토끼가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리 부는 여우,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는 돼지,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곰과 개구리가 차례차례로 눈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더지는 심각하게 고민에 빠지는 바람에 눈덩이가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커졌다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두더지는 계속 생각합니다.

“겨울 내내 친구가 없으면 어찌지?”

“영영 친구가 안 생길지도 몰라.”



“눈덩이를 굴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때 생각에 잠겨있는 두더지는 눈덩이 속 희미한 소리를 듣자 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눈덩이에 갇힌 친구들을 한명씩 발견할수록 두더지에게는 친구가 한명씩 늘어갑니다. 친구들은 서로 밀고 당기면서 힘을 모아 눈덩이가 밖으로 탈출하려 합니다. 드디어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뜬 아침이었습니다. 이미 친구가 된 여섯 동물들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눈덩이를 굴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두더지만이 친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피리연주를 들려줄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우, 함께 저녁을 먹을 친구를 기다리던 멧돼지, 자신을 찾아줄 친구를 기다리던 토끼, 친구삼아 눈사람을 만들고 있던 곰이 있었습니다.

두더지는 눈덩이 안에 친구들이 들어가는 것도 모르는 채 눈덩이를 굴립니다. 아마 깊은 고민에 빠졌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두더지가 눈덩이를 굴리지 않고 그저 걸어만 갔더라면 굳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친구들을 차례 차례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또 다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더지가 너무 자기 고민에만 빠졌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인 정답을 알지 못하진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함께 눈덩이 속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냥 스쳐지나가는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가 위험이 빠졌을 때 도와주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는 눈덩이 밖에서도 친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하얀 설원 위에 눈이 반짝입니다. 주위에는 온통 나무와 눈뿐이고 두더지 외에는 아무도 걸어간 흔적이 없습니다. 두더지의 외로운 감정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이 쓸쓸하지 않습니다. 포근하게 내리는 눈들이 두더지와 친구들의 우정을 더 따뜻하고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두더지의 고민』은 작가의 첫 그림책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체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더 돋보이게 합니다. 겨울철 개구리와 곰이 두더지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른들에게는 아이러니하고 재밌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다음 작품도 벌써 기다려집니다.

친구를 만나기 원하던 두더지는 열심을 다해 눈덩이를 굴렸습니다. 다행히도 두더지의 눈덩이에 들어가게 된 동물들은 다 자신과 함께 해줄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고민거리가 생길 경우 두더지처럼 무언가를 실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운이 좋게 고민이 해결이 되거나 고민을 해결해줄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 “불만을 받아 드립니다”

— 이민혜(양평군 양평중앙도서관)

불만을 모으는 할아버지 | 마라 록클리프 글 | 엘리자 힐러 그림 | 김선희 옮김 | 책과공나무 | 2014 #그림책 #초등이상

“시도 때도 없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맘에 안 듭니다.”

“상대방은 왜 화를 내는 걸까요? 사람이 살다보면 어쩌다 실수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왜 불만을 나불나불 떠들어대는 걸까요? 사람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불만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불만 없이 불평 없이 살 수는 없을까요?

불만을 모으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미니 아주머니네 염소가 꽃을 먹자 엘비라 아주머니는 화가 났고, 버르장머리 없는 실베스터가 가발을 낚아 채자 교장선생님은 속상했습니다. 또한 오토가 춤을 추다 새 구두를 밟아 릴리는 불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곧장 할아버지를 찾아가 자신들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에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찬장이 흔들거렸습니다. 마침내 바람이 점점 찾아들더니, 이윽고 멈

추었습니다. 예상대로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담긴 종이를 들고 할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때 바람에 날려 엉망이 된 종이더미에 갇힌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싸우기 바빴던 상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건넵니다.

보니리플 마을에는 불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지요. 코넬리우스 할아버지만 빼고요.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의 불만을 다 받아 주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짜증이나 불평, 말다툼, 분노,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못된 말, 오해 등을 전부 다 받아 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은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불만을 모으게 된 이유입니다. 게다가 할아버지 스스로의 불만은 없었는지, 그 불만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불만이 적힌 종이를 버리거나 태우지 않았습니다. 집안 구석 구석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사람들의 불만을 대신해서 간직했던 것처럼 한번 내뿜은 불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 책에서도 불만을 없애는 방법이나 화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 같은 것을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거나 불만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보니리플 마을 이야기에 빗대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을 펴서 읽는 순간부터 나에게도 불만을 다 받아주는 할아버지가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하루에도 수십가지의 다양한 불만들이 생깁니다. 사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그 이유도 무궁무진합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 놓을 수 없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할아버지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불만도 두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사람들이 서로 사이 좋게 지내며 불만 없는 관계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에게 사과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부모님에게나 친구들에게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불만을 모으는 할아버지』를 읽은 어린이나 어른은 남보다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 아이의 “잠깐만”에 잠시 멈추기

— 유향숙(성남시관교도서관)

엄마, 잠깐만! | 앙트아네트 포티스 글 | 노경실 옮김 | 한솔수북 | 2015

#그림책 #유아 #부모

이 책을 읽는데 나의 모습이 자꾸 보였다. 이제는 지나온 길이지만……. 직장을 다니는 나로서는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출근이 늦지 않기 위해서는 아침이 무척 긴장되고, 힘든 일이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빨리 빨리, 뛰거나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의 시선으로 주변을 보아주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

첫 장의 그림이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길을 나서는 그림이다. 엄마는 빨리 빨리 앞만 보고 가야하는데 손이 잡힌 아이는 주변이 궁금한 것 투성이다. ‘엄마 잠깐만!’하고 지나가는 강아지에서 손을 내밀어 보고, 공사 중인 아저씨에게 인사도 해야 하며, 오리에게 먹이를 주는 아저씨를 따라서 먹이도 줘야 하고, 길에서 파는 아이스크림도 맛보아야 하는데 엄마는 자꾸 재촉만 한다.

꽃을 찾아온 나비를 보며 ‘엄마 예쁘지?’하고 물어보지만,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엄마 입장에서 아이는 가는 길을 멈추게 하며, 옆길로 새거나, 천천히, 아님 멈추어 서서 관찰하는 아이가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이 엄마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보통의 엄마 어른의 모습일 것이다. 바쁜 도시의 현대인들의 모습…….

이 책은 아이를 위한 책이기보다 바쁘게 사는 어른들의 책인 것 같다. 이 책을 아이에게 읽어주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리 바쁘게 사는 지’ 아이의 시각으로 어른에게 질문과 반성을 하게 하는 거울 같은 책이라고 본다.

마지막 부분에 전철을 타야 하는데 아이는 “정말 잠깐만”을 외치며 엄마에게 멋진 그림을 보여준다. 바로 비가 오고 난 후의 쌍무지개다. 비로소 엄마는 걸음을 멈추고 ‘휴~ 아름답구나’라고 시야를 하늘로 넓힌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호기심을 가질 나이에 아이의 의견을 싹둑 잘라 버리고 어른의 시각으로 아이를 채근하지는 않았나요? 아이가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이해를 넓혀야 하는 시기를 우리 어른들은 아이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는 못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아이와 같은 시각으로 정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아주고, 천천히 봐야 보이는 것들과 자세히 봐야 사랑스러운 것들을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책의 내용이나 구성은 간결하지만 그 속에 아이의 호기심 있는 사물관찰이나 아이가 동물이나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가 정겹고, 바빠도 잠시 멈춰서 기다려줬을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배어있다. 아이의 시각은 다소 엉뚱한 것 같지만, 작은 것의 소중함과 ‘천천히’의 미학을 새겨보라는 연약한 아이의 가르침과 타이름이 있다. 아이에게는 눈높이 책이며, 어른에게는 위로가 되는 책이기에 아이와 함께 꼭 읽어 보기를 권한다.

아트아네스 포티스 작가는 글과 그림을 모두 섭렵하시어 『엄마, 잠깐

만!』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밖에도 『이건 상자가 아니야. 이건 막대기가 아니야』, 『펭귄이야기』, 『안녕? 유치원』 등의 작품을 그리고 썼다. 아직도 캘리포니아에서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번역하여 옮긴 노경실 작가는 중앙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문에 『누나의 까만 십자가』와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오목렌즈』로 당선되어 현재는 한국 작가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먹기 싫은 음식, 재미있게 먹는 법

— 김세롬(평내도서관)

재미있게 먹는 법 | 유진 글그림 | 한림출판사 | 2014

#그림책 #유아

이 책의 저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유진의 경험을 직접 녹여낸 책인 『재미있게 먹는 법』은 아이와의 식사시간이 곤혹스러운 엄마, 아빠가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옛날보다 훨씬 먹을거리들이 다양해지고 하루 세 번 먹는 주식 이외 다양한 간식거리가 넘쳐나면서 식사시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졌다. 굳이 끼니를 제 때 찾아 먹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니와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주식인 ‘쌀’로 지은 밥 대신 빵, 커피, 샐러드 등으로 대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갓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상황이 조금 다를 것이다. 부모인 본인은 끼니를 거르고 제 때 챙겨먹지 않을지언정 아이의 끼니는 제 때 꼭꼭 챙겨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또 끼니 이외에도 과일이며, 비타민, 유기농 과자 등 아이 몸에 좋다는 간식거리는 끊임없이 아이에게 주기 때문에 정작 배고플 새 없는 아이들은 제 때 나오는 삼시세끼를 거부하기 일쑤다. 이 책의 저자도 아이를 키우며 밥을 먹지 않거나 편식을 하는 자녀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하니 책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피식 새어나온다. 브로콜리를 숲으로 묘사한 부분에서는 작가의 상상력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세상의 모든 음식이 아이 입에 맛이 있으면 좋으련만, 아이들은 왜 그렇게 맛이 있고 없는 음식에 대해 신념이 확고한지, 한 번

먹기 싫다는 음식은 엄마가 몰래 밥이나 국, 이런저런 음식에 섞어서 억지로 먹인다 해도(물론 억지로 먹이는 것 역시 아이의 발육을 위해서다) 용케 그걸 알아 채 아이들은 자기 목구멍에 넘어간 음식을 토해내기까지 한다. 이것만 보아도 음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념이 확고할 수가 없다. 혀를 끝 끝 찡 지경이다. 먹는 기쁨에 행복해야할 식사시간이 전쟁터가 따로 없는 가정에서 이 책을 읽는다면 책의 저자와 자신의 모습이 어쩌나 데칼코마니 같은지 깜짝 놀라 실소를 내뿜을 지도 모르겠다.

이 책을 읽으며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에게 던져볼 만한 화두로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밥상머리교육'이다. 인성이란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와 자질의 근본을 뜻하는 말로 뉴스에서 불가치적인 사건 사고가 많이 대두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살인과 폭력으로 얼룩진 뉴스 헤드라인은 사람들을 더 개인화하고, 타인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인성의 중요성을 수시로 교육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문맹률은 여느 나라보다 낮고, 대학진학률도 높지만 인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부터, 평소에 가족들 간에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식사시간만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를 통해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편식하는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편식습관을 고침과 동시에 나아가 가족 간 즐거운 식사시간을 선물함으로써 자녀의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끼 때우기” 위한 식사가 아닌 자녀의 몸과 마음이 자라는 즐겁고 소중한 그런 시간 말이다.



## 우리 할머니는 마귀할멈

— 이단비(평택시 자산초록도서관)

콧물 빠는 할머니 | 박미라 글 | 백서울 그림 | 황세림 옮김 | 나한기획 | 2015  
#그림책 #초등저학년~성인 #할머니

『콧물 빠는 할머니』는 마귀할멈으로부터 동생 지성이를 지켜내기 위한 지민이의 고군분투를 담아낸 그림책이다. 과연 지민이는 동생 지성이를 마귀할멈의 늪에서 구출해 낼 수 있을까? 수록 고령화되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공감과 소통,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작된 해피&힐링 세대공감 실버동화 시리즈 중 한 작품이다. 작가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의 시간을 추억하면서, 자신도 그녀처럼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진짜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자라본 독자라면 이 이야기에 더욱 더 공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독자라 하더라도 마귀할멈으로 표현되는 이 할머니의 구수함에 가슴이 따뜻해질 것이다.

제목과 첫 표지가 독특해서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글주글한 주름이 가득하고 손가락마저 뽀족하다. 표지부터 심상치 않은데 제목마저 콧물 빠는 할머니다. 주인공 지민이에게 할머니는 왜 마귀할멈이 되었을까?

뽀족하고 날카로운 코, 덩성덩성 난 하얀 머리카락, 우중충한 긴 치마로 지민이가 표현한 할머니는 꼭 동화책에서 나온 마귀할멈과도 같다. 지민이네 엄마가 할머니께 동생을 맡기게 되는데, 지민이는 처음 보는 할머니

가 동생을 만지는 것도 싫고 혹여 잡아먹을까봐 두렵다, 그때 지민이는 할머니의 걸출한 입담을 듣게 된다. 지민이는 마치 할머니가 ‘내가 양새끼들을 다 잡아먹었소. 킬킬킬’ 하는 것처럼 무섭다. 순간, 할머니가 콧물을 스럽 들이키며 콧물을 치마에 쓱쓱 닦는데 지민이는 그 모습이 너무 더럽다. 그림에도 지민이의 우중충한 얼굴과 할머니의 무서운 자태가 독특하게 드러나 있다.

지민이의 엄마는 마귀할멈의 마법에 걸려서 우릴 두고 가버렸다. 할머니는 지성이의 똥 귀저기를 갈면서 “황금 똥이구만. 냄새도 우째 이리 구수할꼬?”라 하신다. 지민이의 귀에는 지성이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면 똥냄새까지 구수할지로 들린다. 우리들의 기억 속 할머니도 지민이의 마귀할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할머니들은 손주들의 똥이며 구토라면 그분들의 따뜻한 손으로 다 받아내셨다.

지민이는 할머니가 동생을 괴롭힐까봐 학교를 조퇴한다. 선생님께 처음으로 아프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마귀할멈에게서 동생을 구해내고 싶어한다. 지민이가 동생을 끄적이 아끼는 마음이 잘 엿보이는 대목이다. 학교에서 한달음에 달려오니 할머니가 드르렁 드르렁 자고 있다. 혹시 벌써 지성이를 잡아먹었나 싶어 오븐과 큰 냄비와 전자레인지까지 열어본다. 다행히도 지성이는 잘 자고 있었다. 혹시 할머니가 수면제를 먹었나 싶어 지성이를 흔들어 깨우다가 울렸다. 지성이는 평평 울다가 마귀할멈 품에 안기니 금세 울음을 뚝하고 그쳤다. 지민이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답답하다.

할머니는 조퇴한 지민이가 걱정이 되서 유자차 한 잔을 타 주신다. 지민이는 혹시 그 유자차에 수면제가 들어갔을까 싶어 슬쩍 컵을 떨어트린다. 할머니의 따뜻한 유자차가 몽땅 쏟아져 버렸다. 이렇듯 지민이는 좀처럼 할머니에 대한 오해를 풀지 못하고 이야기는 계속 이어진다.

지민이의 할머니에 대한 재미있는 망상과 독특한 그림체가 어우러져 독자의 흥미를 끌어낸다. 지민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망상이며, 이러한 상상은 어린 동생을 지키고자 하는 지민이의 기특한 책임감에서 나온다. 할머니는 마귀할멈이 아니라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모습이란 것을 지민이를 뺀 등장인물, 저자, 독자 모두가 안다는 설정도 정말 재미있다.

현대사회는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되면서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의 콧물 빠는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그래서인지 성인이 되고나면 문득 어릴 적 할머니의 냄새, 아프면 배를 어루만져주시던 그 약손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다. 『콧물 빠는 할머니』는 어릴 적 우리를 돌봐주셨던 할머니들에 대한 우리들의 그리움과 구수한 감성을 자극하는 그림책이다.



## 외나무다리에서 친구를 만나다

— 이단비(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

흔들흔들 다리에서 | 기무라 유이치 글 | 하타 고시로 그림 | 천개의바람 | 2016  
#그림책 #영유아 #초등저학년

외나무다리에서는 원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도 만날 수 있다.

이 그림책의 작가인 기무라 유이치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다마미술대학을 졸업했다. 그림책 『폭풍우 치는 밤에』로 1995년 산케이아동출판문화상을 수상하고, 『아기놀이책』 시리즈를 출판했다. 작가의 다른 저서로는 『구덩이에서 어떻게 나가지?』와 『폭풍우 치는 밤에』 시리즈인 ‘가부와 메이’ 이야기가 여러 권 발간되었다. 작가는 주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에서 먹이사슬 관계에 있는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삼는다. 『구덩이에서 어떻게 나가지?』에서는 고양이 두 마리와 쥐 세 마리가 구덩이에 갇혀 함께 탈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또 다른 시리즈인 ‘가부와 메이’ 이야기들에선 염소와 늑대를 주인공으로 삼고 그들의 우정을 아름답고 절절하게 그려내 국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 작품 역시 먹고 먹히는 관계인 여우와 토끼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림을 그린 하타 고시로는 동물의 표정을 생동감 있게 참 잘 살린다. 고시로의 다른 그림책 『봐도 돼?』에서도 토끼와 여우가 등장하는데, 이 그림책과는 또 다른 그림체로 그려서 색다르고 귀여운 동물들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이 그림책에서는 동물들의 모양이 반듯하고 감각적으로 그려냈

다. 그림책 중간에 ‘쿵’, ‘끼이이익’, ‘흔들’ 등의 의성어가 그림과 섞여 있어 책이 좀 더 역동적으로 다가온다.

첫 장면부터 여우는 열심히 토끼를 잡아먹으려 뛰고 있다. 하지만 며칠 내내 비가 내려 거센 비바람에 망가져버린 통나무 하나가 그들을 기다린다. 토끼를 잡기 위해 여우가 통나무에 뛰어든 순간 그 둘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여우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다리는 점점 기운다. 여우가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치면 반대로 기울어간다. 여우가 놀라 꼬리가 바짝바짝 서고, 토끼가 무서워서 귀를 내리고 통나무에 몸을 감아놓은 장면을 익살스럽게 그림으로 표현했다.

여우와 토끼가 겁에 질려 해가 저무는 하늘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까마귀 떼가 다가온다. 까마귀 떼가 제멋대로 내려앉는 바람에 통나무 다리가 흔들흔들 흔들리기 시작한다. 까마귀 떼라는 위기가 다가오자 급격하게 친해진 여우와 토끼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위기는 적도 친구로 만들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위기는 밤이 되고 나서다. 밤이 무서운 여우는 겁이 나서 토끼에게 무섭다고 말을 건다. 움직일 수 없는 통나무 다리에서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은 두런두런 이야기뿐이라 그들은 적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끝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갑자기 토끼가 조용해지자 여우는 토끼가 너무 걱정되어서 “목숨을 소중히 여겨!”라며 소리를 지른다.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는 토끼를 잡아먹고 싶어 안달이 난 여우가 통나무 위에서 하는 말이 정말 역설적이고 재미있다. 과연 이들은 끝까지 서로 함께 협력하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삶에도 언제나 친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들이 무조건 나를 사랑할 수도 없다. 오히려 여우와 토끼의 관계처럼 나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영화 <주토피아>나 이 그림책인 <흔들흔들 다리에서>는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들조차도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상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존재할 수 없다. 적이라고 느꼈던 사람들도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마음만 열어 놓는다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 혼자인 그림자는 없어

— 이영(평택시립장당도서관)

외로운 그림자 | 클레이 라이스 글그림 | 이상희 옮김 | 같이보는책 | 2015  
#그림책 #유아이상

“너무 외로워.”

우두커니 서 있던 작은 그림자 하나가 자신의 짝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도 짝이 분명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짝이 누구인지 몰라 이곳저곳을 맴돕니다. 쉬지 않고 걸던 작은 그림자는 문, 의자, 노인 등 새로운 존재들을 만날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문일까? 나는 의자일까?’ 계속해서 고민하던 작은 그림자는 나무에 기대어 몹시 슬퍼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올빼미가 나타나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그림자는 올빼미의 말대로 달리고 또 달려서 운동장에 다다릅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많은 아이들이 자기 그림자와 함께 행복하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에 혼자 앉아있는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작은 아이는 슬퍼보였습니다. 시무룩한 작은 아이에게 작은 그림자가 말합니다.

“함께 놀자.”

과연 이 ‘작은 아이’가 ‘작은 그림자’의 진짜 짝일까요?

『외로운 그림자』는 몇 안 되는 실루엣 아트 작가 ‘클레이 라이스’가 가위와 종이로 섬세하게 만들어낸 그림자 예술작품이자 신비로운 그림책입니다. 눈코입이 보이지 않는 아이의 그림자를 보면서 어린이들은 자기만의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되며 실루엣 아트의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의자, 사슴, 오리, 뱀 등을 흉내 낼 때 독자들은 재미뿐만 아니라 묘한 자유로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림자는 누구든, 뭐든 될 수 있으니까요.

삶 속에서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걸어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마음 속 안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마 어느 새 작은 그림자의 외로움에 공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림자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를 찾아가듯,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내 영혼의 짝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일 테니까요. 작은 그림자는 여행을 떠나기 전 노래를 부릅니다. ‘나에겐 네가 없고 너에겐 내가 없어. 너와 나 우리에게 우리가 없어, 하지만 내가 널 찾을 수 있다면, 네가 날 찾을 수 있다면 우린 늘 행복할거야.’ 이 노래를 모두 이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진짜 짝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이 끝난 후 그림자가 부르는 노래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나에겐 네가 있고 너에겐 내가 있어. 우린 언제나 함께 있을 거야.’ 단순한 이 노래가 읽는 이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누군가는 이미 영혼의 짝을 만났고 누군가는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외로움이란 그 짝을 찾기 위한 과정 속에 피어나는 감정조각 하나일 뿐이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그림자처럼 용기를 내어 보세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다보면 내 손길을 기다리는 작은 아이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책은 외로움과 갈망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책이 다루기엔 다소 무거운 주제일지 모르지만 문빔 어린이책 상 금메달, IPPY 올해의 어린이책 상을 수상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고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은 이들이 작은 그림자의 외로움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림책이 주

는 메시지와 더불어 그림자아트 자체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오롯이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눈코입도 없는 그림자에 생명을 불어넣어 읽는 이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작가의 능력이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외톨이 그림자를 따라 여행을 하면서 그림자의 외로움에 공감하던 독자들이 그림자와 꼭 닮은 작은 아이를 만나는 순간, 함께 놀자며 손을 건네는 순간! 진짜 친구를 만난 듯한 기쁨을 꼭 느껴보기를 권합니다.



## 진짜 실패는 포기하는 거예요

— 이연수(수원시 북수원도서관)

발명가 로지의 빛나는 실패작 | 안드레아 비티 글 | 데이비드 로버츠 그림 | 김혜진 옮김 | 천개의바람 | 2015 #그림책 #초등저학년 #용기

우리는 발명가 에디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접했다. 발명가 에디슨은 어릴 때 무수히 호기심이 많아서 학교에서 딴 짓을 하거나 선생님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여 지진아, 바보로 찍혔다. 그런 에디슨을 어머니는 특별한 아이라고 용기를 주고 직접 에디슨을 가르쳐 천재적인 발명왕으로 만든다. 어린 시절 지진아, 바보가 자라서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믿음과 격려 때문이었다. 에디슨이 발명을 하려다 실패를 했을 때 질책과 비웃음 대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남들과 다르다'는 믿음을 갖고 지켜봐준 어머니가 있어 가능하였다. 실패가 포기가 되는 끝이 아닌 빛나는 성공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에디슨이 보여주듯 이 책 또한 보여주고 있다.

작가가 이 책 주인공 이름을 로지로 지은 배경에는 미국 페미니즘의 역사인 리벳공 로지와 관련이 있다. 리벳공 로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공장과 조선소에서 일하려 가는 미국 여성을 나타내는 미국 문화의 아이콘이다. 그들은 주로 탄약과 전쟁 물품을 생산하였다. 군대에 간 남자들이 하는 일을 아예 새로 대신해 일하기도 하였다. 리벳공 로지는 페미니즘과 여성의 경제적 능력의 상징으로 주로 사용된다. 당시 여성들은 '우리는 할 수 있다!'를 구호로 내걸었으며 그들의 옷차림은 책의 로즈 할머니처럼 청색

옷을 입고 머리에 붉은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이름부터 남다른 사연이 있는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음악수업시간에도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많은 로지의 꿈은 훌륭한 발명가가 되는 거다. 사실 로지의 어릴 때는 부끄럼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다. 로지가 부끄럼 많은 아이로 바뀌게 된 것은 그녀가 동물원 사육사인 삼촌을 위해 만든 특별히 만든 발명품인 모자 때문이었다. 삼촌이 동물원에서 뱀에게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모자를 선물했는데 모자를 본 삼촌이 눈물까지 흘리며 웃는 모습을 본 후부터 로지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로즈 이모할머니의 하늘을 날고 싶다는 소망을 듣고는 로지는 다시 한 번 발명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다. 과연 로즈 할머니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로지의 발명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로지가 발명에 실패해 좌절했을 때 겪었을 실망과 의기소침은 누구나 어린 시절뿐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경험해봤을 것이다. 책에 나온 구절처럼 ‘진짜 실패란 포기’라는 말처럼 실패해도 다시금 도전하게 용기를 주는 세상의 모든 로즈 이모할머니와 세상의 모든 로지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실패할까 두려운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 이젠 정말 망했어!

— 정은영(경기도사이버도서관)

벗지 말걸 그랬어 | 요시타케 신스케 글 그림 | 유문조 옮김 | 스킨라 | 2016

#그림책 #영유아 #부모 #목욕 #샤워

하루가 마무리 되는 저녁, “오야, 목욕하자.” 옷을 벗기려는데 아이가 발버둥을 친다. 자기가 할 수 있다면서 짜증을 내는 아이를 뒤로 하고 욕실로 간다. “그럼, 옷 벗고 빨리 욕실로 와.”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이는 오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엄마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겠다며 아이가 있는 방으로 간다.

아니 이게 뭐야!

윗도리는 벗다만 그대로 팔과 머리에 뒤집어쓰고 있고, 바지는 발목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로 방바닥에서 뒹굴거리고 있다. 엄마는 어이없어 하면서 아이들 들쳐 메고 윗도리, 바지, 양말, 속옷을 척, 척 벗기며 욕실로 간다. 목욕을 다 시키고 아이에게 잠옷을 내주고 엄마는 불 일을 본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다. 목욕은 아이나 엄마에게 모두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귀찮고, 서로 실랑이를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한다. 엄마와 아이가 실랑이 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아이는 멋진 세상을 오간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하고, 어이없는 상황에서 나름 철학적이 되기도 한다.

이 책은 목욕하기 직전 아이가 옷 벗는 아주 잠깐의 시간을 그리고 있

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는 해프닝을 작가는 그냥 놓치지 않는다. 옷을 벗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지쳐서 가만히 쉬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한다. 가꿈을 그 상태에서 혼자 벗어날 수 없어서 울어 제치는 경우도 있고, 가만히 쉬었다가 다시 벗어보려 하는 경우도 있다. 가꿈은 그냥 그대로 포기하고 잠들어 버리는 아이도, 상황도 있다. 옷을 벗는 그 행동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반면 이 아이를 바라본 엄마의 시간은 어땠을까도 생각해 봤다. 엄마의 시간과 아이의 시간은 달랐을 것이다. 엄마는 목욕물을 받아놓고, 씻고 나서 입을 잠옷을 꺼내 낚는데도 아이가 욕실로 오지 않아서 ‘애는~’이라는 생각을 하는 짧은 시간이라면, 아이에게는 잘 벗겨지지 않는 옷을 벗기 위해 해볼 만큼 해보다가 어른이 되어도 보고, 산책도 하고, 고양이나 친구를 만나서 놀고, 이곳저곳을 돌아, 돌아오는 시간이다.

모든 아이들이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크고 있고, 이 두 가지는 모두 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 이 책이 다른 유아책의 옷 벗고 입을 행동에 대해 다르게 다루는 점은 아이에게 성공의 성취감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옷 입기 미션을 다루는 유아책은 ‘이젠 혼자 입을 수 있어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뒤집어 입고, 단추도 밀리고, 다리는 한쪽 다리에만 들어가 있고…; 그러다가 결국엔 다 해낸다. 그리고 칭찬을 받는다. 아이는 성취감에 뿌듯한 표정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은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공’을 과감히 삭제해 버렸다. 옷 벗기에 실패한 아이는 “이젠 정말 망했어”라든가 “…… 결국, 맨날 엄마가 하라는 대로다” 등의 포기를 선언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실패 속에서 희망을 본다. 명확히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희망을 읽는다. 책 속 주인공이 옷 입기와 벗기를 처

음 시도해 보는 유아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옷 벗기에는 실패했지만 옷 입기에는 성공하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작가는 어른들에게 위안을 주지는 않는다. 대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마음의 평안을 준다. 실패해도 괜찮다. 실컷 웃고 말면 그만이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 갈 테고, 우리는 또 실패하고, 실패하고, 가끔은 성공하면서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다.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춘 아이로 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자.

누구나 경험해 봤을 일을 익살스럽게 풀어 논 그림책을 통해 작가는 조금은 다른 생각과 다른 시선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고의적으로 다른 시선과 낯설음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책의 구성 다르게 한 것은 아닐까싶다. 작가의 익살스러움은 책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도 있고, 만화 같은 선명하고 단순해 보이는 그림체에도 있고, 책의 구성에도 들어 있다. 덕분에 출판사는 책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수많은 정보를 구석구석 집어넣느라 고생을 했을 것 같다.

매일 목욕 때문에 아이와 실랑이하며 얼굴을 붉히고 있다면 이 책을 함께 읽고, 함께 웃어보는 건 어떨까?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웃음을 줄 만한 책이다.

이 책에는 책의 표지와 내지를 잡아주는 면지나 제목과 작가명 등이 수록되어 있는 표제지가 없다. 책 표지를 펼치면 바로 그림책이 시작된다. “옷이 걸려서 벗을 수 없게 된 지 얼마나 지났을까?”라는 대사와 함께……. 규칙과 규정을 지키는 책을 매일 보는 입장에서 면지도 표제지도 없다는



것은 너무 낮은 일이다. 그림책 말고 일반 도서에서 면지가 없이 표제지가 나오는 것도 어색하다. 재미도 있고,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게도 해주는 익살스러운 그림책이지만 그래도 표제지와 판권지가 별도로 없는 건 받아드리기 참 어렵다. 사서라는 직업 때문일까? 규정이 익숙한 어른이기 때문일까?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표지를 넘기자마자 시작되는 이야기가 몰입감을 높여 줄 수도 있겠다.



## 혼자서도 할 수 있어!

— 이민지(의왕시글로벌도서관)

벗지 말걸 그랬어 | 요시타케 신스케 글 그림 | 유문조 옮김 | 스킨라 | 2016

#그림책 #유아

‘벗지 말걸 그랬어’, 궁금증을 자아내는 제목이다. 무슨 내용일까?

표지를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배가 나온 채 옷이 머리에 걸려 버둥거리는 아이를 엄마가 도와주려하는 모습은 더욱 더 흥미를 자아낸다.

어렸을 때 나도 혼자 옷을 입겠다고 애쓰던 기억이 있다. 작은 손으로 단추를 혼자 여미지만 생각만큼 쉽게 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다시 단추를 채워주시곤 하였다. 그림책 속 아이도 여느 아이와 다르지 않다. 엄마가 목욕하자는 말에 스스로 벗겠다고 고집을 부리다 그만 옷이 머리에 걸리고 만다. 아이가 옷이 얼굴에 걸려서 벗을 수 없게 된지 얼마나 지났을까. 옷이 머리에 걸린 채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는 아이의 독백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혼자서 벗을 수 있단 말이야!”하고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는데,

아무리해도 벗을 수가 없어.

이러다 평생 못 벗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이대로 어른이 되는 건가.(P. 3-4)

책을 읽는 내내 웃음이 나온다. 옷이 목에 걸린 채 평생 살게 될 모습을 상상하는 아이의 독백이 심각하지 않고 귀엽고 사랑스럽다. 책을 다 읽은 후, 한 참을 웃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일을 아이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풀어낸 책으로 어린아이는 물론이고 어른들에게도 큰 웃음을 준다.

아이의 생각을 단순한 그림체로 중요한 특징만을 잘살려 표현된 그림은 이 도서의 매력 중 하나이다. 무슨 책을 읽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요시타케 신스케의 『벗지 말걸 그랬어』를 읽어보길 바란다. 요시타케 신스케는 어린이 책 삽화, 표지그림, 광고미술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게 정말 사과일까?』로 MOE 그림책방 대상과 산케이아동출판문화상 미술상을 받았으며, 저자의 또 다른 저서로는 『이게 정말 나일까?』, 『이유가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가 있다.



## 나쁘게 구는 거, 더는 못 참아

— 유향숙(성남시관교도서관)

**저, 할 말 있어요!** | 저스틴 로버츠 글 | 크리스천 로빈슨 그림 | 김소연 옮김 | 주  
니어김영사 | 2016 #그림책 #초등저학년 #우정 #배려 #용기

샬리는 1학년이지만 아주 작은 아이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샬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샬리는 모든 것을 자세히 세심하게 살피고 있으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호기심을 갖고 그 현상에 대해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나무에 줄이 엉켜버린 연, 경비아저씨의 27개의 열쇠, 친구 토마가 누군가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까지 샬리는 보았어요. 참 궁금한 게 많은 나이죠. 들꽃이 햇빛을 따라 고개 돌리는 거, 깊은 밤 사냥개가 킁킁 짖는 소리, 싸움쟁이 고양이들이 주차장에 모이는 것 등등. 샬리는 이런 현상을 보지만 왜 그런지도 궁금해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다가 미끄럼틀에서 케빈을 밀어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케빈은 꺾꺾 참다가 눈물을 터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학부모의 날 빌리는 커다란 몸집의 아빠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어요. 사소한 괴롭힘도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연약한 들꽃들이 불도저 앞에 마구 짓밟히는 것처럼 거대한 힘에 무기력하고 연약한 상처받기 쉬운 들꽃같은 존재임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샬리는 점심 급식시간에 한가운데에서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쁘게 구는 거 더는 못 참아. 서로 괴롭히지 말자! 이제 그만해.”

아이들은 킁킁 웃기도 하고 쳐다보았지만, 그때 기적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워드가 식판을 내려놓고 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폴리가, 다음에는 마이클의 쌍둥이 형이……. 이렇게 손을 들어 올리는 사람들은 파도같이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고 상황은 크게 달라진 거 같지는 않았지만 사실 조금씩 느낄 수 있는 약간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나무에 영킨 연줄을 풀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사이좋게 놀고, 친구가 들어올 때 까지 문을 열어주며 기다리기도 하고, 합창단에 서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비켜주기도 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샬리로부터 ‘괴롭힘은 이제 그만’이라는 작지만 큰 항쟁의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꽃처럼 용기와 배려의 마음들을 심어준 것일까요? 그래서 들꽃은 아무도 심지 않아도 스스로 생명력을 키워가듯 사람들의 마음에 들꽃같은 아름다운 마음들을 심어가는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나 봐요.

이 책은 참으로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정과, 배려와 용기지요. 작고 연약한 초등학교 1학년 샬리라는 소녀를 통해 가장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를 가장 크게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힘 있고 큰 소리에만 경청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연약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밝아지리라는 기대합니다. 학교생활로 친구관계, 학교라는 사회를 배워가는 치열한(?) 1~2학년 학생들에게 권합니다.



##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 이연수(수원시 북수원도서관)

우리 집엔 할머니 한 마리가 산다 | 송정양 글 | 전미화 그림 | 상상의집 | 2015  
#그림책 #초등저학년 #반려동물

책의 제목이 잠시 눈을 사로잡았다면 책의 내용은 오래도록 마음을 사로잡을 책이다.

제목에서 눈에 띄는 ‘할머니’, ‘한 마리’.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인가? 아님 동물에 관한 이야기인가? 제목에서 오는 궁금증은 책을 읽다보면 삶과 죽음을 함께 생각하게 되고, 강아지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삶을 함께 돌아볼 수 있게 만든 작가의 독창성에 놀라게 된다. 작가 송정양은 필명으로, 본명은 조현진이며, 201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화부분으로 당선된 책이다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백 살이 넘는 스무 살 할머니 개, 백 살 먹은 할머니처럼 잘 듣지도, 건지도 못하고, 털도 다 빠져 듬성듬성, 검버섯까지 핀 늙어버린 애완견. 그러나 할머니 개에게도 ‘이쁘’라는 이름이 있을 만큼 이쁘고 총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똥오줌도 못 가리고 병원 비만 나가 부모님 사이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 안락사를 의논할 만큼 늙고 쇠약해진 천덕꾸러기 신세다. 주인공 아이는 친구 규민이네서 태어난 아기 강아지를 데리고 싶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할머니 개가 있기에 안 된다고 한다. 빨리 뛰는 개도 아니고, 도둑을 잘 잡는 개도 아닌 골칫거리가 된 할머니 개. 주인공에게 이쁘는 이래저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쓸

모없는 개일 뿐이다. 주인공은 할머니 개만 없으면 하얀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을 텐데 아쉬워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개는 예전처럼 주인공의 목숨을 다시 한 번 구하고, 너무 많은 힘을 쏟아서인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다.

늙어가면서 추해지는 할머니 개를 보며 몇 년 전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겹쳐 떠올랐다. 누구보다 깔끔했던 할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노환으로 초라해지고 초점 없는 눈으로 일상을 보내시다 돌아가신 모습이 마치 할머니 개의 죽음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쁘고 재롱 많은 장남감 같은 애완용 강아지가 아닌 죽음까지 염두에 두고 가족처럼 함께해야 하는 반려동물로서의 강아지를 생각하게 한다. 또한 다소 초등학생에게는 무거운 내용이지만 가족으로 함께하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동행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 촌수와 가족 호칭, 어렵지 않아요

— 이연수(수원시 북수원도서관)

우리 가족의 비밀 | 아나 만소 글 | 수사나 델 바뇨 그림 | 박지영 옮김 | 북스토리아이 | 2015  
#그림책 #초등저학년 #가족호칭

‘질문을 많이 하면 몰랐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주인공은 호기심이 많아 늘 돋보기를 갖고 다니면서 질문하기- 탐정놀이  
이를 좋아하는 소녀라는 것이 『우리 가족의 비밀』 첫 장에 나온다.

주인공 소녀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부터 호기심을 갖고 한명씩 가  
족 나무를 통해 촌수를 배우고 호칭을 익힌다.

부부사이에는 0촌이고 나와 부모님은 1촌 그리고 나의 위와 아래사이에는 1  
촌씩 늘어나는 이유, 또한 나의 옆으로는 2촌씩 바뀌는 이유, 마침내 6촌  
까지 익혀가면서 자주 만나는 가족이 몇 촌 인지를 알게 되면서 자주 보던  
가족부터 처음 알게 된 가족까지 나와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있는 지를 보  
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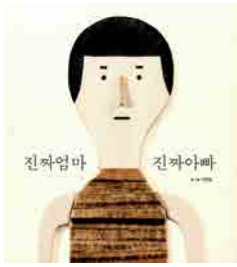
지금 우리는 단순한 핵가족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촌이  
상의 촌수가 확대되면 어린이 뿐 아니라 어른들도 난감해진다. 당숙이라든  
지, 종질이라든지, 재종형제라든지 평소 부를 일이 많지 않은 이런 촌수와  
호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생각만 해도 복잡해진다.



이 책은 그런 생소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장 끝이 접혀있어서 펼치면 보이는 플랩 북 형식으로 날개부분의 책장에는 가계도를 그린 가족 나무가 있어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가족 관계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책의 마지막장에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나의 가족 나무를 그려볼 수 있는 지면도 구성되어있다. 한국 어린이 교육문화연구원 으뜸책으로 선정된 이 책은 지식정보 그림책으로 손색이 없다. 초등학교 통합교과 1,2학년의 '우리 가족'과 '친척'단원에서 배워야 할 교과 과정과 연계되어 활용할 수 있는 점은 그림책을 통해 유익한 학습 정보를 주고 싶은 학부모님들에게는 안성맞춤 그림책이다.

작가 아나 만소는 주로 3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위한 글을 쓰는 스페인의 어린이책 작가, 어린이 프로그램 방송작가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지적으로 풀어내는 탁월한 작가이다.



## ‘너무멀어자세히~별’에서 온 왕자

— 유향숙(성남시관교도서관)

진짜엄마 진짜아빠 | 박연철 글그림 | 엔씨소프트 | 2015

#그림책 #초등저학년 #자아

나는 왕자님이에요. 난 이 별의 사람이 아니고 여기로부터 2천4백7십5억 광년에 있는 ‘너무멀어자세히안보면잘안보여별’에서 왔어요.

이렇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쉽지 않는 주인공 어린왕자님이다.

자신은 진짜 엄마와 아빠와 같이 이웃별에 놀러가다가 ‘걸리면다주거’ 해적선을 만나 엄마, 아빠는 자신을 숲속에 숨겨두고 해적선을 유인했다고 설명한다. 그때 마침 지금의 엄마가 아기울음소리를 듣고 데려다가 키워주신 거란다.

‘난 언젠가 진짜 엄마와 아빠가 꼭 데리러 올 거야’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오늘도 학교에 가야 하는데 엄마는 뒤통수에 데도 말씀하신다. “학교 가서 말썽 피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킷! 내가 무슨 말썽을 피운다고……. 난 이 별이 마음에 안 들어 왕자님은 이렇게 살면 안 돼”

학교에서 시장아들이 또 자랑질이다. 모든 아이들이 부러워한다. 나는 질수가 없다.

“난 우리 아빠가 낚시로 이 만~한 고래를 잡아줬다.”

“거짓말! 어떻게 낚시로 고래를 잡냐? 그리고 너의 아빠는 우리 집에 와

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거짓말 아니야.”

사실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시장아들을 이기고 싶은 주인공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것이 꿈을 그리고 있는 듯하다.

집에서도 말썽이다. 엄마는 네 진짜 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친다.

“내가 못 갈까봐? 진짜 엄마, 아빠를 찾으러 갈 거다.”

책을 읽다보면 문득 따뜻하면서도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난다. 우리도 말썽을 부리면 엄마, 아빠는 놀리느냐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하며 우리를 살폈던 기억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주인공이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거짓말의 세계에서 거짓말이 풍부해진다. 진짜 엄마, 아빠를 찾아가는 장면은 더욱 재미있다. 등장인물에서도 위트와 유머가 느껴진다.

“진짜 우리 엄마와 아빠를 보았니? 너무멀어자세히안보면잘안보여별의 왕과 왕비야, 난 그 별의 왕이지?”라고 말하자, “내가 수많은 거짓말로 코가 길어져 봤지만 너 같은 거짓말쟁이는 처음 본다”고 한다. 누구일까?

피노키오, 늑대, 별거벗은 임금님의 재단사 등 여러 동화책 속에 등장하는 희대의 거짓말쟁이들이 등장한다. 책을 읽는 동안 거짓말을 소재로 주인공이 되었던 다른 동화책의 주인공을 만나는 재미도 쏠쏠하다. 결국 길을 잃은 주인공을 찾아온 엄마, 아빠는 누구일까?



## “어른들은 몰라요”

— 유향숙(성남시관교도서관)

접시의 비밀 | 공문정 글 | 노인경 그림 | 바람의아이들 | 2015  
#그림책 #유아 #4~7세 #아이가밥을잘안먹을때

‘헛!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내가 밥을 천천히 먹는지, 왜 내가 밥을 먹다가 자는지, 왜 내가 가끔 손으로 반찬을 집는지 엄마는 정말 몰라요.’

우리 아이도 그랬다. 식탁에만 앉으면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을 펼쳐야 했다. 먼저 나와야 하는 전쟁이다. 아이가 밥을 천천히 먹거나 밥 먹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을 때 혼자 부글부글 끓기만 하지 아이에게 화를 낼 수가 없어 내 속에서는 전쟁이다. 화를 내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이는 천진한 눈망울로 쳐다보고 있으니, 어찌 화를 낼 수 있을까.

두 번째 전쟁은 식탁 위, 아래 지지분하게 어질러져 있어 청소와 전쟁이다. 밥 한번 먹기가 뭐 그리 어려운지, 흘리고, 쏟고, 심지어 흘뜨리기까지 할 때면 대략난감이다. 이 조그만 아이를 때릴 수도 아이에게 소리를 지를 수도 없으니, 자식도 식탁에서 만큼은 작은 악동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다. 아이가 밥을 먹을 때면 왜 그리 천천히 먹었는지, 밥알을 갖고 놀았는지, 반도 안 먹고 장난을 치다가 결국은 물을 붓거나 어질렀는지……, 그리곤 잠들기까지 했는지 알 것 같다.

접시에 그려진 예쁜 그림 속에 빠져 들어가 병아리 찾기를 하며 놀았고, 금이 간 접시에 그려진 코알라 다리에 반창고를 붙여주고 싶어 했으며, 꽃

그럼 그린 접시에 물을 주어 잘 자라게 하느라 밥 먹을 새가 없었던 것이다. 가끔 젓가락질이나 숟가락질이 힘들 때는 콩나물을 손으로 집어 먹으며 풍선을 연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풍선을 터트릴까봐 조심조심하느라고…….

작가의 시선은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아이들을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아이들의 이유를 대변하고 상상하고 놀아주며, 어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좀 늦게 먹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 했구나’라고 오늘은 아이를 더 많이 기다려 주어야겠다고 반성도 하게 된다. 아이들도 다~ 이 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책이었다. 어린이책을 읽으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아이들은 좀 느리더라도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공문정 작가는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 아동학을 전공하고 어린이집교사로 일했으며 201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했다.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어린이들과 글쓰기를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내가 제일 큰형이야!』가 있다.

그림을 그린 노인경 작가는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홍익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하고 이탈리아로 가 순수미술을 공부했다. 그림책으로는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 『책청소부 소소』 등 많은 그림을 그렸으며 『책청소부 소소』는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2012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뽑혔고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은 2013년 브라티슬라바 국제원화전시회 황금사과상과 2015년 스위스 Petits momes 상을 받았다. 『접시의 비밀』이란 책도 색상이 밝고 예쁘며, 밥 잘 안 먹고 병아리, 코알라와 놀기를 좋아하는 유나의 머리칼에 붓터치가 세밀하여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이다.



## 웃음은 힘이 세다?

— 김새롬(평내도서관)

웃음은 힘이 세다 | 허은미 글 | 윤미숙 그림 | 한울림어린이 | 2015  
#그림책 #유아

허은미 작가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사진 속 하얀 치아를 다 드러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현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어리고 철없던 시절, 아무 걱정 없이 그저 행복했던 어린 시절과는 사뭇 다르게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새 웃음을 잃어버린 자신뿐만 아니라 또래의 부모들, 그리고 어릴 적 사진 속 아이처럼 그저 행복한 아이들에게 웃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의미를 담았으리라.

책표지에 빨간 머리 여자아이가 얼마나 크게 웃는지 눈이 실처럼 가늘고 붉은 입은 태양처럼 큼지막하게 벌린 채 웃고 있다. 소리가 없는 책이지만 웬지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빨간 머리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상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림책의 모든 그림이 펜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형형색색의 실, 펠트지, 아기자기한 조각 천을 가지고 완성했는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입체감과 생동감이 살아난다. 실제로 윤미숙 그림작가는 이 책의 제목이 자신의 마음을 끌어당겨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한다. 책의 제목을 보고 친구들을 웃기기 좋아했던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림 속 친구들은 모두 빨간 머리 소녀를 웃겨보겠다는 사명감

이라도 가진 듯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그림이 책의 내용을 아주 맛깔나게 잘 살려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작가와 그린이의 의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어린 조카에게 이 책을 보여주었다. 첫 장을 넘기며 빨간 단발머리 여자 아이만 혼자 슬피 보인다고 왜 웃지 않는 것이냐고 묻는다. 나는 조카에게 빨간 머리 친구가 왜 웃지 않는지 같이 살펴보자며 한 장 한 장 천천히 그림을 살펴보도록 했다. 조카는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림 속 아이들을 보면서 배시시 웃음을 지었다. 모르는 사람이 웃고만 있어도 그 모습을 따라 웃게 되는 것, 웃음의 전염력이 바로 이런 것인가 보다. 그림책 속 등장인물들은 무엇이 그리 좋은 지 웃는 눈에 눈물까지 고여 가며 배를 움켜잡고 박장대소를 하고 있다. 특별한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다른 사람이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재미있고 즐거워 보여 빨간 머리 소녀도 이내 박장대소하게 된다. 『웃음은 힘이 세다』라는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웃음의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알게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 애 보듯의 성인이 이유 없이 웃는다면 그것은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남들 눈치 살필 이유 없이 부모와 자녀가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서로 웃을 이유를 굳이 찾지 않고 웃어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아, 물론 딱딱한 삶에 찌들어 웃음을 잃은 성인이 혼자 보아도 좋을 법 한 책이니 걱정하지 않고 읽어보라고 권한다. 이 책을 읽으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점점 웃음을 참지 못하는 빨간 단발머리 주인공과 그녀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저절로 웃음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랄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덤이다.



##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아이들

— 이은주(남양주시 오남도서관)

나는 자라요 | 김희경 글 | 엄혜원 그림 | 창비 | 2016

#그림책 #유아 #동생

처음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 너무 작아 눈, 코, 입 등 사람의 모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첫돌을 맞이하면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좋고 싫은 자기의사표현도 시작한다. 그러다 어느덧 스무 살이 되면 부모보다 더 큰 어른이 되어 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언제 저렇게 자랐는지 하고 놀라기도 한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자라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림책이 있다. 김희경 글, 엄혜원 그림의 『나는 자라요』는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하여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을 보여주며 시간과 성장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철학 그림책이다.

아이가 색종이를 오려 붙이고, 친구와 헤어지며 인사하고, 엄마에게 혼나서 울음을 터트리고,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공원을 산책하는 등 특별한 것 없는 짧은 순간들을 연속적으로 펼쳐며 사소한 순간들에도 아이들은 자라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시간과 성장의 의미를 일깨우며 나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준다. 또한 일상의 매 순간 몸과 마음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절묘하게 담고 있다. 때때로 동생이 한 일을 자기가 한 일인 양 엄마한테 혼이 나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동생을 꼭 껴안아 줄 만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습이 다정하고 서정적인 말투와 편안한 그림에 잔잔



히 녹아들어 있다. 기쁘고 즐겁고 심심하고 슬프고 괴로운 모든 순간에도 몸과 마음이 자라나는 아이들이다.

표지를 보면, 연두색 잔디밭에 빨간 체크무늬 모포를 깔고 한 아이가 서 있다. 양팔은 벌리고 눈은 감고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다. 보기만 해도 행복감이 몰려오고, 내 아이가 저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의 모습이다. 책 내용의 그림들은 큼직큼직하게 그려져 있어 주인공들의 표정을 통해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아이와 함께 그려진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식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글작가 김희경은 철학과 미술사를 공부하였고, 지금까지 쓴 책으로 『지도는 언제나 말을 해』, 『열두 마리 새』 등이 있으며, 『마음의 집』으로 볼로냐 라가치 논픽션 부문 대상을 받았다. 그림작가 염혜원은 서양화와 판화를 공부했으며,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 『어젯밤에 뭐했니?』로 볼로냐 라가치 픽션 부문 우수상을, 『야호! 오늘은 유치원 가는 날』로 에즈라 잭 키츠 상을 받았다. 그 밖에 쓰고 그린 그림책으로 『쌍둥이는 너무 좋아』가 있다. 두 작가 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작가들의 다른 책들도 아이와 함께 읽어보면 행복감이 밀려올 듯하다.

아이들은 누구나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될 수밖에 없는 어른을…….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언니나 오빠가 되고 싶어 하는 모든 유아들에게 읽어주어도 좋지만, 특히 동생이 태어나 힘들어 하는 아이에게 동생이 잠든 동안에 엄마가 품에 꼭 안고서 읽어준다면 큰 위로가 될 듯하다. 오늘도, 아이들은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다.



## 따뜻함이 비처럼 나를 적시다

— 유현미(평택시립도서관)

엄마의 선물 | 김윤정 지음 | 상수리 | 2016

#그림책 #유아부터

모든 소중한 것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엄마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떠난 후에야 비로소 그 부재가 뼈에 사무쳐 옵니다. 책장을 채 넘기기도 전에 마주한 작가의 말이 그래서 더 가슴을 울립니다. “긴 시간동안 메아리 없는 대화로 외로웠을 엄마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을 이 책을 빌어 전합니다.”

이 책을 읽어주면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처음 독자들은 OHP 필름을 활용한 기발한 상상력에 열광합니다. ‘구멍뚫기(die cut hole)’ 방식을 활용한 심스 태백의 『요셉의 작고 낡은 오버코트가...?』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첫 장을 넘기면 남을 비난하려고 뺨은 손가락이 바로 다음 장에서 손의 주인을 향한 손가락질로 되돌아오는 구성 방식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 언젠가는 너에게 돌아온단다” 라는 엄마의 당부가 이어집니다. 엄마 가슴 위에 놓여 있던 두 손은 책장을 넘기는 순간 아이의 머리 위에서 비를 가리는 우산이 되어 줍니다. “비 맞을까 두려워 너의 길을 멈추지 마. 너에게는 커다란 우산이 있잖니.” 어디선가 따뜻한 엄마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이어지는 이 구성 방식은 독자들에게 다음 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기대하게 합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처음 ‘재미있다’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거쳐 서서히 감동으로 변해 갑니다. 책장을 덮을 즈음엔 ‘내 뒤에는 언제나 엄마가 계셨구나’하는 깨달음이 이어집니다. 항상 나의 곁에서 언제까지나 나를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혹은 있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든든하고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다 읽어주고 나면 아이들은 앞다퉈 책을 가져다 직접 만져보고 읽어보고 싶어 합니다. “이 책 갖고 싶어요”하는 반응에 이어 “와! 책값이 너무 비싸요”라며 볼멘소리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얘들아! 이 책은 OHP 필름인쇄와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 진 책이라서 그렇단다. 작가나 출판사를 대신해 책 가격을 변호하는(?) 나의 모습에 스스로도 놀라며 이 책에 대한 애정의 깊이를 실감합니다. 이번에 엄마가 계신 곳을 찾아갈 때는 꼭 이 책을 가지고 가려 합니다. 어디에서든 엄마가 듣고 계시겠지요.



## 쥐가 열두 띠 중 1번이 된 이유

— 박지원(안성시립공도도서관)

열두 띠의 비밀: 우리 가족 띠 이야기 | 김기정 글 | 김진화 그림 | 한솔수북 | 2014  
#그림책 #영유아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열두 띠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순으로 12년을 주기로 돌아간다. 열두 띠 열두 동물, 띠마다 상징하는 동물이 다를 뿐더러 사람들은 자신의 띠로 운명을 점쳐보기도 한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이 열두 띠를 하나하나씩 동물마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도톨이라는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도톨이에게 열두 띠를 설명하며 시작한다.

예를 들어 호랑이는 일 년에 소 서른 마리 쫓 먹고, 용은 상상 속 동물이지만 물을 다스리는 신이며, 부지런한 소 등에 타고 있던 쥐가 결승점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쥐가 열두 띠 중 1번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준다. 원숭이를 잔나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벼슬이 닭의 볏에서 나온 말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준다. 또 예전에는 자시, 축시, 인시 등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특정 동물의 시간으로 정해놓았다는 점도 알려준다. 지금과는 다른 옛날 생활을 엿볼 수 있어 새롭고 흥미롭다.

페이지마다 가장자리나 중간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알록달록한 동물의 그림들은 귀엽고,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순수한 그림체의 그림도 있어 웃음을 짓게 만든다. 책의 내용 중에는 한 글자의 한자로 동물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 한자들이 어떤 모양을 본 따 만들었는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 열두 띠에 대한 상식, 역사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한자까지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하다.



## 나눔의 즐거움

— 유향숙(성남시관교도서관)

다다의 의자 | 송혜원 글 그림 | 한솔수북 | 2009

#그림책 #유아 #4~7세 #욕심

나나는 갖고 싶은 의자가 있었어요. 매일 가구 가게에 가서 쳐다보지만 돈이 안 되어서 못사요. 작은 다람쥐인 나나는 자신에게 안성맞춤인 그 의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돈이 생길 때까지 의자를 눈으로만 보고 오늘도 만족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의자를 보러 갔는데 의자가 없어졌어요. 헉~! 어디로 갔을까 궁금했지요.

그런데 다다가 가구 가게에 있는 의자들을 거의 다 사는 거예요. 다다네 집으로 따라가 보았어요. 거기에는 나나가 그리도 갖고 싶었던 나나의 의자도 있었어요. 다다는 의자를 무척이나 좋아하나 봐요. 날씬한 의자에 앉아도 보고, 나나의 의자를 머리에 얹어도 보네요. 그러다 날씬한 의자가 못 버티고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다다가 넘어지면서 나나의 의자가 구석에 처박혀 버렸어요. 다다는 의자가 망가졌다고 울다가 푹! 그치더니 내일 또 사러 가야겠다고 합니다.

다다는 참고로 호랑이에요. 다다는 부자인가 봐요. 예쁜 의자들을 사고 또 사더니 어느 날은 '도와주세요! 다다네 집을 넓혀요. 도와주는 친구들한테 맛있는 케이크를 대접할게요'라는 포스터를 붙여요. 많은 친구들이 다다의 집을 짓는 데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짐이 들어가고 자리를 잡자 다다는

케이크를 대접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의자에 앉아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모두들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다다도 좋아했습니다. 다다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친구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각자에게 맞는 의자를 나눠 주기로 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각자에게 필요로 하고 있었던 그것을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네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물건들을 사고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무분별한 소비가 일차로 동물들의 자리를 빼앗고 곧 우리의 보금자리도 빼앗으며, 지구는 아파할지 몰라요. 동물들이 사라지고 지구가 점점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책에 나오는 다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어떤 것을 키우고 싶은가요? 나만 잘 살자는 이기심일까요, 다른 사람도 살펴보자는 배려의 마음일까요?

송혜원 작가는 홍익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우리만화연대에서 만화창작을, 한겨레 SI일러스트레이션학교에서 그림책 공부를 했습니다. 2007년 한국 안데르센 상 출판 미술 부문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팔의 공정무역 현장에 다녀온 뒤, 가난과 배고픔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이 없었던 하는 바람으로 '아름다운 커피'의 로고와 그림을 그려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송혜원 작가가 책을 내며 한 마지막 말로 글을 맺어 봅니다.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그림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 엄마,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 유향숙(성남시관교도서관)

하나만 골라 주세요 | 마르셀라 마리노 크레이버 글 | 조앤 루 브리토프 그림 | 길상호 옮김 | 씨드북 | 2016 #그림책 #유아 #5~10세 #장난꾸러기

조이는 즐겁지도 않은 생각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고 있는지 몰라요. 결국 엄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지만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지 너무도 궁금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어서 조이는 막대기로 그넷줄을 쓱쓱 켜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조이는 학교가기 전에 물어보려고 했지만(난장판이 된 조이의 방을 보고 엄마는 황당해 하고 있었죠)…….

조이는 밖에서 놀다가 물어보려고 했는데.(장난감을 망가트려 엄마가 불이고 있어요)…….

저녁을 먹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만…….

조이는 말로는 할 수가 없어서 쪽지를 쓰기로 했어요.

‘엄마, 다음 중 누구 제일 마음에 들어요?’

1. 제이크 2. 조이 3. 올리비아

하나만 고르세요.

베개 밑에 쪽지를 넣어두었어요. 엄마의 답은 모두에 체크를 해서 돌아옵니다. 조이는 엄마가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 모두에 체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형은 의젓하니까 좋아할 것이고, 여동생은 얌전하고 귀여우니까 좋아하지만 자신은 말썽만 치고 어지럽히고 사고뭉치



라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기로 했죠.

‘엄마, 다음 중 어떤 때 조이를 사랑해요?’

1. 사고 칠 때 2. 다정할 때 3. 엉뚱할 때

또다시 엄마에게 보내고 와서는 이불을 푹 뒤집어썼어요. 새로운 것을 물어보니 가슴이 쿵쿵 뛰고 부끄럽고 어떤 답이 돌아올지 궁금했어요. 엄마는 조이 방이 들어와 조이를 포근히 꼭 앓아 주었습니다.

모두에 체크를 해서 조이에게 보여주었지요. 조이는 그제야 마음이 스스로 녹습니다. 엄마는 조이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책을 다 읽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에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확인받는 순간은 참으로 멋진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멋진 모습이 그림책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받기 위해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자신은 못마땅하고 한참 부족한 사람같지만 엄마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줍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 감동스럽기까지 합니다.

마르셀라 마리노 크레이버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뉴욕 공립학교 심리상담가로 19년간 일한 뒤 최근에는 학교 전문상담가로 새로운 분야에서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 여러 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현재 음악에 푹 빠진 두 명의 십대 자녀와 멋진 남편, 그리고 장난꾸러기 고양이와 함께 살며 사랑과 음악과 웃음이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조앤 루 브리토프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내는 일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 그림책과 단편에 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귀여운 두 자녀와 남편과 함께 여행을 비롯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예술적 영감을 얻고 있고, 현재는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며 자신의 뿌리를 되찾는 일과 신나는 모험을 즐기는 글로벌 시민이기도 합니다.

길상호 선생님은 엄마가 되어 어린이책을 다시 손에 쥔 이후로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독서와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으신 책으로는 『최고 빵집 아저씨는 치마를 입어요』 『골목이 데려다 줄 거예요』 외 다수가 있으며, 번역하신 책도 여러 권이 됩니다. 그중에 『못된 녀석』과 『행복해라, 물개』, 『아웃 게임』 등이 여러 권을 번역하시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 작은 일에 감사하기

— 유옥환(안양시 석수도서관)

찬이가 가르쳐 준 것 | 허은미 글 | 노준구 그림 | 양철북 | 2016  
#그림책 #초등저학년 #장애인가족 #감사

찬이는 뇌병변 장애이다.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상지와 하지의 마비가 나타난다. 주로 보행 장애와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을 받게 된다. 신체적 장애 외에도 언어 장애, 시각 장애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찬이는 혼자서는 서지도 걷지도 못한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찬이 옆에는 늘 엄마가 있고, 다른 형제는 늘 관심 밖이다. 쫓쫓……, 안타까워하는 주위의 시선이 엄마는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말한다. 장애아를 둔 탓에 눈물이 많아졌고 힘이 세졌다.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는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세상을 즐기는 법도 배웠다. 어려울 때 진정 힘이 되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랑은 결코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이 책은 장애인 가족의 일상을 덤덤하게 그리고 있다. 뇌병변 장애아 찬이를 통해 낮아지는 법과 감사하는 법, 그리고 느리게 살아가는 법을 안내한다. 표지를 넘기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안타깝고 걱정하는 모습뿐이다. 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일상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

덧 마지막 장이다. 그곳에선 주위 사람들이 다시 환하게 웃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쓰기 위해 뇌병변 장애아를 둔 엄마들의 모임을 찾아가서 직접 회원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으며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어 놀랐다는 허은미 작가의 마음은 물론, 찬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찬이가 그림 속에서 흑여 달라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을 노준구 작가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다.

개인적으로 시각장애우를 위한 도서녹음봉사 활동을 한다. 처음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다소 불편했던 기억이 새롭다. 어눌한 목소리, 이상한 표정들, 제멋대로인 손동작, 부자연스런 걸음걸이들이 내겐 익숙지 않았었다. 4층 사무실로 올라가기 위해 승강기를 타자마자, 바로 뒤이어 장애인인 아들이 탔을 때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그런데 상대방이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네 왔을 때 살짝 놀라면서 안도했다. 나의 오만함이 꼬리를 내리고 갑자기 순한 양이 되었다. 그리고 낮아졌다. 그제야 나도 웃으며 ‘아~ 안녕하세요?’라고 답해주었다. 그들은 복도에서 승강기에서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먼저 웃으며 다가왔다. 복지관을 드나든 지 벌써 5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아주 자유롭다.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은 없어야겠다.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함께 마음 아파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위로 받기를 바란다. 방하착(放下着),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번뇌와 갈등, 스트레스, 원망, 집착 등을 모두 훌가분하게 벗어던질 수 있으면 좋겠다.



## 어머니, 잘 지내시지요?

— 유옥환(안양시 석수도서관)

영터리 집배원 | 장세현 글그림 | 어린이작가정신 | 2016

#그림책 #초등저학년 #잊혀져가는것들에대한그리움

동네 꼭두머리, 낮은 산자락에 기대어 병든 도둑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있는 낡은 집안에는 고목같이 늙은 할멈이 산다. 할멈은 산만 보고 산다. 그 산등성이로 가끔 비행기가 넘나들곤 한다. 비행기가 오가는 하늘길 너머 어느 낯선 외국 도시에 아들이 산다. 외국의 아들에게서 크리스마스카드가 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 할멈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카드에서 귀신같이 글자를 찾아내어 집배원에게 읽어달라고 청한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집배원은 외국에서 오는 크리스마스카드가 할멈에게 일 년을 살아갈 힘을 주는 양식임을 알기에 할멈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지레짐작 지어내어 읽어드린다.

‘어머니!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늘 건강하세요.’

그래서 영터리다. 그런데 그마저도 소식이 끊기자, 집배원은 자신의 딸에게서 받은 편지와 양말 선물을 할멈에게 마치 외국이 아들이 보낸 것처럼 사연을 이야기해주며 선물까지 전달한다. 역시 영터리다.

나이가 든다는 일은 그리움도 같이 커지는 모양이다. 언제 올까 시선을 문에 고정하고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에 집배원의 방문이 늘 반갑기만 하다. 봄꽃이 훑날리는 산길을 집배원의 오래되고 낡은 자전거가 이리저리 길을 만들어가며 기쁘고도 슬픈, 때로는 싱거운 소식 등을 전한다. 산골마을 집집마다 속속들이 사연을 알고 있는 집배원 아저씨는 엉터리 집배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손 편지를 쓰지 않는다. 전자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대체된 지 오래지만, 집배원은 여전히 바쁘다, 홍보물, 고지서 등의 우편물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엉터리지만 사람 냄새나는 집배원의 역할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장세현 작가는 그림에 관심이 많다. 미술과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집필했다. 글과 그림이 한껏 어우러져 독자로 하여금 마치 고향 시골 우체국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편지요!’하는 집배원의 목소리에 반가운 마음으로 뛰어나가 편지를 받아볼 때의 설레임과 즐거움의 감정이 솟아난다.

마음을 전하는 데 손편지 만한 것이 있을까? 부모에게, 친구에게, 자녀에게 정감 있는 애뜻한 손 편지로 속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 이메일이나 문자로 전하는 빠르지만 깊이가 없는 글보다는 느리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다.

초등 저학년은 물론 어른들께도 읽어드리면 좋겠다. 옛 추억을 되새김질하며 그때가 좋았지! 하실 어른들의 모습이 선하다.



## 생명, 그 끝없는 전진이 주는 숭고한 감동

— 유현미(평택시립도서관)

두꺼비가 간다 | 박종채 지음 | 상상의회 | 2016

#그림책 #유아부터

첫 장을 펼치면 화면 가득 한 폭의 수목화를 연상시키는 겹겹의 산 그림이 펼쳐진다. 우리에게 익숙한 산과 들의 풍경은 보는 것만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또 한 장을 넘기면 성큼 가까워진 산 아래로 나무와 들판이 정겹다. 작가가 어린 시절의 우리 동네에 와 본게 아닐까? 싶을 만큼 풍경이 낮익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카메라가 점점 줌업(zoom up)되면서 멀리 보이던 풍경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어느새 화면 가득 풀숲이 펼쳐진다. 순간 풀잎사귀들의 고요한 긴장감을 헤치고 무엇인가 불쑥 튀어나올 듯한 기대감이인다.

등 !

봄비 내리는 아침

두꺼비 한 마리 끔벅끔벅 눈을 뜬다.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북소리의 장단에 맞춰 두꺼비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평면의 그림책이 북소리를 신호로 깨어나 한편의 다큐영화로 변한다. 북의 장단과 어우러진 두꺼비들의 움직임이 절묘하다.

두둥

꾸무럭 꾸무럭 일어나

두두둥

엥금엥금 산을 내려가

둥둥덩덩 둥둥덩덩

우글우글 무리지어 두꺼비가 간다

두둥 두둥 덩덩덩

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

가시에 찢려도 앞으로 앞으로

고랑에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두두둥 두두둥 덩덩덩

덩더덩 둥둥둥

철거덕 철거덕 철조망을 넘어

자동차가 달려와도 앞으로 앞으로

더덩 더덩 두둥 두둥

찾길을 건너 저벽저벽

독방에 미끄러져도 다시 일어나

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



폴썩폴썩 갈대숲 헤치고

더러러러럭 더러러러럭

물속으로 침병침병 두꺼비가 뛰어 든다

딱

두꺼비는 그렇게 엄마 아빠가 된다.

숙명과도 같이 길고 험난한 여정의 끝에서 마주한 ‘잉태의 순간’은 마치 광활한 우주공간의 별을 연상시킨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온전한 우주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하다.

책장을 다 넘기도록 북소리 외에는 말 한마디 없던 작가가 책의 말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림이 품은 이야기를 한 편의 시로 들려준다. 작가의 내레이션과 함께 서서히 막이 내리는가 싶더니 마지막 장의 에필로그가 의미심장하다.

‘알을 깨고 나온 새끼 두꺼비들이 작은 근육을 불끈 세우고 어딘가를 향해 일제히 나아가는 장면’이다.

“이 책을 세월호 유가족들과 세월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친다”는 작가의 말 때문인지 두꺼비의 행진 위로 아이들의 걸음이 겹쳐 보인다. 그렇게 생명은 이어지고 우주는 자신의 질서대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 물고기라는 꽃

— 유향숙(성남시관교도서관)

물고기 씨, 안녕하세요? | 강하연 글그림 | 봄봄출판사 | 2016

#그림책 #유아~초등저학년 #물고기도감

세밀화로 그린 물고기도감이다. 사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림만이 갖는 따뜻함과 사람의 체취가 나는 듯한 그림은 어린이에게 일반 도감과 다른 것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물고기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있고, 성격이 있고, 기질이 보이는 듯하다.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물고기는 ‘과자마 카디날 피쉬’다 산호근처에서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숲 근처를 좋아하고, 자연과 가까워야 평화와 안정을 찾듯 ‘과자마 카디날 피쉬’는 산호근처가 은신처가 되고 삶의 터전이 되는 고기이다. 산호를 닦아야 하니 색깔도 화려하고 멋진데, 그림으로 표현하니 더욱 따뜻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느껴진다.

그렇게 어려운 이름을 갖은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치와 고등어도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수평 수영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갈치는 수직 수영을 즐긴다. 이 책이 아니면 그러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고등어는 아침부터 쉼 새 없이 헤엄쳐 다닌다. 어디를 그리 바쁘게 무리를 지어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바다가 한 없이 넓고 갈 곳이 많은 것을 아는가 보다. 아마 육지에서는 사슴이나, 얼룩말과 같이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들과 같은 류일 것 같다.

전어들도 소개가 되어있다. 전어는 개흙도 뒤지며 바다에서 즐겁게 산다

고 한다. 이제 가을이라 전어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고 먹게도 되는데 먹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어의 생김새, 특성, 맛까지 본다면 좋을 듯하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 밥상이나 시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친근한 물고기들을 소개하고 있어 반가웠다. 먼 대서양, 태평양에 살거나 깊고 짙은 바닷속 밑에 사는 물고기들도 소개하고 있어서 한번 읽고 덮어두는 책이 아니고 보고 궁금하면, 또 찾아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모두 열다섯 마리의 물고기를 30여 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그리고 쓴 강하연 작가의 말을 빌어 책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저마다의 숲이 있습니다. 제 숲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은 엉뚱한 것들도 있지요. 그리고 그림이라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언젠가 그림책이라는 미지의 씨앗을 심었고 가꾸어 왔지요. 어떤 꽃과 나무가 자라날지 궁금하고 두근거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겠지요. 이번에는 물고기라는 꽃이 피었습니다. 이 꽃이 다른 분들에게도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물고기의 설명은 해당 물고기의 개별 소견이며 과학적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어린이의 감성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책을 지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다. 과학적 사실이 궁금하다면 물고기 도감에서 이해를 돕고, 이 책에서는 물고기의 이야기와 개별 물고기의 성격 등 호기심과 따뜻한 감성을 가졌으면 한다.



## 나와 다른 그 녀석과 친구 될 수 있을까?

— 공정자(안성시 진사도서관)

친해질 수 있을까? | 츠지무라 노리아키 글 | 하지리 토시카도 그림 | 유문조 옮김 | 스킨라 | 2015  
#그림책 #초등저학년 #친구사귀기

대부분 친구를 사귄 때는 자신과 비슷한 친구를 선택한다. 이 책은 나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친구와 운동 경기를 하면서 같은 마음을 공유하는 계기를 갖게 되면서 친구가 되는 과정을 잘 그린 책이다. 어린이책들 중에 친구를 주제로 한 책이 많다. 동물이나 여자주인공이 등장하는 경우는 많지만, 남자주인공이 등장하는 책은 드물다. 이 책은 두 남자 어린이 주인공이 등장하며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앞표지의 책 제목을 중심으로 두 남자아이가 앞을 바라보고 서 있다. 두 남자 아이는 책 제목처럼 친해질 수 있을까? 이야기는 '나는 그 녀석이 별로다'로 시작한다. 그 이후에는 그 녀석과 내가 왜 다른지 대조적으로 기술하며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이 이야기한다. 책 속 주인공 나는 조용하고 활동적이지 않다. 녀석은 피구를 잘하고 나는 지우개 따먹기 놀이를 좋아한다. 운동회 날 이인삼각 경기를 위해 키가 비슷해서 갑자기 같은 팀이 되었지만, 항상 그 녀석은 자기 멋 대로다. 자기주장이 강한 그 녀석의 의견대로 연습을 하지만 계속 넘어져서 꼴찌만 한다. 운동회 전날 주변에서 놀던 그 녀석의 여동생이 다치자 급히 뛰어가는 바람에 호흡이 잘 맞게 된다. 운동회 날 2등을 하면서 나는 그 녀석에게 점점 마음을 열게 된다.

남자 어린이인 '나'가 화자가 되어 이야기를 하므로 심리 표현이 더 세밀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운동회 날 이인삼각 경기를 하는 모습이나 운동장에 만국기가 걸려있는 배경 그림은 일본의 학교생활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를 느끼게 하는 책이다. 학교 교실 안과 운동장이 배경이 된 이야기가 초등학생에게 더 공감을 일으킬 것이다. 친하지 않은 친구와 이인삼각 경기를 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기까지 친해지는 과정의 남자 어린이의 심리를 사실적으로 잘 그려낸 책이다.

앞표지에 각자 앞을 보고 있는 남자 주인공이 뒤표지에는 어깨동무하며 같이 사진을 찍은 장면이 책 내용을 잘 요약해서 보여준다. 면지를 자세히 보면 하늘색 바탕에 그림책 속 내용의 두 남자아이가 즐겨 놀던 지우개, 피구 공, 두 남자 주인공의 티셔츠가 그려져 있어 그림 작가가 표지와 면지도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림은 학교생활을 사실적으로 잘 그리고 있으며, 때에 따라 얼굴, 신발, 공 등을 크게 그려 더 강조하였다. 특히 넘어졌을 때 남자 주인공들의 아픈 표정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고, 이인삼각 경기로 두 아이가 호흡을 잘 맞추어 뛰는 장면에서는 그림으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표현하였다. 그전까지는 나와 그 녀석이 같이 그림 속에서 등장하다 마지막 그림에서는 그 녀석과 내가 한 장면씩 손에 브이 표시를 하며 여유있게 끝맺음을 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인공과 더불어 인물들을 살아있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그림이 글과 잘 조화를 이룬다.

두 친구가 전날까지 꼴찌만 하다 운동회 날 마침내 한 몸이 되어 2등을 하는 장면은 이야기의 절정을 이룬다. 운동회 전날과 운동회 날, 그 다음 날과 같이 짧은 기간이지만 속도감이 빠른 이야기가 단숨에 책을 읽게 하는 흡입력이 있다. 나와 너무 달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깨고, 새롭게 친구를 사귀는 데 용기를 주는 책으로 추천한다.



## 소리가 들려주는 바닷소리

— 이은주(남양주시 오남도서관)

할머니의 여름휴가 | 안녕달 글그림 | 창비 | 2016  
#그림책 #유아 #초등저학년 #할머니 #할아버지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그동안 겪은 여름 중에 가장 무더운 여름이어서 시원한 바다가 올해처럼 그리웠던 적도 없었다. 당장 달려가고 싶은 시원한 바닷가에서 강아지는 신나게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할머니는 수영복 차림으로 수박 반통을 들고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바닷가에 둘만 있어 외로워 보일수도 있으나 전혀 아니다. 즐거워 보이고 시원해 보인다. 『할머니의 여름휴가』라는 그림책의 표지내용이다. 군더더기 없이 노란 모래와 비취빛 바다가 표지전체를 차지하여 시원하기도 하다. 재밌는 상상력과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돋보이던 『수박 수영장』을 펴내며, 아이와 어른 독자 모두에게 사랑을 받은 안녕달 작가의 두 번째 창작그림책이다. 이 책도 색연필로 채색이 되어 있어 가볍고 따스한 느낌이 든다.

어느 여름날,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 손자가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손자는 여름휴가로 바닷가를 다녀왔지만 할머니와 함께 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바닷가에서 주워온 소리를 선물한다. 소리를 귀에 대면 바닷소리가 들린다. 고장 난 선풍기로 더위를 견디던 할머니는 함께 지내던 강아지 메리와 그 소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메리와 바다로 여름휴가를 온 할머니는 갈매기와 수박을 나눠 먹고, 바

다표범과 뿔곰며 바다햇볕에 살을 태우고, 기념품가게를 들르기도 한다. 기념품가게에는 ‘바다냄새 방향제’, ‘바닷바람 스위치’, ‘바다여행 소리’ 등 수 많은 바다관련 기념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바다에서 휴가를 즐기고 돌아온 할머니와 메리는 고장 난 선풍기에 ‘바닷바람 스위치’를 끼워 시원한 바닷바람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이야기에 기발하고 재미있는 상상력을 덧붙여 보는 이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책이다. 고령화로 홀로 사는 할머니들이 많아지고, 자녀나 손자들은 가끔 들러 그 분들을 보살피고,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이다. 그러나 어둡고 우울하지 않게 위트 넘치는 상상력으로 밝고 행복함을 느끼게 하고 위로를 준다.

할머니가 여름휴가를 보내는 바닷가 풍경은 특히 작가가 정성을 들여 그린 아름다운 장면들로 채워졌다. 탁 트인 구도와 맑은 색감으로 표현된 비취빛 바다와 고운 모래톱 장면은 무더위를 잊게 하는 청량감을 전하며, 할머니에게 휴식과 위로를 선사한다. 이 바닷가 풍경은 그림책을 읽는 아이에게는 바다를 향한 설렘과 두근거림을, 어른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연필과 색연필의 고운 필치로 완성해 나간 바닷가 전체 풍경이 따스한 분위기로 펼쳐지고, 만화 형식의 컷 분할로 변화를 주어 화면에 리듬감을 만든다. (출판사서평 중에서)

그동안 다른 이의 책에 삽화만을 그리던 안녕달 작가가 지난해 여름 ‘안녕달 그림책’이라는 이름으로 『수박 수영장』, 올 여름에는 『할머니의 여름 휴가』, 여름마다 재미있는 창작그림책을 내고 있으니, 내년 여름에는 과연 어떤 책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투명인간일까?

— 공정자(안성시 진사도서관)

진짜 투명인간 | 레미 쿠르종 지음 | 이정주 옮김 | 씨드북 | 2015

#그림책 #초등저학년 #장애인에대한이해

프랑스 어린이 독자들이 직접 선정하는 제19회 앙코뤼티블상 수상작이다. 앙코뤼티블상의 뜻은 ‘부패되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어린이 책의 성공은 가장 중요한 독자인 어린이들의 감동과 공감하는 이야기인지가 훌륭한 작품인지 판가름하는 기준인데, 이 책은 그런 면에서 프랑스 어린이들에게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투명인간에 관심이 많은 주인공 나는 시각장애인인 피아노 조율사 블링크 아저씨를 만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다른 감각이 발달되어 있어 보지 않고도 자신을 알아보고 피아노를 반주하는 아저씨에게 주인공이 바로 투명인간이다. 책 표지 그림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흰 지팡이를 쥐고 있는 아저씨에게 꼬마는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했다. 보지 못하는 아저씨를 안타깝게 여긴 주인공은 아저씨에게 색깔의 느낌을 전달하면 아저씨는 피아노로 색을 실감나게 음악으로 연주한다. 주인공은 겨울에 여행을 떠난 아저씨가 없는 동안 투명인간에 대한 책을 더 많이 빌려보고 아저씨를 위하여 피아노도 열심히 연습하여 엄마에게 칭찬을 듣는다. 아저씨가 다시 돌아오고 수술 후 시력을 찾게 될 아저씨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



가 끝난다.

이야기는 투명인간과 피아노를 모티브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주제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다른 감각이 발달되어 주인공보다 피아노를 잘 치고, 조율도 할 수 있는 건강한 시각장애인이 등장한다. 아저씨와 주인공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의 생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볼 수 없다는 것은 투명인간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책에 숨어있는 상징적 의미의 이해를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년부턴 읽기를 권한다.

흰 바탕에 단순한 그림과 글이 있는 왼쪽 페이지와 오른쪽 페이지는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득 채운 그림이 책의 내용과 함께 이야기를 잘 표현한다. 시각장애인을 표현하는 삽화 중 사람의 오감 중 촉각, 후각, 미각, 청각을 표현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 손가락, 코, 입, 귀에 눈을 그려서 시각장애인에게 다른 감각이 눈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었다.

작가 레미 쿠르종은 프랑스 출신으로 오랫동안 현장 기자였으며, 서른 권 넘게 어린이 책을 출간하였다. 작가는 ‘지오(Geo)’의 기자로 케냐의 에이즈 감염실태나 아이티의 지진을 취재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현장기자의 경험이 드러난 작가의 메시지 전달력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본다.

시각 장애인 중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강영우 박사나 헬렌 켈러는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위인으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런 위인 외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른 어린이 책을 함께 비교하며 읽어보면

좋겠다. 권정생의 『길 아저씨 손 아저씨』는 다리를 못 쓰는 아저씨와 앞이 안 보이는 아저씨가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로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눈이 보이지만 시각장애인의 체험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불안한 심리를 바꾸어 생각해 보게 하는 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이 있다. 이의 시각장애인의 생활에 도움은 주는 점자, 안내견, 흰 지팡이 등을 소재로 한 책은 다음과 같다. 고정욱의 『안내견 탄실이』, 『롤라와 나』는 시각장애인이 볼 수 없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로라의 비밀편지』는 시각장애인과 펜팔을 하게 되면서 점자를 배우는 주인공 이야기,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주인공이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심리 변화를 긍정적으로 다룬 『흰 지팡이의 여행』도 함께 읽어보길 권한다.

---

## 아까, 그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

— 유향숙(성남시관교도서관)

숲 할아버지의 비밀 | 다시마 세이조 글그림 | 고향옥 옮김 | 웅진씽크빅 | 2012  
#그림책 #유아 #초등저학년 #자연사랑

---

나는 숲에 버섯을 따러 갔다가 이상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숲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궁금해서 할아버지에게  
여쭙보았지요.

“할아버지 뭐하세요?”

“생각하고 있단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데요?”

“숲에는 생각할 것이 많단다. 자! 이 나무를 보렴.”

나무는 새싹이 자라서, 다른 나뭇가지가 있으면 피하여 자라고, 또 다른 나뭇가지가 있으면 해바라기를 위해 가지를 구부려 가며 피해서 자라며, 어린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 줄기가 배어져도 다시 희망을 갖고 자라고 자란다. 칼 같은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꺾이는 한이 있어도 나뭇가지를 하나씩 뺏어가지……. 이번에는 벌레가 우르르 날아와서 나뭇잎을 몽땅 먹어 치워도, 애벌레가 줄기 속에서 자라면서 가지를 말려도 나무는 포기하지 않고 해바라기를 하며 어떤 외부적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쭉욱 자라서 씩씩하고 멋있는 모양으로 그대로 서 있단다. 조금은 구부러져도 그마저도 멋있는 자태가 된단다.

위 그림이 나무의 승고한 성장이야기의 모든 것이다. 정말 멋지고 감동적인 이야기다. 그림도 단순하면서도 전달력이 풍부한데, 나의 필력이 약해서 그림을 그대로 옮겨 놓으며 전달해야만 했다. 더 노력해서 본 듯 필담으로 전달할 날이 있을 것이다.

“또 숲은 음악소리로 넘쳐나지 귀 기울여 보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나뭇잎이 내는 소리.

돌돌돌 시냇물이 바윗돌과 조약돌 사이를 흘러가는 소리.

저 멀리 사슴이 친구를 찾는 노랫소리.

이제 막 남쪽에서 돌아왔다고 인사하는 새소리.

마치 시 같은 구절이며 읽고 보고 있노라면 평화롭고 풍요로우며 아름다운 모습이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숲은 스스로 살아가면서 다양성과 자생성을 가져야 하는데, 인간의 자칫 잘못된 탐욕에 의해 잘 팔리는 나무만을 획일적으로 심는다는지, 엄청난 쓰레기를 땅속에 묻어버려 악취와 더러운 물이 흘러나오게 한다는지, 심지어는 숲에 인간들이 다니는 자동차 길을 내면서 동물들이 다니는 길을 내지 않으면 숲에 사는 동물들은 자동차 길로 지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죽은 새끼 너구리를 물어주겠다고 숲으로 들어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사뭇 경건해진다. 감동과 교훈과 호기심까지 있게 하는 오랜만에 좋은 책을 소개하게 되었다

글과 그림을 다시마 세이조는 1940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다마미

술대학교를 졸업했다. 소학관 그림책상,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 그래픽상, BIB 황금사과상을 수상했으며 숲을 정말 좋아하시는지 숲에 관련된 그림책이 여러 권이 있다. 그 외에도 『뛰어라 메뚜기』, 『엄청나고 신기하게 생긴 풀숲』, 『채소밭 잔치』, 『쿨쿨쿨』 등이 있다.

번역을 멋지게 한 고향옥은 일본문학을 전공하고, 일본에서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공부했으며 지금도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 봄 숲 친구들

— 유향숙(성남시관교도서관)

살랑살랑 봄바람이 인사해요 | 김은경 글 그림 | 시공주니어 | 2014  
#그림책 #유아 #초등저학년 #봄 #식물도감

아이들과 함께하는 숲 생태 이야기. 숲과의 만남은 몸 숲, 마음 숲, 영혼의 숲을 키우는 행복한 만남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으로 생기를 잃고 어른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태어나서 경쟁의 사회에 돌입하기 위한 기본기를 모두 어려서부터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친 아이들에게 숲이 가르쳐주는 천천히, 생김 대로, 활개를 펴며 사는 법을 알려주면 좋을 듯합니다. 본래 아이들은 원기, 생기가 펄펄 살아서 개구쟁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신명나게 뛰놀아야 하는데 아파트나 교실, 학원 등 딱딱하고 시끄러운 시멘트 공간에 갇혀 숲이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도식적이고, 암기식으로 외워야 하는 지식을 받고 있습니다. 설 때도 컴퓨터게임, 텔레비전, 모바일 같은 영상을 보며 지냅니다. 창공을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자라야 할 아이들을 우리는 새장에 갇혀 길들여진 새처럼 크고 있는 듯합니다.

아이들의 아픈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데 숲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아이들만이 아니지요. 어른들도 숲과 만나면 건강하고 행복해 집니다. 숲은 몸의 독소를 해소해 주며, 죽어가는 세포를 생명으로 감싸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숲은 맑고 순수하여 영혼이 깃들

어 있다는 말을 들어보시지 않았는지요. 마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작품 중에 〈바람의 계곡 나오시카나〉, 〈이웃웃 토토로〉만 봐도 영성의 숲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숲은 아이들의 결대로 살아가도록 감싸는 부모의 품과 같습니다. 숲이 가진 힘이 바로 생명력이고, 생활력이고, 면역력이고, 자연치유력입니다.

이 책은 숲과 아이들의 행복한 만남을 보다 풍성하게 해 주는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숲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숲과 아이들의 만남을 이끌어 내는 안내자, 사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뒷면에 봄에 생명의 싹을 틔우는 식물, 동물, 곤충, 열매 등의 도감형식으로 잘 그려 놓았습니다. 뒷산에 오를 때 살짝 들고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해학이 있는 도깨비 이야기

— 유향숙(성남시관교도서관)

도깨비 방망이 | 홍영우 글그림 | 보리 | 2014

#그림책 #유아 #초등저학년 #욕심

우리나라 도깨비들은 유머와 즐거움이 있는 것 같다. 괴물같이 생겼어도 마음만큼은 착하고 순하면서도 유쾌하고, 더욱이 필요한 권선징악의 중심축에 심판관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친근한 도깨비들이다. 도깨비들은 능력도 많지만 더러 ‘허당’스럽기도 하고, 큰 능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중도를 지키며 사는, 우리의 착한 이웃들의 든든한 복덩어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도깨비 방망이』이 책에서도 도깨비들은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즐겁고, 재미있으며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효성이 깊은 가난한 집 나무꾼은 부모님을 모시면서도 자신의 일을 충실히 매일 매일 성실히 수행하여 나무를 내다팔고 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개암열매가 떨어지면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계시는 부모님을 드리고 싶어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개암열매를 계속 줍다가 길을 잃고, 숲속 허름한 기와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다. 마침 도깨비들이 들어와 밤새 신명나게 놀다가 필요한 음식과 술을 도깨비 방망이로 주문한다. 그들은 그렇게 무엇이 즐거운지 어울려 놓고, 필요한 음식을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신기한 도깨비 방망이도 있다. 나무



꾼이 낮에 주운 개암을 짜~악~ 소리 내 물으니, 도깨비들은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줄행랑을 친다.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내려온 나무꾼은 ‘돈 나와라, 똑딱!’, ‘금 나와라, 똑딱!’ 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시시하지 아니한가. 꼭 나오는 욕심쟁이 부자이웃이 등장해야 이야기는 더욱 재미있어진다. 욕심쟁이 부자는 똑같이 따라하다가 오히려 한번 당한 도깨비에게 두 배로 앙갚음을 당했다는 내용에서 ‘그렇지!’하고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치게 된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박하지만 구전되는 이야기들은 착한 사람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내용이고, 그것을 욕심이 생겨서 똑같이 따라한 부자 욕심쟁이는 자신의 것도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가 났다고 하는 속이 후련한 이야기들이다. 그런 이야기들은 듣고, 들어도 질리지 않고, 계속 듣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에 착한사람은 잘되고, 나쁜 사람은 안 되게 해달라는 소박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홍영우 선생님은 1939년 일본 아이치 현에서 태어났다. 몸이 약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그림 그리는 일을 동무 삼아 어린 시절을 보냈다. 스물네 살 되던 해 우리말을 처음으로 배운 뒤 동포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책 만드는 일과 그림 그리는 일을 힘껏 해왔다. 겨레 전통 도감 『전래놀이』와 『탈춤』에 그림을 그렸고 재일동포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말 도감』을 만들기도 했다. 그 외 전통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옛이야기를 엮어 스무 권의 그림책을 만들었다. 2011년 5월에는 파주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홍영우 옛이야기 그림책전’을 열기도 했다.



## 내일은 어떤 날일까요?

— 이선희(성남시 행정지원과)

새벽이 오는 시간 | 이소을 글 | 이성표 그림 | 상상박스 | 2016  
#그림책 #영유아 #하루의변화 #오늘과내일

어른의 시간에서도 새벽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시간이다. 어떤 이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시간이고, 어떤 이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의 시간이며, 또 다른 이에게는 긴 노동의 끝에 체력을 보충하는 잠의 시간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그 내일을 준비하는 새벽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해볼지 무척 궁금하다.

저녁과 밤을 지나 만나는 새벽의 시간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은 궁금증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간이다. 설령 자고 있을지라도 새벽을 지나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이 오기 전 새벽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물어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까? 『새벽이 오는 시간』에서는 잔잔하고 차분하지만, 새벽, 시냇물, 무지개가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지 자연의 섭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아름답게 통트는 새벽은 별도 달도 잠든 깜깜한 밤을 지나 우리에게 온대.

맑고 깨끗한 시냇물은 크고 작은 돌이 무수한 길을 지나 우리에게 온대.

오색 찬란한 무지개는 세찬 빗방울이 한가득 땅을 적시고 우리에게 온대.

자연의 섭리뿐만 아니라, 희망·마음·재능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들의 의

미와 어떤 시간을 거쳐 오게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너의 동트는 희망은 눈물이 이슬 되는 시간을 지나 너에게 다가올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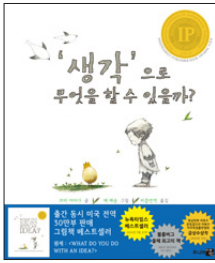
너의 지혜로운 마음은 바위가 모래 되는 시간을 지나 너에게 다가올 거야.

너의 빛나는 재능은 빗방울이 빗방울 되는 시간을 지나 너에게 다가올 거야.

어른이 되어버린 지금에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단어들을 설명할 때조차 쌓여있는 편견과 이면의 의미까지 생각하며 단숨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어느 이야기에서 다리를 다친 아이가 아빠에게 ‘저리다’는 표현을 몰라서 ‘다리가 반짝반짝하다’라고 했다는 일화를 읽고 아이들이 상상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한계가 없다고 다시금 생각했다. 이렇게 열려있는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이나 빛나는 재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주는 일도 조심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새벽이 오는 시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견뎌낸 고난과 흘린 눈물의 시간을 거쳐 돌아온다고 잔잔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림책을 읽고 읽지만 한편의 시를 읽는 것 같은 운율이 잠들기 전 아이의 머리맡에서 소곤소곤 읽어주기 좋은 책이며, 이성표 작가의 수채화 일러스트는 따뜻한 색감과 반복적이고 연결되는 느낌을 주어 더욱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 무섭고, 비가 끊임없이 내리더라도, 고난을 쉽터로 생각하고 잠시 숨을 돌리는 계기로 만들어, 모든 것을 헤치고 더욱 단단해진 찬란한 나로 커나간다는 심오한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해주는 책이다. 어둠이 깔린 새벽도 두렵기만 한 내일도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헤쳐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 세상을 바꾸는 생각

— 이영(평택시립장당도서관)

‘생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코비 아마다 글 | 매 베솜 그림 | 피플번역  
윤김 | 주니어에벳 | 2015 #그림책 #유아이상

‘어느 날, 나에게 ‘생각’이 다가왔어요.’

동그랗고 작은 알처럼 생긴 ‘생각’이 한 아이의 앞에 나타납니다. 심지어 황금색 왕관까지 쓰고 있습니다. ‘생각’이란 언제나 머릿속, 마음속에서 생겨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낯선 곳에서 불쑥 나타난 ‘생각’을 마주하며, 그렇게 당혹스럽게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생각’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낯설어 보이고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이 ‘생각’을 그냥 잊기로 합니다. 늘 곁에 맴도는 ‘생각’을 모른 척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생각’은 계속해서 아이를 따라다닙니다. 아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각’을 들킬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얘기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는 점점 더 ‘생각’을 깊은 곳에 퐁퐁 숨겨놓고 혼자서만 간직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생각’은 마법과 같은 힘을 지녔습니다. 그럴수록 ‘생각’은 점점 자라났고 더욱 더 아이와 함께 놀기를 원했습니다. 아이는 ‘생각’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더 좋아지고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지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네 ‘생각’은 별로야. 너무 이상해. 시간 낭비야.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

졌어?”라며 비웃었습니다. 아이는 사람들의 말대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할  
까도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이건 ‘내 생각’인데. ‘내 생각’에 대해 나만큼 아는 사람  
이 어디 있겠어? 남들과 다르고 이상해도, 조금은 말이 안 될지 몰라도 뭐  
어때? 괜찮아.”라고 말이죠. 아이는 ‘생각’을 보호하고, 잘 보살피 주기로  
했습니다. ‘생각’은 쑥쑥 자랐고, 아이에게 크게,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생각’  
이 긴 날개를 활짝 펼쳐 공중에 뜨더니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나에  
게만 있던 ‘생각’이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이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비난  
받지 않을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을까, 온갖 걱정을 하면서 말  
이죠. 그렇게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자기 안에서만 간직한다면 세상은 딱  
지금만큼만 살만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암울하게 변해버릴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생각은 모두 다릅니다. 물론 간혹 틀린 생  
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마저도 나와 ‘다른’ 생각의 범위  
안에 넣어주세요. 조금 더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첫 발걸음이 이 책이 될 겁니다. 고운 색감과  
부드러운 질감의 그림으로 각자의 ‘생각’을 만나보세요. 모두의 생각이 아  
름다운 날개를 펼쳐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기적 같은 일이 세상 어  
디에나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그땐 그랬지

— 이연수(수원시 일월도서관)

영자 아줌마네 양장점 | 김명희 글 | 정수 그림 | 밝은미래 | 2016

#그림책 #초등전학년 #과거와현재의시장

요즘 드라마 중 양복점을 배경으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시대가 변하여 양복점에서 옷을 맞춰 입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 폐점위기에 놓인 양복점을 살리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다. 드라마 제목을 보면서 양복점을 과연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알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차에 『영자 아줌마네 양장점』이란 책을 보게 되었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책은 언니 옷만 물려 입던 은순이에게 자신만을 위한 원피스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이다. 당시의 생활 모습을 시장을 중심으로 보여주며 어른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양장점에서 옷을 맞출 때의 일상적인 모습이나, 동생이라는 이유로 새 옷을 못 입는 은순이의 투정, 양장점에서 옷감을 고르고 가봉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은순이 모습들을 보며 ‘맞어! 그땐 그랬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쓰레기통이 놓인 골목, 미숫가루, 냉차를 파는 리어카, 하연 연기를 날리며 가는 소독차, 손잡이를 돌려야만 나오는 빙수기 등, 지금은 보기 힘든 모습 등을 정감 있게 그려놓았다. 아이들과 함께 읽다보면 아마도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엄마, 정말 그랬어?”

책장의 오른쪽 면을 따로 분할하여 시장에 대한 정보 - 시장의 역사, 시장 나들이 모습, 행상의 여러 가지,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 최초의 상설시장, 현재의 시장 형태에 관한 지식 정보를 실어 교과 연계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급변하던 1960, 1970년대 대한민국 생활사를 통해 오늘날을 재조명하는 의도로 출판하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내용이 출판되어 나올지 궁금하다.



## 와이파이존을 찾습니다~

— 이선희(성남시 행정지원과)

아빠는 접속 중 | 필립 드 케메테 지음 | 푸른숲주니어 | 2016  
#그림책 #영유아 #초등저학년 #핸드폰중독 #컴퓨터중독

요즘은 아이를 데리고 식당이나 카페에 가려면 꼭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휴대전화나 넷북 등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들이다. 이것 하나면 식당에서 아이들에게 뛰어다니지 말라고 혼낼 필요도 없고, 아이들에게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어른들끼리 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아이가 보채기 시작하면, 유니버나 유튜브에 자연스럽게 접속하여 화면을 보여준다. 영아는 화면에 집중하는 정도라면, 연령대가 올라가면 자연스러운 터치와 부모의 감시망을 피해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 더 기다리기도 하는 것 같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휴대전화에 집착하게 되는데, 한 번 습관이 되어버린 것을 나중에 끊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보통 인터넷 중독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SNS가 활발히 이용되면서 성인들도 심각한 중독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아빠는 접속 중』에서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끌어안고 사는 아빠 펭귄이 등장한다. 눈은 항상 컴퓨터를 보고 있으며, 인터넷 뉴스에 날씨 확인에 온라인 친구들의 소식을 살피느라 식사시간에도 가족들과의 대화는 없다. 아들 펭귄이 질문을 해도 컴퓨터를 하느라 대꾸가 없는 아빠 펭귄. 아들은 아빠가 접속하지 않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뿐이라고 생각한다. 놀아주지



도 않고, 대답도 없는 아빠가 사이버 아빠일까 하는 고민하는데, 친구들까지 아빠가 인터넷 중독이 아니냐고 놀린다. 어느 날 아침 인터넷 접속이 안 되자 아빠는 안절부절못하며 인터넷이 접속되는 곳을 찾기 위해 나서다 빙판이 갈라지며 똥똥 떠내려가게 된다.

『아빠는 접속 중』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걸린 아빠가 주인공이지만, 현실에서의 아빠, 엄마, 나 자신 모두의 모습을 펭귄에 빗대어 보여준다. 각자의 휴대전화에 빠져 대화가 없는 식사시간을 보내거나, 데이트를 하는 연인이 각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남극의 펭귄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꼭 닮아있어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거기에 속표지의 인터넷용어들, 이글루의 와이파이, 아이스북 친구들의 특징 등을 센스있게 조합한 그림들이 현실감각을 더욱 높여준다.

아빠 펭귄이 위협에 처했을 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것은 아빠의 수많은 아이스북의 사이버 친구들이 아니라 현실 친구인 북극곰이었다. 사이버 친구들과의 소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주변과의 소통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또한, 항상 인터넷 접속 중이어도, 빙하가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인터넷 접속을 시도하는 아빠를 있는 그대로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가족의 사랑도 느낄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 보드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익숙한 아빠 펭귄이 우리 집에도 있는 것 같다.



## 나도 가끔 이상한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다

— 이선희(성남시 행정지원과)

이상한 엄마 | 백희나 지음 | 책읽는곰 | 2016

#그림책 #초등~성인 #위로받고싶을때

우리에게 엄마는 어떤 의미일까? 사람들마다 엄마에 대한 이미지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엄마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엄마는 항상 포근함, 조건없는 사랑, 희생 등의 이미지로만 기억되는데 ‘이상한 엄마’라는 제목부터가 기존의 이미지와는 달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표지부터 얼굴이 구름에 가려진 채 앞치마를 입고 선 이상한 복장의 사람이 출입구에 서 있다. 이 사람이 이상한 엄마일까? 정말 이상하긴 하네.

선녀님이 구름에 먹을 쏟아 버린 어느 날, 호호 엄마는 호호가 아파서 조퇴했다는 연락을 받는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는 다급히 여러 연락처로 연락을 해 보지만 번번이 연결이 되지 않던 중 호호 외할머니로 추정되는 분께 급하게 호호를 부탁하게 된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집으로 온 호호. 엄마 없는 온기 없는 집을 예상하며 힘없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겼을 호호의 눈앞에 이상해 보이는 낯선 할머니가 자신을 엄마라고 생각하라며 따뜻한 말을 건넨다. 뭔가 미심쩍긴 했지만 그 따뜻함이 싫지 않았던 호호는 가만히 앉아 이상한 엄마가 해주는 이상한 계란국을 먹고, 계란프라이 하나에 따뜻함을 느끼며 계란 흰자

로 만든 구름에 아픈 몸을 누이며 편히 잠이 든다. 뒤늦게 도착한 호호 엄마는 편안히 잠든 호호에 안심하고, 호호와 엄마는 엉망진창이 된 식탁에 커다란 볶음밥을 선물 받는다.

이상한 엄마는 말 그대로 이상한 엄마이다. 입고 있는 옷도 이상하고, 구름을 만들고, 볶음밥을 만들어 주는 센스는 있지만 그것을 치워 놓지도 않고 선녀 옷도 챙기지 못한 채 급히 가버린다. 하지만 이 이상한 엄마 덕분에 아픈 호호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고, 엄마는 하루 일을 무사히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 올 수 있었다.

호호와 엄마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내는 동안 아빠는 어디 있는 걸까? 동화책을 다 읽을 때까지 아빠의 존재는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다. 현관 앞에 있는 신발과 우산에도, 호호가 그린 가족 그림에도. 비록 아빠가 없는 일상일지라도 엄마가 있다면, 그 누군가가 있어 준다면, 손 내밀어 준다면 따뜻할 것 같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만 같다.

엄마는 편안함이다, 엄마는 위로다. 비록 모든 것에 서툰 이상한 엄마일지라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매일 매일 전쟁처럼 치르고 있는 일상에, 아빠의 존재가 없는 가정에도 누군가의 작은 선의나 배려는 큰 위로와 안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백희나 작가는 스토리에 맞게 인형을 만들고, 세트와 소품을 만들어 사진을 찍는다. 그렇게 그림책의 한 컷 한 컷이 완성된다. 이런 작업 때문에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은 평면의 종이 위에 공간감이 살아나고, 장면 장면

은 현실감을 느끼게 해 준다. 이 책에서도 이상한 선녀 엄마의 모습이나 표정들, 커다랗고 노란 태양을 닮은 계란프라이에서 호호가 느끼는 따뜻함, 호호가 점점 안심하고 편안해 하는 작은 표정 변화를 우리가 좀 더 생생하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다.

나도 가끔씩 이상한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

“여보세요? 이상한 엄마, 당신이 필요해요~~”



## 우리 모두가 꽃이다

— 홍미정(화성시도서관)

거리엔 핀 꽃 | 존아노 로슨 글 | 시드니 스미스 그림 | 국민서관 | 2015  
#그림책

책장을 넘기면, 마치 소리 없는 흑백영화가 돌아가는 것처럼 장면 장면이 펼쳐진다.

주인공은 빨간 망토를 입은 어린 소녀로, 희색빛 도시에서 이 소녀만이 도드라진다. 어두운 무대 위에 소녀 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을까. 아마도 소녀는 거리에서 퇴근길 아빠를 만난 듯하다. 소녀는 아빠의 손을 잡고 걸으며 연신 거리의 풍경 이곳저곳을 탐색하고 있다. 호기심 많은 어린 소녀는 콘크리트 더미 위에 솟아오른 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상점 진열장의 물건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사자상을 보고 흠칫 놀라기도 한다. 아빠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에 여념이 없지만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 풍경에 빠져있다.

사실 이 책은 글이 없다. 글자 하나 없지만, 여주인공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책 속 풍경에 동화됨을 경험할 수 있다. 마치 담백하고 서정적인 단편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는 것처럼 읽는 흐름이 매우 매끄럽다. 이 책이 가지는 매력일지도 모르겠다.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흑백장면이 컬러로 바뀌어간다.

그 장면을 찾아보고, 모노톤의 컬러에서 화사한 색감의 컬러로 바뀐 이유에 대해 사색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유의미하겠다. 소녀를 비롯한 인물들의 표정 관찰도 놓치지 말자. 소소한 재미를 더해준다.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각각의 컷에 말풍선을 적어 넣어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아도 좋을 일이다.

기획자인 시인의 감수성에, 그림책 전문가의 섬세한 그림이 더해져 따듯하고도 감성어린 그림책이 탄생하였다. “우리 모두가 꽃이에요”하고 상냥하게 외쳐대는 작은 소녀를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자.



##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이다

— 유향숙(성남시판교도서관)

참 고마운 인생 수업 | 이사벨 미노스 마르티네스 글 | 베르나르두 카르발류 그림 | 임은숙 옮김 | 고래이야기 | 2016 #그림책 #유아~초등저학년

그림책 색감이 선명하고 강렬한 것이 좋다. 크레파스 같은 몽푹하고 두꺼운 선을 그리는 듯하지만 가는 선도 잘 살려서 생동감이 있는 듯한 그림책이다. 그러면서도 내용은 조금은 철학적인 듯 원초적이지만 쉽게 잊어 버릴 수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듯하다.

‘아빠는 내게 꼭 참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주셨어요. 엄마는 기다리는 게 늘 좋은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죠.’

기다리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늘 좋은 건 아니라니,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지만, 심오한 말인 듯하다.

‘할머니는 일분일초도 소중한 거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느긋하고 편하게 사는 게 정말 좋은 거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약간 대비되는 듯 보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하라는 건 바쁘게 살라는 것 같은데, 느긋하고 편안한 삶이 좋은 거라니, 참 알다가도 모를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 중요하고 맞는 말들이라는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 때와 장소에 따라, 문맥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고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가족, 친지를 통해, 또 자연과 이웃을 통해 끊임없이

깨달음과 배움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좋을 때가 있다는 걸 알았지요. 규칙이라는 것을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 정한 것이지만 승부에 지더라도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삼촌한테 배웠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축구를 하면서 자기책임을 다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나는 이기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축구를 통해 알았습니다. 작은 것을 눈여겨보는 법을 배우면서 어떤 것은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촌형에게서 보기 흉한 것도 나름대로 재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버스기사아저씨는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등등.

우리는 살면서 어떤 상황이나, 혹은 어떤 이에게, 바람에게, 떨어지고 튕구는 나뭇잎에게 어떤 가르침을 배웠을 겁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처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기억하는 일과 다른 상황에서도 놀라거나 처음인 것처럼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해보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소년은 결말을 더 좋게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모두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긍정적이고 세상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글을 쓴 이사벨 미노스 마르틴스는 1974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태어나 리스본 미술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내 이웃은 강아지』, 『두 가지 길』 등이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비영리단체인 ‘방코 델 리브로’에서 정하는 ‘올해 최고의 책’에 『1초 동안의 세상』이라는 책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 잠이 안 올 땐 달님과 산책해요

— 유향숙(성남시판교도서관)

달님의 산책 | 김삼현 글그림 | 푸른숲주니어 | 2016  
#그림책 #유아 #잠이안올때

서정적이면서도 시적인 표현이 멋진 책이다.

‘강가를 살금살금 지나가는데 달님 얼굴이 강물에 비쳐 보였어요

“앗, 깜짝이야!”

달님은 깜짝 놀라서 또 반짝 반짝 빛났어요’

팔딱이는 개구리와 연잎들, 연못가의 잡초들과 들성들성 나무들과 크고 둥글며 하얀 아이얼굴을 한 달님과 푸르스름한 밤의 빛을 잘 표현해 주었다.

달님의 산책은 밤이 다가도록 이어질 것 같다.

어린 오리들이 엄마 오리를 따라 잘 집으로 들어가도록 앞길을 밝혀주고, 잃어버린 아기토끼를 엄마토끼가 찾아보기 쉽게 밝혀주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밤이 깊어 모두들 집에 들어가고 심심해진 달님은 밤이 즐거운 고양이들이 마실을 나와 달님에게 베틀 해주고 있는 장면도 역시나 아름답다.

‘끼룩 끼룩’ 기러기들이 멀리 떠나가는 깊은 밤하늘에 하얀 달님은 ‘잘가’라고 배웅을 하며 한없이 따라가는 듯 그림을 그렸다.

이 책을 다 읽으면 아름다운 동시를 읽은 듯한 느낌이 든다. 어린 시절로

혹~하고 돌아가는 마법의 주문 같다. 참고로 이 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6년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이다.

김삼현 작가는 전북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하고, 뉴욕에 있는 SAV(School of Visual Arts)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 『한국의 궁궐, 경복궁에 가면』, 『한국사를 뒤흔든 열명의 예술가』 등 역사관련 어린이 그림책을 그렸다. 쓰고, 그린 그림책으로는 『그림을 그려 봐』, 『배고픈 꿈이』 등이 있으니 같이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 나만 아는 소중한 친구

— 이선희(성남시 행정지원과)

안녕, 외톨이 | 신민재 글그림 | 책읽는곰 | 2016

#그림책 #영유아~초등저학년 #친구고민 #나만의친구

스산한 분위기에 표지 여주인공과 수목이 어우러진 『안녕, 외톨이』라는 제목에 매료되어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나에게도 외톨이시간이 있었고, 지금 돌아보면 이 시간들이 나의 속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한창 교우관계로 자아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외톨이시간이 고통의 시간일 것이다. 특히 사는 곳이나 학원으로 묶여진 관계들이 많고, 맞벌이가정이 많은 요즘 아이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우울한 시간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외톨이'란 단어가 마음에 박혀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졌다.

주인공 나는 동우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지내고 있다. 아무리 그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가방도 들어주며 따라다녀도, 동우 패거리들은 나를 '찌질이'라고 놀리며 괴롭히기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귀신이 살지도 모른다는 마을의 버드나무에 빨간 끈을 묶으면 축구도 하고 같이 놀아준다고 동우는 제안한다. 나는 진짜 귀신이 있다면 날 괴롭히는 저 녀석들을 진작 혼내주었을 거라 믿지만, 나의 용감함도 보여주고 싶고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비 오는 날 버드나무로 향한다.

그런데, 으스스한 버드나무 아래 누구지? 귀신인가? 혼자서 잔뜩 겁

먹을 얼굴로 눈물을 찢끔 흘리고 있는 작고 마른 친구를 만나게 된다. 집에도 학교에도 가기 싫은 두 아이는 함께 재미나게 놀기 시작한다. 그 아이와 친구가 된 나의 마음은 괴롭히는 동우 패거리들의 놀림에도 단단해진다.

이제 애들이 날 찢질이라 불리도 아무렇지 않아.

아무리 못살게 굴어도 참을 수 있어.

나랑 놀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조금 있으면 그 애랑 같이 놀 수 있으니까.

그 애가 내 애길 다 들어줄 테니까.

내 편이 되어 줄 테니까.

작가는 어릴 적 마음이 힘들 때 혼자 보는 일기장에 고자질을 했다고 한다. 진짜 친구를 만나는 건 어렵지만 간절히 바라면 만나게 된다고 믿는다는 작가는 그게 일기장이든 동물이든 무생물이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만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작고 마르고 집에 가기 싫어하는 친구는 나처럼 외톨이일까? 진짜 버드나무 귀신일까? 아니면, 진정한 친구를 원하는 주인공 나가 투영된 또 다른 나일까?



## 크리스마스트리 꼭대기의 행방

— 홍미정(화성시도서관)

커다란 크리스마스트리가 있었는데 | 로버트 배리 글 | 그림 | 김영진 옮김 | 길벗어린이 | 2014 #그림책

월로비 씨의 대저택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배달되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커다랗고 싱싱한 초록 나무를 보고 월로비 씨는 ‘멋지다’를 연발합니다. 월로비 씨는 거실 한쪽에 이 나무를 세워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밀 생각이죠. 아! 그런데 이를 어찌면 좋을까요? 거실에 나무를 세웠는데 나무 꼭대기가 천장에 닿아 그만 꺾이고 말았어요. 월로비 씨는 집사를 시켜 나무 꼭대기를 멩강 잘라냅니다. 그리고 집사와 함께 크리스마스트리를 멋지게 장식하지요.

이야기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잘려진 나무 꼭대기로부터 크리스마스트리 이야기는 계속 펼쳐집니다. 잘려진 나무 꼭대기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 작가 ‘로버트 배리’의 『커다란 크리스마스트리가 있었는데』는 1963년에 처음 출간된, 어린이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크리스마스 책으로, 2000년에는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운율이 느껴지는 단순 반복적인 이야기 구조, 다양하고 재미난 의성어와 의태어 표현, 간결하고도 친근한 그림체, 다양한 동물캐릭터의 등장 등은 어린이들의 흥미와 눈길을 충분히 사로잡고도 남을 만합니다. 또한 이야기의 주제를 전

하는 방식 또한 드러내놓고 강요하기보다는, 작가 특유의 위트와 유머로 잔잔하게 풀어내고 있어 더욱 가슴 깊이 전해옵니다.

우리 함께 월로비 씨의 크리스마스트리 이동 경로를 유심히 따라가 보아요. 월로비 씨 트리의 제일 꼭대기 부분은 결국 어느 장소로 이동했을까요?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커다란 크리스마스트리가 있었는데』를 펼쳐 보세요. 그림책 마지막 장에서 정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딱 어울리는, 따뜻하고도 행복한 그림책입니다.



## 텃빈냉장고가 모이면

— 이가영(평택시립안중도서관)

텃빈냉장고 | 가예탕 도레뒤스 글그림 | 한솔수북 | 2015  
#그림책 #5~7세 #배려 #협동심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각자의 일터로 나가 바쁘게 일을 하고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일 수 있지만 우리는 가족이나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행복한 저녁식사를 위해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예탕 도레뒤스의 『텃빈냉장고』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동화이다.

지금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텃빈냉장고는 남의 일 만은 아니다. 우리 집도, 옆집도, 윗집도, 아랫집도 우리 집처럼 냉장고가 텃빈이었다는 사실은 한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사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가 된다. 1층에 살고 있는 앙드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꼭대기에 살고 있는 로진 할머니 집까지 찾아다니며 집에 있는 식재료를 모으는 모습이 그려질 수 있는 이유 또한 이웃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우리 집 냉장고에 무엇이 있는지, 내 이웃들은 어떤 것을 먹고 살아가는지 살필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텃빈냉장고 덕에 나를, 우리를 돌아보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텅 빈 냉장고』의 판형도 냉장고처럼 위아래로 길쭉한 모양이다. 책 표지에 이웃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5층으로 되어있어 냉장고의 느낌을 더해주고 있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처음에는 검은색 테두리만 그려진 그림으로 시작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냉장고 속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색도 하나씩 늘어나서 그려진다. 앙드레 할아버지가 가져온 주황색의 당근, 나빌 아저씨가 갖고 있는 달걀과 치즈의 노란색, 뤼시 아주머니가 가져온 초록색의 피망과 쪽파, 클레르 아가씨의 빨간색 토마토, 로진 할머니가 갖고 있는 하얀색의 버터, 우유, 밀가루. 이렇게 1층, 2층, 3층 계속 올라가면서 각각의 이웃이 갖고 있는 음식의 색깔대로 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이웃간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책의 이야기를 좀 더 즐겁게 즐길 수 있게 해준다.

『텅 빈 냉장고』는 2015년 볼로냐 라가치상에서 Book&Seed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 화가 호레이스 피핀의 일생

— 공정자(안성시 진사도서관)

눈부신 빨강 | 젠 브라이언트 글 | 멜리사 스위트 그림 | 이혜선 옮김 | 봄나무 |  
2014 #인물그림책 #초등저학년 #화가 #호레이스피핀

미국 현대미술가 호레이스 피핀의 삶과 예술을 다룬 위인 그림책이다.

1888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 호레이스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어디서든지 그림을 그렸다. 호레이스는 제1차 세계대전에 군인으로 전쟁에서 어깨를 다쳐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다가 다친 오른손을 왼손으로 받치며 다시 그림을 그린다. 그는 어렸을 때 그림 물감을 상으로 받은 지 40년 뒤 그의 그림이 우수함을 알아본 유명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첫 전시회를 갖게 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호레이스는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으며 어깨의 부상으로 오른손을 못 쓰게 되었지만 전쟁의 아픈 상처를 딛고 날마다 연습하여 다시 왼손을 받쳐서 그림을 그렸던 그의 삶이 감동적이다.

“호기심이 많고 관찰력이 뛰어났던 피핀은 거의 모든 곳에서 그림의 소재를 찾았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 가족 이야기, 역사적 사건, 사진, 영화, 시사 문제, 성경을 비롯해 자기가 사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웨스트체스터 지역을 토대로도 140여 작품을 그렸지요. 색깔과 형태와 구도를 능숙하게 다뤘다는 점이 피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요.”

이 책은 작가의 소개와 함께 책의 말미에는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생각하는 호레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흥미를 더한다. 작가들이 이 작품을 쓰기 위해 호레이스 피핀이 살았던 장소도 가보고 그가 그린 그림도 함께 보며 정성을 들인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이외에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참고한 도서와 영화, 웹 사이트, 인용문 출처를 수록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더했다.

뒷면지에는 호레이스가 그린 작품들이 미국 전역에 있다는 것을 소개하며 몇 개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중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부분은 호레이스가 전쟁터에서 오른쪽 어깨를 다친 고통의 분위기를 잘 표현했으며 그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하다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왼손으로 오른쪽을 받치고 부지깡이로 다시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큰 손을 그린 그림도 인상적이다.

이 책의 작가 쟈 브라이언트와 멜리사 스위트가 <시가 흐르는 강>으루 이미 칼데콧 아너 상을 받았다. 이 책은 미국도서관협회에서 우수한 정보 책에 시상하는 2014년 로버트 F. 시버트 아너상을 수상했다.



## 존경하고 사랑해마지 않는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 공정자(안성시 진사도서관)

존경합니다, 선생님 | 패트리샤 폴라코 지음 | 유수아 옮김 | 아이세움 | 2015  
#그림책 #초등저학년 #존경하는선생님

우리나라에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출판되어 널리 알려진 작가 패트리샤 폴라코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잘 풀어내는 재주가 있다. 출판사의 작가 소개에도 “마음을 파고들면서도 따스한 동화를 만들 줄 아는,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난 이야기꾼이자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작가를 소개한다.

이야기는 주인공인 내가 글쓰기 반에 들어가게 되면서 시작한다. 악명 높은 켈러 선생님의 매번 쉽지 않은 과제로 수업이 힘겹다. 글쓰기 수업으로 어렵고 슬픈 마음이 들 때마다 술로스 할아버지는 나를 격려해 주고 아들이 쓰던 유의어사전을 주고 켈러 선생님 덕분에 자신의 아들이 유명한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도 들려준다. 글쓰기 수업이 끝나갈 무렵 켈러 선생님은 마지막 과제로 점수를 평가할 거라고 알려주고 나에게 감정이 잘 표현된 실제 이야기를 주문한다. 아직 마지막 과제를 못 정한 상태에서 갑자기 술로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나는 너무 슬펐다.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빵을 만들던 일, 할아버지의 요리사복과 스카프를 보고 그날 나는 거침없이 글을 써서 과제로 제출한다. 글쓰기 반에서 나는 처음으로 켈러 선생님께서 A학점을 받는 학생이 된다.

인생에서 존경스러운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다. 책의 뒤표지에 패트리샤 폴라코는 “아이들은 자라는 동안 그 누구보다도 선생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 주는 사람은 바로 선생님이지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평생 간직하고 진정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께 감사해야 합니다”고 자신의 의견을 썼다.

패트리샤의 경험이 잘 드러난 이야기와 인물의 감정이 잘 드러난 그림이 인상적이다. 이 책의 내용 끝에 작가는 ‘존경하고 사랑해마지 않는’ 두 분이라며 어른들의 존경하는 마음도 표현되었다. 그림에서도 실제 이야기의 경험이 잘 녹아들어 있다. 켈러 선생님과 첫 수업을 받을 때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칠 때 반 아이들이 고개를 뒤로 일제히 한 모습에서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이 잘 표현되었고 슬로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검은색을 사용하여 그림 가득 슬픔의 감정을 잘 드러내었다.

작가의 선생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고맙습니다, 선생님』(1998)이 국내에서 2001년도에 출판된 바 있다. 이 책은 글을 잘 읽지 못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던 작가가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 주고 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 폴커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잘 드러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은 2015년에 출판되자마자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 원제는 “AN A FROM MISS KELLER”이다. 글을 읽다보면 글쓰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양한 유의어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든지, 글이 독창적이어야 하고 낱말에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는 글쓰기 방법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



##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

— 오은아(남양주시 오남도서관)

해소녀 | 고희선 글 | 이영경 그림 | 나한기획 | 2013  
#그림책 #초등고학년이상

‘밤의 나라’ 임금님은 창백한 얼굴, 떨시하고 조롱하는 눈빛, 차가운 숨결, 그리고 비정한 손길로 사람들을 다스렸다. 메마른 땅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았고, 꽃도 피지 않았으며 곡식도 말라 죽어버렸다. 황량한 밤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짓밟았다. 임금님은 “호호호, 버리지 같은 것들, 잘 한다. 세상이 다 그런 거야”라며 비웃는다. 그 모습을 본 달 어머니와 별 아가씨, 구름 할아버지와 바람 청년은 밤의 나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해소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왜 하필 ‘해’소녀였을까?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해’여야만 하는 이유, 그 무엇에도 가려지지 않는 강력한 빛을 스스로 내뿜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 무지하고 연약한 군중

해소녀의 사랑과 돌봄으로 밤의 나라에는 온기가 충만해졌다. 꽃과 나무, 열매가 자랐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위하면서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해소녀가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해 나타난 마녀라는 소문이 돌자 겁에 질린 사람들은 해소녀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군중의 단합력은 해소녀가 정말로 마녀라는 여론을 만들어내고 갈수록 심해지는 괴롭힘에 해소녀는 피투성이가 되고 만다.

이야기의 전반부에서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던 해소녀의 얼굴은 후반부에 이르자 딱딱한 직선의 형태로 포현된다. 좌우 대칭구도로 그려진 해소녀와 밤의 나라 임금의 옆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자. 해소녀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빛나고 있는 몇 올의 머리카락을 제외하고는 제 빛깔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검고 탁한 얼굴빛과 곳곳에 자리 잡은 직선이 냉정한 밤의 임금과 닮아있다. 그 둘은 서로를 응시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처음에는 자신들을 구하러 온 해소녀의 온기에 환호했던 사람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가십거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그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비틀리고 부풀려져 마침내 해소녀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만다. 자기 판단력이 없는 개인은 작은 가십거리에도 공포를 느끼며 쉽게 동조한다. 빛과 온기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 해소녀의 고귀한 희생정신

“해소녀는 자신을 꾀꾀 묶고 있던 어둠을 한껏 들이마시고 깊고도 깊은 저 푸른 바닷속으로 점점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을 키웠던 지혜와 생명의 저 깊은 바닷속으로…….” (p. 52)

해소녀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줄기 빛마저 어둠으로 변하기 전에 자신을 둘러싼 모든 어둠을 끌어안고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로 결심한다. 해소녀가 사라진 밤의 나라에는 짙은 회색 빛 절망과 어둠이 가득 찼다.

“가장 어두운 어둠이 내려앉을 때, 가장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법” (p. 56)

그 순간 바닷속에서 찬란한 빛이 터져 나와 온 세상을 환히 비춘다. 이것은 어쩌면 해가 뜨고 지는, 그리고 해가 지고 다시 떠오르는 자연의 순환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른다. 가장 차고 어두운 새벽은 동이 트기 직전의 시간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태어난 빛은 멀리 뻗어나가 사람들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마침내 밤의 나라 임금님의 얼굴마저 생기가 돌게 만들었다. 해소녀의 희생과 포용이 만들어낸 찬란한 빛은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밤의 나라에 가득한 빛은 해소녀가 뿜어내는 것을 반사하여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해소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되살아난 빛이기 때문이다. 작품 전반부에서 검은 그림자 형태였던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뿜어내는 색깔들로 생동감이 넘쳐난다.

#### 『해소녀』를 통해 본 인간 내면의 양면성

작품을 읽다보면 해소녀와 밤의 나라 임금님, 즉 빛과 어둠을 대립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둘은 다르면서도 닮아있는데다가 상대방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모순적인 관계성을 보인다. 인간도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간다. 이 작품을 한 인간의 내면세계로 옮겨보자면 ‘그림자’로 표현된 우매한 민중들은 빛과 어둠 사이에서 끊임없이 번민하는 현대인의 파우스트적 자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치열한 싸움의 결말은 어느 한 쪽의 승리가 아니다. 해소녀가 어둠을 들이마시고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뒤에 가장 찬란한 빛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안에 빛뿐만 아니라 어둠 역시도 존재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이 둘을 통합해나가는 것, 바로 진정한 자아실현의 과정이다.

## 작품 이모저모

일반적으로 동양의 음양사상에 따라 ‘양’은 남성적 이미지, ‘음’은 여성적 이미지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해, 밝음, 빛, 따뜻함, 아침 등의 양적인 이미지는 여성의 모습으로, 차가움, 어두움, 밤 등의 음적인 이미지는 남성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다. 괴롭힘 당하고 상처 입은 해소녀, 우매한 군중들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해소녀를 몰아내려고 하는 밤의 나라 임금님, 그리고 판단력 없이 휘둘리다가 나중에는 ‘희생자’ 자체를 유희거리로 삼는 군중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해석이겠지만 자칫 따돌림이나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다수를 위해 인내하고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 작품이 상처가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잠재적 방관자인 불특정 다수의 깨어있는 눈과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다.





## 아무리 어른이라고 소시지를 두 개씩이나 먹어도 돼요?

— 이민혜(양평군립도서관)

불만이 있어요 | 요시타케 신스케 글그림 | 봄나무 | 2016

#그림책 #성인 #육아

표지에 팔짱을 낀 자세로 잔뜩 불만에 차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와 “불만이 있어요”라는 이 책의 제목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지만 아이는 뭐든지 제멋대로 하는 어른들의 행동들에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어렸을 적 누구나 한번쯤은 부모님께 혹은 선생님께 나아가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경험이 있다.

“왜 어른들은 밤늦도록 안자면서 아이들한테만 일찍 자라 하는가”라든지 “왜 아이들은 잠자기 전에 과자를 먹으면 안 되는가”라든지 “동생이 잘 못했는데도 왜 나만 혼내는가” 등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뤄진 사회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질문들이지만, 주인공인 어린이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하다.

삽화 특유의 익살스럽지만 사랑스러운 그림체를 통해서도 직감할 수 있겠지만 아이의 의구심들에 대한 아빠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상상 이상이다. 식사를 위한 접시에 아이 앞에는 소시지를 하나만 아빠 앞에는 두 개를 놓아두자 아이는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소시지를 두 개씩이나 먹어도 돼요?”라고 질문하자 아빠는 “어른 안에는 아이가 들어 있는데 어른인 아빠하고 아이인 아빠가 소시지를 하나씩 나눠 먹느라고 그래”라며 아이를 이해시킨다. 여기에 배치된 삽화는 익살의 절정으로 소시지를 먹으려

는 어른아빠의 거대한 뱃속에 아기아빠가 동일한 자세로 소시지를 먹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아빠의 기발하고 양증맞은 답변과 어우러져 웃음을 자아낸다.

이어지는 아이의 질문에도 아빠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능청스러운 답변들로 아이의 불만을 누그러뜨린다. 하지만 아이의 빗발치는 불만 세례에 대답하다 지친 아빠 역시 아이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쉬는 날에는 꼭두새벽같이 일어나 아빠를 흔들어 깨우면서 왜 학교 가는 날에는 몇 번을 깨워도 안 일어나니?” 이에 갑자기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스트레스를 풀듯 불만을 쏟아 붙이던 아이는 어디 갔냐는 듯 급 ‘심청이모드’로 돌변한다. “학교 가는 날 아침에만 꿈속에 나타나는 신령님이 있는데, 늘 똑같은 소원을 비느라 잠을 깨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 아빠에 그 아이다.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자신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생각해보지 않게 된다. 아이와 나와의 관계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아이와 좀 더 정서적 유대감을 쌓고 싶은 이들은 이 책을 아이와 함께 읽으며 공유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그리는 대로 될 수 있다면

— 공정자(안성시 진사도서관)

영똥맨 크레파스 | 미야니시 타츠야 그림 | 달리 | 2016  
#그림책 #영유아 #크레파스 #유머

대부분 그림책에 유머가 넘치는 미야니시 타츠야의 최근 작품이다. <영똥맨 크레파스>는 어린이들이 글을 배우기 전 그림을 먼저 그릴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크레파스를 소재로 하였다.

영똥맨은 그림을 그리는 대로 얼굴이 바뀌는 크레파스를 발명했다. 온 세상을 영똥하게 만드는게 소원인 영똥맨은 전 세계 유치원마다 신발장 안에 자신이 발명한 크레파스를 넣고 온다. 크레파스를 받은 어린이가 토끼를 그리면 토끼 얼굴, 로봇을 그리면 로봇 얼굴로 바뀐다. 선생님은 공주 그림을 그렸더니 예쁜 공주가 된다. 결국 영똥맨의 얼굴도 크레파스로 꽃을 그리자 꽃으로 변한다. 영똥맨은 자신의 얼굴을 되찾고 싶은 친구들의 소원대로 염소 로봇을 만들어 자신이 그린 그림을 염소에게 먹게 해서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다음에는 훨씬 더 영똥한 걸 만들겠다는 영똥맨의 계획은 성공할까?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크레파스를 소재로 상상력이 넘치는 재미난 이야기가 즐거움을 준다.

그림책의 이야기는 본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그림으로 앞표지에서 뒤표지까지 이야기를 전달한다. 앞표지에 영똥맨의 흡쇼핑 광고가 나오고 뒤표지에는 영똥맨이 '다음 발명품을 기대하세요!' 로 마

무리되며, 뼈다귀를 그린 강아지의 얼굴이 뼈다귀로 바뀌있는 그림으로 끝까지 웃음을 준다. 타이틀 화면 전부터 ‘엉뚱한 크레파스’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뉴스로 시작

한다. 중간에 나오는 방송에는 아나운서도 고양이로 변한 얼굴로 전세계 어린이들이 크레파스 때문에 이상하게 변했다고 방송한다. 매 그림마다 엉뚱맨이 항상 등장하며 면지에는 엉뚱맨표 크레파스가 그려져 있다. 어린이들에게 읽어주기도 좋은 책이다.

작가의 다른 작품 <우와! 신기한 사탕이다>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책이다. 이 책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을 소재로 하였다. 주인공은 분홍색 돼지가 파란 사탕, 흰 사탕, 초록 사탕을 먹을 때마다 신기한 능력을 갖게 되고 사탕이 녹으면 다시 평범한 돼지로 돌아오게 된다. 늑대로 변신하여 친구를 골려주다가 진짜 늑대 소굴로 가게 된 돼지가 마지막 흰 사탕을 먹고 위험에서 빠져 나온 이야기처럼 <엉뚱한 크레파스>도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비슷하다.

작가 미야니시 타츠야의 공룡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고녀석 맛있겠다>는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고녀석 맛있겠다>와 같이 작가의 작품 속에는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다가 약자의 강자에 대한 배려와 신뢰로 강자 입장의 주인공이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이 종종 나타나 인생의 가치를 그림책에서 잘 드러낸다. 작가의 작품 중 <찬성>,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 <우와 신기한 사탕이다>는 분홍 돼지와 늑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최근에는 <나의 영웅 대디맨>에서 아빠를 소재로, <처음 만나는 수학 그림책>은 수세기를 주제로 최근에도 많은 작품을 쓰는 작가이다. 개인적으로 작가의 새로운 책을 접할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기대되는 작가 중 한명이다.



## 외로움도 소중한

— 이선희(성남시 행정지원과)

혼자가 아닌 날 | 구오징 글그림 | 미디어창비 | 2016  
#그림책 #유아~일반 #외로움

이 책은 글이 없이, 어떠한 채색 없이 수많은 그림으로만 한 권 가득 채워진다. 출간 당시 미국에서 2016 미국도서관협회 주목할 도서, 뉴욕타임스 올해의 베스트 그림책 등 각종 단체에서 상을 받고 주요 도서로 선정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글자는 없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섬세한 그림들이 우리를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이야기 속으로 안내한다.

엄마 아빠가 출근한 어느 날 아침, 혼자 노는 놀이에 지친 아이는 가족 앨범을 한참이나 보다가 ‘할머니 만나러 감’이라는 메모만 남겨둔 채 집을 나선다. 버스를 타다 스스로 잠이 든 아이는 그만 낮선 곳에 내리게 된다. 홀로 남겨진 아이는 숲속에서 자신을 알고 있는 듯한 사슴을 만나면서 신나고 따뜻한 모험이 시작된다.

흑백의 배경에 눈이 내리고, 사슴이 등장하면 외롭게 혼자였던 아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아이가 외출하며 작은 지갑에 챙긴 사슴인형, 장난감 인형은 아이의 환상에서 친구가 되고 든든한 길잡이가 된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 돌아갈 시간이 된 아이는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집으로 가고, 잠든 아이의 옆엔 모험 내내 친구가 되어 주었던 작은 사슴 인형이 아이를 지켜준다.

맞벌이하는 부모님이 집을 나서면 아이는 외로운 시간들을 견뎌내야 한다. 혼자 있다 보면 심심하고, 울적하고, 또한 불안하기도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고, 그것이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듯 하다. 쓸쓸하게 처져 있지 않고, 아이는 씩씩하게 할머니의 집을 찾아 길을 나선다. 아이의 얼굴은 설렘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있고,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친구들과 신나게 놀 때의 즐거움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장면 장면은 몽환적이고 따뜻하다.

아이이든 어른이든 누구에게나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스며들거나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럴 때 내 곁에 남겨진 작은 물건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된다는 걸 따뜻하고 섬세한 그림으로 이야기한다. 재미난 글도 없고, 알록달록 화려한 색채의 그림책이 아니더라도 찬찬히 책을 읽다보면 뽀족해졌던 마음이 포근한 이불에 안기는 것처럼 따뜻해지는 것만 같다.

작가 구오징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었던 중국의 한 자녀 정책 때 외동아이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기를 좋아했고, 미술을 공부한 뒤 비디오 게임과 만화 영화의 미술 작업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구오징은 자신의 작품 스타일을 순하고, 부드러우며, 모든 감정을 표현한다고 말하는데, 데뷔작인 『혼자가 아닌 날』로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자전적 경험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담아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제주4·3을 기억하다

— 박지원(안성시립공도도서관)

나무도장 | 권윤덕 지음 | 평화출판은책 | 2016

#그림책 #초등고학년

---

책의 시작은 평화롭다. 주인공 시리는 제사 준비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 길을 나선다. 어머니는 반들반들 손때가 묻은 나무도장을 주머니에 넣고 나선다. 어머니가 향한 곳은 산자락 우거진 검불 아래의 작은 동굴 구멍이었다. 그렇게 시리는 어머니와 함께 동굴 구멍 안으로 들어간다. 어머니는 동굴 깊숙이 깨진 그릇들이 있는 곳으로 향한 뒤, 시리 손을 잡고 가만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 때부터의 이야기. 해방되고 일본군이 물러난 자리에 미군이 들어오고, 총소리가 난 뒤로는 육지 경찰이 들어오고, 서북 청년단이라는 단체가 몰려오고, 무자년 난리 이후로 육지 군인들까지 들어왔다며 운을 뗐다.

가을걷이가 끝난 어느 날, 군인들로부터 빨갱이 가족이라는 칭호를 뒤집어 쓴 채 한 가족이 타죽거나, 총에 맞아 죽은 것을 시작으로 군인들은 보이는 족족 빨갱이라며 죽어버렸다. 숨어 지낸 사람들도 모두 빨갱이 취급하고, 밤에는 산사람들이 내려와 경찰의 앞잡이라며 먹을 것을 앗아가고 사람들을 죽창으로 찌르는 등 험악한 짓을 일삼았다. 또 어느 날은 군인들이 사람들을 학교 운동장으로 모아서는 빨갱이라고 잡아가 버렸다. 어

머니는 외삼촌이 경찰이라서 살아남았지만. 외삼촌 같은 경찰과 군인들은 길잡이를 내세워 한라산을 샅샅이 뒤지며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다. 그리고 또 어느 날, 경찰과 군인들은 작은 동굴을 찾아내었는데 동굴 깊숙한 곳에서 잡은 한 노인을 인질 삼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알아낸다. 결국 그 동굴 안에서 잡아 나온 사람들을 전부 밧담 앞에 세워 총으로 쏘 죽여 버린다. 사람들의 주검 사이 꼬물꼬물 아이 하나가 움직인다. 날이 어둑해졌을 때, 외삼촌과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그 밧으로 가서는 주인공인 시리를 데려온다.

시리가 가지고 있던 나무도장은 시리의 생모의 것이다. 이야기를 전부 들은 시리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사 준비를 위해 다시 서둘러 동굴 밖으로 나간다.

이 책은 우리가 잘 모르는 4·3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림책으로 접하기엔 조금은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으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풀어야 하는 숙제와도 같은 이야기이다. 우리 역사 속 불행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엄마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리의 모습은 보는 이의 심금을 울린다.





## 혼자 못 하면 나하고 하지

— 이수경(평택시립장당도서관)

천하태평 금금이의 치매 엄마 간병기 | 김혜원 글 | 이영경 그림 | 한겨레아  
이들 | 2014 #그림책 #초등저학년~성인

저그 ‘충청 전라 어름에’ 사는 부지런한 쪼글 할매와 ‘놀고먹고 싸는 것만 으뜸’인 딸래미, 쪼글 할매는 “똥오줌을 잘도 누니 농사꾼의 딸이로다, 똥거름이 풍년이니 올 농사는 풍년일세.” 노래를 불러. 쪼글 할매는 금금이가 공부 잘 한다고, 말 잘 듣는다고 사랑하는 게 아녀. 지극정성 빌어 얻은 아이라 그저 귀한 거여. 금금이는 조금 알미워. 쪼글 할매는 여기 저기, 요기조기 다니며 부지런히 쓸고 닦는데 금금이는 암 것도 안하고 크지도 않아.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쪼글 할매 병이 났는데,  
깜박증이 요란하여 깜박깜박 뒤죽박죽,  
쌀 찾다가 바닥 쓸고 바닥 쓸다 텃밭 매고  
밭 매다가 말뚝 박고 말뚝 박다 거름 주고  
거름 넣고 불을 때서 매운 연기만 몽클몽클 피워 올리네.  
어쩔거나 쪼글 할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밥도 하나 못 허고, 죽을 일만 남었네.”  
금금이 이 말 듣고 부스스 일어나며,  
“혼자 못 하면 나하고 하지.”

어머, 금금이가 일어나서 밥도 하고, 물도 길고, 빨래도 해. 점점 병이 깊어가는 쪼글 할매 정신이 ‘들락날락 날락들락’하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놀고먹고 싸는 것만 으뜸’인 금금이가 어매를 찾아 ‘갈딱고개 넘고, 풍당샘을 지나’ 강가까지 왔어. 어매를 그리는 마음 때문인가? 워매, 금금이 가 ‘텃밭에 푸성귀처럼 쑥쑥이 자라나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나는 존재인가 봐. 우리 금금이, 쪼글 어매 찾아 세상을 방랑하며 어른이 되니 어매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 밥을 지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누군가를 먹이는 일인가 봐. 배고픈 사람을 위해 몸과 마음으로 다해 정성껏 짓는 밥. 배고픈 사람을 위해 짓는 밥이 쪼글 할매를 찾게 해줬어.

‘얼씨구야 절씨구 우리 어매를 찾았네’

“둥둥둥 우리 어매 어화둥둥 우리 어매 오즘 싸서 이쁘고 똥을 싸서 이쁘고,

어매도 나 키울 제 내가 이리 이뻐던가, 똥거름이 풍년이니 올 농사는 풍년일세.“

이제 금금이 가 노래를 불러. 금금이는 쪼글 할매를 돌보면서 성장하네.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사회가 쪼글 할매처럼 병든 사람들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어. 저 멀리 스웨덴은 갑자기 장애인인 된 사람과 가족을 위해 지역 정부가 집도 고쳐준다고 해. 휠체어를 쓸 수 있게 해준대. 쪼글 할매와 금금을 위해 우리 사회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이 그림책 보고 평평 울었어, 사람들이 왜 울었냐고 나를 놀려, 어느 대목에서 울음이 나왔을까? ‘얼똥아기’가 된 쪼글 할매 ‘놀고먹고 싸는 것만

으뜸'이지만 금금이는 어매를 위해 노래를 불러. 쓸모에 상관없이 우린 그냥 귀한 존재야. 요즘 경쟁이 치열하고 생존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어. 병든 어매 간병하는 금금이, '얼똥아기'가 된 쪼글 할매, 쓸모에 민감한 나, 독서는 三讀삼독인가봐. 내용을 읽고, 저자를 읽고, 나를 읽어야 한대. 그림책 보며 쓸모에 집착하는 내 마음을 보게 됐어.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떻게 볼까 궁금하네. 읽고 얘기 나눠 봐요.

'쓸모'라는 잣대로만 세상이 움직인다면 얼마나 쓸쓸할까요? 쪼글 할매와 금금이의 파란만장 천하태평 간병기 우리 함께 보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 이토록 단단한 이별 뒤에, 회파람을 불다

— 이수경(평택시립장당도서관)

우리 가족 | 하세가와 슈헤이 글 그림 | 문학과지성사 | 2016  
#그림책 #초등전학년~성인

고등학생들과 독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다보니 다섯 아이 모두 남학생. 알파고와 이세돌의 충격적인(?) 바둑 대결 이후라 로봇의 시대를 주제로 이야기하는데 한 아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이제 막 사귀 여자 친구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묻습니다.

‘여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죠?’, ‘여학생들은 이렇게 한 대요, 맞죠 맞죠?’

몇 년 전이라면 이런 저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남자, 여자로 나눠 ‘남자는 ~다’, ‘여자는 ~다’ 라는 말이 가능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도서관 인문학 강좌에 오셨던 거창고등학교 전성은 교장은 “사랑의 정의를 해보라고 하면 침대는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것, 이십대는 편한 느낌, 정작 삼십대는 심오한 사랑의 정의를 말할 것 같지만 잘 모르겠다가 대다수”라고 말하십니다.

그만큼 사랑과 관계는 출구 없는 미로, 출구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어른이 되었다할 수 있겠지요.

“문제는 친구들의 말도, 내 말도 아니고 여자 친구의 마음, 니 마음 아닌가? 여자 친구가 뭘 원하는지 지켜보면 어때?”

제 말이 아이에게 가 닿을 수 있을까요? 질문한 아이는 이 세상에 사랑과 관계에 대한 분명한 ‘정답’이 있다고 확신하는 듯합니다. 삶에, 사랑에, 관계에 정답이 없어서 더 슬프기도, 어떤 때는 힘이 조금(조금입니다) 나기도 합니다.

하세가와 슈헤이의 『우리 가족』은 관계의 피할 수 없는 뒷면, 이별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쿨’합니다.

“아빠, 난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하는 거 바라지 않아. 아빠는 그냥 아빠였으면 좋겠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이 말을 하는 아이의 곁에는 엄마가 없나봅니다.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이는 아빠가 만든 카레가 엄마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너무 애쓰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뭘 해 본 적 없고 모르는 게 많다고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떠나고 아이와 아빠만 남은 상황은 분명 쓸쓸한데 온통 초록인 그림은 차분합니다. 아이와 아빠는 엄마를 그리며 추억에 잠깁니다. 그림이 잠시, 쓸쓸한 느낌을 전하면 엄마가 가끔 휘파람을 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빠는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없는 많은 시간,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내를 비난하지도, 엄마를 원망하지도 않는 두 사람은 엄마와 함께 했던 서로의 기억을 불러내 그리움을 삭힙니다. 이별과 상실은 삶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상실에 처한 우리의 선택이 원망, 비난, 분노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망하고 비난하는 감정, 그 밑바닥에는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을 테니까요.

인류학자 엄기호가 말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가려면 ‘세상을 향유하는 기술’을 가져야 하고 ‘자기 배려’, ‘자기 삶을 잘 가꾸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글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별과 상실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는 『우리 가족』은 가슴 아픈 이별과 상실을 겪으며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선택한 자기배려, 자신들의 삶을 가꾸는 방법은, 멋집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던 두 사람의 선택, 궁금하시면 가장 가까운 도서관으로 GOGO!

어린이문학



## 로봇 친구, 괜찮아?

— 이연수(수원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막난 할미와 로봇곰 덤덤 | 안오일 글 | 조경규 그림 | 쓰인들어린이 | 2014  
#동화책 #초등중학년

이 책을 읽기 시작할 즈음 우연히 함께 일하는 직원이 물어본다.

“간병보험 가입하셨어요?”

직원은 40대 초반인데 간병보험을 이달부터 불입한다고 한다. 난 50대 초반인데 아직 가입은커녕 보험에 대해 관심도 없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간병보험과 더불어 늙어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지만 중년의 나이에 들어선 나에게 더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다.

6·25때 고아가 되어 어렵게 살다 만난 남편은 병으로 죽고, 자식은 사고로 죽어 평생을 시골에서 외롭게 산 독거노인 막난 할미와 독거노인 돌봄을 위해 나라에서 보내준 로봇곰 덤덤이가 함께 지내는 이야기다.

막난 할미는 매일 혼자 집안에서만 지내다보니, 다른 사람들과 교류도 하지 않아 감정표현이 서툴다. 그런 할머니에게 온 로봇곰 덤덤이는 여간 귀찮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덤덤이는 할머니에게 듣기 싫은 소리, 좋은 소리 할 것 없이 보이는 대로 솔직하게 말한다. 자신에 대한 관심과 간섭이 낮선 할머니는 덤덤이의 잔소리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 덤덤이를 구박한다. 그렇지만 덤덤이가 할머니 생각에 털이 빠지는 고통을



참아가면서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알게 되면서 막난 할머니는 조금씩 자신의 속내를 보이고 진정한 친구로서 한발씩 다가간다.

막난 할머니의 감정변화를 감지하면서 말동무를 해주는 로봇곰 덜덜이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곧 일어날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이미 노인 인구가 많은 일본에서는 노인을 위한 말동무 로봇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덜덜이 같은 로봇이 친구가 되어 노후를 함께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멀리 사는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함께 지내며 외로움을 달래주고 말을 걸어주고, 이야기를 나눠주는 친구, 그 존재가 로봇이어서 조금 서글프기는 하지만, 노후에 마음 통하는 로봇친구 하나쯤 있어도 괜찮을 듯싶다.



## 소녀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 박지원(안성시공도서관)

소녀의 눈물 | 박정연 글 | 버튼북스 | 2015

#동화책 #초등이상

이 책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떻게 일본군에게 끌려간 건지, 끌려가서는 무슨 일을 당했는지 등이 나와 있다.

책을 보는 내내 안타까움에 마음이 무거웠다. 일본군에 끌려가 고생고생을 다 겪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고향 사람들조차 그녀를 외면한다. 좋아한다고 했지만 전쟁 중 그녀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하자 남자들은 그녀를 떠나간다. 어렵게 결혼하여 살다가 용기를 내어 위안부였음을 밝히는 사람들을 따라 자신도 위안부임을 밝히고 싶다고 하는 할머니를 아들, 딸들이 결사반대한다. 몹쓸 일본도 일본이지만 그런 힘든 일을 겪고 돌아온 할머니들을 보듬어주지 않고 오히려 부끄럽다며 계속 숨기려는 사람들이 야속했고,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그런 그들의 행동에 얼마나 상처 받으셨을지 아주 조금이지만 감히 공감이 갔다.

이 책은 쉽고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글씨체, 그림 등 여러 가지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마지막에는 '더 알아볼까요?'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는 '위안부'란 정확히 무엇인지 현재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진상 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등 위안부 문제 해결

을 위한 일본의 행동을 촉구하는 집회인 수요 집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등등 위안부에 대해 이것저것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코너가 있다.

우리 아이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런 고통을 알고 있을까? 아마, 잘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힘든 시기를 견뎌내신 분들의 고통을, 우리의 힘으로 해방시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그 문제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설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가야겠다.



##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혀주세요

— 박지원(안성시공도서관)

씩어가는 환경 | 장수하늘소 글 | 김미경 그림 | 해솔 | 2015

#동화책 #초등중학년부터

지구온난화, 근래 들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시금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생기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 또한 여러 문제들이 겹치면서 생겨나는데, 이 책 『씩어가는 환경』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쉽고 자세하게 잘 설명해준다. 공기, 물, 땅, 생명체와 농업, 생활과 쓰레기라는 다섯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그것들이 지구온난화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문제가 되는지를 이야기한다.

이 책의 장점을 꼽자면 부분마다 조그맣게 그려진 그림들과 만화들을 꼽을 수가 있다. 짙막하게 그려 있는 그림과 만화는 흥미를 유발할 뿐 아니라, 내용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환경호르몬이나 적조현상 등 조금 난해한 문제도 적절한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어 이해가 쉽고 책을 읽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결국 인간이라는 점에서 책을 보는 내내 나 또한 지구온난화에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웠고, 우리가 만들어낸 한 문제이니 우리 손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실천하지 못했던 사소한 해결방안들을 이제라도 실천해야겠다.



## 진실을 밝혀 억울함이 없게 하라

— 박지원(안성시공도서관)

소년 명탐정 정약용 | 한이 글 | 오윤화 그림 | 청아람주니어 | 2015  
#동화책 #초등중학년부터

정약용, 그는 현재 공무원에게도 필요한 가치, 도리 등등을 적어 모은 『목민심서』를 쓰신 분으로 유명한 조선시대 청렴결백했던 목민관이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영특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네 살 때 이미 친자문을 익혔고, 열 살 이전에 자작시를 모아 시집을 펴낼 정도였다고 하니, 과연 영재였다.

『소년 명탐정 정약용』은 그가 어렸을 적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해결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추락사한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방어흔’을 보고,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판단한 일, 물살과 상처부위를 보고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가려낸 사건, 소금과 달걀로 사기 행각을 포착했고, 진짜 유산을 찾아준 일 등이 흥미를 끈다. 이러한 사건들을 나이 어린 소년이 해결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울 뿐이다. 소년 정약용이 해결하기 전의 사건은 매우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가 내리는 명쾌한 해답에 가슴 언저리가 시원해지는 기분이다. 어렸을 때도 이렇게 뛰어났으니, 그가 자랐을 때에는 또 어떤 대단한 사건들을 해결했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글을 읽으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장 서리가 자신의 아들 장수를 위해 몰래 뒷돈을 받고, 살인을 두 번이나 저지른 결과는 자신과 장수의 얼

마 남지 않은 목숨뿐이라는 것이었다. 좋다는 약을 쓰기 위해 돈을 더 벌어야 했지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잘못되었던 장 서리.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이 건강해 지는 것을 바랐지만 끝끝내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은 장수. 그 슬픈 진실을 자신의 손으로 밝혀내야만 했던 정약용의 결단. 모두의 마음이 공감되어 매우 슬펐다. 이 부분을 읽으며 '만약 저 상황이라면 나는 그걸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기에 후에 정약용이 누구보다도 청렴결백하고 공정한 목민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의 아이들에게 추천한다. 소년 정약용이 풀어내는 흥미로운 사건, 그 안의 진실들을 같이 파헤쳐 나가다 보면 '진실을 밝혀 억울함이 없게 하라'던 정약용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열세 살 연화의 눈에 비친 제주4·3

— 이수경(평택시립장당도서관)

**모르는 아이** | 장성자 글 | 김진화 그림 | 문학과지성사 | 2015

#동화책 #초등고학년

책을 선택하는 것도 인연이 있는 걸까요? 장성자의 『모르는 아이』는 제목이 유난히 마음을 잡아끌었습니다. 모르는 아이, 누가 모르는 걸까? 아니 누군가는 아는 걸까? 책을 펼쳐 몇 장을 읽어가며 순간 책을 놓고 싶었습니다. 연화와 민구 앞에 놓인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져 그 아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밥을 구하러 나간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열세 살 연화는 동생과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마을 어른들마저도 이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없습니다. 동생과 살아남기 위해 연화는 있는 힘을 다해 눈치를 보고 뛰고 달리고 훔쳐야 합니다. 남매를 돌봐주고 있는 아버지의 친구, 어른에게도 연화는 순간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동생을 보살피고 살아남기 위해 연화는 바다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태어난 곳과 이름을 버려야 하고 혹시 산으로 갔을지 모르는 오빠를 모른 척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연화와 동갑인 순열이는 물질을 해서 오빠와 동생을 먹여 살립니다. 어린 아이들의 어깨에 놓인 짐이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편치 않습니다. 옆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누가 내 목숨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비위를 맞추고,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좀 더 모질게 대할 뿐입니다. 위기가 턱까지 차오르는

현실에서 연화는 ‘나는 쫓겨나는데 그 사람들은 잘 살 것 같았다. 내 행복을 뺏어 간 것처럼 성천리 사람들이 미워졌다.’ 연화가 미움을 배웁니다. 원망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끝까지 미워할 순 없습니다. 바다 마을 사람들은 물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성천리 사람들은 장에서 사탕 하나 쥐어주고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함께 걱정하던 이웃입니다. 열세 살 연화는 깨닫습니다.

‘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한라산의 너른 품은 바다와 하나라는 것을. 아무리 사람들이 갈라놓으려 해도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살아서 민구와 오빠를 찾아야하기에 연화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을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모르는 아이’가 되었기에 연화는 ‘돌아오는 그날, 나는 물옷을 입고 푸른 바다 깊숙이 자맥질할 것’이라 다짐합니다. 연화가 끝내지 않았기에 제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주 말이 나오지만 힘 있게 끌어나가는 이야기에 끝까지 책을 놓지 못합니다. 김진화의 콜라주 그림은 글을 한층 깊이 있게 느끼도록 합니다. 바람 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당시의 제주도, 연화의 사투, 순열이의 선택, 끝내 갈라지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애잔함과 슬픔이 글뿐 아니라 그림에서도 오롯이 전달됩니다.

『모르는 아이』는 제주 4·3사건을 열세 살 연화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 7개월 동안 민간인 14,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념 논쟁을 떠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많은 죽음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죽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 덜렁공주 대단해~

— 박지원(안성시 공도도서관)

대단하다 덜렁공주 | 송언 글 | 윤정주 그림 | 문학동네 | 2015

#동화책 #초등저학년

학창시절 반마다 한명씩은 있었던 아이 중 하나가 바로 항상 덜렁거리 선생님의 속을 썩이는 아이이다. 준비물이 있는 날이면 언제나 깜빡하였다며 다른 아이에게 준비물을 빌리고, 덜렁대며 넘어지고 사고를 치는 그런 아이.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이 책이다. 항상 덜렁댄다하여 담임인 털보 선생님이 지어준 별명이 바로 덜렁공주. 그 아이가 염혜원이다. 혜원은 풀칠하는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공책이 찢어지질 않나, 받아쓰기 시험시간에 지우개를 줍다 짝과 눈이 마주쳐 커닝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친구들은 혜원을 좋아한다. 항상 덜렁대며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혜원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책의 첫 이야기는 덜렁공주라는 별명의 탄생 계기인데, 덜렁공주라는 별명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좋게 받아들이고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 긍정적이고 밝게 해결하는, 때로는 솔직한 덜렁공주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받아쓰기 커닝 사건’이란 이름을 가진 두 번째 이야기는 오해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른 아이의 조그만 오해 때문에 덜렁공주가 커닝을 했다는 누명을 쓸 뻔한 이야기이다. ‘한약방 놀이’ 라는 세 번째 이야기는 한약방을 하시는 덜렁공주의 외할아버지를 보고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며 재

밋게 노는 이야기이다. 네 번째 이야기는 아이들이 서로 칭찬상장을 나눠 주며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아이들이 ‘칭찬 상장’에 따라 호감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순진한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칭찬 상장 하나로 친구를 짓궂게 놀리기도 하고 뿌듯해지기도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이다. ‘덜렁공주 전학 사건’이라는 여섯 째 이야기에서는 갑자기 전학간다는 이야기로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는 다음날 나타나 안도의 한숨을 내뿜게 하는 덜렁공주의 장난기도 엿보인다.

이야기 하나하나가 가볍게 읽을 수 있고,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솔직하게 표현했다. 사이사이 들어있는 삽화는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귀여운 그림체로 흥미와 재미가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여 독자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덜렁공주를 보며 어린 시절 나는 어땠을까,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웠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자신과 같은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때론 덜렁거리고 놀기 좋아하는 덜렁공주를 보며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덜렁공주의 모습에 폭 빠져들 것 같다.



##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 박지원(안성시 공도도서관)

무지개 사과나무를 지켜라 | 조명숙 지음 | 가문비 | 2015

#동화책 #초등저학년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전에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 이라 등재되어 있다. 나는 약속은 미래의 일을  
기약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이 될 만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어린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 책이 여기 있다.

책의 시작은 등장인물의 소개부터이다.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용야나라  
의 왕으로서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진 사자 왕, 일곱 빛깔을 띤 무지개 사  
과가 일 년 내내 열리는 나무로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무지개 사과나무, 이야기의 주인공 격으로 등장하는 정직한 라온, 그런 라  
온을 키워준 지혜의 요정 가말다, 사자 왕에 대한 충성심이 깊고 라온을  
아껴주는 친구 아띠와 늘 말썽을 피우는 검은 말 감부기가 이 책의 등장인  
물이다.

아름다운 용야 나라의 왕인 사자 왕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왕  
궁의 문지기인 식탐 많은 감부기가 무지개 사과나무 근처를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무지개 사과를 탐내는 것이 그것이었다. 다만 탐내기만 할 뿐 아직

먹은 것도 아닌 만큼 그저 감부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지혜로운 가말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었는데, 바로 무지개 사과나무를 지키는 용사를 뽑자는 것이었다.

사자 왕은 바로 용야 나라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격을 주며 용사를 뽑겠다고 공고를 내렸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 시험에 도전했고, 대부분이 세 개의 난관 중 두 개의 난관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라온과 감부기 그리고 네모라는 이가 두 개의 난관에서 통과하여 세 번째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네모라는 이는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자 부상을 입어 금방 포기해 버리고 말았다.

마지막 시험은 사자 왕의 검을 검은 동굴에서 가져오는 것이었는데 미리 검은 동굴을 돌아다니며 어디에 사자 왕의 검을 숨겨놓기에 적합한지 알아둔 라온은 금방 사자 왕의 검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감부기는 라온이 검을 찾아내자 감부기는 라온의 머리를 앞다리로 세계 걸어차고 목을 물어뜯은 뒤에 사자 왕의 검을 들고 자신이 시험에서 통과했다며 거짓말을 했다. 곧 이상함을 느낀 사자 왕이 신비한 능력을 지닌 수정 구슬로 전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로써 이번 시험은 무효가 되었다.

라온은 감부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며 재시험을 요청했다. 그리고 라온은 다시 한 번 시험을 보게 되었다. 이번에도 감부기가 자신이 가져간 검을 빼앗을 것을 예감한 라온은 미리 숨겨온 검을 입에 물고 사자 왕의 검을 숨겨놓았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감부기는 저번과 같이 라온이 가져간 검을 들고 사자 왕에게 갔다. 곧 감부기와 라온 모두가 도착하고, 사자 왕의 검을 라온이 가져간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용사가 된 라온은 성실하게 무지개 사과나무를 지켰지만 감부기가 낸 피를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음악회에 가서 놀게 된다. 라온이 음악회에서 즐기고 있는 동안, 감부기는 무지개

사과나무로 가서 사과를 따먹게 되는데 맛도 없을뿐더러 피부가 거칠어지고 잿빛으로 변하게 되었다. 곧 사자 왕은 꾀부기와 라온을 불렀고, 꾀부기에게는 추방령을 라온에게는 용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대신 음악회 부단장의 직책을 내렸다.

푸근한 그림과 알기 쉬운 단어와 재밌는 이야기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에는 단어의 뜻을 알려주는 친절함 또한 이 책의 장점으로 생각한다. 책의 마지막에는 ‘어린이를 위한 약속’이라는 코너로 책의 내용을 되돌아보고 약속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가르쳐준다.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과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은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서술했다. 그렇기에 이 책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다. 약속의 소중함을 알아가기에 제격인 책이니까 말이다.



## 매미들의 왕 초코파이6세, 인간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다!

— 김정옥(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

일편단심 책만 보는 매미 | 김옥 글 | 소공 그림 | 주니어김영사 | 2015

#동화책 #초등저학년

“민원을 넣어야지,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형, 민원이 뭐야?”

왕버즘나무에서 여름 내내 우는 매미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웠던 건도는 민원이 뭔지도 모르는 동생 건희와 함께 매미 주민 센터에 민원을 제기 하러 간다. 암매미가 알려준 매미 주민 센터 민원실 가는 길은 ‘그물맥 나뭇잎이 달려 있는 곳으로 쪽 가다가 나란히맥 나뭇잎이랑 섞여 있는 곳에서 또 앞으로 가면 햇살이 오른쪽으로 휩 끼어지는 곳에서 코를 벌름벌름’ 해야 한다. 형을 따라 가던 건희가 햇살을 느끼며 냄새를 맡고 있는 표정이 참 평화롭다. 가는 길에 만나는 지렁이네 주말 농장, 무당벌레, 개미별장은 열심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의 꿈틀거림을 잊지 않게 한다. 친절한 암매미와 함께 커다란 왕벗나무 끝에 위치한 ‘매미 왕립 학회’를 찾은 아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시끄럽게 우는 매미들 때문에 늦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건도는 그곳에서 왕버즘나무의 매미들이 모인 곳은 ‘매미 왕립 학교’로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어렵게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칠 년 넘게 어두운 땅속에서 시간을 견뎌온 매미들의 칠 일의 울음도 견디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매미들의 왕 초코파이6세는 분노를 느낀다. 마침

왕이 왕립학회를 찾아온 이유는 왕립학회 학자들을 시켜 인간들에게 보낼 민원서를 쓰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밤마다 대낮같이 불을 환하게 밝혀 매미들을 잠 못 들게 하고, 함부로 나무를 베어 내고 짓밟고, 지구별에 세 들어 살며 함부로 공기와 물을 더럽히고 동물들을 잔인하게 짓밟는 등 인간들에게 쓸 민원 내용은 끝이 없다.

화를 가라앉힌 초코파이6세 왕이 매미 왕국을 찾아 준 보답으로 건도와 건취에게 매미들의 울림통과 매미들이 읽는 책을 선물로 준다. 왕과 함께 매미 왕립 학교를 견학한 형제는 백 마리도 넘는 매미들이 제각각 열심히 책을 읽는 모습을 보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건도와 건취는 엄마가 타주신 시원한 미숫가루를 마시고 매미들과 함께 열심히 책을 읽는다.

한여름의 전령사 ‘매미들에게 민원을 제기한다!’는 엉뚱한 상상력으로 전개된 이 책은 7년의 긴 시간을 땅속에서 유충으로 지낸 뒤 목숨을 다해 짝을 찾는 매미들에 대해, 또한 이 땅의 작은 생명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이 땅의 주인이건만 인간이 모두의 주인인양 다른 생물체들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개미나 매미들에게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목숨을 다해 짝짓기를 하는 매미들만큼 자연에 순응하며 더불어 가는 지혜로운 마음을 지니고 있을까? 등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짚어보기에도 좋은 책이다.

또한 이 책의 재미는 매미 왕국을 찾아가는 건도 형제의 모험담이 제법 흥미진진하다는 것이다. 건도네 방 앞의 매미 왕립 학교에서 시작된 형제의 매미 왕국 기행이 마치 깊은 숲 속을 여행하는 듯 책 속에 빠지게 된다.

매미의 울음소리가 실제로 책을 읽는 소리는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왕립 학교에 다녀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 이름을 딴 매미들의 왕을 만나 큰 꾸지람을 듣고 온 듯하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글을 쓴 작가의 글솜씨와 유머가 어우러져 재미있다.

김옥 작가는 아이들의 마음을 재미있게 잘 담아낸 『학교에 간 개들이』, 『손바닥에 쓴 글씨』 등 많은 어린이책을 썼다. 『책만 보는 매미』에서도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한껏 살린 살아있는 표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같이 세 들어 사는 지구에서 다른 생명체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며, 별처럼 반짝이는 좋은 이야기들로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자연에 관심이 많은 초등 저학년, 특히 동화책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남자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다.





##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지?

— 이연수(수원시 북수원도서관)

비밀은 내게 말해! | 전은지 글 | 김다정 그림 | 주니어김영사 | 2016  
#동화책 #초등중학년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비밀의 사전적 의미다. 숨기고 알리지 말아야 할 비밀을 누군가가 내게 말할 때 나는 두 마음이 생겨난다. 이 세상에 그 사람과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니 꼭 말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과 더불어 누군가 한명에게만은 말해도 되지 않을까? 간사함, 나만 그런 것일까?

어쨌든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어른인 내게도 그만큼 부담이고, 나를 시험하는 요물 같은 것인데 열두 살 어린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재훈이의 이야기는 책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긴장감 있게 전개된다.

재훈이는 수업시간 선생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재훈이 스스로 잘하는 것도 내세울만한 게 없다고 솔직하게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자기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기 바라는 선생님으로부터 상담이라는 엄벌을 받고 상담실을 찾아간다.

평소 상담실은 ‘찐따’들만 가는 곳이라 선입견을 갖고 있던 재훈은 방문 첫날 우연히 만난 담임선생님 딸인 이민영이라는 여자애의 비밀과 함께 꼬이면서 자기 자신의 장점을 찾기보다는 단점만 찾게 되는 답답한 미궁에

서 해매게 된다.

재훈이에게 담임선생님은 딸이 상담을 받으며 선생님이 아닌 엄마로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민영이는 자신의 엄마이자 재훈의 담임선생님에게 재훈이가 알고 있는 민영이의 상담내용을 비밀로 해달라고 한다. 선생님과 민영이 모두에게 ‘말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과 ‘말을 하기로 한 약속’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묘안을 찾던 재훈이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약속을 모두 지키게 된다. 또한 묘안을 찾는 과정에서 재훈이는 자기가 잘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은 재훈이는 기쁜 마음에 뿌듯하고 더불어 학교에서 인기 짱인 학생 회장 형이 상담실을 찾은 것을 보고 찌따만 상담을 받는 거라는 선입견을 바꿀 수도 있게 된다.

글을 읽는 내내 난 재훈이가 되어서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누구의 편에서 있어야 되는 걸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답도 못 찾는 내게 재훈이가 약속을 지키는 묘안을 보여줄 때 재훈이의 현명함에 그저 감탄하게 되었다. 재훈이의 해결방법은 진심으로 두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한 마음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비밀을 지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과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지 못하는 대다수 어린이들에게 나와 다르지 않은 재훈이를 보면서 용기를 주는 내용이다. 또한 어린이들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하나 못하나로 구분짓는 어른들에게는 내 아이와 함께 다른 아이들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어 학부모들도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추천하고 싶다.



## “잘하는 게 뭐야?”

— 유향숙(성남시판교도서관)

비밀은 내게 말해! | 전은지 글 | 김다정 그림 | 주니어김영사 | 2016  
#동화책 #초등중학년

재훈이는 어느 날 수업 중 선생님 질문에 대한 엉뚱한 대답을 해, 자존감이 약한 아이로 찍혀 상담을 받게 됐다.

“신원도용의 피해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들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등 알만한 답인데, 재훈이는 “신원도용은 누군가가 자기인 척 행세를 하는 건데 이 세상에서 저처럼 행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했던 것이다.

상담선생님은 잘하는 거 찾을 때까지 상담실에 오라는 숙제를 내준다.

재훈이는 수학 60점에 만족하는 아이며, 빼쩍 마른데다 싸움도 못하고,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어 친구도 많지 않으며, 여자아이들에게 인기도 없고, 운동이나 악기도 잘하지 못한다.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아이인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것이 없는데, 재훈이는 가기 싫은 상담실을 매주 가게 되어 한 걱정이다.

상담실은 ‘찐따’들만 오는 곳이라는데 자신은 ‘찐따’가 아닌데 가야 하다니……. 우연히 앞서 상담하게 된 아이와 마주치게 됐는데, 그 아이는 바로 담임선생님 딸인 이민영이다. 그 애를 조직폭력의 우두머리쯤으로 오해하게 된다.

다음주 상담실을 찾은 재훈이는 민영이가 상담일지를 몰래 찢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민영이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재훈이를 협박했고, 재훈이는 민영이와 그로써 비밀을 공유하게 된다. 우여곡절 속에 이민영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되지만 정재훈의 고민은 다시 시작된다.

‘말 잘하고 모든 질문에 정답을 아는 선생님이 나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니라고 확신이 들었고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선생님은 정재훈과 자신의 딸 이민영이 대화하는 것을 몇 가지 듣고, 자신의 딸이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센 문제아니 딸에 대한 어떤 말을 들은 것이 있으면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넘어 약속을 하게 된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민영이의 부탁과 민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해달라는 선생님의 부탁 사이에서 재훈이는 갈등하게 된다. 재훈이는 자신이 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 위로하기, 추리하기, 남을 도와주기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한탄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나씩 발견해 간다. 비밀지키기, 배신하지 않기, 여자아이 울리지 않기, 남의 행복 빌어주기 등.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책이다. 자아를 찾아가는 나이대 친구들을 멋지게 묘사하고 있다. 또래 친구들에게 속이 시원한 책이 되리라 본다.



## 미니어처 공예가는 안 되나요?

— 박지원(안성시립 공도도서관)

내 꿈이 어때서! | 초등학교 62명 아이들 글 | 허구 그림 | 휴먼어린이 | 2016  
#동화책 #초등중학년이상

이 책은 지은이가 전국의 초등학교 62명으로 되어있는 조금은 독특한 책이다. 제목도 정말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외친 것 같은 “내 꿈이 어때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이 가려서 뽑은 생활글인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초등학교다운 창의적이고 아이들만 할 수 있을 법한 상상들까지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모이고 모여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몇 개의 이야기를 적어보자면, 엄마가 아이의 돈을 계속 빌려가고는 한참 지난 후에야 갚아 불만이라는 아이의 이야기, “따까리(딱지의 경상도 사투리).를 계속 떼어내 엄마께 혼난 이야기, 오빠만 가던 수학여행을 자신이 가게 되어 설레어 하며 수학여행 전날 가방을 챙기는 아이의 이야기, 사춘기 얼굴 곳곳에 난 여드름을 엄마가 짜주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 미니어처 공예가 꿈인 한 아이의 장래희망을 부모님이 좋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 늦게까지 잔업을 하시는 힘든 아빠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 드린다는 이야기 등이 있다.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아이들이 문장을 열심히 꾸미며 다른 단어들을 군

이 덧붙이지 않고도 자신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그대로 써내려갔다는 점이다.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바로 티 없고 순수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는 이의 마음까지 밝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기분이다. 자신의 기쁨, 슬픔, 미안함, 즐거움, 행복함 같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이들만 부릴 수 있는 재주일지 모른다. 간단하고 꾸밈없는 문장들이 이 책을 들여다본 이상 끝까지 읽게 하는 에너지를 내뿜고 있다.

가끔씩 나오는 삽화들은 다양한 색채와 재미있고 귀여운 그림체로 어른이든 아이이든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눈을 즐겁게 하여 흥미를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 나는 단지 숨을 쉬었을 뿐이에요

— 박지원(안성시립 공도도서관)

죽음의 먼지가 내려와요 | 김수희 글 | 이경국 그림 | 미래아이 | 2015

#동화책 #초등저학년이상

우리는 매시, 매분, 매초 숨을 쉬며 산다. 우리는 음식을 몇 끼 굶고, 하루 이틀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하지만 숨을 몇 분이라도 쉬지 못하면, 죽어버리고 만다. 호흡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숨을 쉬어야 하지만 그 숨조차 쉬기 힘든 곳이 있다. 바로 중국의 동쪽 지방인 장쑤 성.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밖을 나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아파 숨을 쉬기도 버겁다.

이 책은 그 곳에 사는 여덟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인 메이링과 ‘나’의 이야기이다.

메이링은 말이 많지는 않지만 목소리가 예쁘고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이다. 하지만 오염된 공기인 미세 먼지라는 것 때문에 폐암이라는 큰 병에 걸려 이젠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목소리를 뽐내지도 못하게 되었다. 미세먼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지만 위험하기도 하여 들이마시는 것만으로 병에 걸리게도 할 수 있는 먼지이다. 미세 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찌면 더 조심해야 할지도 모른다.

메이링이 폐암에 걸리자 사람들은 메이링의 이야기를 텔레비전에까지 내보내며 중국에서 가장 어린 폐암 환자라며 깜짝 놀라하고 몇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한다. 메이링이 병에 걸린 건 메이링이 자신의 몸을 잘 챙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염된 공기,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메이링이 떠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메이링이 아프기 때문에 슬퍼한다. 메이링은 그저 숨을 쉬었을 뿐이다. 자신이 사는 곳의 공기를 마시며 생존을 위해 당연한 숨쉬기라는 일을 했을 뿐이다.

어린 ‘나’조차 그 오염된 공기들이 자동차 매연, 공장의 굴뚝, 석탄 난로 때문임을 안다. 어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행위들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자연을 아프게 한 것들을 되돌려 받아 그저 숨을 쉬었을 뿐인 어린 아이들이 고통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도 모른다. ‘나’는 항상 그곳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파란 하늘을 본 적이 없다. 하늘은 오염된 공기 때문에 언제나 뿌옇다. ‘내’가 그리는 그림 속의 모습은 파란 하늘 아래서 메이링과 함께 마스크도 쓰지 않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다.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모습이다.

우리에겐 맑은 공기에서 그 공기들을 마시며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닌다는 것이 당연하지만, 메이링과 ‘나’는 그것을 바라며 꿈꾸고 있다. ‘내’가 어느새 봄에 빌었던 소원은 그 다음 봄이 돼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아이들은 결코 파란 하늘을 볼 수 없을까? 항상 뿌옇고 누런 하늘을 봐야하는 것일까? 아프기 싫고, 병에 걸리기도 싫고 건강하고픈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 무사히 어른이 되기를 비는 아이들이 쾌적한 공기 속에서 마음껏 숨을 쉬고 파란 하늘을 실컷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집고양이 위에 길고양이?

— 박지원(안성시립 공도도서관)

여름이 찾아서 | 이가을 글 | 허구 그림 | 한림출판사 | 2013

#동화책 #초등저학년이상

길고양이와 도둑고양이, 여름이는 그 중 무엇일까? 길고양이와 도둑고양이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길고양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먹이를 위한 도둑질과 구걸을 마다하며 길고양이의 길을 고집하는 여름이.

고고하고 우아한 삼고양이기 때문에 먹이를 훔치는 도둑고양이와 길고양이를 같이 취급하며 무시하는 집고양이 케이. 케이는 과연 집고양이에 만족했을까. 어딜 가나 자유로우며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았던 길고양이가 부럽지 않았을까.

여름이는 언제나 당당하며 길고양이가 고양이의 서열 중에 가장 위이고 그 아래로 집고양이, 도둑고양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양이이다. 하지만 길고양이는 집고양이와 다르며 하루 한 끼 먹을 먹이를 구하는 것조차 힘들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고 가끔씩 먹이를 주는 '밤 아줌마', 언제나 파란옷을 입는 경비아저씨인 '파란 아저씨'에게서 먹이를 받아먹으며 살아간다. 언제나 몸에 에너지를 비축해둬야 하는 것이 길고양이의 운명인 것이다. 그렇게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기도 힘든 어느 날, 아파트 1층으로 이사 온 집고양이 케이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케이는 집고양이로 터키시 앙고라, 페르시안, 러시아 블루, 아메리칸 쇼트헤어와 같이 여러 종류의 고양이 중에서도 타이 왕실에서 왕족들만 길렀다는 ‘삼고양이’이다.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케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삼왕자님’이라고 부르며 왕이라는 뜻인 케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사람들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을 받는 케이는 이사 온 집 앞을 어슬렁거리는 길고양이를 보게 되고, 자신의 주인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길고양이 여름이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한다.

케이는 처음에는 길고양이와 도둑고양이를 똑같이 업신여기며, 여름에게 ‘버릇없이 구는 걸 보니 도둑고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렇게 둘의 시작은 좋지 않았다. 만나는 횟수가 잦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케이는 몰랐던 자유롭고 재미있는 길고양이의 세계를 알게 되고, 여름이 역시 집고양이의 생활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서로 옷을 바꿔 입고 길고양이가 된 케이와 집고양이가 된 여름이의 새로운 환경에서의 좌충우돌 이야기가 이 책의 중심 내용이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여름이와 케이는 나이나 계급을 따지지 않게는 친구 사이가 된다. 안 보이면 걱정하고, 아프면 위로해주는 것이 친구라고 이야기한다.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고양이’를 통해 고양이끼리 옷을 바꿔 입는다는 등 책이기 때문에 가능한 창의적이고 독특한 생각들도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는 요소이다.



## 곰돌이 푸, 위니 더 푸 이야기

— 김새롬(평내도서관)

위니를 찾아서 | 린지 매틱 글 | 소피 블래콜 그림 | 미디어창비 | 2016

#그림동화책 #초등고학년

『위니를 찾아서』는 2016년 칼데콧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 만화로나 그림으로나 접해 보았을 ‘곰돌이 푸’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하나의 책에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위니 더 푸’의 실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곰 인형을 소중히 품에 안고 있는 콜이라는 어린 아이는 잠들기 전 엄마에게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를 해달라며 조른다. 곰을 좋아하는 콜은 곰 이야기가 듣고 싶다.

엄마가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해리 아저씨와 아기곰 위니다. 해리 아저씨는 군대 수의사로 참전하기 위해 올라탄 열차 안에서 우연히 사냥꾼과 함께 있는 아기곰을 기차 플랫폼에서 발견하게 된다. 해리 아저씨는 그 아기 곰에게 자꾸 눈이 간다. 사냥꾼 손에 있는 아기 곰의 운명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지만, 전쟁을 치르러 가는 곳까지 곰을 데리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에 해리는 고민에 빠진다. 이내 해리는 사냥꾼에게 거금 20달러를 주고 아기곰을 데리고 열차에 올라탄다. 해리 아저씨는 이후에도 아기곰 위니와 관련한 각기 다른 상황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여러 번 책에 그려진다. 해리 아저씨는 위니가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생각하기

일쭉지만 위니는 언제나 해리 아저씨의 걱정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데, 이것은 마치 인간과 동물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공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전을 위해 프랑스로 떠나야 하는 해리 아저씨는 이제 위니와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위니를 런던 동물원에 잠시 맡기기로 한다. 헤어짐을 앞두고 위니는 어깨가 축 처져 마치 ‘자기를 혼자 두고 가지 말라’는 듯 한쪽 손을 해리 아저씨의 구두 위에 올려놓는다.

이야기를 듣던 콜이 엄마에게 이야기가 끝이 났느냐고 묻는 구절이 나오는데, 콜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콜에게 엄마는 이렇게 답한다. “가끔은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야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단다”라고.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다.

또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은 위니와 어린아이 로빈이다. 아기 때부터 곰 인형을 제 분신인 양 가지고 놀던 로빈이 아빠를 따라 가게 된 동물원에서 만난 진짜 아기곰 위니를 만나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이다. 위니와 로빈의 아름다운 우정을 로빈의 아빠가 책으로 쓰게 되면서 위니의 책 속 이름이 곰돌이 푸, 바로 위니 더 푸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상상하지 못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영화나 동화책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들 말한다. 『위니를 찾아서』 역시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했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실제 우리네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일련의 실화를 책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실제 있었던 사건에 인간과 동물의 우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아름답게 접목시킨 이 책을 통해 조화와 공존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 나도 때론 화가 나는걸

— 이민혜(양평군립도서관)

**너도 화가 났어?** | 톤 텔레헨 글 | 마르크 부타방 그림 | 분홍고래 | 2015  
#동화책 #전연령 #소심한아이와어른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 분노, 절망, 신남, 좌절, 우울 등등 우리는 살면서 기쁜 감정만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감정을 더 많이 피부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색다르고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등장인물들은 쉽게 화를 냅니다. 처음부터 화가 나있는 동물들도 있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화나 났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보통 동화책을 읽다보면 화가 나는 등장인물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표현됩니다. 마치 화를 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어린이가 되고 어른들에게 혼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화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어찌면 기쁨과 행복보다도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더 자주 느끼고 살진 않을까요?

'화'라는 주제 아래 열두 개의 스토리를 다양하게 풀어갑니다.

'양보하기 싫은 하마와 코뿔소'에서 하마와 코뿔소는 서로 길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자 둘은 앉아서 서로가 비켜주길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배다 고프 둘은 서로 달콤한 풀을 나눠먹습니다. 하지

만 절대 비켜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둘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둘은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도 서로에게 인사를 빼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시 너를 만나도 비켜주지 않을 거다”, “나도 비켜 주지 않을 거야”. 우리의 예상과 달리 치고박고 싸우기 보다는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는데도 오히려 둘의 사이는 어느 때보다 돈독해집니다.

두꺼비와 개미가 화를 없애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화’가 싫어하는 노래부르거나 춤추기로 화를 증발시켜버릴 수도 있고 쫓아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할 때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응, 그냥 행복하면 돼.”

저자는 주인공을 왜 인간이 아닌 동물로 표현했을까요? 보통의 생각으로는 동물들은 본능적이고 인간은 이성적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나면 앞뒤 안 가리고 싸우는 동물들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절대 나와 다른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 모습,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모습이 독자들로 인해 반전의 재미를 주고 이야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떠나가는 친구에게 가지 말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것은 죽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내 맘대로 하면 넌 날 싫어하겠지? 하지만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미안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개성 강한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하나같이 소심하고 귀여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솔직한 말 속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수했을 때와 화를 낸 이후의 태도가 친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만 마음을 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너도 화가 났어? 괜찮아 나도 때론 화가 나는 걸”이라고 말을 건네 줄 수 있다면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 행동의 힘이 주는 위대함

— 이연수(수원시 북수원도서관)

우리엔 놀이터가 필요해요 | 쿠루사 글 | 모니카 도페르트 그림 | 유혜경 최성희 옮김 | 찰리북 | 2016  
#그림동화 #초등고학년 #주민자치

제목에서 절박함이 느껴져 선택한 책이었다. 내용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산호세 달동네 아이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것이다.

1920년대 베네수엘라가 커피 대신 석유 수출을 시작하면서 커피농장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고 농촌사람들이 카라카스와 같은 도시로 이주하면서 언덕배기 판자촌에서 비참한 판잣집 생활을 하게 된다. 일자리를 갖기 위해 도시로 온 어른들은 일을 찾아 집을 비우고 아이들은 학교에 돌아와 노는 공간을 찾기 위해 헤맨다. 처음 아이들이 찾은 뛰어놀 공간은 길거리였다. 하지만 길거리는 트럭들이 달려 놀 수 없게 되자 언덕 꼭대기로 장소를 옮겼다. 새롭게 찾은 언덕 꼭대기도 놀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았다. 하수구에 공이 빠지거나 남의 집 지붕에 공이 올라가고 전신주에 연줄이 걸리는 등 놀만한 환경이 되지 않았다.

한창 뛰어 놀고 싶은 아이들은 놀 공간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고 마침내 시장님 면담을 계획한다. 생업에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스스로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적은 현수막을 만들고 시청에 찾아가지만 시장을 만나기 위해 간 시청에서 시장을 만나기도 전에 입구부터 경비 아저씨의 제지와 소란을



피워 유치장에 데려가겠다는 경찰관의 협박에 옥신각신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갈등이 지속되자 부모님과 도서관 사서선생님, 기자들이 출동하게 되고, 시장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일단 약속을 한다. 신문기자도 아이들의 놀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은 기사를 신문에 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작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약속을 한 시청 사람들도, 어른들도 하나둘 까맣게 잊어간다. 마침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이터를 만들자고 의논하고 하나둘씩 친구들을 불러 모은다. 모인 친구들은 형이나 누나,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지까지 불러 모으며 시청의 도움 없이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물건들을 기부하면서 놀이터를 함께 만들어 간다.

책을 읽는 내내 나라와 피부색은 다르지만 비슷한 배경이 보여서인지 다른 나라 이야기 같지가 않아 책을 놓을 수가 없었다. 도시의 공업화로 인한 농촌 인구 유입, 그로 인한 주택 부족, 같은 도시 안에서 빈부격차, 애들이 뛰놀던 골목이 차들이 다니면서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 시민의 요구를 정치적, 전시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 등, 공감이 되는 내용이 요소요소 펼쳐진다.

놀이터, 우리 아이들이 뛰어 노는 놀이터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 그리고 얼마나 알고 있나?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가 있다해도 놀이터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살펴본 적이 있나? 그나마 아파트 단지는 아이들이 놀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아닌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놀이터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행 청소년들의 아지트로 전락하거나 노숙자들의 쉼터가 되어버리는 곳도 많다. 도시의 사람들과

차가 넘쳐나 놀이터였던 공간들도 주차공간으로 잠식당하고, 예전 주택가 골목은 소꿉장난하고 숨바꼭질하던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자동차가 뺨뺨 하여 걷기조차 쉽지 않은 지금 현실에서 베네수엘라의 아이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책은 국제아동도서협의회 아너상, 로스 메호레스 텔 방코 텔 리브로 선정, 스키핑 스톤스 북 워드상, 디 아더 워드상 등을 수상하였다. 책 표지에 씌어진 ‘전 세계 어린이에게 행동의 힘을 보여준 위대한 책!’이라는 문구가 무색하지 않다.



## 아빠 마음에 감기가 걸렸어요

— 김새롬(평내도서관)

**아빠의 마음에 감기가 걸렸어요** | 클라우디아 글리만 글 | 나디아 파이크나이 그림 | 책빛 | 2015  
#그림동화책 #초등전학년

넬라는 미라콘다 서커스단에서 줄을 타는 곡예사 부모님을 둔 아이다. 넬라의 부모님은 집안 대대로 곡예사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서커스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곡예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분들이다. 넬라는 그런 부모님이 항상 자랑스럽다. 어느 날 부터인지 넬라의 아빠는 어딘가 아픈 사람처럼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낮빛 또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넬라는 그런 아빠가 걱정스럽다. 아빠가 점점 웃음을 잃어가던 어느 날, 엄마와 아빠에게 세계서커스대회 초대장이 도착한다. 곡예사라면 누구나 명예롭게 생각하는 대회에 엄마와 아빠가 직접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떨 듯이 기뻐하는 엄마와는 달리 아빠는 우두커니 창밖만 바라본다. 서커스 단원들은 그런 아빠의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드디어 서커스 대회가 열리는 날, 엄마와 아빠의 첫 출전을 축하하기 위해 곡예사 출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다른 곡예사들도 참석했다. 그 모습을 본 넬라는 아빠와 엄마가 여간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회에서 선보이기 위해 준비한 특별한 묘기를 보여주려 높은 사다리 위로 올라가 앉은 순간 아빠는 두 손으로 얼굴을 움켜쥐고 괴로워했다. 아빠가 사다리 아래로 왔을 때,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한 얼굴을 본 넬라는 아빠가 불쌍하기보다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들었다.

넬라는 서커스단에서 광대역할을 하는 아우구스트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왜 아빠가 달라졌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아우구스트 아저씨는 아빠의 마음에 병이 걸렸다고 했다. 몸에만 병이 걸리는 줄 알고 있었던 넬라는 아우구스트 아저씨의 대답이 아주 의아했다. 마음에도 병이 걸릴 수 있다니 말이다. 이 책에서 아우구스트 아저씨는 넬라에게 아빠가 걸린 병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며 부끄럽고 창피한 병이 아님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 남들의 눈에는 바보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트 아저씨를 통해 아빠를 더 이상 창피해하지 않고 아빠의 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 한다. 달라진 아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부터 넬라는 아빠에게 조금 더 다가가게 되었고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던 아이에서 타인의 감정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아이로 변하게 된다. 넬라의 마음이 한 뼘 더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성장은 가족들이 함께 아빠의 우울증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아빠의 마음에 감기가 걸렸어요』는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책에서는 흔하게 다루지 않는 주제인 우울증이라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몸이 가끔 아픈 것처럼 마음 역시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넬라의 시점으로 따뜻하게 전개하였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아픔은 그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그만큼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끈으로 묶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공동운명체라고 볼 수 있다. 아빠가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은 아빠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 노력은 비단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아빠를 향한

따뜻한 마음도 포함한다. 이 책을 읽고 우울증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몸의 병은 의사를 통해, 마음의 병은 가족의 사랑을 통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이 통쾌한 동화의 맛!

— 유현미(평택시립도서관)

돌 씹어 먹는 아이 | 송미경 글 | 안경미 그림 | 문학동네 | 2014

#동화책 #초·중·고

『돌 씹어먹는 아이』는 반전과 전복, 일탈이 살아있어 유쾌하고 매력적인 단편동화집입니다. 동화 안에서 유희성과 진정성, 환상성과 현실성이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극적 묘미가 더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시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해대는 혀를 사온다는 설정은 판타지이지만 그 혀를 통해 쏟아내는 아이의 이야기는 실감나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더 통쾌하게 느껴지는 지도 모릅니다. (혀를 사 왔지)

‘딸을 데리러 온 고양이 부부’ 이야기는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부모의 잔소리에 지친 아이에 게는 몸을 숨기고 현실을 버티게 하는 은밀한 공간일 지도 모릅니다. 고양이 부부와 함께 집을 나서는 아이의 모습이 날렵하고 부드럽습니다. 아이가 부모로부터의 자아 독립을 유연하게 마치고 연락처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나를 데리러 온 고양이 부부)

‘헤어진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할머니의 ‘현실세계’와 자신만의 우주를 건설한 ‘아빠의 세계’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영은이는 ‘집나간 엄마와 무직의 아버지’로 대변되는 상투적인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수많은 다른 우주를 알아보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아빠는 늘 영은이에게 “너무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지 말고 대충대충 적당히 해라. 이 아빠의 뜻을 따라 적당히 살아 줘야 할 유일한 가족이 바로 영은이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라고 다그치는 아빠를 가진 아이라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은이와 아빠는 오늘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끝까지 가면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오고 누군가를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는 것이 이 부녀가 엄마를 기다리는 법칙입니다. (지구는 둥그랴고)

『돌먹는 아이』는 유쾌함 뒤에 몽클함과 허를 찌르는 신랄함이 함께 배어 있습니다. 돌을 먹는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던 아이가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고백하자 가족들도 그동안 숨겨왔던 기상천외한 식성을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아이의 고백에 각자 한 술 더 뜨는 가족들의 모습이 절로 웃음을 자아냅니다. 가족들은 비밀을 서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혀 왔던 고민이 사실은 별 거 아니었다는 안도감과 연대감을 만끽합니다. (돌 씹어 먹는 아이)

‘친구가 자꾸만 자신을 욕한다는 환청에 시달리는 아이’ 병우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은 불량식품 먹지 말라고 잔소리 해대고 갈끔 떠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 내어주는 길거리 분식집 아줌마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말도 안했어?)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는 너무 깨끗한 집과 지나치게 친절한 부모가 오히려 낯설기만 합니다.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라 믿는 아이는 오히려 낯고 비좁은 좁은 방이 그립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헤어져 지냈던 것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의 집으로)

각 편마다 독특한 개성과 울림을 가진 『돌 씹어 먹는 아이』는 평택시가 선정한 ‘2016년 올해의 한책’ 선정도서이기도 합니다.



## 만지지마! 내 몸이야!

— 박지원(안성시립공도도서관)

만지지 마! 내 몸이야! | 노경실 글 | 조윤주 그림 | 씨즐북스 | 2016

#동화책 #초등전학년

낮선 어른이 내 몸을 함부로 만지려 들 때, 내가 기분 나쁜 접촉을 하려 할 때, 그런 어른이 겁나고 무서울 때, “만지지마! 내 몸이야!”라고 외치는 것이 아이들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겁이 나고, 죄송하고, 무서워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생긴다. 하지만 무섭고 자신을 만지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책이 하나 있다.

아이들도 이해하기 쉬울 뿐더러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를 때를 대비해 아이들에게도 자신이 나쁜 일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할 수 있고,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며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미호와 채원이는 같은 학원에 다니는 절친한 친구이다. 아이들이 영어학원을 마치고 피아노 학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두 개가 있다. 큰 길은 10분 정도가 걸리지만 안전하고 더럽지도 않지만 골목길은 더럽고 이상한 냄새가 나지만 2,3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비록 더럽고 기분 나쁜 냄새가 나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그 골목으로 항상 다닌다.

그 골목에서 아이들의 집을 아는 수상한 아저씨를 만나고, 자신을 15층에 사는 15층 아저씨라고 소개하며 미호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 미호는 아저씨에게 선물도 받고 칭찬도 들은 덕에 아저씨가 하는 짓을 거부하면 자신이 나쁜 아이이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부모님에게도 이 일을 숨기게 되지만 친구인 채원에게 이 일들을 털어놓고 나쁜 일을 당하기 직전 채원과 채원이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이후 학교를 잠시 쉬며 치료를 받고 자신의 상처를 회복한 미호의 이야기가 이 책을 이루고 있다.

이 책은 아이들의 순수한 사고방식과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칭찬을 해준다고 하여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자신에게 잘해주고 착한 말들을 한다고 하여 내 몸을 만지고, 더듬어 기분 나쁜 것들을 하는 사람에게 결코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용감하게 당당하게 ‘만지자마세요! 내 몸 이에요’라고 말하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나쁜 기억을 가진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겪은 것이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겁을 먹어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것은 더더욱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도우주고 따뜻하게 감싸줄 어른들도 많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 아이들의 우정, 무시하지 마세요

— 박지원(안성시립공도도서관)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 | 윤여림 글 | 김유대 그림 | 천개의바람 | 2016  
#동화책 #초등전학년

언제나 가면을 얼굴에 쓴 것마냥 웃지도 울지도 않는 콩가면 선생님. 얼굴이 콩처럼 작고 까마니가 콩이다. 항상 화내지도, 울지도, 기뻐하지도 않아하는 3학년 나반의 김신형 선생님을 보며 아이들은 아쉬워한다.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 얼굴 근육에 문제가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콩가면 선생님은 항상 무표정이다. 무표정한 얼굴 때문인지 어딘지 표정이 없어 보이는 선생님과, 조금은 엉뚱하지만 순수하고 친구를 위하는 마음들이 있는 아이들. 이 이야기들은 그런 선생님과 아이들이 있는 3학년 나반의 이야기이다.

이 책에는 선생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여섯 가지 이야기가 있다.

‘같은 옷 다른 느낌’ 속 아린이는 남의 이름이 쓰여 있고 낡고 얼룩진 옷들을 입고 다니는 게 창피하고 싫어 투정을 한다. 그러다가 ‘리폼’이라는 것을 생각해내고, 얼룩진 곳에 구름모양의 옷감을 잘라 붙인다. 어린아이다운 귀여운 생각이면서도 어딘가 창의적인 생각에, 과연 나라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아이들끼리의 우정과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미녀와 야수’이다. 덩치가 크고 항상 바

보같이 헤헤거리며 웃는 지국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가빈이는 처음에는 선생님에게 짝을 바꿔 달라 하지만 결국 자신의 실수 같지 않은 실수를 지국이가 자신이 했다고 함으로써 가빈이는 지욱이에게 따듯함을 느끼고 마지막부분에는 다음 달에도 지국리와 또다시 짝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가빈이에게도 자신이 놀림과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배려를 실천하고 가빈이의 창피함을 이해해줌으로써 아이들끼리도 우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우정의 관한 이야기에는 '비밀 탐사대의 탄생'이 있다. 사이가 좋지 않던 남아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귀신 사건을 겪으며 서로 친해지고 우정이 더 두터워진다는 이야기다. 아이들은 외모와 돈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다. 마음이 맞으면 친구가 되고 함께 어울린다. 우리 어른들도 그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우정을 배워야하지 않을까.



## 선, 도형, 색을 찾아서

— 박지원(안성시립공도도서관)

천재 화가 구출 작전 | 박진홍 글 | 최정인 그림 | 다숲 | 2016

#동화책 #초등전학년

천재 화가 구출 작전. 그 이름의 담겨진 뜻은 무엇일까. 납치된 천재 화가 아르침볼도. 그를 찾기 위해 현실에서 그림도둑이란 누명을 쓰고 있는 남자와, 초등학생인 아름이와 정우가 아르침볼도를 찾기 위해 떠나는 내용이다.

현장체험학습으로 미술관에 간 정우와 아름이는 그림 감상을 하던 도중 그림이 움직이고 세계를 구하라는 목소리를 듣는다. 아이들은 어느 세계로 떨어져 뮤즈의 선, 도형, 색이 누군가가 훔쳐갔기 때문에 없어서 이것들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정우와 아름이는 그 부탁을 들어 선과 도형과 색을 찾아나서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찾아 현실세계로 돌아온다.

선과 도형과 색을 찾는 과정에서 납치당한 아르침볼도도 만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비행선도 타보고, 신화 속에만 나오던 미노타우루스가 일행을 죽이려 하기도 했다. 문제를 풀어가며 서로 협동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결국에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키워가게 된다.

책 중간 중간에서 보이는 조그만 삽화들은 눈을 심심하지 않게 해주며 흥미를 끌어주고 글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던 내용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고 딱딱하게만 보이던 미술을 어린 아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우와 아름이가 아르침볼도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관련 지식도 얻을 수 있다.



## 진짜 슈퍼맨이 되려면

— 박지원(안성시립공도도서관)

진짜 슈퍼맨 | 원유순 글 | 이혜경 그림 | 삼성당 | 2016

#동화책 #초등전학년

요즘 아이들은 이기적이라고들 한다. 서로에 대한 예의도, 양보도, 배려심도 찾아볼 수 없다. 아무리 각박한 현실 속에 살기 위해서라지만 아이들에게서 아이들다운 순박함을 찾을 수 없다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사회를 만든 것이 어른들이라는 것이 더 문제이다.

이 책의 작가 또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서로 잘 놀며 공동체 생활을 자연스럽게 익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이의 원인으로 형제가 많지 않은 것과 풍족한 환경을 뿔랐는데, 이로 인해 아이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작가는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에 대한 간접경험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은수는 올해 일곱 살로, 이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언제나 슈퍼맨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순수한 아이이다. 엄마와 할머니의 스카프, 머플러를 목에 매어 슈퍼맨 같은 포즈를 취하며 놀러 다닐 정도로 열렬히 슈퍼맨을 꿈꾸는 아이인데, 엄마는 은수가 위험한 짓을 할까 늘 걱정이다. 어느 날 밤 은수는 슈퍼맨이 되는 꿈을 꾸며 그만 이부자리에 지도를 그리고 만다. 엄마는 웃으며 근영이네 가서 소금을 얻어오라고 하며 키 대

신 빨간 스카프를 매어주고 플라스틱 바지를 준다. 은수는 부끄러운 마음에 쉽사리 근영이네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멀찍이 손수레를 끌고 오는 아저씨가 보였고, 아저씨는 은수에게 수레를 같이 밀어달라고 부탁한다. 아저씨를 도운 은수는 고마움의 증표로 소금을 받았고, 은수는 이제 자신이 진짜 슈퍼맨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소금을 얻어와야 하는 자신의 일이 있는데도, 아저씨의 수레를 밀어준 은수는 보답으로 소금을 얻고 마치 진짜 슈퍼맨이 된 듯한 뿌듯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아저씨를 돕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할 감정이다. 자신의 이익이 되는 행동이 아니라면 절대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회를 따뜻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그런 공동체 속에서 아이들이 남을 배려하고 돕는 훌륭한 인격자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함께 하는 일등

— 이연수(수원시 북수원도서관)

펼쳐 없는 운동회 | 고정욱 글 | 우연이 그림 | 내인생의책 | 2016  
#동화책 #초등중학년 #외모와체구가다른이유로이기소침할때

‘일등만 최고라고요? 나만 이기면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책표지에 쓰인 글과 다섯 명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만 보아도 제목인 펼쳐 없는 운동회의 내용을 대충 알 수 있다. 책은 용인제일초등학교 6학년 2반의 실화를 고정욱 작가가 가공하여 스토리를 각색한 내용이다.

사진에 나온 아이들과는 다르게 작은 체구의 아이가 유난히 눈길을 끈다. 이 책의 주인공인 기국이다. 기국은 부모가 모두 정상인데 연골이 형성되지 않아 키가 크지 못하는 저신장 장애를 가진 어린이다. 아무리 많이 커서 어른이 되어도 130센티미터가 넘기 힘든 것이 기국의 운명이다. 선천성 장애인 기국은 남과 외형적으로는 다르지만 학교생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축구 하거나, 화장실 다니는 일도 모두 남과 똑같이 한다. 그렇지만 운동회 날 달리기를 할 때는 짧은 다리 때문에 남들처럼 잘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회 날이 다가오면 자신도 모르게 위축된다.

남과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님에 불구하고 당당하지 못하다. 특히



신체나 외모처럼 눈에 보이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예전에 나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과 중도장애를 가진 사람 누가 더 살아가는 데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중도장애인은 정상인으로 살다 갑작스런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어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무척 오래 걸린다고 한다. 내가 알던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떠서 자신의 몸이 예전의 몸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해서는 안 될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경우도 보았다. 그래서 난 중도장애인이 더 힘들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은 조금 바뀌었다. 선천적 장애인도 힘든 건 마찬가지이다. 내가 남과 다름을 알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 느껴지는 마음은 선천적이든 중도장애인이든 힘들다는 것이다.

기국이 는 달리기시합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친구들처럼 뛸 수 없다는 것도 속상하고 기국이 마음을 보듬어주려고 담임선생님이 손잡고 결승선까지 함께 한 것도 죄송하고 부담스러웠다. 친구들은 그런 기국을 위해 달리기 시합을 빼자고 제안하지만 운동회의 꽃인 달리기를 빼기란 쉽지 않다. 기국이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친구들이 함께 한 꼴찌 없는 달리기는 비록 체구와 외모는 다르지만 친구를 아끼는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어 흐뭇하다.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경쟁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많은 사교육을 하면서 나 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아이들도 많고, 친구에게 배려하는 마음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접하고 보니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어른을 부끄럽게 하지만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훈훈한 이야기이다.



## 당당한 1학년들을 위하여

— 박지원(안성시립공도도서관)

두근두근 1학년을 부탁해 | 이서윤 글 | 윤유리 그림 | 풀빛 | 2016

#동화책 #유치원 #초등저학년

새 학기 새 학년, 그 단어만 들어도 두근두근 하고 설렌다. 이번 학년, 이번 학기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살짝 두렵기도 하다. 아마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적 고민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역시 새 시작이라고 하면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 그 설렘과 두려움을 책임져줄 아주 귀여운 책이 있다.

아현이는 초등학교에 곧 입학할 예비 1학년 학생이다. 예쁜 원피스를 입학 선물로 받고 신이 난 아현이는 초등학교는 유치원과 다르다는 엄마의 말에 초등학교에 대해 궁금해 하며 동시에 걱정했다. 그렇게 설렘 반, 두려움 반인 상태로 잠이 든 아현이는 누군가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다. 자신을 스쿨랜드에서 왔다고 소개하는 권호이다. 권호는 아현이를 이끌고 학교 여행을 떠난다. 권호와 함께 아현이는 학교 가는 길을 익히고 학교를 둘러보며 학교 선생님들을 소개하고 교실을 둘러보는 등 초등학교에 대해 알아간다. 권호와 함께한 학교 여행을 통해 아현이는 초등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미리 학교를 둘러본 덕에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1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입학하는 학교에 대해 걱정을 안고 있는 평범한 아이 아현이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냈다. 또, 학교 여행을 같이 하는 권호는 아현이보다 한 해 먼저 학교에 들어간 2학년이라, 더 친숙하게 보일 것이다.

아기자기한 그림들도 마음에 든다. 특히나 이 그림들 사이에 진짜 사진을 찾는 것 또한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생동감 넘치는 아이들의 표정 그림을 보는 것도 재미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이 책은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말해 봐요 & 생각해 봐요’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이 코너는 아이들에게 직접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보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끝부분에 입학식이나 학교 가기 전 챙겨야 할 준비물, 교과서나 매달 학교 행사에 대해 알려주는 부분도 마음에 든다.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될 아이들과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추천한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이 책을 같이 읽으며 이제 곧 입학하게 될 학교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 화가 불뚝불뚝!

— 박지원(안성시립공도도서관)

맨날 맨날 화가 나! | 양혜원 글 | 한지선 그림 | 좋은책어린이 | 2015  
#동화책

짜증이나 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이다. 이런 감정들은 잘 조절하기 어렵다.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마음이 평안하거늘, 화를 다스리는 것은 왜 이리도 어려운지 모르겠다. 특히 요즘에는 이런 화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나는 이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으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몰라 무언가를 집어던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표출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화내기 대장 지하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낸다. 주인공인 지하는 제 또래에 비해 작고 말랐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의 별명은 강아지이다. 2학년 때 붙여진 이 별명은 지하의 조그맣고 귀여운 생김새가 강아지랑 닮았고, ‘강지하’라는 이름도 강아지와 발음이 비슷하여 붙여졌다. 그러나 키가 작은 지하는 이 별명을 정말 싫어했는데, 이 별명을 떼 내기 위해 겨우내 줄넘기도 열심히 하고 우유도 많이 마셨지만 부쩍 큰 친구들과는 달리 지하의 키는 크지 않는다.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종찬이가 강아지라는 별명을 퍼뜨릴까 걱정된 지하는 종찬이에게 으름장을 놓고는, 옆에 있는 재활용품 상자를 발로 차

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은 뒤 물기를 털고 있는데, 종찬이가 실수로 튀긴 물이 지하에게 튀겼다. 종찬이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지하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에 자기에게 까불지 말라며 옆에 있는 대걸레를 퍽 찼다.

그리고 짝꿍인 지수가 열심히 초대장을 쓰고 있는데, 지하가 자신도 초대해달라며 계속 말하는 것을 원준이가 놀려대 지하가 원준이를 밀어버렸는데, 그만 그 탓에 지수가 쓰던 생일 초대장이 망가지고 말았다. 그런 상태에서 지하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다들 꺼지라고 하며 모두에게 소리질렀다. 그렇게 지하는 화내기 대장이 되었다. 그런 지하는 하룻길에 피로힘 당하는 명구라는 친구를 도와주었는데, 이 때 원준이는 지하의 의외의 모습을 봤다며 원준이와 지하는 화해하게 된다.

그런 어느 날, 그림 그리기를 하는 날에 아이들이 만화를 그리는데, 이 만화의 주인공이 죄다 지하였다. 만화 속 지하는 머리엔 뿔이 나고 입에선 불이 나오는 끔찍한 모습이였다. 이로써 선생님이 지하의 모습을 알게 되고, 지하는 선생님께 혼쫓이 내려는 타이밍에 원준이는 지하가 명구를 도왔던 걸 말하고, 명구의 스케치북 속 흑기사인 지하를 본 선생님은 지하를 칭찬한다. 그로써 아이들과 모두 화해하게 된다.

지하는 자신의 콤플렉스인 키 때문에 세보이기 위해서 계속 화를 내고 다녔다. 그러나 자신의 콤플렉스인 키를 인정하고 자존감을 높이자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게 되었다. 이 책의 장점은 이런 사실들을 책의 내용으로 재미있게 풀어준다는 것이다. 게다가 귀여운 그림들은 몰입도를 높여준다. 또, 마지막에 있는 작가의 말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더 자세하게 알려준다. 이 자세히 알려주는 방법들은 꽤나 유용한 것들이라 써보면 좋은 효과를 톡톡히 볼 것 같다.



## 빵 만들며 인체 탐험

— 박지원(안성시립공도도서관)

빵집 의사의 인체 대탐험 | 이원천 글 | 이고은 그림 | 사계절 | 2016

#동화책 #초등고학년

여러분은 빵집 의사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빵과 의사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조합이다. 그도 그렇게 빵이라고 하면 폭신폭신향고 달달하며 맛있는 빵의 이미지가 생각나는데, 의사는 다친 우리를 치료해주는 상냥한 사람의 이미지가 생각난다. 이 상반된 이미지를 가진 빵과 의사가 하나가 된 빵집 의사가 오늘 소개할 책의 주인공이다.

우선, 우리는 빵집 의사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보통 의사가 빵을 굽고 있다면 대개 취미로 빵을 굽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빵집 의사는 빵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빵집 의사는 한의학에서는 약과 음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며, 병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약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든 병을 음식으로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약을 처방해야 할지, 음식으로 조리할지 잘 알기 위해 빵집 의사는 인체탐험을 떠난다.

이야기는 신기하게 진행된다. 한 책 안에 두 개의 이야기가 있다. 한 이야기는 빵만 먹으면 배탈이 나서 못 먹는다는 경태의 이야기를 듣고 빵집 의사가 호기심을 느껴 경태 같은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자며 속

편해 빵과 날씬해 빵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 다른 이야기는 얼굴의 감각, 피부, 근육, 소화기, 호흡기, 심장, 콩팥, 뇌신경, 뼈 마지막으로 세포를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이야기이다. 인체 대탐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인체를 정말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뜯어 자세하고 세심하게 설명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기 전에 인체에 대해 전혀 무지했던 독자들도 이 책을 다 읽을 즈음이면 인체에 대해 웬만큼 알게 된다.

이 책의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주 세심한 설명이 책을 펴는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이 설명들이 인체에 관한 과학 이야기라도 어렵지 않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덕분인데, 설명이 조금 많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지루한 사이사이를 빵 만드는 이야기로 채워놓았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빵 만드는 과정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다. 빵집 의사 선생님이 무슨 재료를 넣을까 하고 고민할 때 독자도 하여금 정말 이런 빵을 만들 땐 어떤 재료가 좋을까? 라는 생각을 품게 한다. 군침이 돌 만큼 맛있게 그려진 빵 그림은 책을 읽는 재미가 배가시킨다.



## 옛날, 오래된 미래

— 박지원(안성시립공도도서관)

세상일 공짜는 없다 | 윤기현 글 | 정가에 그림 | 현복스 | 2015

#동화책 #초등고학년

우리는 요령껏 살아가고 싶어 한다. 최대한 힘들이지 않고 말이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잖은 감동을 준다. 여기, 강직하고 정직하게 삶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이 책에는 총 아홉 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자신을 무식하다고 생각하며 배운 사람들의 말에만 의지해서 살았던 농부가 스스로 농사지어 성공하는 이야기, 배운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굽실대는 남편에게 한마디하며 택호에 길들여진 순한 시골 아낙네가 아닌 스스로 선택해서 사는 여성 농민으로서의 해남댁 이야기, 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아이들을 키웠지만 결국 그들에게 버림받은 것만 같은 광산 양반 할아버지 이야기, 편하게 머슴살이한 강씨 성 가진 사람과 고생스럽게 머슴살이한 우직한 고씨 성 가진 사람의 이야기, 제복 입은 사람들의 횡포에 맞서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이웃을 위해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는 산이 아버지의 이야기, 어린 시절의 향취를 불러일으키는 아이들의 비석치기 놀이 이야기, 괴짜로 소문났지만 사실, 농약의 대가로서 무형 문화재인 도깨비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이야기, 억울하게 죽은 재동 양반 집의 씻김굿을 해주는 이야기다. 모두 교훈을 주



거나 옛 정취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이다.

이 중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건 세 번째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치지만,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이야기이다.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군 작물인 고구마를 보냈는데 받아가질 않아 할아버지가 직접 다시 가져왔을 뿐 아니라 어찌나 오래 되었는지 고구마는 썩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썩은 고구마만 떠올리면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참느라 “에이참! 에이참! 망할 놈의 새끼!”를 연발하며 겨울 들판에서 옷소매로 눈두덩을 훔치는 장면은 정말 안쓰럽기 그지없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데 반해 자식들은 그 고마움을 모른 채 받기만 하고 산다.

간하고 정감있는 그림들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잊혀져 가는 옛 정취와 옛 감성들, 희미해져가는 옛 가치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 똑바로 vs. 마음대로

— 박지원(안성시립공도도서관)

읽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도서관 | 김유 글 | 소윤경 그림 | 시공주니어 | 2015  
#동화책 #초등전학년

요즘 아이들은 철이 너무 일찍 들은 것 같다. 복잡하고 엄격한 어른들의 규율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그 때문인지 동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찾기 힘든 것 같다. 이 규율들 가운데에는 아이들이 지키기에는 너무 억지스럽고 힘든 것들 또한 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을 붙잡아놓고 공부만 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시켜서 해야만 하는 것. 이 책은 그런 문제를 담고 있다.

책의 시작은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초대장이라고 적힌 글에는 하루 종일 심심하고, 밥보다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친구 등등 여러 문제가 많은 친구들에게 오라고 한다. 물론 내가 가장 잘나고 멋지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또한 환영이다. 걱정과 차별과 외로움이 없는 이 도서관은 마법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놀러오라며 아이들의 궁금증을 유발한다. 아이들이 보기에는 마치 환상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이야기는 고아원으로 광고지 하나가 날아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고아원에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재재와 뽕치기를 좋아하는 자매, 방귀로 아이들을 웃기는 독까스가 있다.

그들은 심심한 방학에 참가할 독서 교실을 손꼽아 기다리며 고아원 원장님의 주의를 받으며 독서 교실의 장소인 똑바로도서관으로 향한다. 똑

바로도서관에는 마치 마녀 같은 관장님이 계신다. 똑바로 관장님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동굴처럼 어두컴컴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도서관 내부로 향했다. 재재와 아이들에게 똑바로 도서관의 규칙을 지키라며 주의를 주고는 ‘어린이를 위한 방’으로 향했다. 어린이를 위한 방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똑바로 앉아 똑바로 책을 읽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눈이 쾅하고 얼굴이 누리끼리했다. 재재와 친구들은 이런 답답한 환경과는 맞지 않아 자꾸 관장과 마찰이 생긴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는 와중에 뺑자매가 사라지는데, 재재와 독까스는 이들을 찾으러 나간다.

도서관 온갖 역겨운 책들을 지나가며 결국 관장을 따돌리고 나가 고장난 버스로 향한다. 고장난 버스가 마음에 들었던 아이들은 각자의 보물들로 버스를 꾸미고 마음대로도서관이라고 이름 짓는다. 마음대로 회원증을 만들고 마음대로 빌려준다.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대로도서관이 인기를 끌게 되고 똑바로도서관장이 사라진다. 관장이 사라진 도서관을 맡아달라는 시장의 말에 아이들은 흔쾌히 웃으며 똑바로 도서관에 마법을 부릴 차례라 이야기하고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강압적인 규율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되찾고 여유가 없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여유를 찾아주는 정말 마법 같은 이야기이다. 내용도 아주 재밌지만 생동감 넘치는 그림이 볼거리를 더해준다. 아이들이 고장난 버스를 마음대로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면에서 재재와 친구들은 정말 멋져 보였다. 우리 친구들이 재재와 친구들처럼 진취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으면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다. 이 책을 읽고 자신감을 얻은 모든 아이들이 책 안의 주인공들처럼 자신에게 마법을 걸 수 있길 바란다.



## 우리가 몰랐던 어린이도서관

— 이연수(수원시 일월도서관)

무어 사서 선생님과 어린이도서관에 갈래요! | 젠 핀버러 글 | 데비 애트웰 그림 | 서남희 옮김 | 다산기획 | 2016 #동화책 #초등중학년 #사서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열정을 다한 사람들, 어린이에게 삶의 방향을 일깨워 준 사람들을 소개하고, 사서를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사서의 방향을 일깨워 주는 이야기’.

이 책은 어린이도서관의 어머니, 애니 캐롤 무어 사서선생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무어 사서선생님이 살았던 1871년대에는 여자들은 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했고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던 시대였다. 무어 선생님은 부모님의 뒷받침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에 사회에 나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시대적으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은 한정되었다.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한 무어는 아버지처럼 법률가가 되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없었지만, 오빠로부터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고 사서로 첫발을 내딛는다.

1896년 최초의 어린이도서관 총책임을 맡게 되면서, 무어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던 도서관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직접 만든 인형으로 동화구연과 독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어린이 체격을 고려한 책상과 의자를 준비했

으며, 내부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도록 꾸미는 등 어린이도서관 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했다. 퇴직해서도 어린이를 위한 좋은 도서관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미국 전역을 누볐다고 한다.

공공도서관의 선진국인 미국의 도서관이 처음부터 선진화된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지금의 어린이도서관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애니 캐롤 무어 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라게 된다. 우리나라도 1979년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개관 이후 2009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세워지고, 수많은 어린이도서관이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랑받을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애니 무어 선생님들이 있었을 것이다.

책 말미에 애니 무어의 일생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무어가 근무했던 뉴욕 공공도서관, 뉴욕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센터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도서관, 대표적인 어린이도서관을 소개하고, 어린이도서관 이용방법을 수록하여 어린이도서관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오늘은 애니 무어 사서 선생님을 생각하며 우리 집 근처 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 가 봐야겠다.



## 바이올린으로 다시 별을 만나다

— 공정자(안성시 진사도서관)

못된 녀석 | 안젤리키 달라시 글 | 아이리스 사마르치 그림 | 길상호 옮김 | 씨드북 |  
2016 #동화책 #초등저학년 #음악

‘가난이란 단지 험벗고 굶주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기에 이르는, 자아정체성 상실의 문제다’라고 시작하는 이 책은 가난하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꼈던 한 소년이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주인공의 아빠는 일을 찾아 집을 자주 비웠고 엄마는 병약하여 늘 아팠다. 주인공은 배가 고파서 빵가게에서 빵을 훔친 이후로 ‘못된 녀석’이라고 불린다. 나중에는 동네에서 제일 나쁜 패거리에 어울려 강도짓을 하면서 점점 ‘못된 녀석’이 되어간다. ‘못된 녀석’은 총을 들고 강도짓을 하러 간 날 만난 호세 안토니오 아저씨 때문에 패거리에서 나와 교향악단의 단원이 된다. 다시 별을 보며 행복을 되찾은 ‘못된 녀석’은 그 이름을 버리고, 자신의 진짜 이름인 행운과 행복을 뜻하는 펠릭스로 불린다. 펠릭스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진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행복해 한다. 나중에는 가난하고 불행한 아이들을 찾아다니면 자기처럼 가난으로 불행해 하는 어린이들에게 호세 안토니오 아저씨처럼 교향악단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애쓴다.

이 책에서 나오는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아저씨는 실제 인물이다. 경제학자이자 음악가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가 1975년 최초의 국립청소년오케스트라를 창립하면서 시작된 엘 시스템아는 지난 35년간 음악으로

30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한다. 두산백과사전에 의하면, ‘엘 시스템아 (El Sistema)는 ‘시스템’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이지만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뜻하는 고유명사로 통한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빈민가 차고에서 빈민층 청소년 11명의 단원으로 출발한 엘 시스템아는 35년이 지난 2010년 현재 190여 센터, 26만여 명이 가입된 조직으로 성장하였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책 제목이 ‘못된 녀석’일까, 궁금증이 일어난다. 등장인물이 주인공의 엄마, 패거리 두목, 안토니오 아저씨 등 단순하지만 뚜렷한 성격을 가진 인물들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주인공인 ‘못된 녀석’의 심리 변화를 회색 외투와 파란 외투의 대조, 총 대신 바이올린을 손에 든 모습, 별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다시 별을 보고 별을 껴안고 있는 주인공의 삽화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심리의 변화가 잘 묘사되었다.

이 책의 삽화는 단순한 듯하면서 주로 회색 계열을 사용한 그림이 주인공의 우울하고 불행한 심리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펠릭스의 행복한 감정이 빨간색을 사용하여 그려져 있다. 앞면지에서 문들이 닫혀 있고 까만 선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 먹구름에서 비가 내리지만 뒷면지에서는 문들이 열리고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고 먹구름에서 음표가 내리는 삽화도 이 책의 시작과 끝 이야기의 차이를 그림으로 이야기한다. 맨 뒤쪽의 작가 소개에 글 작가는 펜을 들고, 삽화가는 붓을 들고 있는 그림도 재미있다.

글도 메시지를 잘 전달할 뿐 아니라 이 책의 분위기를 잘 살린 삽화가 책의 내용을 잘 뒷받침한다. IBBY(국제아동도서평의회)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던 책이다. 이 책 외에 엘 시스템아를 소개한 책으로 양철북출판사에서 발행한 『기적의 오케스트라 엘 시스템아』도 함께 비교해 가며 읽어보길 바란다.



## 물려받는 거 싫어!

— 이연수(수원시 일월도서관)

또 형 거 쓰라고? | 신채연 글 | 김경희 그림 | 좋은책어린이 | 2015  
#그림동화 #초등저학년

책 앞표지에 나온 주인공의 모습이 책 내용을 짐작하게 한다. 큰 자루에 형이 쓰던 물건들을 바리바리 담아 빼죽 나온 입으로 땀을 흘리면서 메고 가는 주인공의 모습은 불만에 가득한 표정이다. 책 뒤표지의 그림은 또 어찌한가? 회전목마에서 사탕을 입에 물고 빼딱하니 앉아있는 모습 또한 불편한 심경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처음 책을 열면 마주하는 그림이기도 하다. 이렇게 불만에 찬 주인공 모습을 첫 장에 그린 것은 주인공의 불편한 심경을 무척이나 보여주고 싶은 작가의 의도가 아닐까 싶다. 주인공 문호는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걸까?

형 이름은 무호, 동생인 주인공 이름은 문호이다. 형 이름에 들어간 받침 하나, 니은(ㄴ)만 넣으면 형이 쓰던 것을 고스란히 동생은 물려받아 써왔다. 동생이 싫다고 거부할 만한 명분도 없는 건 형은 너무도 물건을 깨끗하게 써서 버리기에는 아까운 상황이다. 특히 엄마는 돈 아깝다는 엄마다운 명분을 들어 옷도, 학용품도, 신발도 형만 새것으로 사주고 동생인 문호에게는 형이 쓰던 것을 그대로 준다. 동생인 문호가 형 이름을 활용하지 않고 본인 이름을 처음 당당하게 쓴 유일한 물건은 할머니가 사 준 책 가방이다. 새로운 물건을 갖고 싶다는 호기심은 의도와 다르게 친구 물건을 감추게 되고 사건의 상황을 알게 된 담임 선생님은 물려받은 물건에 대한



가치를 알려 주기 위해 학급 친구들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물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또한 무호 형이 쓰던 오답 노트로 문호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며 쓰던 물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이 책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형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가 익숙하기 때문이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예전에 비해 모든 것이 풍요로워져 아이들이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건이 귀하고 부족하여 절약이 미덕이던 시대에서는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였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기에 절약에 대한 관념도 많이 변화되었다.

이 책을 첫 번째로 추천하는 이유는 물건의 소중함이 새로운 것, 비싼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며, 두 번째는 부모입장에서 형제를 키우며 자칫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는 태어나 처음 만나는 타인이라고 일본의 정신과 의사 오카다 다카시는 말한다. 오카다 다카시는 또한 형제, 자매는 같은 환경에서 함께 자라났기에 서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영원한 경쟁자라고도 한다. 문호 입장에서 보면 새것 좋은 것 칭찬 세상의 모든 것은 형이 다 가지고, 늘 형에게 밀려 물려받는 것은 물론 알게 모르게 비교 당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 문호의 부모님은 아마도 문호와 무호 모두 공평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문호 입장에서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형제, 자매가 있는 가정에서 서로 읽어보고 또 다른 문호와 무호가 되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듯하다.



##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함께하는 우리

— 조수연(가평군 조종도서관)

견수 동생, 강건미 | 박서진 글 | 김미경 그림 | 바람의아이들 | 2016  
#동화 #초등고학년 #장애 #차별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을 때 자라나는 아이들이 겪는 일들을 훈훈하고 감동적으로 그린 동화책이다.

건미는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고 있다. 중학교 1학년 오빠 건국이는 몸집은 중학생이지만 언제나 7살 지능으로 살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을 가지고 있다. 시골에 사신 할머니는 그런 오빠만 이뻐하고 건미의 IQ가 158인 것도 오빠의 지능을 빼앗아 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학교에서 건미는 울باك을 맞는 우등생이다. 그게 배 아파서 괜히 시비를 거는 기태, 선우 같은 친구들이 건미 마음에 부싯돌을 그어댄다. 그러면 팟! 하고 이글거리던 마음이 주먹으로 나오기도 한다. 건미가 공부를 잘하는 게 건수의 머리를 빼앗아가서라고 한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오빠를 하교 때마다 마중 나가야 하는 것도 건미의 몫이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 건수와 건미는 골목길에서 어렸을 적 친구인 성진이를 만난다. 건수는 성진을 보고 무척 반가워하지만 성진인 모른 척한다. 어릴 적 단짝이었던 친구지만 건수가 더 이상 교과 과정을 따라가지 못해 애들한테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한 후로 사이가 멀어지고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아예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건미는 어진이가 성진

이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다.

그 다음 날 수업시간에 어진이와 건미는 쪽지를 주고받고 어진이가 성진이 집으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런데 주고받은 쪽지를 다른 아이들이 찢고 없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어진이가 입양이라는 사실을 안 아이들은 새엄마한테 학대당하지 않는지 묻고 진짜 부모가 없으니 고아라고 놀린다. 엄마가 장애인인 세찬이는 아이들이 뭘 모르고 재미나 화풀이를 위해 막말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 중요한 건 스스로 당당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던 어느 날 교실에서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만다. 아이들은 건미에게 오빠가 특수학교에 다니니까 그거 감추려고 공부 열심히 한 거냐고 깠죽거린다. 어진이가 와서 건미를 거들어주자 어진이가 입양아라서 같은 약자라서 편들어주는 거라고 한다. 어진이는 나는 선택된 사람이지만 너네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너희들을 키우는 거라는 생각 안 해 봤냐고 맞받아친다.

놀리는 사람도 약자일지도 모른다.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들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봐주고 사람들이 모두 다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본다. 이 동화는 5학년 아이들의 주인공이다. 그 또래 아이들이 읽고 공감하고 친구들과간에 서로 지켜야 할 예의를 배워나가고 약자를 특별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 품위있는 삶을 말하다

— 이수경(평택시립장당도서관)

**드림 하우스** | 유은실 글 | 서영아 그림 | 문학과지성사 | 2016

**일수의 탄생** | 유은실 글 | 서현 그림 | 비룡소 | 2013 #동화 #초등고학년~성인 #자아찾기

2013년 유은실은 『일수의 탄생』을 통해 자아를 찾아 떠나는 보통 사람 일수를 보여주었다. 2016년 그의 동화 『드림 하우스』는 친구와 자아를 찾아 떠난 일수가 겪은 세상처럼 보인다. 가혼을 대필하며 소소한 삶을 누리던 일수가 문을 열고 본 세상 풍경은 어떠한가.

생존불안을 드러내는 ‘삼포세대’에 이어 인간관계, 주택구입까지 포기하는 ‘오포세대’가 등장했다.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이 시대 미디어는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키우는 리얼리티 쇼를 방영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리얼리티 쇼가 있다. 단란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과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이들의 누추한 일상과 슬픔을 ‘공개해야만’ 도움을 제공하는 리얼리티 쇼.

조손가정 사춘기 암곰 보람네도 천정이 내려앉은 곰팡내 나는 집을 수리하고 남동생, 할머니의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누추한 일상을 공개한다. 자의식 충만한 보람은 ‘많이 가난하면 많이 불편하다. 나는 많이 불편할 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보람은 ‘품위’ 있는 삶을 꿈꾼다. 보람의 품위는 ‘남이 먹는 걸 보고 침이나 흘’리지 않고 텔레비전 소리 없는 고요한 공간 속에 있을 자유다. 가난한 보람네 가족이 품위 있는 삶을 누리는 세상은 가능한가? 가난한 주제에 품위를 꿈꾸는 보람을 뜯금없다 여기지

는 않는지.

『드림 하우스』가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서이다. ‘내성적인’ 보람을 이해하는 가족은 놀랍게도 리얼리티 쇼에 빠져 사는 증조할머니다. TV에 빠져 살면서도 흔치 않는 통찰력(28쪽)을 내보이는 증조할머니는 “……우리 보람은 품위가 중요해. 나는 별로 안 중요하고”라고 말한다. 증조할머니는 리얼리티 쇼가 바라는 대로 똥싼 얘기까지 꺼내며 눈물을 흘린다. 보람조차 증조할머니의 눈물이 연기인지 진심인지 혼란스럽다. ‘텔레비전 많이 봐서 방송을 좀 아는’ 증조할머니. 보람도 ‘텔레비전이 우주’인 증조할머니를 이해하게 된다.

강상중은 『살아야 하는 이유』에서 인간이 ‘종교에서 분리되면서 자유로운 개인이 탄생하였고 근대 이후 사람들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자아와 관련된 것들을 일일이 스스로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한다. 보람은 ‘품위 있는 삶’을 생각하며 좌절을 다루는 법을 알아가는 중이다.

『드림 하우스』는 ‘가난’에 대한 우리의 시선에 문제 제기한다. 부지런한 할머니의 노동으로 하루를 버티는 가족들. 보람이 함께 벌어도 가난하지 않으려면 “…… 먹여 살릴 가족이 많지 않고, 가족 병원비가 많이 들지 않”아야 한다. 보람네는 피부병과 디스크가 있는 가족들이 줄줄이 있다. GMO식품, 의료 민영화 등이 우리의 현실이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감당하기 벅찬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진은영 시인의 ‘사회적 치유란 정확히 민주주의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우리가 타인에게 마음을 쓰고 자기의 마음을 건네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일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면 진주 씨와 골짜기 아줌마는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품위 있는 삶을 꿈꾸는 보람을 이해하는 골

짜기 아줌마, 보람네를 통해 시청률 노예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한 발을 내디딘 진주 씨. 사회 시스템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진주 씨처럼 누군가 한 발 내디딜 때 가능하다. 목둘레가 늘어진 티셔츠에 떡진 털을 가진 진주 씨를 응원한다.

『드림 하우스』는 한번 펼치면 놓을 수가 없다. 철부지 가족들의 독특한 개성과 ‘꿈’이기에 가능한 재미가 있다. 보람과 할머니의 피곤한 일상에 울컥하다가도 곰기척, 곰력 회사, 발사래, 별돌전자 등의 재치에 웃음이 새어나온다. 유은실은 『드림 하우스』를 통해 우리 사회 문제를 드러내면서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꿈꿀 수는 없는지 묻는다.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인류학자 엄기호는 공부의 목적이 신분상승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향유하는 분별의 힘을 갖는데 있다고 하였다. 보람이 꿈꾸는 품위 있는 삶은 혼자만의 고요한 공간이다.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된 보람은 책을 읽는다. 세상을 알아가기 위한, 그리고 보람은 ‘행복하다.’

프레드릭 배크만은 소설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 달랬어요』에서 “음악이 없으면 꿈이 생길 수 없고, 꿈이 없다면 동화가 생길 수 없으며, 동화가 없으면 용기가 생길 수 없고, 용기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슬픔을 감당할 수 없다”고 썼다. 아이와 어른들이 『드림 하우스』를 함께 읽으며 슬픔을 감당하고 다른 삶을 꿈꾸는 용기를 품기를 바란다. 더 많은 이들이 품위 있는 삶을 꿈꾸고, 존엄한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야기 나누는 좋은 매개가 되길 바란다.



## 착하면 바보 같나요?

— 박지원(안성시립 공도도서관)

흑기사 황보찬일 | 소중애 글 | 조윤주 그림 | 교학사 | 2015  
#동화책 #초등고학년

흔히들 아이들을 보면서 착하게 자라나라고들 한다. 또, 누군가에게 너는 참 애가 착해, 라고 하며 칭찬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착한 것이 마치 욕처럼 쓰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착하기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다든지, 착하기만 한 건 호구 같다든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착하기만 한 건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바보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 우리에게 다시금 착한 게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전학생 세 명이 오면서부터 시작된다. 요란한 옷을 입고 다니는 연비, 앞머리가 눈을 가려 음침해 보이는 경호, 말투가 이상한 찬일이까지. 주인공인 찬일이는 마을 사람이 열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사투리는 기본에 촌스러운 차림새까지 겸비한 완벽한 촌사람이다. 찬일이네 엄마는 찬일이를 완벽한 서울 아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착한 찬일이는 그런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엄마를 만족시키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존경하는 인물 발표를 하게 됐는데, 찬일이가 아이들의 부탁을 군말없이 들어준다. 찬일이네 엄마는 이 소식을 듣고 남

들을 도와주지 말라고 찬일에게 화를 낸다. 엄마의 말에도 찬일이는 친구들을 돕는데, 결국 찬일이네 엄마도 착한 게 바보 같은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책에 나오는 찬일이네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잘 되고, 손해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정말 평범한 엄마다. 그러나 그런 찬일이네 엄마를 변화시키는 건 바로 찬일이다. 찬일이가 변화시키는 건 엄마뿐이 아니다. 찬일이네 친구들 또한 찬일어로 인해 변했다. 찬일이는 자신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남을 도와주는 아이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며 순수하게 남을 돕고 싶어서 도울 뿐인 심성이 고운 아이이다. 처음에는 모두 찬일이는 바보 같이라며 욕했지만 결국은 모두들 찬일이를 통해 변화하고, 성장했다. 책에서 찬일이는 어린 아이이지만 그 성품만은 어른들도 고개 숙여 배워야 할 인품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

독특한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라는 점이 좋았다. 말을 더듬는 경호, 자유로운 연비 같은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조화를 이루어 냈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실감나는 장면 묘사 또한 이야기를 보는 재미를 더했다. 특히나 경호가 말을 더듬는 장면이라든지, 엄마가 찬일에게 가서 박힌 말을 내뱉는 장면들을 읽을 때면 정말 생생하게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배려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찬일이를 보며 착하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며,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읽고 착한 일, 선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귀찮은 내 동생

— 박지원(안성시립 공도도서관)

말미운 내 꼬리 | 양인자 글 | 장연화 그림 | 파란정원 | 2016  
#동화책 #초등저학년

언제 어디나 내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내 꼬리, 항상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는 끝까지 하기 위해 내 손을 잡고 바닥에 질질질, 언제나 귀찮고 번거롭게 하는 내 동생.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 하면 끝까지 따라와 떼어내고, 친구와 놀러가려 하면 배가 아프다며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동생. 세상에 수없이 많은 언니와 동생이라면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이다.

새학년이 되어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교실을 맞게 된 지현이에게는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은 동생 세현이가 있다. 이번에도 마음에 드는 친구가 생겼지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세현이와 함께 다녀야한다는 사실에 우울하다. 지현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라면짬을 사달라며 떼쓰는 세현이가 마냥 밉다. 언제나 지현이만을 졸졸졸 쫓아다니며 수업이 끝나면 언제나 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세현이를 보며 지현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했던 놀이공원도 세현이 때문인지 가지 못하게 되어버려 속상하다. 가족들은 언제나 세현이를 위해 주고 세현이에게 맞춰주려 하는 탓에 지현이는 상처만 받는다.

그러던 어느 날 옷을 사러 가서 지현이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

지만 세현이는 다른 옷이 마음에 든다고 한다. 엄마가 지현이를 설득하며 세현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사려고 하자 지현이는 화가 나서 옷가게를 뛰쳐나오고 만다. 마음이 가벼울 리 없지만 여태껏 자신이 참아왔던 것이 생각나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며 세현이만 예뻐해주는 엄마가 밉고 세현이가 알뜰기만 하다.

언제나 언니로서 동생을 챙겨야 했던 지현이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동생 때문에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양보만 해야 했던 지현이에게 동생은 귀찮고 싫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생 세현이 역시 언니를 귀찮게 하려고 마냥 붙어다닌 것은 아니다. 언니와 있는 것이 친구들과 있는 것보다 재밌고 좋기 때문에 언니에게 더불어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부분에는 세현이와 지현이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따듯하게 같이 다니기로 약속하는 부분이 기억에 남았다. 동생 때문에 못하는 게 많은 언니나 형, 언니와 형만 졸졸 따라다니는 동생들이 함께 읽고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은 책이다.



## 얼굴을 바꿔 드려요

— 박지원(안성시립 공도도서관)

얼굴 시장 | 임지형 글 | 심윤정 그림 | 꿈꾸는초승달 | 2016

#동화책 #초등저학년

외모지상주의, 생김새로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된 사회 인식이 요즘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형이 성행하는 것 또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책 한 권을 소개한다.

이 책은 쌍꺼풀수술을 한 친구를 부러워하는 하연이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좋아하는 남자애가 쌍꺼풀수술을 한 친구를 보고 예쁘다고 하자, 그런 친구가 부러웠던 하연이는 물풀로 쌍꺼풀을 만들어 학교를 가게 된다. 그러나 물풀로 쌍꺼풀을 만든 나머지 눈 위에는 세수를 안한 것과도 같이 하얀 풀이 자리잡았고, 눈이 텅텅 부어 있었다.

하연이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쌍꺼풀수술을 하게 해달라고 조르지만 하연이 엄마는 단호히 거절한다. 울적해진 하연이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울이 하연이를 자신이 원하는 얼굴로 만들 수 있는 '얼굴 시장'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얼굴 시장'에 간 하연이의 이야기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얼굴 시장을 향해 오니 가장 완벽한 얼굴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페이스 리더가 하연이를 안내했다. 얼굴 시장 안에는 아름다운 눈과 코, 입 등이 존재했는데, 하연이는 여러 가지 눈과 코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방에

서 눈을 바꾸어 보다가 얼굴을 바꾸다가 눈, 코, 입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섞인 여자를 보게 된다.

얼굴 시장이라는 소재가 참 독특하다. 각자 마음에 드는 부위를 '얼굴 시장'에서 구매하여 손쉽게 생김새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기발하다. 누구나 자신의 외모에서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친구가 원하는 쌍꺼풀을 갖고 싶은 평범한 하연이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얼굴 시장을 경험하며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는 하연이의 성장기를 보며, 나 역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경우는 없었는지 머쓱해진다. 외모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키를 키우는 데도 좀 더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참 외모에 관심이 커져가는 초등 친구들이 보고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 나의 성공을 남과 나눌 수 있을까

— 이민혜(양평군립도서관)

독수리와 굴뚝새 | 제인 구달 글 | 알렉산더 라이히슈타인 그림 | 토토북 | 2015 # 동화책 #초등생 #사회관계를배우는아이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그렇다면 도움을 받아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조력자의 덕분일까요?

옛날옛날 아주 먼 옛날 누가 가장 높이 날 수 있을지, 어느 새가 가장 높이 오래 날 수 있을지 새들끼리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새들은 모두 하늘을 향해 날았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도, 종달새도, 삻꾸기도 모두 독수리 보다는 높이 날지 못했습니다. 독수리가 자신의 우승을 확신한 순간 자신의 깃털 속에서 나온 굴뚝새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굴뚝새는 독수리의 깃털 안에 숨어있었습니다. 독수리가 홀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자 굴뚝새는 자신의 날갯짓으로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굴뚝새가 독수리보다 더 높이 날은 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굴뚝새는 말합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늘 궁금했어. 이제 알았어. 지금 이 순간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거야. 고마워.”

독수리는 한순간에 일등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은 다른 어떤 새들보다 더

강하고 높이 오를 것을 한 번도 의심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경쟁은 목숨을 건 승부입니다. 한번 진 동물을 약자가 되고 강한 동물에게 먹히는 것이 동물의 생태계입니다. 하지만 독수리와 굴뚝새는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일등의 공을 나누려고 합니다.

굴뚝새는 처음으로 높은 곳을 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독수리는 기꺼이 굴뚝새의 조력자가 돼주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새로운 경험을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수리와 굴뚝새는 상대방으로 인해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의 승리가 누군가의 공으로 만들어졌다면, 나는 나의 승리를 기꺼이 남과 나눌 수 있을까요?

비행대회를 마치고 난 뒤, 타조는 땅으로 내려온 새들에게 위로해줍니다. 타조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날지 못하는 새가 날아오를 수 있는 새들을 위로한다니요. 높이 날아야만 좋은 새, 멋진 새가 아닙니다. 날개로 하늘을 날 수도 있지만 타조처럼 아름다운 춤을 추어 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능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자신의 소중한 부분을 알아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동물학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인 구달입니다. 동물에 대한 작가만의 시각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적이고 본능적인 동물세계를 뛰어넘어 동물들 간의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살다보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 내가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작가는 새들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식구들과 함께 먹는 밥

— 박지원(안성시립 공도도서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 우현옥 글 | 최미란 그림 | 키위북스 | 2015  
#동화책 #초등저학년

‘식구’라는 말이 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뜻한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삶을 공유해 나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때문에 식사시간은 서로 교류하며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소통의 시간과는 멀게 느껴진다. 음식을 앞에 두고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기 일쑤이다. 자리만 함께할 뿐이지 서로의 이야기와 삶을 공유하지 못한다. 그저 배만 채우는 시간인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책의 이야기는 집수리로 인해 보리네에 일주일 간 살게 된 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수리로부터 시작한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 밥상을 만드는 방법, 밥상머리 교육에 관한 이야기, 올바른 식사 예절, 함께 만드는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침밥과 함께 하는 식사의 중요성을 몰랐던 보리네와 식사의 중요성과 예절은 알지만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라는 케케묵은 유교사상을 가지고 있던 수리네가 만나 부딪치며 변화되는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다.

간간한 지리산 청학동 서당 훈장님인 큰아버지와 수리, 평범한 회사원으

로 일하는 보리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보리가 이뤄내는 케미는 상당하다. 보리네 아버지가 어머니께 말실수를 해 싹싹 비는 장면이라든지 훈장님인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보리보다 한 살 적은 수리가 보리에게 되려 수저 놓는 방법을 가르치며 잔소리 하는 장면에서 캐릭터들의 조화가 재미있게 잘 이루어진다. 이런 개성 가득한 캐릭터들이 이뤄내는 이야기는 재미있다.

평범하지만 늘 있는 일이기에 더 재미있는 일, 가슴 따뜻해지는 일.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는 담겨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그와 관련된 상식과 내용을 자세하게 적고 있어 기본 식사예절 익히기 등에 매우 유용하다.





## 밤밤이와 안녕 할 시간

— 박지원(안성시립 공도도서관)

밤밤이와 안녕 할 시간 | 윤아해 글 | 조미자 그림 | 스킨라 | 2015  
#동화책 #초등생

이별, 이름만 들어도 가슴 아픈 일이다. 누군가와 이별하는 일은 아쉽고, 슬프고, 힘든 일이다. 하고 싶지 않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의든 타의든, 순리든 우리가 맞게 되는 이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밤밤이와 안녕 할 시간』은 이별과 마주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주인공 '나'는 키우던 강아지 밤밤이를 잃었다. 밤밤이가 죽은 것이다. 밤밤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게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무력하게 잠만 자기도 하고, 화도 내본다. 그러나 죽은 밤밤이가 되돌아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실의에 빠진 주인공 앞에 이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곰돌이가 나타난다. 곰돌이는 주인공에게 추억 정리하기, 안전하게 화내기, 푹 쉬기, 이별을 받아들이기 등의 이별법을 가르쳐 준다. 곰돌이와 함께 이별법 하나하나 실천하며 주인공은 마침내 밤밤이와 아름다운 이별을 맞는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아이들이라면 한번쯤은 겪었거나 겪게 되는 애완동물의 죽음을 소재로 아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애완동물뿐 아니라 친구나 가족들과의 이별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을 보살피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살아가기 위해서다. 이 책이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 스스로 이름 짓다, 나는 강한 바리다

— 이수경(평택시립장당도서관)

희망을 부르는 소녀 바리 | 김선우 글 | 양세은 그림 | 단비 | 2014

#청소년소설 #청소년

얼마 전 예능프로그램에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외국으로 입양된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엄마도 34년 동안 아이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 저건 범죤 아닌가라는 마음마저 생겼습니다. 이 아름다운 초록별 지구에는 여자라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폭력적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바리공주 이야기는 신화를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리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비루한 존재에서 삶과 죽음의 고난 끝에 저승을 관장하는 신, 고귀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바리 이야기는 핏빛 성찰을 통한 최고의 성장 드라마입니다. 김선우 소설가는 몇 천 년을 내려오며 주류 사회의 관습이 묻은 바리 이야기를 오늘의 청소년과 독자들에게 의미 있게 촘촘히 직조하였습니다. ‘버려진 여자아이’ 바리는 버림받았기에 상실과 결핍에 시달리고 고통스럽습니다. 비리공덕할멈과 할아범, 바람의 말 무구의 보살핌에도 가슴에 난 구멍은 쉽사리 메워지지 않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커켜이 쌓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바리는 존재의 고통과 의미를 묻고 또 묻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는 것일까. 태어난 것들은 왜 죽은 것일까.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중략) ……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목숨이

라는 말. 버려진다는 것. 보살핀다는 것…… (중략) …… 여자아이라서 버려진 아이가 정말 여자가 된다는 것.’

버려진 바리는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자신을 찾기 위해 질문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구대왕의 부름으로 세상을 둘러 본 바리는 버림받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백성들의 삶에 충격 받습니다. 바리는 호심이 아니라 낱아준 은혜를 갚기 위해 불나국 백성들의 지옥 같은 삶을 구제하기 위해 서천 서역으로 가겠다 선언합니다. 바리는 ‘세상의 이쁜 것들은 죄다 눈물을 머금고 있는 것’임을 알기에 고난의 길을 갑니다. 약수를 구하러 가는 서천 서역의 길은 바리에게 끝없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바리는 지옥의 고통에서 시시비비의 판단을 넘어서는 선과 악의 모호함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 삶과 생명의 의미를 존재 그 자체에서 찾는 넓고 깊은 눈을 가지게 됩니다.

유리산 벽 앞에서 바리는 ‘버려졌던 여자아이’에서 ‘나는 강한 바리다.’ 스스로 이름 짓습니다. 바리는 단단히 땅을 딛고 서서 스스로 삶의 주체임을 선언합니다. 부모가 낳은 첫 번째 탄생을 지나 바리는 고통과 결핍의 허물을 벗고 삶의 주체가 되는 두 번째 탄생에 이릅니다. 하늘을 움직이기 위한 바리의 마지막 관문은 ‘사랑’입니다. 원망과 결핍을 넘어서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누군가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바리와 무장승은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꿔나갑니다. 달빛을 받으며 산과 들에서 행하는 무장승과 바리의 사랑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감사와 삶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바리는 세 아들을 낳으며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이, 죽어서도 방향을 잃은 자들을 이끄는 이, 바리의 사랑은 세상 가장 어두운 곳으로 향합니다. 오구대왕을 살리며 바리가 축원합니다.

‘아버여, 죽으소서, 완전히 죽어 다시 소생하소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어 다시 태어’나야합니다. 탄생과 죽음이 다르지 않으니 삶이 죽음이며 죽음은 곧 삶, 시작의 길입니다. 봄에 읽은 『희망을 부르는 소녀 바리』는 바리의 결핍과 자아를 찾는 길만이 또렷했습니다. 가을에 다시 읽은 바리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난을 택하고 흔들려도 끝내 자신을 믿으며 진짜 사랑을 만들어가는 멋진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계절 어느 시간에 다시 바리를 본다면 또 어떠할까요? 읽을 때마다 다른 이야기 무늬가 생깁니다. 바리의 삶과 죽음이 그러하듯 우리 또한 잘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잘 죽어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의 삶에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지요?

또 다른 이야기. 『희망을 부르는 소녀 바리』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삽화입니다. 청소년소설이므로 삽화가 있으면 책 이해를 돕거나 글에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그림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신화에서 빌려온 거대한 성장 이야기에 예쁜 그림은 신화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가볍게 느껴지거나 아름다운 관계의 상상력을 주저앉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 이야기. 책 말미 작가의 말에서 바리 신화가 지역마다 수많은 판본이 있고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희망을 부르는 소녀 바리』를 비롯해 웅진주니어 『바리공주』, 한림출판사 『바리데기』, 웅진씽크하우스 『바리데기』, 시공주니어 『바리데기』, 비룡소 『바리공주』 등 또한 바리 신화의 어느 본을 참조하여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바리 이야기뿐 아니라 신화, 전설, 민담 등 옛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발간할 때는 참조한 판본과 자료를 밝히는 것이 출판문화와 도서관이 좀 더 발전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 백수 삼촌을 위한 기도

— 이은주(남양주시 오남도서관)

백수 삼촌을 부탁해요 | 박혜선 글 | 이고은 그림 | 문학동네 | 2016  
#동시집 #초등중학년부터 #인생이란

『백수 삼촌을 부탁해요』 책 제목이 재미있다. 아니 웃프다. 1992년 새벗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한 이후, 제2회 푸른문학상, 제1회 연필시문학상, 제15회 한국아동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박혜선 시인의 새 동시집이다. 24년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줄곧 동시를 놓지 않았던 시인이 『개구리 동네 계시판』(2001, 아동문예사), 『텔레비전은 무죄』(2004, 푸른책들), 『위풍당당 박한별』(2010, 푸른책들) 이후 네 번째로 펴내는 동시집이다.

이 동시집은 총 4부로 나누어 있다. 제1부 “손가락의 힘”, 제2부 “지하철 역에서 귀뚜리 소리를 듣다”, 제3부 “3016년 10월 27일 9시 뉴스”, 제4부 “내가 만든 사진”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아이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재미있고 유쾌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은 그냥 가벼이 웃어넘길 수는 없다. ‘웃프다’는 표현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박혜선의 동시들은 가족의 일상, 도시 삶의 일상을 주목한다. 색다르고 예외적인 상황을 찾기보다 흔히 경험할 수 있고 주위에서 종종 관찰되는 일들을 택해 이를 꼼꼼하게, 정확한 언어로 그려 냈다. 대상과의 거리 감각

과 긴장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평범한 일상 이야기임에도 재미있게 다가오고 생각할 여운을 준다. 4·4조 가사(歌辭) 형식, 국어사전의 말풀이 형식, 방송 뉴스 형식 등을 활용해 형태상의 변화와 함께 내용의 다양화를 보여준 것도 흥미롭다. - 김이구(아동문학평론가)”

- 백수 삼촌을 위한 기도 -

구들장 귀신이 붙었다고 잔소리하면서도  
밤마다 기도하는 할머니

"저놈 아가 내 자식이라가 아이라  
삼성이 곱고 법 없이도 살 놈입니더  
어디든 가기만 하믄  
해 안 끼치고 단디 할 깎니더  
그라니까네 잘 좀 봐주이소."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삼촌이 아직 구들장 지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할머니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 거다.

재미있고 유쾌하지만 결코 가벼이 웃어넘길 수 없는 사회의 다양한 단면이 응축된 동시들이며, 지금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 내 이야기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는 동시들이다.

그림은 세련된 화풍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화가 이고은이 그렸다. 회색조인 화면 곳곳에 따스한 노란색, 주황색을 배치한 그의 그림은 시 속 도시 정경에 조명을 켜듯 서정적 온기를 더한다. 사물 하나하나에 담은 세심한 감정들,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림의 유머가 시의 목소리에 힘을 보탠다. 특히 표지의 그림은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구두를 신은 모습과 노란 새들이 서류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바쁜 도시의 삶을 재미있게 잘 표현하고 있다.



## 정민이와 준호는 그림자도 친해

— 박지원(안성시립 공도도서관)

벌레가 기절했다 | 최수진 글 | 홍정지 그림 | 사계절 | 2015

#동시 #초등저학년

‘벌레가 기절했다’는 제목의 이 책은 창의적인 생각들이 듬뿍 담긴 동시 집이다. 책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고 창의적인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내용도 재밌지만, 시의 제목들도 참 재밌다. ‘벌레가 기절했다’, ‘귀신과 악수하기’, ‘방귀 가족’ 등등.

할머니 이가 반만 있으니, 빵의 반은 내가 먹고 반은 할머니 드려야겠다는 ‘반만 먹었다’, 하품을 하다가 엄마의 베개 모퉁이를 조금 먹어버리고 말았다는 ‘엄마 베개’, 검은 밤의 조각이라 김을 기워서 밤을 만들 거라는 ‘김’, 낙엽을 피해 사람의 발을 피해 꽃잎을 피해 과자를 들고 짐으로 돌아왔다는 ‘개미의 일기’ 등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신기하고 독특한 시들이 많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썼을 법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긴 이 시집은 여러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총 4부로 각각 한 부당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골라 부제목으로 해두고 다음 부로 넘어갈 때는 제목에 걸맞은 귀여운 그림들을 넣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던 시들 중 하나는 ‘햇빛 가득 담긴 운동장에서’



라는 시인데, 똥똥한 유진이는 그림자가 무거워 그림자를 킁킁 끌고 간다는 내용에서는 그림자는 몸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변하는 것인데 끌고 간다는 내용이 재밌다. 커다란 학교는 그림자가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생각이나, 정민이와 준호는 그림자끼리도 친해서 퐁퐁퐁퐁 붙어간다는 구절에서는 귀여워 절로 웃음이 인다.

매일같이 보는 물건, 친구, 가족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영감을 주는 책이다.

# 어린이비문학



##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알아가는 지식의 출발점

— 조수연(가평조종도서관)

지구의 역사가 1년이라면 | 데이비즈 J. 스미스 글 | 스티브 애덤스 그림 | 황세림 옮김 | 푸른숲주니어 | 2015  
#지식정보책 #초·중·고 #과학

어린이들은 자라면서 나와 가족, 친구들을 알아가고 그렇게 일상을 보낸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해 보거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라는 공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지구와 태양계를 소개하고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은하에서부터 지구의 역사, 생명의 진화, 인류의 역사, 첨단 발명품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써 놓은 책이다. 그러한 설명을 축소라는 개념을 가져와 설명하였다. 대상의 크기를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는 방법을 알아야 이 책을 이해하며 볼 수 있다. 그것은 모형 자동차나 공룡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본 친구라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접시만 한 크기로 줄어든다면 지구는 먼지보다 더 작아질 것이다. 태양계가 아주 작은 점으로 보일 테니 말이다. 미국 항공 우주국에서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은하는 3,000개쯤 된다. 전 우주에는 1,700억 개가 넘는 은하가 있다. 우리는 아주 크고 웅장한 우주 환경에 살고 있다.

태양계의 행성을 공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하였다. 지구가 야구공이라면 수성은 탁구공, 천왕성은 농구공, 목성은 지구보다 10배나 크기 때문에 커

다란 물놀이 공으로 표현하였다. 태양의 크기는 지구보다 100배가 큰 항성이다.

지구가 생겨난 지는 46억년이 흘렀다. 만약 지구의 역사가 1년이라면 2월에 달이 나타났고 3월에 바다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11월 초에 빙하시대가 닳쳤고 12월 18일쯤 새들이 처음 나타났다. 12월 22일쯤에 포유류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했고 12월 마지막 날이 다 되어서야 마침내 인류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지구의 역사를 두 시간 분량의 DVD에 담자면 DVD가 끝나기 1초 전에 인류가 등장하게 된다. 인류 생존의 역사가 지구 전체에 비한다면 터무니없이 짧다고 할 수 있다.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난 지 35억년이 흐른 후에야 생명체의 역사가 시작된다. 만약에 지구 생명체의 역사가 한 시간이라면 단세포 동물은 첫 1초에 나타났고 물고기는 51분 10초에, 양서류는 54분 10초에 나타났다. 공룡은 56분에 나타났다가 3분 뒤에 사라졌다. 포유류는 56분 25초에 나타났고 새들은 58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은 59분 56초에 등장하였다. 우리 현생 인류는 59분 59.8초에 등장하였다. 이렇게 지구 생명체의 역사를 살펴보니,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짧은지 실감이 난다.

인류가 지나온 3,000년 동안의 역사를 한 달로 줄어든다면, 1개월간의 달력으로 표기하여 설명하였다. 철이 널리 쓰이게 된 때는 1일,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축조한 것은 8일, 15일에 중세 시대가 시작되었고 20일 유럽인 최초로 북아메리카에 도착하였다. 28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으며 30일 미국에서 최초로 전자식 컴퓨터를 개발하였다.

첨단발명품을 30센티미터 자에 늘어놓는다면, 대포가 처음 쓰이게 된 것은 4cm, 인쇄기 발명은 13cm, 증기기관차는 24cm, 전화와 전구의 발명은 26cm, 비행기, TV, 컴퓨터 등 수많은 발명품이 29.5cm 즈음에 이루어진 성

과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최첨단 발명품들인 인터넷, DVD, 스마트폰 등은 마지막 30cm 눈금에 해당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12조각으로 나눈 피자를 비유하였다. 4조각은 학교나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다른 4조각은 잠자는 시간, 1조각은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시간, 1조각은 쇼핑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시간, 1조각은 학교나 직장으로 이동하는 시간, 마지막 1조각은 운동이나 여가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다.

이처럼 이 책에서는 모든 과학적 설명들을 축소와 비례, 연표를 사용하여 이해를 도왔다. 이러한 방법으로 위 설명 이외에도 대륙, 물, 생물의 종, 돈, 에너지, 평균 수명, 인구, 식량, 인간의 일생에 대해 어린이의 눈높이에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하였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저자가 참고한 도서 및 보고서 웹사이트는 수십 종에 이른다. 과학적 이론이 뒷받침이 되어 쓰인 이 책은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 사고를 기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책이 분명하므로 어린이들이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 신기한 미생물의 세계

— 박지원(안성시 공도도서관)

작은 생물의 이야기 | 지태선·김찬희 글 | 조혜주 그림 | 미래아이 | 2015  
#지식책 #초등중학년이상

작은 생물이라고 하면 보통 지렁이나 개미, 파리 등의 조그마한 동식물들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그보다 더욱 작은, 미생물이나 세균 같은 생물을 다루고 있다. 미생물이라 함은 더럽고, 고약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우리들의 그러한 편견들을 속속들이 깨부순다.

첫 장은 작가의 말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눈에 보이는 미역이나 버섯들이 왜 작은 미생물 속에 속하는 건지, 나쁜 것 만이라고 생각했던 세균이 어떻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지 등등 독자들이 궁금하게 만들어 스스로 다음 페이지를 넘기게 만드는 것이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한 장씩 들어갈 때마다 이름, 가족, 특징, 수상 경력 등을 줄여서 써 두고 후에 그에 관련한 것을 풀어나가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이 형식 또한 독자들의 흥미 유발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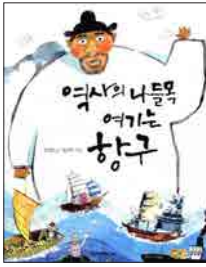
1장은 균류에 관한 이야기이다. 균류의 대표적인 버섯을 우선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때 버섯의 구조라든지 번식 방법 등을 그림으로 상세하게 표현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외에도 세상에서 제일 큰 생물이 버섯이라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버섯에 관한 이야기도 했다.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책의 장점은 꼭 주제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주제에 관련된 다

른 지식과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보너스 마냥 알 수 있다는 것이다.

2장은 곰팡이에 대해서 설명한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곰팡이라는 타이틀을 처음에 두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또, 식물에게 곰팡이가 양분을 제공해 준다면 곰팡이의 장점과 곰팡이는 예상외로 우리의 주변에 많다는 것 또한 설명해 우리의 편견을 깬다. 이외에도 효모의 수많은 장점들을 나열하며 1장의 막을 내렸다. 2장은 원생생물에 관한 것이다. 원생생물을 조류, 편모충과 섬모충, 육질충과 포자충 들 같이 어려운 단어들을 소재목으로 걸어놓아서 어렵지는 않을까, 라며 걱정했으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게 그에 관해 설명해 감탄을 자아냈다. 지구온난화 같은 상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적조, 그 유명한 벌레인 꼬신벌레와 아메바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용해 설명을 풀어 꽤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것 같다.

3장은 작기로 소문난 세균에 관한 이야기이다. 세균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생물이라든지, 세균이 모두 나쁜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있고, 그 종류 같은 것들에 대해 얘기했다.

이 책은 미생물들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쌓기에 좋은 책이다. 또, 육질충이나 포자충 같은 어려운 단어들 나오지만 굉장히 쉽게 비유를 해 놓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이 읽기에 좋을 것 같다.



## 김해가 항구도시였다고?

— 박지원(안성시 공도도서관)

역사의 나들목 여기는 항구 | 조성은 글 | 송진욱 그림 | 책과함께 | 2015  
#지식책 #초등저학년~초등중학년

항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약간은 잔내가 섞인 듯한 바다의 향기와 어찌 들으면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내면서도 그 항구 위를 나는 갈매기, 잔잔한 날을 기다리며 한 곳에 정박하고 있는 여러 척의 배들 같이 항구와 연상이 되어서는 많은 모습들이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이름만으로도 여러 모습들을 연상시키는 항구와 함께 독자를 역사로 이끌어주는 책이 있다.

첫 이야기는 유물들의 자기소개에서부터 시작한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아니면 약간은 넘어서서 여러 가지의 특별하고 근엄한 척하던 유물들 여섯 개는 각자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의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이 유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등등을 유쾌하고 흥미롭게 풀어낸다.

이 책의 삽화는 유달리 세세하고, 독자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려졌을 뿐더러 실제사진도 함께 실어 이 유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려진 그림들은 이번에 유물들이 들려줄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가늠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어 독자가 자연스럽게 책을 넘기며 흥미 있게



읽을 수 있게 한다.

한 이야기가 끝나면 짙막한 코너로 ‘(유물)이 못다 한 이야기’라는 코너가 있다. 자세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곳곳에 알지 못했던 사실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배치해 지식과 상식의 폭을 넓혀준다. 예를 들면 지금은 김해는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항구도시였다는 사실 등이다.

책의 마지막 장은 우리나라의 지도로 마무리했는데, 여태까지 책에서 나온 항구도시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책에서 소개한 인천, 군산, 강진 같은 도시들을 방문할 때 조금 더 그 도시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더욱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역사를 조금 더 잘 알고 싶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혹여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라도 이 책을 읽고 나면 아마 역사에 흥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재미있게 익히는 수학

— 유향숙(성남시판교도서관)

세상에서 가장 우수함스러운 그림 도둑 | 펠리시아 로 글 | 앤 스콧 그림 | 황 세림 옮김 | 푸른숲주니어 | 2016 #학습동화 #초등저학년 #도형

나쁜 짓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악당들은 ‘굶적시’라는 곳을 조금 벗어나 삐그덕 골짜기를 지나 텅 빈 하늘과 먼지투성이 언덕, 가시 선인장 등 가리키는 악당계곡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매쓰와 악당들이다. 물론 악당들은 각자 성격을 나타낼만한 이름들이 있다. 매쓰와 친구들은 나쁜 일은 잘 꾸며도, 수학을 못하여 나쁜 일이 성공하기는 어려운 한계를 갖은 귀여운 친구들이다.

악당 두목격인 매쓰는 친구들에게 오늘의 나쁜 일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굶적시’에 미술관에 전시될 그림을 훔치되, 진짜 그림을 베껴 그려 바꿔치기하기가 그들의 계획이었다. 따라서 매쓰와 친구들은 그림을 그려야 한다. 먼저 고양이이름을 가진 친구는 정사각형으로 가득찬 그림을 그릴 것이다. 정사각형은 네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 애를 먹었다. 또한 착시효과까지 줘야 하니 여간 힘들지 않았다.

매쓰도 그림을 그렸다. 정사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으로 사람을 표현하는 그림인데 온통 사각형만 가득하니 난해하기만 하다. 뽀뽀마른 갈비뼈는 삼각형모양의 돛단배 그림을 그렸다. 삼각형과 피라미드 모양의 높다랗고 뽀족한 조각상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낸 것이 그중에 제일 잘 그린 격이다. 우락부락 근육질은 동글동글한 모양의 그림을 베껴 그렸다. 마침 생긴 대

로 잘 그렸다. 주근깨투성이 막내 손가락은 과일이 가득한 그림을 그렸다. 수박을 그릴 때는 원을 지름으로 잘라 둘로 나눈 듯한 모양을 그렸다.

근육질은 타이어를 이용한 나선모양의 작품도 흉내를 냈다.

이렇게 악당들은 배껴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리는 동안 사각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은 어떻게 다른지, 삼각형의 모양들로 우리 생활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형의 모양들은 원기둥, 지름과 반지름, 대칭과 비대칭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따라갈 수가 있었다. 도둑들도 그림을 그리는 동안 어렵다던 수학적 도형을 배워가며 익혔으리라 생각이 되었다. 그나저나 도둑들은 그림을 그려서 실행을 했는지, 실행한 결과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가 몹시 궁금하다.

이 책은 스토리와 수학의 학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책의 구성도 어려운 도형용어가 나오면 사전적 해석을 이야기가 흐르는 중간에 공간을 분할하여 설명하고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막 어려운 용어를 배울 때 쫓 호기심을 극대화 하면서 놀 듯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동화이지만 내용도 풍부하여 삽화그림인 듯 잘 구분 할 수 없이 그림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여러 가지 도형을 배울 때, 이 책 읽기를 권한다.

펠라시아 로는 어린이책 전문작가로 『술술 읽으면 개념이 잡히는 통합 교과 수학책』, 『돌고래 다윈에게 배우는 용기』 외에 여러 권을 쓰셨기에 책 말미에 작가 선생님의 설명을 보고 또 다른 책도 읽어 보기를 바란다.



## 고전에서 찾는 인성과 지성

— 조수연(가평조종도서관)

논어 듣고 나타난 공자 귀신 | 고향숙·이도현 글 | 김미현 그림 | 그린북 | 2015  
#지식정보책 #초등고학년 #고전

우리는 너무나 빠른 문명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논어』라고 하면 이미 오래전에 살다간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책으로 엮어낸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살다간 공자의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무엇이 중요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전을 통한 인성교육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학업 위주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실정에서 부모님이 역시 함께 봐야할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 인성을 위해 자신이 소중하듯이 남을 배려하고 소중할 줄 아는 것이 더불어 다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어릴 적 아이들이 느끼고 배워나가야 할 인격적 소양이 아닐까 합니다.

하랑이는 엄마를 따라 성균관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석전대제라는 제사 의식을 행하고 있는 때에 거기서 공자 귀신을 만나게 되지요. 뜬금없이 나타난 공자 귀신과의 만남 그렇게 어느 순간 불쑥 나타나 논어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신선하게 깨우침을 주고 떠나는 공자귀신이 무섭다기보다는 나중에는 든든하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이 『논어』를 자칫 어려워할 수 있는 고전이라는 고정관념을 떨쳐

버리고 귀신이란 형태로 약간 익살스럽게 만나는 공자는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논어의 구절을 읽다 보면 왠지 낯설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더불어 한자의 이해를 쉽게 잘 풀어내고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이 겪는 과정과 접목시켜 풀어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구절의 의미를 알고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더불어 재미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만화 삽화 형태의 구성으로 말풍선을 사용함으로써 가독성에 재미를 더하여 줍니다. 이 책을 읽고 어린이들이 혹시 공자귀신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의구심을 유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전이 결코 어렵고 진부하지 않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인이불인(人二不仁) 여예하(如禮何), 인이불인(人二不仁) 여락하(如樂何)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예가 무슨 소용이며,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음악(즐거움)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불환인지(不患人之) 불기지(不己知), 환부지인야(患不知人也)  
“남이 나를 알아주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여라”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군자(君子) 화이부동(和而不同) 소인(小人) 동이부화(同而不和)  
“군자는 화합하지만 옳지 않은 일은 따르지 않고, 소인은 이익이 되는

일에는 쉽게 따르지만 화합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공자님은 조금만 남을 생각하고, 착한 마음으로 생활하며, 항상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즐겁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하신 공자님의 말씀들을 오늘날에도 많이 인용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고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랑이의 눈높이로 풀이한 논어이야기는 평범한 초등학생에게 효, 인, 지를 쉽게 익히고 배워서 인성을 기르는 밑거름이 될 귀중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쥐랑 햄스터가 다른 동물이라고?

— 박지원(안성시립공도도서관)

과학은 쉽다: 똑 닮은 쥐랑 햄스터가 다른 동물이라고? | 김정훈 글 | 김민준 그림 | 비룡소 | 2015 #지식정보책 #초등중~고학년

아직 과학에 대해 잘 모르고,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들을 위해 실제로 궁금해할만한 엉뚱한 질문들과 그것을 답하는 기발한 답으로 풀어낸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동식물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분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주변에 살아가고 있어 친숙한 동물부터 사진으로만 봤을 법한 동물들까지 다양한 동물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르게 생겼는데 같은 동물들'이라는 소제목으로 개의 종류인 덩치가 큰 세인트버나드와 크기가 아주 작은 치와와는 모두 개의 종류들이고, 털이 풍성한 페르시안 고양이와 털이 짧은 코니시렉스 고양이도 둘 다 같은 고양이의 종류에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사는 곳에 따른 동물의 분류'라는 곳에서는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동물들의 특징을 설명한다. 하늘에 사는 동물은 깃털이 달린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추운 데 사는 동물은 털이 많거나 아니면 지방층이 두껍다 등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가 직접 동물들을 분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세우고 분류해보도록 하는 등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책에 더욱 더 빠져들게 한다. 한 단원이 끝나기 전 아이들이 궁금해 할 만한 질문들을 하고, 그림과 함께

짧은 이야기로 답변하고 있다. 또 '세상에서 제일 쉬운 퀴즈'라는 이름으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한 퀴즈들을 넣어놓았고, 단원의 가장 앞부분에는 짧지만 중요한 내용의 만화들이 한 컷씩 들어가 있어 흥미롭게 책을 읽도록 유도한다. 중간 중간 글의 아래쪽이나 옆에 들어가 있는 작은 그림들은 글에서 모자란 것을 조금씩 채워준다.

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아이들도 이 책을 읽으면 자신이 몰랐던 사실들이나 사소하게 궁금했던 여러 가지 과학에 관련된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 경제랑 친구하기

— 박지원(안성시립공도도서관)

적금은 뭐고 펀드는 뭐야? | 김경선 글 | 박선하 그림 | 팜파스 | 2016

#지식정보책 #초등중학년이상

경제는 단어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우기 꺼려하는 학문이다. 그런 경제를 읽기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린이들이 흔히 헛갈려 하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놓았다. 우선 첫 장은 어린이 친구들에게 전하는 말로 시작한다.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의 말을 인용하여 아이들에게 너에게 돈은 무슨 의미냐는 의문을 던진다. 마지막으로 돈은 인간이 만들어 낸 발명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아이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만한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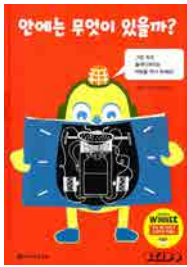
이 책은 네 개의 이야기로 나누어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적금과 펀드가 무엇인지, 두 번째 이야기는 신용카드와 각종 카드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대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모바일 쇼핑과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하나같이 모두 중요하고 아이들이 헛갈려 할 만한 테마이다.

특히 두 번째 이야기는 아이들이 더 중요하게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대출이나 개인정보는 후에 그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되지만 두 번째 이야기,

카드에 대한 이야기는 관련된 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드에 대해 무지하며 카드를 만능이라고 생각하며 막 사용하는 경우를 몇 번이나 보았다. 카드를 처음 사용하는 20대는 과소비한 경험이 많다고 하질 않은가. 게다가 카드빚을 가진 사람도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를 자세히 봐주었으면 한다.

이 책의 장점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주는 경제에 대한 지식과 보는 재미를 돋우는 세련된 그림이 있다. 이야기 끝 ‘궁금증 팍팍!’이라는 코너에서는 어린이들이 궁금해 할 궁금증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다. 금융에 관련된 말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대출 광고와 캐릭터들은 왜 친근한지, 신용카드는 과연 만능 해결사인지 마지막으로 휴대폰으로 쇼핑할 때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어린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그것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며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식인데, 이 코너를 통해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경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사용하는 단어들이 살짝 어려운 점은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학생들부터 6학년까지의 고학년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 겉과 속은 무엇이 다를까?

— 공정자(안성시 진사도서관)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 | 오키도 글그림 | 고정아 옮김 | 문학수첩리틀북 | 2016  
#정보그림책 #초등저학년 #과학

저자 '오키도(OKIDO)'는 영국의 어린이 과학 잡지와 다양한 지식 그림책을 만들고 있는 창작 모임이다. 이 책은 과학자 소피 뒤부아와 판화가 라첼 오르타스가 같이 공동으로 작업한 작품이다. 오키도는 올 3월부터 EBS에서 「호기심 나라 오키도」가 상영되어 어린이들에게 친숙할 것이다. 「호기심 나라 오키도」는 영국 BBC에서 이미 인기리에 방영된 어린이 과학 애니메이션이다.

이미 국내에 출간된 『호기심 나라 오키도 과학 동화』 시리즈에서 주인공 짐, 잼, 줌이 등장하여 어린이들이 궁금해 하는 과학 문제를 잘 알려준다. 이 책은 『호기심 나라 오키도 과학 동화』 시리즈의 첫 권으로, 과학 동화와 마찬가지로 짐, 잼, 줌이 똑같이 등장한다. 다른 오키도 지식 그림책 시리즈는 올 10월에 『내 몸속이 궁금하니?』, 『어떤 원리가 숨어있을까?』, 『동물 탐험 여행』 등이 발간될 예정이다.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겉모습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 기계의 안쪽, 건물 안 등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안쪽을 자세히 설명한다. 특수 재질의 종이를 사용하여 '책장을 펼쳐 들고 빛에 비추어 보세요'라는 페이지를 통해 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이하다. 목차나 차례라는 용어 대신 '이 책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로 표

현되어 있다. 내용은 크게 우리 몸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기계의 안쪽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연 세계에는 무엇이 있을까?, 건물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로 안에 있는 사물이나 물질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들 차례! 그려 보자!로 직접 상자, 냉장고, 나무, 장난감 수납장 등의 안에 있는 것을 독자가 그려보고 비춰보도록 하여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독자도 체험해 보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호기심쟁이 짐, 탐구쟁이 잼, 변신쟁이 줌이 차례부터 소개되고 정보를 전달하는 끝까지 질문과 답으로 대화하며 이야기를 흥미롭게 엮어간다. 책 표지 뒤에 ‘그림 속이 들여다보이는 신기한 책! 나만의 마술 그림도 그려 보세요!’가 이 책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다. 어린이 책 중에 눈에 보이는 겉과 안을 설명한 책들은 대부분 한가지 주제로 사람의 몸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 많다. 이 책은 인체 외에 기계 중 로봇, 자동차, 알람시계의 안쪽, 자연 세계 중 나무, 고래의 몸속, 땅속, 동굴 안, 건물은 집, 고층 건물, 성, 극장 안 등 다양한 사물을 골고루 설명하고 있다. 그림이 상세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안쪽의 현상과 원리를 소개하여 아쉬운 점은 있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와 같이 우리 주변의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정보를 잘 전달하고 있는 책들로, 다음과 같은 책들도 함께 읽어보길 추천한다. 수 레딩의 『위에서 아래에서』(마루벌, 2007)는 집, 거리, 무대, 바다, 숲 등의 위와 아래를 같은 페이지에서 같이 비교하며 설명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아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설명한다. 이외에 후 쿠다 토시오의 『내 뒤에 누굴까?』 4권(한울림어린이, 2006)은 위와 아래, 앞과 뒤 등 어린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사물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단순한 그림과 함께 잘 설명한 책으로 추천한다.



## 인류 기록의 역사, 책의 역사

— 공정자(안성시 진사도서관)

한 장 두 장 책의 비밀 | 이케가미 순이치 글 | 세키구치 요시미 그림 | 강봉화 옮김  
| 한솔수북 | 2016 #정보그림책 #초등저학년 #책의역사

사극을 보면 두루마리로 된 상소문이나 고서를 보게 된다. 2006년에 방영된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한 “주몽”에서 주인공이 죽간에 쓰인 글을 읽는 장면이 개인적으로 수업시간에 말로만 듣던 죽간이 저렇구나! 하며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책을 볼 때 종이를 넘겨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책은 종이를 넘겨보는 책의 형태를 가지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록매체가 있었다는 책의 역사를 소개한다.

주인공 지호가 도서관에서 책을 꺼냈는데 책 속에서 로마시대 장군 카이사르가 나오며 지금처럼 페이지를 넘겨보는 생각을 자기가 제일 먼저 했다고 소개한다. 책의 내용으로 문자를 기록하는 매체로 2500년경 식물인 파피루스, 2000년 전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페르가몬에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가 소개된다. 이후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되고 책의 생산이 전보다 쉬워지고 보편화되었다고 한다. 이 시기 책의 형태는 두루마리 형태였고 한참 후에야 지금과 같은 책의 형태가 등장한다.

중간중간중 금속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크, 들고 다니기 편한 크기의 책을 고안한 알두스도 함께 등장하며 지호에게 자신을 자랑하며 책의 역

사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옛날 역사 속 주인공이 책장을 넘기지 않은 최근에 등장한 전자책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책이 있다는 데 놀라워하며 태블릿(tablet)은 납을 칠한 판이고, 스크롤(scroll)은 영어로 ‘말다’로 전자책이 납판으로 만든 두루마리라고 해석해 준다.

책의 말미에는 ‘궁금하다 책!, 알았다, 책!’과 독후활동을 따로 제작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독후활동에는 카이사르 아저씨의 책 만들기!를 하면, 카이사르가 등장하는 다른 책 “큰달 작은달 달력의 비밀”을 볼 수 있다. 이외에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인쇄술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어린이책 중 책의 역사를 다룬 또 다른 책으로 『그 집에 책이 산다』(한림출판사, 2015)와 성인을 위한 『책의 역사』(정산미디어, 2016)도 함께 비교해가며 읽어보면 좋겠다. 책의 역사 외에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더 알 수 있는 『왕실도서관 규장각에서 조선이 보물 찾기』(책과함께어린이, 2010)도 함께 읽어보길 추천한다.

고대로부터 도서관은 기록매체의 변화 속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왔다. 이 책의 내용처럼 책의 형태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전보다 많이 보는 전자책은 우리 도서관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궁금해진다.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더 익숙한 디지털 매체가 증가하면서 도서관 서비스의 변화도 가져올 것이다. 인쇄매체와 디지털매체와 함께 사용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어떤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서의 또 다른 변화와 역할을 요구한다.



## 우리 집 경제대장 나백원이 간다!

— 박지원(안성시립공도도서관)

알뜰살뜰! 우리 집 경제 대장 나백원이 간다! 박민선 글 | 김민준 그림 | 가  
니출판사 | 2016 #경제학습 #초등저학년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세상, 절약이 무엇인지 올바른 소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관심이 없다. 요즘 아이들은 물건이 없어지면 바로 다시 사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갖고 싶다면 무리해서라도 사준다. ‘아껴야 잘 산다’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자신이 버는 돈, 그러니까 자신의 분수와 맞지 않게 생활을 하다 보니 도둑질이나 사기, 심지어 살인에 이르는 범죄에 빠지기도 한다.

이 책의 주인공인 백원이는 엄마가 알림장을 사라고 주신 돈으로 카드를 사버리는 알뜰하지 못한 아이이다. 이런 백원이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엄마와 아빠 그리고 친구인 민아 등 다른 사람들을 통해 돈에 대해 알아간다. 소비란 무엇인지, 가계부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 가계부와 비슷한 용돈 기입장은 어떻게 쓰는 건지, 돈의 액수 같은 것들을 말이다.

백원이가 벼룩시장에서 돈을 버는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아이들이 벼룩시장의 장점을 알아갈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벼룩시장은 물건을 싸게 주고 물건을 사고 다시 사용하여 돈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 물건을 사지 않아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도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자칫하면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는 돈과 경제에 대한 지식들을 오목조목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한다. 익살스러운 그림과 재미있는 글도 이야기 속으로 빠져드는 데 한몫한다. 마지막에 독자들이 스스로 해보는 워크북이 달려 있는데, ‘나는 돈을 현명하게 쓰고 있을까?’하는 테스트라든지 ‘경제 용어 사다리 게임’이나 직접 백원이가 썼던 것처럼 쓰는 ‘용돈 기입장’, 그리고 심화 학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과 즐겁게 놀이처럼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추천한다. 각종 경제 지식들에 대한 개념과 기본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갈 수 있다. 절약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 서평자 소개

그림책을 즐겨 읽는 사서입니다. 공공도서관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림책과 어린이 도서를 읽는 즐거움을 알기가 쉽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시 도서관에 근무할 때만 해도 어린이책의 경우는 대부분 번역 그림책과 동화, 전집류가 많았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재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들이 우수한 작품을 내놓으며 주목받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 분야의 좋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도 자동화로 근무환경이 바뀌었고 많은 도서관이 생겨났습니다. 외부환경 변화로 사서의 업무가 조금씩 다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할 수 있는 일이며, 기본에 충실한 일 중 하나가 도서관 자료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추천도서 소개와 서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새로 나온 책 중 다른 사람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는 사서의 역할에 권위있는 사서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나 부족함이 많은 저를 봅니다.

늘 바쁜 일상 가운데 매년 경기도 사서들의 힘을 모아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가 꾸준히 출판되어 감사합니다. 이전보다는 추천도서와 서평의 역할에서 도서관과 사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기쁘고 앞으로 더욱 확장되리라 봅니다. 이를 위해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의 출판에 위해 각 도서관 사서들을 연결하고 책이 출판되는 수고로운 과정을 잘 감당해 주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명한 프랑스 영화감독인 프랑수와 트뤼포의 말을 전합니다. “진정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를 3번 이상 보고, 영화의 평론을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영화를 만들어라.” 이 말에 무척이나 감동을 받은 저는 영화에 책을 대입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책을 좋아한다면 책을 3번 이상 읽고, 책에 대한 평론을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책을 만들어라.”

시작이 거창했지만, 전하고 싶은 마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경기도 서평단과 함께 한 이 서평 작업이 책을 너무 아끼는 한 사람이 보내는 애정의 표시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보태자면 좋은 책을 접하기 위해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하는, 사서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자하는 노력이라는 것. 이런 진심들이 전해 질 수 있도록 경기도서평단 여러분께 좋은 영향과 기운을 받으며, 더욱 좋은 서평을 쓰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남양주시 와부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새롬입니다. 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린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서 직업 상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사서 서평단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 사서서평단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아동그림책과 함께 좀 더 행복한 1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매일 하지만 두꺼운 성인책이 주는 괜한 압박감에 쉽게 책을 빌리지 못했던 저에게 글자보다 그림이 많고 두께도 얇은 아동책은 책을 읽었다는 자기 만족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눈으로 책을 보고자 노력하면서 순수한 아이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사물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딱딱하다고 생각했던 하루를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활동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활발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서평단을 잘 이끌어 오시느라고 생하신 정은영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평을 쓴다는 것은 글을 쓰는 것이니 이는 마음을 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도서관에서의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서가에서 많은 책을 만났고, 독서모임에서 책으로 삶을 이야기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까운 마을에서 행복을 찾고자 가까운 마을을 열심히 둘러 보았습니다. 좋은 강연으로 마을의 의미와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가까운 마을에서 시골 어르신들의 정을 느끼고, 우리 지역의 부락산과 덕동산에서 지나쳤던 생명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마음을 담아 보니 늘상 보던 것들을 특별하게 보는 소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책이 나에게로 올 때의 즐거움을 오롯이 느끼고 마음을 담은 서평으로 책 읽기의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서평을 열심히 써보고자 했던 나름의 목표에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어린이책을 보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손만 내밀면 가까운 곳에서 보석 같이 빛나는 책을 언제든 볼 수 있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에 새삼 감사하며 꾸준히 서가를 산책할까 합니다.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의 꾸준한 발간과 열심히 서평 쓰신 모든 사서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경기도 사서서평단이 된 지 2년. 여전히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일이 어렵지만 행복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희망도서관 신간이 들어오는 날에는 새 책이 주는 설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책을 볼 수 있다는 일종의 특권의식(?)과 함께 말입니다.

신간을 RFID를 등록하고 도서상태를 정리중에서 대출가능으로 바꾸고 맨 처음 대출하고 읽을 때의 기쁨.

그 여러 권의 책 중에서 서평을 쓰는 책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 책으로 그림책읽는 성인독서회도 진행하고 사서로서의 삶은 분주하면서도 행복합니다.

그림책과 동화책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같은 위안이 되는 책입니다.

사서로서 서평을 쓰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 오은아라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서 서평단으로 활동하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시작하면서 서평 자체를 처음 써보는 저의 글이 실릴까도 생각했었는데 사실 아직은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남들 눈에는 책과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하고 으레 그럴 것이라 여겨지는 사람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저 자신조차도 책과 많이 멀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 사서 서평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사서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의 독서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지 않은 이들의 독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하기에 책을 고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평을 완성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제법 조심스러웠던 기억입니다. 그 동안에 책을 읽고 썼던 글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소감문에 지나지 않았다면 서평이란 책에 대한 분석적 읽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비평'이기에 다소 경직된 자세로 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활동이었지만 많이 읽고 써보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얼마 전 최은옥 작가의 ‘책으로 똥을 닦는 돼지’(2015년 주니어김영사 출간) 추천 글을 읽고 서가로 가서 책을 찾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생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어서 마침 사무실 팀원들과 함께 책 이야기를 재미있게 주고받았습니다. 이렇듯 추천 글이나 서평은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12월, 한 장의 달력만을 남겨놓은 채 시간은 또 재깍재깍 흐릅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서평 수량을 놓고 지난 시간을 아쉬워해보지만 속절없음을 아는 까닭에 더욱 작아집니다. 양보다는 질이라는 아전인수 격 사고는 ‘천이가 가르쳐 준 것’, ‘영터리 집배원’, ‘신발 신은 강아지’에게 더욱 정이 갑니다.

사람은 임종을 앞두고서야 살아생전 해보지 못한 일들을 후회한다고 하죠. 용서할걸, 여행을 많이 다녀볼걸, 사랑한다고 말할걸…….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나는 껄껄 웃픈 심정입니다. 서평 원고 독촉에서 해방되니 웃음이 나오고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지 못한 아쉽고 슬픈 감정이 공존합니다. 좀 더 많이 찾아보고 읽을걸. 조금 더 열심히 서평을 쓸걸, 다양한 도서를 섭렵해볼 걸 하고 말이지요.

서평단원으로 이름이 올라간 이후부터는 신간 도서가 출간되면 먼저 찾아보게 되고 어떤 책이 좋을지 호기심에 가득 차 표지부터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림과 텍스트의 조화, 글의 구성, 교육적 기능 등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 너도 그렇



다'라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처럼 내게도 어린이 책이 그러했습니다. 서평단원이라는 직책이 내게 어린이 책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선사해주었습니다. 정은영 선생님의 원고 재촉이 싫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쉬운 마음 한편에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수많은 사서 동료 및 후배들이 합심하여 100여 편의 서평 글이 모였다는 것이겠지요. 서평단원이라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평집이 발간되면 더욱 열심히 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가로 달려가겠지요. 서평집을 기초로 어린이 책을 읽는 기쁨을 많은 사람이 누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도서관은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  
니다. 지자체 소속의 도서관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시작과 거의 비슷한  
단계에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신생 도서관들은 가야 할 길은 멀었고, 할 일은  
많았고, 경험은 적었고, 열정은 높았기에 돌이켜 보면 이렇게 3번째 서평집  
을 발간한다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맺은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적인 도서관 수가 늘어나는 만큼, 적은 사서의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해  
오는 와중에도 도서관 서비스는 잘 지어진 공간의 서비스가 아니라 도서  
관을 찾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도서 정보 서비스 즉, 도서 정보 안내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도서 정보 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해야 만  
족스러운 서비스를 줄 것 인가를 고민한 산물로서 서평집이 발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돌이켜 보면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는 본분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길을 잘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어린이 서평으로 도서안내자 역할을 하지만 “한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여러 사람의 꿈은 길을 만든다” 는 어느 문구의 힘입어 경기도  
사이버도서관과 동료 사서분들과 함께 바람직한 사서의 길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일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치이다 보면 내가 이리려고 사서가 되었나(?)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펼쳐드는 그림책 한 권이 주는 위로가 팍팍한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괜찮다 괜찮다’ 등을 토닥여 주기도 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다시 해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린이가 세상을 보는 눈처럼 어린이 책의 세계관은 명확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 적당히 타협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이 책을 통해 세상사는 법을 배웁니다. 제가 어린이 책을 좋아하고 틈만 나면 주변 이들에게 어린이 책을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슈 아놀드는 ‘비평이란 세계에서 알려지고 사색된 가장 좋은 것을 퍼뜨리려는 공평무사한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평을 쓰는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으름과 바쁜 일상 탓에 매년 서평을 마음만큼 쓰지는 못하지만 제가 『경기도 사서 서평단』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과 애정은 각별합니다. 좋은 어린이 책이 많아진다는 것은 아이들 조차 힘들어 하는 현실에 신선한 공기 한 줌 불어넣는 일이자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키우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기도 사서 서평집이 나오기까지 함께 애쓰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사서가 된 이후 처음으로 사계절을 온전히 어린이자료실에서 보냈습니다. 봄·여름·가을·겨울을 지내보니 이제야 어린이 책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 책은 일반도서보다 글밥도 적고 책의 두께도 얇지만, 책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일반도서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좋은 어린이 책을 접했을 때,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책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잡아내어 책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선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사서의 큰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서평으로써 어린이 책을 접하는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서가 되겠습니다.

2016 경기도사서서평단에서 처음 서평을 쓰게 된 지산초록도서관 사서 이단비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중심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면서 그림책을 자주 접했는데, 서평을 실제로 쓸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책에 대한 서평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한 해 동안 사서로서 그림책에 대한 생각을 글에 담고, 많은 분들과 생각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참 기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림책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서가 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신 경기도 사서 서평단 선생님들과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도서관에 근무하게 되면서 경기도사서서평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좋은 책을 선별하고 서평 쓰는 작업은 생각보다 쉽진 않았습니다. 사서서평단을 통해 어린이도서예 좀 더 다가갈 수 있었고 다른 사서 선생님들의 서평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일 년 동안 많은 서평을 쓸 수는 없었지만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서서평단을 통해 좀 더 나아가는 사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호기롭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고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서평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도 없이 도전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실 담당이면서 어린이책을 읽는다는 시도도 해보지 않았 습니다.

어떤 책을 선정해야하는지,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또 좋은 책의 기준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글은 몇 번의 수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번 써진 글은 잘 고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 작성하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많이 깨달 았습니다.

올해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어린이 책을 읽고 서평 을 작성해보자는 각오를 해봅니다. 사서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오래오래 진행되어 많은 좋은 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년차 사서입니다. 사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중학교 영어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막 사춘기를 접어드는 저에게 선생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 등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기 불만에 가득했던 저는 소설 속 주인공들을 보면서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을 계기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하고 항상 책과 함께 하고 싶다는 열망이 사서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제 어릴적 영어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서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사서로 사서 본연의 업무보다는 사서행정에 치중되는 업무들에 지쳐있던 저에게 서평단을 시작해 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한 건 2015년 발간자료집 펴내는 글을 읽고 나서입니다.

‘서평을 쓰기 위해서는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어떤 책을 고를까, 이 책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 할까, 누구에게 권하면 좋을까를 고민합니다. 사서들이 서평을 쓰는 이유, 스스로 조금씩 더 발전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이런 말들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읽고, 책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좀 더 발전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었습니디. 서평에 대해 기본 지식 없이 다른 분들의 서평을 읽고 연습해서 서평을 쓰는 작업은 쉽지 않았고, 여러 번 쓰고 고칠수록 점점 더 부족하고 어려웠지만 많은 배움 또한 있었습니다. 서평단 활동은 다른 핑계대지 말고 책에 대해 더 많은 관심 갖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부터 학교와 연계하여 독서모임을 꾸렸습니다. 올해는 「만화반」을 운영했습니다. 최규석, 김보통, 강풀, 우라사와 나오키, 호소다 마모루의 만화영화, 마지막으로 이대희 감독의 『과다과다』을 보았습니다. 스물여섯 청년의 암투병기부터 휴머니즘을 장착한 로봇 이야기까지 만화는 삶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서있기도 했습니다. 읽은 만화책에 대한 이야기와 친구들끼리 짓궂은 놀림, 당면한 고민까지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직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른들의 편견일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걸어갈 삶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이로운 판단과 더불어 무엇이 더 옳은 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도서관에서 20년이 넘게 뛰어난 사서입니다. 도서관에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권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이런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 이 서평집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친절한 서평집을 만들어주시는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 감사드립니다.

이 서평집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이 서평집에는 현장 사서들이 날마다 도서관 안에서 책과 시민들을 연결해주기 위한 고민한 흔적이 생생하게 녹아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아도, 어른들이 보아도 좋은 책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저 역시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도서들 중에서 괜찮다고 여겨지는 책들을 골라서 읽어보고 생각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야 소개할 책을 최종적으로 고릅니다. 사서들이 골라 낸 괜찮은 책들을 읽어보세요.

마음과 영혼이 정화됩니다.

공자님 말씀에 나이 50은 지천명이라 하여 하늘의 명을 깨닫게 된다 하였다.

50세가 되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세계인 성인의 경지로 들어선다하였다. 그런데 50을 살짝 넘긴 나로서는 객관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못하며 더불어 하늘의 명은 더더욱 모르겠다.

오히려 내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아들 녀석의 핀잔 아닌 핀잔을 자주 듣는다.

서평을 쓸 때도 그렇다.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쓸 수밖에 없어 나의 무지를 한탄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린이 서평을 밀어내지 못하는 것은 어린이 책을 읽는 동안 무뎠고 잠자고있는 내 감성을 톡톡 건드리기 때문이다.

올 한해 어린이 책 서평을 쓰는 명분이 있어 열심히 어린이 책도 보고 글쓰기 위해 또 다른 글도 짹짹히 볼 수 있어 행복했다.

부디 내년엔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길, 진정한 지천명을 깨닫게 되길 희망 한다.

경기도사서서평단에 어느 덧 두 해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평을 쓰는 것이 어렵기만 합니다. 내가 읽은 좋은 그림책을 누군가에게 추천하기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모사업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그림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다양한 독후활동들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그림책이 시시하다며 게임에만 관심을 보이던 아이들이 점점 그림책과 친해지고, 그림책 안에서 깊이 있는 생각을 끌어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새삼 그림책의 힘이 얼마나 큰지 느끼게 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쓴 서평들도 누군가에게 그림책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서평이 그림책이라는 인생의 길잡이를 만나게 해줄 작은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그림책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서평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서가 되겠습니다. 서평쓰시느라 애쓰신 모든 사서분들과 고생하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 ‘사서’라는 단어만 들어도 아직도 설레는 23년 된 사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서관’이라는 행복공간을 소개하고, 도서관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과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2013년에 서평단 활동을 시작해서 익숙할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평단 활동을 하며, 어린이 책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동화구연가’, ‘책놀이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올해는 그림책을 가지고 ‘사서와 함께하는 그림책 슬로리딩’, ‘스토리텔링과 책놀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접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히기 위해서는 사서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읽고, 토론하고, 좋은 책을 구입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올해는 후배 사서들과 ‘책도란’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그림책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서평단 활동을 하며 점점 성장해 가는 제 모습이 스스로 대견하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모든 사서들이 서평쓰기에 동참하여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가 권위 있는 서평지가 되고, 계간지, 월간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기도 사서들, 화이팅!!!

어느덧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지 않는 시간은 멀게만 느껴지는데 반해 지나간 시간은 왜 이리 빨리 흘러간다고 느끼는걸까요.

올 한 해는 잘 보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수고한 자신에게도 토닥토닥 격려해주면서 세모를 맞이해야 할 것 같네요.

올해 두번째 서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먹은 만큼 책을 읽고 서평을 쓸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핑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평쓰는 사서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책 한권을 읽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의미있고 뿌듯해집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일이 즐겁고 설렌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하여 책을 읽고 서평을 써서 누군가에게 권하거나 소개한다는 것은 더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책 읽기를 하고싶어지게끔 발현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느꼈던 느낌에서 다른 시각으로 그 책을 대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듯 서평이라는 것은 독서의 중요한 지침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추천해 주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책 한 권의 의미를 심어준다면 그것이 서평의 긍정적 효과가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에도 책을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야겠습니다.

2016년 한 해에도 경기도 서평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다. 늘 어린아이로만 보였던 딸이 어엿한 대학생이 되고, 아직도 내 나이를 실감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세월은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겠지...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힘들고 아팠다...

성장통 같은 것이었을까? 마냥 철들지 않을 것 같았던 나도 이제야 조금 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편협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人間에 대한 관대함, 그리고 겸손과 배려를 알아가고 있다.

시간이란 속절없이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이라는 숫자 외에 지혜라는 보물을 선사해주었다. 그래서 나, 내년에는 좀 더 성숙한 서평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작은 돌 하나하나가 쌓여 그럴싸한 돌탑을 완성해내듯, 한 해 한 해 차곡 차곡 쌓여가는 우리들의 서평도 단단하고 멋진 탑으로 세워지길 바라며, 올 한 해도 열심을 내어 준 경기도사서서평단 모두에게 응원을 보낸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만 햇수로 12년을 일했습니다. 강산이 한번은 변했겠군요. 매일 출퇴근하는 길은 매일이 그대로인데 말이죠. 어느 산은 보다 낮아졌을 수도, 높아졌을 수도 있겠죠? 어딘가 계곡이 새로 생겼을 수도 있을까요? 어딘가의 강의 깊이와 넓이는 달라져 있겠죠? 저는 12년 동안 무엇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모습 속에 깊이와 넓이가 달라졌을까요? 도서관 속에서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겼을까요? 산의 높이와 강의 폭처럼 티는 나지 않지만 조금씩 쌓이고, 깎여가고 있을테지요.

8년째 매년 서평단을 운영하고, 서평집을 내고 있습니다. 기획과 운영이 주된 일이지만 서평도 최소 한편씩은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평 쓰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느끼게 되고, 서평단에 소속된 사서선생님들께 고마움이 커집니다. 책을 고르는 과정, 읽어내는 과정, 글을 쓰는 과정 중에 수월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10권이 넘는 책을 후보에 뒀지만 결국엔 2편만 쓸 수 있었습니다. 서평단에 이름을 올린 것 만으로 생기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서평단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요? 매번 독촉하는 듯한(?) 마음만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일 년 동안의 고생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서라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업무시간 중에 책을 고르고, 읽고 책에 대해 글을 쓰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의 현실 속에서 그저 꿈꾸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지만, 서평을 쓰는 사서가 늘어나고, 책에 대한 사서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사회적으로, 기관 내에서 인정되는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책을 고르고, 읽어내고, 고민하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서평단을 모으고, 교육을 시키고, 독촉을 하고, 서평집을 내는 것도 사서의 모습을 사회 속에서 새롭게 각인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책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쏟아낼 수도 있고, 적절한 책을 톡, 톡 내놓을 수도 있고, 사회적 비평과 더불어 컬렉션을 구성할 수도 있게 되기를 오늘도 꿈꿉니다. 각양각처에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서’를 부르는 그날이 멀지 않았습시다.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2016” 사서들의 서평집 8번째 책이 강산을, 도서관계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기를 기원합니다.

2016 경기도사서서평단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평공모전 수상작



## 봄을 연주하는 그림책

— 신연정(수원시)

민들레는 민들레 | 김장성 글 | 오현경 그림 | 이야기꽃 펴냄 | 2014

민들레가 담긴 화분에서 탕글탱글 하얗게 여문 씨앗이 날아간다. 마치 음표를 그리듯, 표지에서서부터 봄의 노래가 그려진다.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그림책 제목이 마치 오선지 위에서 리듬을 타듯 경쾌하게 흐른다. 그림책을 보면서 ‘음악’이 느껴지는 건 신기한 경험이다. 봄을 연주할 수 있다면, 꼭 이런 느낌이 아닐까?

도입부는 온통 여백이다. 왼쪽 페이지엔 흰색 바탕에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단 한 줄의 글이 있고, 오른쪽에는 역시 흰색 바탕에 민들레 작은 새싹이 돋았다. ‘싹이 터도 민들레/ 잎이 나도 민들레/꽃줄기가 쪽 올라와도/민들레는 민들레’ 마치 동요 한 소절 같다.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 글과 그림이 소곤소곤 조화롭다. 주인공인 민들레를 소개했으니, 이제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질 법도 하다. 흰색 바탕 위에 풍경이 조금씩 달라진다. 가로수를 감싼 보도블록 틈새나 담벼락과 기와지붕을 뚫고 피어난 민들레가 등장한다. 어디 핀들 민들레가 아니겠냐는 듯…‘혼자여도/ 둘이여도/ 들관 가득 피어나도/ 민들레는 민들레’ 그림책 가득 노란 민들레가 피어난다. 바탕색이 흰색에서 하늘색으로 바뀐다. 꽃이 지고 씨가 맺혀 하늘로 날아갈 차례다. 씨앗이 하늘하늘 날아가는 장면은 이 그림책에 ‘절정’이

다. 환상적인 색감의 하늘에 별이 쏟아지듯 뚝뚝 떠오른 민들레 씨앗 형상이 감동을 준다. 그리고 다시 흰색 바탕으로 돌아와 무심코 툇 ‘민들레는 민들레’란 한마디를 던지고 끝난다. 여백과 그림의 배치가 절묘하다. 섬세한 현악기로 시작해 장엄한 관악기와 타악기로 절정을 이룬 뒤 다시 잔잔한 현악기로 마무리되는, 한 편의 교향곡을 들은 느낌이다. 지휘자가 훌륭하다. 글과 편집을 맡은 김장성 작가의 내공이 엿보인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확하고 단순하다. ‘생명의 순환’과 ‘자존’이다. 그림 작가가 들었을 ‘정성’ 또한 눈에 선하다. 홀로 피었던, 무리 저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생생하게 그리기 위해, 몇 백 번의 스케치와 채색을 했을 것이다. 오현경 작가는 알고 보니, 어린 네 자녀를 둔 엄마라고 한다. 그림책을 만드는 중에 셋째와 넷째가 태어났다니, 그림책 작업에 들인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안 된다. 글 쓰이와 그림 그리이의 이런 노력과 조화 덕분에 2015년 이탈리아 ‘볼로냐 라가치’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림책의 첫 면지에는 저마다 다른 생김을 가진 어린이들이 그려져 있고, 마지막 면지에 그 어린이들이 그렸음직한 서로 다른 모양의 민들레가 있다. “어디에 있든 어떻게 있든 무엇을 하든, 민들레는 민들레인 것처럼, 누구나 참다운 제 모습을 지키고 가꾸며,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랍니다.” 글 작가의 말이 그림책에 잘 녹아들었다.

민들레는 참 친숙한 소재다. 그만큼 새롭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현란한 그림과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요즘 세상에, 오히려 세심한 ‘정성’으로 단순하게 그린 이야기가 빛을 발한다.

글의 전개는 단순한 듯 보이지만, 한 대목 한 대목 그 깊이가 깊숙하다. 씨앗으로 시작해 씨앗으로 끝나 다시 씨앗으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순환

에 대해, '민들레'만큼 극적으로 보여주는 소재는 없다. 마치 사람의 일생이  
그러하듯, 태어나서 살고 다시 한 줌 흙이 되는 과정을 민들레는 대신 표  
현해 준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누가 읽어도 다른 감동을 할 수 있다.  
그림에 음악을 입힌 절묘한 구성력에 탄복하며, 단순한 이야기의 힘이 느  
껴지는 '민들레는 민들레',

책장을 덮고 나니, 이미 봄을 건너, 여름 문턱 앞에 서 있다.

---

〈심사평〉 표지부터 책 속 삽화에 집중하여 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등 서평의 요  
소를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 또한 다른 서평에 비해 최근에 출판된 도서를 선정  
한 점도 칭찬할 만 하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서평이라는 것이 책을 평가하여 다  
른 사람에게 보이는 글 인 만큼 맞춤법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었을 듯 하다.



## 무서운 마니또 친구는 싫어요

— 김산정(부천시 소사초등학교 5학년)

위험한 게임 마니또 | 선자은 글 | 고상미 그림 | 푸른숲주니어 펴냄 | 2015

이 책을 쓴 작가는 선자은이라는 작가다.

주인공은 지율이다.

이 책의 줄거리를 말하자면, 지율이네 반은 마니또를 하기로 하였다. 마니또를 시작하지 얼마되지 않아 지율에게 이상한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바로 저주하는 글이 쓰인 쪽지와 죽은 벌레나 인형머리가 선물로 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친구가 장난치는 것인줄 알고 그냥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저주하는 글과 이상한 선물은 계속 왔다.

지율은 친구나 선생님,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지율을 모두 우등생, 모범생으로 아니까.

지율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걸 알면 모두 놀랄 것이다.

어느 날 지율에게 이런일이 생긴다는걸 친구들이 다 알아버렸고, 아이들은 지율을 피하기

시작했다.

지율은 정말 힘들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나도 친구들과 마니또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니또를 그냥 비밀친구라고만 생각했다.

책을 고를 때 궁금하기도 했었다.

왜냐하면 마니또는 모두 착한줄로만 알고있는데, 뭐가 위험한지 궁금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천사같은 마니또가 아니라 이 책의 마니또는 아주 무서운 마니또이다. 지율이에게 저주를 걸고, 저주 인형을 선물하고, 다시 생각해봐도 지율이에게 일어난 일이 무섭다.

만약에 나에게도 지율이처럼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무섭고 끔찍하고, 온통 이상한 생각이

들것같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다.

마니또는 천사같은 마니또도 있겠지만 이 책 내용처럼 나쁜 마니또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였다. 물론 마니또를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 많이 들어보지 못했다.

내가 지율이의 친구라면 맨날 공부를 잘해서 칭찬을 받는 지율이에게 그런일이 생기면 잠시라도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서 내가 지율이라면 학교에 가기도 싫을 것 같아서 지율이를 도와 줄 것 같다.

이 책을 우리반 친구들에게 추천 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반도 마니또를 하게 되면 이런 끔찍한 행동은 하지말자고, 그리고 이 책은 남에게 상처 주지 말자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앞으로도 선자은 작가님이 쓴 글을 많이 읽어 보고 싶다.



## 친구의 소중한

— 이도현(남양주시 평동초등학교 5학년)

내 친구 고슴도치 | 문선이 글 | 윤정주 그림 | 푸른숲주니어 펴냄 | 2004

이 이야기는 가영이와 서린이의 이야기다.

가영이는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 괴물이라 놀림을 당하고, 서린이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나쁜 외계인이 아버지 몸속에서 지배를 한다고 생각한다.

둘은 처음엔 본체만체 하다가 마음이 통하여 친구가 되어 얘기도 한다.

서린이의 아빠는 직장을 다니다 직장을 잃어서 술을 많이 마시고, 서린이를 막 때린다. 그리고 서린이의 엄마도 집을 나가 버렸다. 난 보호자가 없는 그런 서린이가 불쌍하고, 슬펐다.

서린이는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때려서 온통 멍투성이지만 차마 신고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올 나쁜 외계인(술에 취한 아버지)의 보복이 더 무섭기 때문이다.

만일 나라면 선생님에게 말하고 아지트로 도망칠텐데, 서린이가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웠고, 아쉬웠다.

그리고 햄스터 사건 때 서린이가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지 알았다.

햄스터 사건은 그때 남자 아이는 햄스터 기계(진짜 햄스터를 뽑는다)에서 햄스터를 뽑았다가 햄스터를 장난감처럼 여겨 놀았는데 서린이가 정의의



사도처럼 남자아이의 얼굴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주먹을 날렸다. 그때 가영이가 남자아이에게서 햄스터를 더 비싸게 사고, 그 햄스터를 서린에게 준다.

난 서린이가 공주를 구하는 용사 같았고, 가영이는 햄스터를 치료하자 약에서 구하는 헬렌켈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가영이가 보진 선생님에게 서린이가 아빠한테 맞아서 멍이 든 것이라고 알려서 선생님이 서린에게 물어보니 서린이는 심하게 반항을 하였다.

그때 가영이는 죄책감과 서영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난 책속에 들어가 가영이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결국 서린이는 심리 치료를 받고 아버지도 치료를 받으신다.

난 이 책에서 서린이가 잘 되어 안심이 되었다. 우리 아빠는 서린이 아파처럼 되지 않아 좋다.



## 맛있게 잘 익은 생각을 만드는 법

— 최혜정(수원시)

생각을 모으는 사람 | 모니카 페트 글 | 안토니 보라틴스키 그림 | 풀빛 펴냄 | 2001

“비밀을 가르쳐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학창시절 어느 때쯤인가에 누구나 한 번은 읽어 보았던, 너무 유명한 생텍쥐베리의 작품『어린 왕자』의 한 구절입니다.

『어린 왕자』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찬찬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스쳐지나가 버리는 ‘마음’ 속 이야기를 담담히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행성에서 살아가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 그리고 비행기 조정사와 이야기 나누는 어린왕자를 통해, 그리고 사막 여우를 통해 사랑, 미움, 외로움, 기쁨, 슬픔과 같은 마음 속 감정들을 곱씹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해준 친구였다면, 우리의 ‘생각’을 헤아려 보게 한 친구는 『생각을 모으는 사람』의 ‘부루통 씨’입니다.

‘부루통 씨’는 날마다 아침 여섯 시 반이면 한적한 동네를 소리 없이 지나 갑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아주 천천히요. 낡은 외투를 입고 베레모를 눌러 쓴 부루통 씨는 배낭 가득 ‘생각’을 모아 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쁜

생각, 미운 생각, 즐거운 생각, 슬픈 생각, 슬기로운 생각, 어리석은 생각, 시끄러운 생각, 조용한 생각, 긴 생각, 짧은 생각,..... 흩어져 있는 갖가지 생각들을 모아오는 부루통 씨가 없다면 버려진 낡은 생각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루통 씨는 사실 세상을 위해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숨겨진 영웅인 것이지요.

『생각을 모으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저마다 다른 생각들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 생각들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지요. 부루통 씨는 어떤 생각이든 조심스레 다루며 존중합니다. 배낭에 담아 온 생각들을 집에 돌아와 선반에 예쁘게 정리해놓습니다. 생각들이 잠시 쉴 수 있게요. 그래야 잘 읽은 과일처럼 달콤한 즙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서 다루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떠오르는 대로 내뽕개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일을 꼬이게 만들기도 하지요. 부루통 씨는 생각을 그렇게 다루어선 안 된다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선반 위의 생각들이 쉬고 있는 지 2시간이 지나면 부루통 씨는 생각들을 따뜻한 온실 속 화단에 똑꼭 심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면 알록달록 갖가지 생각의 꽃들이 피어나고 아침별에 꽃들이 녹아 무수히 작은 알갱이로 알알이 부서져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날아갑니다. 새로운 생각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 날아갑니다. 떠돌아다니며 복잡하지만 재미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겠지요.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생각들은 부루통 씨가 필요합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세상 속에 던져버리거나 조심성 없이 다루게 된다면 엉망진창으로 엉

킨 생각들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어버리겠지요. 시간을 두고 쉬게 하고 숙성시킨 생각들은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낼 것입니다.

어린 왕자의 맑디맑은 마음이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를 가르쳐주었다면, 부루통 씨는 다양한 생각들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아마도 부루통 씨가 사는 그 마을은 어린 왕자의 작은 별처럼 작고 아름다운 '생각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 소리질러 볼까요. 우리 모두 다함께!

— 한정휴(평택시)

소리질러, 운동장 | 진형민 글 | 이한솔 그림 | 창비 펴냄 | 2015

요즘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드물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학업과 세상의 룰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듯한데, 그러면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만의 목소리와 그리고 공간 아닐까싶다. 무언가 하고 싶은게 없고 혹 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나 핸드폰 앞에서 꼼지락되는게 전부로 보이는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주고 싶은 동화가 나타났다.

야구를 무척 좋아하지만 여자라서(아직도 여자라서 못하는 게 많은 세상이라는 점이 놀랍기도 하지만) 못하는 여자 주인공 공희주와, 야구부원이었지만 절대 거짓말을 못해서 야구부에서 쫓겨난 김동해가 막야구부를 만들어 아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잘 이루어질 때 쯤, 학교의 자랑인 야구부 감독의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계속 신나게 놀 수 있게 될런지가 흥미진진하게 그려진 책이다.

〈소리질러, 운동장〉은 진형진작가의 전작 〈기호3번 안석뽕〉에서처럼 우리 주위의 아주 평범한 아이들을 그리고 있다. 학업이 전부인 것 같은 아이들 세상에서 공부는 좀 떨어지지만 그리고 적극성 역시 부족하기 십상이지만, 지금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어쨌든 스스로 숨 쉴 공간을 찾아내며 놀거리를 찾는 아이들의 건강성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 스스로 그리고 째째이 해결점을 찾아가며 기존의 틀에 매이지 않는 점이 아주 신선하다. 특히나 운동장을 잃어버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아주 탁월한 선택의 출발점이 아닌가 싶다.

책을 읽으며 유쾌 상쾌 통쾌를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오래간만에 사막에서 물 만난듯 청량감을 주는 책을 본다.

주인공 공희주의 무대뽀에 가까운 투지가 주는 웃음과 세상은 거짓말로 넘쳐나지만 절대 거짓말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김동해의 선량함이 선사하는 아이디어가 참 아름답게 느껴진다.

운동장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 안에서 마음껏 뛰놀며 와글와글 소리치는 아이들을 많이 보고 싶은게 요즘의 바램이다. 아이들의 소리가 담장을 넘지 않고,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요즘은 괴기하기까지하다. 점점 운동장의 크기 자체가 줄어가는 현실에 브레이크를 작가는 걸고 싶었는 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스스로 하고자하는 의지를 불태우는 주인공에게 동화되고 공감하여 내가 한 번쯤 그런 시도를 하고자하게 하는 원동력을 주는 것, 그것이 어린이 책이 주는 매력 아닐까 싶다.

우리 모두 다함께 운동장에 나가 소리 질러 보자, 아이에겐 놀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2016 경기도사서서평단  
추천도서목록

## 그림책

\*표는 본 서평집에 수록된 서평입니다.

no	서명	저자	출판사	년도	서평수록
1	7년 동안의 잠	박완서, 김세현	어린이작가정신	2015	*
2	MUTE	차재혁, 최은영	옛눈북스		
3	가래떡	사이다	반달	2016	
4	가방안에 든게 뭐야?	김상근	한림출판사	2015	
5	개똥이 우주선	조영아	아르볼	2015	
6	거리에 핀 꽃	존 아노 로슨, 시드니 스미스	국민서관	2015	*
7	겉보 만보	김유, 최미란	책읽는곰	2015	
8	곰씨의 의자	노인경	문학동네어린이	2016	
9	곰의 노래	뱅자맹 쇼, 엄명순	여유당	2014	*
10	그 나무가 웃는다	손연자, 윤미숙	시공주니어		
11	그래도 그래도 사랑해	데비 글리오리, 서애경	킨더랜드	2014	
12	까불지 마!	강무홍, 조원희	논장	2015	
13	꼬마 책 굵	쿄 맥클리어, 마리옹 아르보나, 위문숙	주니어김영사	2016	
14	꼬질이 발견한 100개의 빠다귀	유발 좀머, 권미자	키즈엠	2016	
15	꿈지락 별이 이야기	윤율, 이은혜	소라주	2016	
16	꿈꾸는 아기 올챙이	다케나카 마유미, 이정민	노란우산	2014	
17	나 홀로 버스	남강한	북극곰	2016	
18	나는 갈색이야	줄리아 쿡, 브리지시 반스, 공경희	찰리북	2014	
19	나는 자라요	김희경, 엄혜원	창비	2016	*
20	나는 지하철입니다	김효은	문학동네어린이	2016	
21	나는 흉내쟁이가 아니야!	앤 본월, 사이먼 리커티, 이정은	키즈엠	2016	
22	나무도장	권윤덕 글,그림	평화롭음은책	2016	*
23	나무처럼	이현주 글 그림	책고래		
24	나와 우리	이선미	글로연	2014	*
25	난 수탉이 필요없어	스벤 누르드크비스트	풀빛	2015	*
26	내 마음	천유주	창비	2015	*
27	내가 팽이라면?	후쿠메 아키히로, 키와사마 나나에, 엄혜숙	현암주니어	2016	
28	노도새	김하루, 김동성	우리아이들	2016	
29	노란장화	허정윤, 정진호	반달	2015	*
30	누구세요?	엠마누엘레 베르토시	북극곰	2014	*
31	눈을 감아 보렴!	빅토리아 페레스 에스 크리바, 클라우디아 라누치, 조수진	한울림스페셜	2016	
32	늪은쥐와 할아버지	이상교, 김세현	봄봄	2015	
33	다다의 의자	송혜원	한솔수북	2009	*
34	다들 왜 화가 난 걸까?	데이비드 맥키, 김상일	키다리	2014	
35	단추 마녀의 장난감 백화점	정란희, 한호진	키다리	2015	
36	달님의 산책	김삼현	푸른숲주니어	2016	*



no	서명	저자	출판사	년도	서평수록
37	달빛 학교에 간 생쥐	사이먼 퍼퓏, 알리 파이, 아이생각	키즈엠	2015	
38	달은 수다쟁이	차재혁 글, 최은영 그림	후즈갓마이테일	2016	
39	달토끼 거북이 오징어	조수진 글, 그림	반달	2016	
40	대추 한 알	장석주, 유리	이야기꽃	2015	*
41	더 크게 더 크게!	조지프 테오발드, 김수연	킨더랜드	2015	
42	도깨비 방망이	홍영우	보리	2016	*
43	도서관이 키운 아이	칼라 모리스, 브래드 스니드	그린북	2015	*
44	도와줘, 늑대가 나타났어!	세드릭 라마디에, 뱅상 부르고, 조연진	길벗어린이	2015	
45	둘이 척척 개구리 쿵쿵	김정은, 김경주, 오진목	한솔수북	2015	
46	동생을 드립니다	하마다 게이코, 김윤정	키다리	2015	
47	두근두근	이석구	고래이야기	2015	
48	두꺼비가 간다	박종채	상상의힘	2016	*
49	두더지의 고민	김상근	사계절	2015	*
50	따라쟁이 물고기	아만다 스테르, 마갈리 르 위슈, 한진아	삼성출판사	2015	
51	뽕매굴	김이구 글, 기획, 김성희 그림	창비		
52	또 형거 쓰라고?	신채연, 김경희	좋은책어린이	2015	*
53	똑딱	발렌티나 무치, 위정현	계수나무	2016	
54	똑똑똑	나일성	파란자전거	2015	
55	마법의 두루마리 18: 공룡들의 세상으로!	햇살과 나무꾼, 이상규	비룡소	2015	
56	마음을 담은 그릇	정찬주, 정윤경	어린이작가정신	2016	
57	마음의 선물	정성현, 이상미	꿈터	2016	
58	만들다	다니카와 타로, 후쿠다 이와오, 김숙	북뱅크	2015	
59	멤	장현정 글, 그림	반달	2014	
60	모두모두의 여자	이송은 · 한선예, 홍하나	국민서관		
61	물고기씨, 안녕하세요?	강하연	봄봄	2016	*
62	물의 하루	마이테 라부디그 글, 그림, 하연희 옮김	아름다운사람들		
63	미영이	전미화	문화과지성사	2015	*
64	밀리의 판타스틱 모자	기타무라 사토시 글, 그림, 배주영 옮김	불광출판사		
65	발명가 로지의 빛나는 실패작	안드레아 비티, 데이비드 로버츠, 김혜진	한솔수북	2015	*
66	벗지 말걸 그랬어	요시타케 신스케, 유문조	스콜라(위즈덤)	2016	*
67	분홍 몬스터	올가 데 디오스, 김정하	노란상상	2015	
68	불만을 모으는 할아버지	마라 록클리프, 엘리자 윌러, 김선희	책과콩나무	2014	*
69	불만이 있어요!	요시타케 신스케	봄나무	2016	*
70	비밀은 내게 맡겨	전은지, 김다정	주니어김영사	2016	*

no	서명	저자	출판사	년도	서평수록
71	빗방울이 후두둑	전미화 글, 그림	사계절		
72	빛의 용	오노 미유키, 히다카 료코	봄나무		
73	사랑나무	김향이 글, 한병호 그림	시공주니어	2015	
74	사자가 작아졌어!	정성훈	비룡소	2015	*
75	사자는 왜 미용실에 갔을까?	크리스틴 로시프테, 손화수	푸른숲주니어	2015	
76	산 이춤마	윤나리	현복스	2016	
77	살랑살랑 봄바람이 인사해요	김은경	시공주니어	2015	*
78	새벽이 오는 시간	이소을, 이성표	상상박스	2016	*
79	색깔 손님	안트에 담, 유혜자	한올림어린이	2015	
80	생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코비 야마다, 매 베숨, 피블번역	예벳	2015	*
81	생선이 무서워!	쓰가모토 야스시, 고향옥	담푸스	2016	
82	세상을 뒤집어 봐!	죄 외즐랑, 뤼실 플라생, 권지현	씨드북	2015	
83	소녀와 청마	정은수	헤민기획	2016	
84	솔직하면 안돼?	도나 W. 언하트, 안드레아 카스텔라니, 김경연	폴빛	2015	
85	속중임금님과 고양이	노경실, 최정인	단비어린이		
86	숲 할아버지의 비밀	다시마 세이조, 고향옥	웅진다책	2012	*
87	숲속 사진관	이시원	고래뱃속	2016	
88	숲으로 간 꼬끼리	하재경	보림	2007	*
89	스마트폰 괴물이 나타났어요!	박혜정, 김혜린	하늘콩	2014	
90	신발 신은 강아지	고상미	스콜라	2016	
91	신발신은 강아지	고상미	스콜라(위즈덤)	2016	*
92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	다비드 칼리, 세르주 블로크, 장혜경	문학동네	2015	*
93	씨앗이야기	박심성, 천은실	소리산	2016	
94	아빠는 접속 중	필립 드 케메테	푸른숲주니어	2016	*
95	아빠의 마음에 감기가 걸려쎄요	클라우디아 글리만	책빛	2016	*
96	안녕, 외톨이	신민재	책읽는곰	2016	*
97	어느 날 길에서 작은 선을 주웠어요	세르주 블로크, 권지현	씨드북	2015	
98	어떤 가구가 필요하세요?	이수연	리젯	2015	*
99	얼음왕국 이야기	리키 블랑코, 유 아가다	지양어린이	2015	
100	엄마 몸에 딱 달라붙는 요술 테이프	박은경, 김효주	고래이야기	2016	
101	엄마, 잠깐만!	앙트아네트 포티스	한솔수북	2015	*
102	엄마는 누구를 더 사랑해	조미영, 조현숙	주니어김영사	2015	*
103	엄마의 선물	김윤정	상수리	2016	*
104	영롱한 크레파스	미야니시 타츠야	달리	2016	*
105	영터리 집배원	장세현	어린이작가정신	2016	*

no	서명	저자	출판사	년도	서평수록
106	열두띠의 비밀 : 우리가족 띠 이야기	김기정	한솔수북	2014	*
107	영자 아줌마네 양장점	김명희, 정수	밝은미래	2016	*
108	오늘 내 기분은...	메리엔 코카-레플러, 김영미	키즈엠	2015	
109	올리브는 모자가 부끄러워!	토 프리먼, 최용은	키즈엠	2015	
110	왕 팬티	베랑제르 들라포르트 그림, 크리스토프 루피 글, 박선주 옮김	책과콩나무		
111	외로운 그림자	클레이 라이스	같이보는책	2015	*
112	외톨이 꿈	이노루	책읽는곰	2015	*
113	왼손 공주	마리아 테레지아 뢰슬러, 브루넬라 바리, 김사정	꿈꾸는꼬리연	2014	
114	용기있는 어린이 루비 브리시스	로버트 홀스, 조지 포드, 김선희	나무상자	2016	
115	우리 가족	하세가와 슈헤이, 김영순	문학고지성사	2016	*
116	우리 가족의 비밀	아나 만소, 수사나 텔 바노, 박지영	북스토리	2015	*
117	우리 동네에 들꽃이 피었어요	카도 아츄, 엄혜숙	푸른숲주니어	2015	
118	우리 아기 좀 보세요	유태은 그림, 폴리 카네브스키 글, 김지은 옮김	창비		
119	우리 엄마 아니야	노라미나 오마르, 웨르리자 타줄 아리핀, 이구용	정인출판사	2016	
120	우리 집엔 할머니 한 마리가 산다	송정양, 전미화	상상의집	2015	*
121	우리에게 놀이터가 필요해요	쿠루사, 모니카 도페르트, 유혜경, 최성희	찰리북	2016	*
122	웃어요! 하마 치과의사 선생님	사쿠라 도모코, 소노 야스지, 김영주	꿈터	2015	
123	웃음은 힘이 세다	허은미	한울림어린이	2015	*
124	위니를 찾아서	린지 매틱, 소피 블래콜, 정희성	미디어창비	2016	*
125	위대한 청소부	필 빌드너 지음, 존 파라 그림, 최혜기 옮김	산하		
126	위를 봐요!	정진호	은나팔(현암사)	2014	*
127	으라차차 큰 일꾼	정해왕, 이승현	국민서관	2015	
128	이게 정말 나일까?	요시타케 신스케	주니어김영사	2015	
129	이런 생일 선물은 처음이야!	벤 멘틀, 김현좌	노란우산	2014	
130	이리 와!	미라 로베 지음, 앙겔리카 카우프만 그림	분홍고래	2016	
131	이상한 엄마	백희나	책읽는곰	2016	*
132	이야기보따리를 훔친 호랑이	김하루, 김옥재	우리아이들	2016	
133	이유가 있어요	요시타케 신스케	봄나무	2015	
134	이제 곧 이제 곧	오카다 고, 오카다 치아키, 김소연	천개의바람	2016	
135	작은 물고기	문중훈	한림		
136	작은배추	구도 나오코, 호토하마 다카시, 이기용	길벗어린이	2015	*
137	잔소리 로봇	김아로미, 김은경	파란정원	2015	

no	서명	저자	출판사	년도	서평수록
138	잘가, 안녕	김동수	보림	2016	
139	장갑	에우게니 M. 라초프	한림출판사	2015	
140	재미있게 먹는 법	유진	한림출판사	2014	*
141	저 할말있어요	저스틴 로버츠, 크리스천 로빈슨, 김소연	주니어김영사	2014	*
142	접시의 비밀	공문정, 노인경	바람의아이들	2015	*
143	조금만 기다려봐	케빈 헵크스, 문혜진	비룡소	2016	
144	조랑말과 나	홍그림	이야기꽃		
145	존경합니다. 선생님	페트리샤 폴라코, 유수아	아이세움	2015	*
146	주물럭 주물럭 미술 떡	윤쟁웅, 윤의품	맹&맹	2015	
147	취구멍에 숨고 싶은 날	이지수, 영민	키즈엠	2016	
148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	권정민	보림	2016	
149	진짜 엄마 진짜 아빠	박연철	NCSoft	2015	*
150	진짜 투명인간	레미 쿠르쵡, 이정주	씨드북	2015	*
151	찬이가 가르쳐 준 것	허은미, 노준구	양철북	2016	*
152	참 고마운 인생 수업	이사벨 미노스 마르틴스, 벨트나르두 카르발류, 임은숙	고래이야기	2016	*
153	책 고치는 할아버지	김정호 글, 김주경 그림	파란자전거	2016	
154	책 만드는 여우	다니엘 나프 글, 그림, 박종대 옮김	키다리		
155	처음 만나는 수학 그림책	미야니시 타츠야	북뱅크	2015	
156	천천히 도마뱀	윤여림, 홍정선	웅진주니어	2015	*
157	천하태평 금금이의 치매엄마 간병기	김혜원, 이영경	한겨레아이들	2016	*
158	청소부 토끼	한호진	반달	2015	
159	초원의 왕 대 숲 속의 왕	기무라 유이치, 미야니시 타츠야, 이지현	키즈엠	2015	
160	친절한 행동	재클린 우드슨, E.B.루이스, 김선희	나무상자	2016	
161	친해질 수 있을까?	츠지무라 노리아키, 하지리 토시카도, 유문조	스콜라(위즈덤)	2015	*
162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가 있었는데	로버트 배리, 김영진	길벗어린이	2014	*
163	코끼리 똥 호박	아베 히로시	웅진주니어	2016	
164	코끼리는 얼마나 커요?	로사나 보수, 이명희	마루별	2015	
165	콧물 빼는 할머니	박미라	문화과학유출판사	2015	*
166	큰할망이 있었어	김영화	낮은산	2016	
167	텅 빈 냉장고	가에탕 도레투스	한솔수북	2015	*
168	트럭이 쿵!	샬리 울프, 앤디 로버트 데이비스, 김영미	키즈엠	2015	
169	팔랑팔랑	천유주	이야기꽃	2015	*
170	하나만 골라 주세요.	마르셀라 마리노 클레이버, 조앤 루 브리토프, 길상효	씨드북	2016	*

no	서명	저자	출판사	년도	서평수록
171	할머니 사진첩	김영미	책먹는 아이	2014	*
172	할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였던 건 아니에요.	야프 로번, 메이럴 아르케르만, 최진영	고래벳속	2015	
173	할머니의 노래	정수정, 이정은	큰북작은북	2016	
174	할머니의 여름휴가	안녕달	창비	2016	*
175	할아버지의 코트	집 아일스위스, 바바라 매클런톤	이마주	2015	*
176	해소녀	고희선, 이영경	나한기회	2013	*
177	해적: 바다에 살던 한 해적의 이야기	다시마 세이조, 시오자와 후미오, 박종진	한림출판사	2015	*
178	해터와 심술쟁이 기사	알렉스 T. 스미스, 초록색연필	키즈엠	2015	
179	혼자가 아닌 날	구오정	미디어창비	2016	*
180	흔들흔들 다리에서	기무라 유이치	천개의바람	2016	*
181	힐링썰매	조은 글, 김세현 그림	문학과지성사	2016	

no	서명	저자	출판사	년도	서평수록
1	갯벌아, 미안해	윤소현, 이현정	아주좋은날	2016	
2	거꾸로 오르기 숙제	후쿠다 이와오, 신은주	상상의집	2015	
3	건수 동생, 강건미	박서진	바람의아이들	2016	*
4	공부 잘하게 해 주는 빵	김라라, 홍지연	북멘토	2015	
5	귀족놀이	원유순, 이예숙	밝은미래		
6	기울어진 집	툼 르웰린	어린이작가정신	2016	
7	김반장의 탄생	조정희 지음, 김다정 그림	어린이나무생각		
8	펼쳐없는 운동회	고정욱, 우연이	내인생의책	2015	*
9	꽃방귀	신양진, 이수진	별숲	2016	
10	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	김원아	창비	2016	
11	나무도장	권윤덕	꿈교출판사	2016	*
12	나중에 할거야	김유리, 이주희	스콜라	2016	
13	난로의 겨울방학	무라카미 시이코, 하세가와 요시후미, 김숙	북뱅크	2016	
14	납작 개구리 사건	잉그리드 올손, 샬롯 라멜, 황윤진	우리나비	2015	
15	내 꿈이 어때서!	초등학교62명아이들	휴먼어린이	2016	*
16	내 친구 꼬마 거인	로알드 달 지음, 키티 블레이크 그림, 지혜연 옮김	시공주니어		
17	너도 화가 냐어?	톤 텔레헨	분홍고래	2015	*
18	너를 초대해	임어진 지음, 김주경 그림	한겨레아이들		
19	네모 돼지	김태호	창비	2016	
20	달에서 온 아이 엄동수	김룡 시, 노인경 그림	문학동네어린이		
21	대단하다 털렁공주	송언	문학동네	2015	*
22	도둑왕 아모세	유현산, 조승연	창비	2016	
23	독수리와 굴뚝새	제인 구달, 알렉산더 라이히슈타인	토토북	2015	*
24	돌 씹어 먹는 아이	송미경	문학동네	2014	*
25	동심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김용용, 양상용	고인돌		
26	두근두근 1학년을 부탁해	이서윤	풀빛	2016	*
27	뒤집혀 허집뒤!	이리울	비룡소	2016	
28	드림하우스	유은실, 서영아	문지아이들	2016	*
29	똥으로 책을 쓰는 돼지	최은옥, 오정택	주니어김영사	2016	
30	레몬첼로 도서관 탈출 게임	크리스 그라번스타인, 정희성	사파리	2016	
31	로봇 친구 앤디	박현경, 김종석	별숲		
32	마법사와 함께 한 시간	호르헤 부카이, 구스티, 김유진	베틀북	2014	
33	마법에 걸린 집	이향안 지음, 윤진현 그림	현암주니어		
34	마왕 투투	장텐이	보림	2015	
35	마음을 비추는 겨울	팀 말니, 캐티 그린, 김선희	담엔박스	2015	
36	막난 할미와 로봇 곰 털털	안오일, 조정규	뜨인돌어린이	2014	*

no	서명	저자	출판사	년도	서평수북
37	만지지마! 내 몸이야!	노경실	씨즐북스	2016	*
38	맨날 맨날 화가 나!	양혜원	좋은책어린이	2015	*
39	모르는 아이	장성자, 김진화	문학과지성사	2015	*
40	못된 녀석	안젤라키 달라시, 아이리스 사마르치, 길상효	씨드북	2016	*
41	몽당분교 올림픽	김형진 지음, 김중석 그림	파랑새		
42	무어 사저 선생님과 어린이 도서관에 갈래요!	젠 핀버러, 테비 에트웰, 서남희	다산기획	2016	*
43	무지개 사과나무를 지켜라	조명숙	가문비	2015	*
44	발가락 코 소년	로버트 호지 지음, 안진희 옮김	노란상상		
45	밤밥이와 안녕 할 시간	윤아혜	위즈덤	2015	*
46	백수 삼촌을 부탁해요	박혜선, 이고은	문학동네	2016	*
47	벌레가 기절했다	최수진	사계절	2015	*
48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	이향안 지음, 손지희 그림	웅진주니어		
49	보청기 낀 소년 티보	실비 드조르 지음, 말리크 드조르 그림, 전광철 옮김	한울림스페셜		
50	본 대로 따라쟁이	김영주	재미마주	2016	
51	분홍 문의 기적	강정연 지음, 김정은 그림	비룡소		
52	블랙리스트	오혜원, 이갑규	한우리문학		
53	빨간머리 마녀 미로	최유진, 유경화	비룡소	2016	
54	빵집 의사의 인체 대탐험	이원천	사계절	2016	*
55	사라진 조우관	정명섭, 이예숙	사계절		
56	사람을 훔쳐가는 도둑	박현숙 지음, 이상윤 그림	아이앤북		
57	살아남은 여름 1854	테보라 홉킨슨 지음, 길상효 옮김	씨드북(주)		
58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우현옥	키위북스	2015	*
59	세상일 공짜는 없더라	윤기현	현북스	2015	*
60	소년 명탐정 정약용	한이	청어람주니어		*
61	수평선 학교	김남중 지음, 정현 그림	창비		
62	아빠와 배트맨	이병승 지음, 장은희 그림	도서출판 북멘토		
63	알미운 내 꼬리	양인자	파란정원	2016	*
64	얼굴 시장	임지형	꿈꾸는초승달	2016	*
65	엄마 없이 보낸 일 년	다샤 톨스티코바	산하	2016	
66	엄마도 나만큼 속상해요?	최형미, 이현정	아주좋은날	2016	
67	엘 데포	시시 벨 글.그림, 고정아 옮김		2016	
68	여름이 반짝	김수빈	문학동네어린이	2015	
69	여름이를 찾아서	이가을	한림출판사	2013	*
70	여섯 번째 머리카락	창신강	보림	2015	
71	오줌싸우루스 물리치는 법	핫토리 치하루, 무라카미 야스나리, 김정화	천개의 바람	2015	
72	용의 날개	로렌스 엡 지음, 김연수 옮김	소년한길		

no	서명	저자	출판사	년도	서평수록
73	우리 집 경제대장 나백원이 간다	박미선	가나문화콘텐츠	2016	*
74	우리 집에 코끼리가 산다	윤혜연	비룡소	2016	
75	우리에게 놀이터가 필요해요	쿠루사, 모니카 도페르트, 유혜경, 최성희	찰리북	2016	
76	이상한 게임 마니또	선자은, 고상미	푸른숲주니어	2015	
77	이제 모두 다 금지야	아나 마리아 마샤두 지음, 조제 카를루루스	책속물고기		
78	인어의 노래	황선미, 이브나 호미엘레프스카	비룡소	2015	
79	읽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도서관	김유	시공주니어	2015	*
80	잘못 걸린 짝	이은재	주니어김영사	2016	
81	죽음의 먼지가 내려와요	김수희	미래아이	2015	*
82	지도 박사의 비밀지도	앤드류 클레멘츠, 댄 앤드리슨, 김난령	열린어린이	2015	
83	진짜 슈퍼맨	원유순	삼성사	2016	*
84	짜구 할매 손녀가 왔다	신지영, 정문주	한겨레아이들	2015	
85	책만 보는 매미	김옥	주니어김영사	2015	*
86	책에서 떨어진 고양이	안영은, 원혜진	주니어김영사	2016	
87	책으로 똥을 닦는 돼지	최은옥	주니어김영사	2015	
88	책이 있는 나무	비센테 무뇨스, 아돌포 세라, 김정하	풀빛미디어	2015	
89	천재화가 구출작전	박진홍	다숲	2016	*
90	초록 고양이	위기철, 안미영	사계절	2016	
91	최고의 독서짜깁	이상배, 이주희	좋은꿈		
92	치킨이 갑이다	김윤정 지음, 이지연 그림	도토리숲		
93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	윤여림	천개의바람	2016	*
94	플레이 볼	이현 지음, 최민호 그림	한겨레아이들	2016	
95	필리핀 사람이 어때서	박현숙, 송혜선	내인생의책	2016	
96	하늘은 무섭지 않아	고호관 외	사계절	2016	
97	할아버지와 보낸 하루	김금숙 글,그림	도토리숲		
98	해피 버스테이 투 미	신운선 지음, 서현 그림	문학과지성사	2016	
99	흑기사 황보찬일	소중애	교학사	2015	*
100	희망을 부르는 소녀 바리	김선우, 양세은	단비어린이	2014	*



어린이비문학

\*표는 본 서평집에 수록된 서평입니다.

no	서명	저자	출판사	년도	서평수록
1	2030년에는 투명 망토가 나올까	안 파울 스휘텐, 이가영	다룬	2015	
2	거문오름의 동굴들	정창훈 글. 조승연 그림	웅진주니어	2013	
3	과학자들은 왜 철새를 탐구했을까?	플리트 도제 지음, 상드린 토벤 그림, 박언주 옮김, 윤종민 감수	한울림어린이	2016	
4	과학자처럼 생각하고 실험하는 과학 놀이	런던 과학 박물관	사파리	2016	
5	균함도	윤문영	우리교육	2016	
6	꿈지락 별이 이야기	윤율, 이은혜	소라주	2016	
7	나는 바다에서 살아요	캐서린 실, 존 실, 김병직	다섯수레	2016	
8	나는 야 파리	브리지트 히오스, 제니퍼 플리커스, 윤소영	스콜라	2015	
9	나는야, 이야기 먹는 도깨비!	박이담 지음, 배성연 그림, 강성득 감수, 유몽인 원작	한국고전번역원		
10	난민	박진숙	풀빛	2016	
11	네가 알아야 할 모든 지식	제임스 맥클레인, 알렉스 프리스 지음, 마르코 팔미에리 그림			
12	논어들과 나타난 공자 귀신	고향숙, 이도현, 김미현	그린북	2015	*
13	눈부신 빨강	첸 브라이언트, 멜리사 스위트, 이혜선	봄나무	2014	*
14	도서관 할아버지	최지혜, 엄정원	고래가숨쉬는도서관	2014	
15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김병렬 지음, 최덕규 그림	사계절		
16	돌고 돌아 돌아야	신광복, 조승연	시공주니어	2016	
17	동물원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아베 히로시, 햇살과 나무꾼	논장	2013	*
18	동물원에 놀러가요	아베 고우시, 기타무라 나오코	종이책	2014	
19	동물원이 된 궁궐	김명희	상수리	2016	
20	똑 닮은 쥐랑 햄스터가 다른 동물이라고?	김정훈	비룡소	2015	*
21	로봇 : 인공지능 시대, 로봇과 친구가 되는 법	나타샤 세도어	길벗어린이	2016	
22	로봇박사 테이스 홍의 꿈 설계도	테니스 홍, 유준재	샘터	2015	
23	루이 브리유	차은숙, 윤종태	두레아이들		
24	마야는 자연이 좋아요	올프 스베드베리 지음, 레나 안테르손 그림	청어람아이	2015	
25	물이 돌고 돌아	미란다 폴, 제인슨 진, 윤정숙	봄의정원	2016	
26	방사능 마을의 외톨이 아저씨	김수희 글. 이경국 그림	미래아이	2016	
27	봄 여름 가을 겨울 풀꽃과 놀아요	박신영 글. 그림	사계절		
28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스테판 미예루	책속물고기	2016	
29	산 아줌마	윤나리	현복스	2016	

어린이비문학

no	서명	저자	출판사	년도	서평수록
30	산호초: 바닷속 도시	마리스 워스, 김명주	길벗어린이	2016	
31	새들의 눈에는 유리창이 보이지 않아요!	시그문드 브라우어 지음, 박선주 옮김, 이은지 그림, 한국조류보호협회 추천	책속물고기		
32	생각을 열어 주는 사회가치사전	구민정 외 4인, 김영랑 그림	고래이야기	2016	
33	세계의 빈곤	김현주, 권송이	사계절	2016	
34	세상에서 가장 우수황스러운 그림 도둑	펠리시아 로, 앤 스콧, 황세림	푸른숲주니어	2016	*
35	세상을 만든 책과 기록	김향금	아이세움	2016	
36	소녀가 된다는 것	헤일리 룡 지음, 켈마 코렐 그림, 김인경 옮김	봄나무		
37	소녀의 눈물	박정연	버튼북스		*
38	소셜 미디어 이야기	한현주, 박선하	팜파스		
39	시간 여행자의 일기장	테이버드 룡, 니컬러스 스티븐슨, 박중서	찰리북	2016	
40	시간의 섬	마르타 반디니 마찬티	다섯수레	2016	
41	시금털털 막걸리	김용안, 송선주	아이세움	2015	
42	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손을 잡아준 판결	홍경의, 문신기	나무야	2016	
43	신발 신은 강아지	고상미	스콜라	2016	
44	신통방통 플러스 시간의 덧셈과 뺄셈	서지원, 이주현	좋은책어린이	2015	
45	썩어가는 환경	장수하늘소	해솔		*
46	아름다운 가치사전 2	채인선, 김은정	한울람어린이	2015	
47	아스트로콧의 우주 안내서	도미니크 윌리먼, 벤 뉴먼	길벗어린이	2014	
48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키도, 고정아	문학수첩 리틀북	2016	*
49	안전은 나의 힘	손경애, 최은영	명주	2016	
50	양성평등, 나부터 실천해요	서지원 지음, 최현정 그림	폴빛		
51	어디에서 왔을까? 과일 비밀	모리구치 미쓰루 저, 이진원 역, 현진오 감수	봄나무	2016	
52	어린이 인문학	조승연	세종주니어	2015	
53	어린이 인성사전	김용택, 김세현	이마주	2015	
54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지구촌 아름다운 거래 탐구생활	한수정, 송하완	파란자전거	2016	
55	엄마, 글로벌이 뭐예요?	이아연, 임채준	북네스트		
56	에디슨이 포드에게 알려 준 발명가의 비밀	수잔 슬레이드, 제니퍼 블랙 라인하트, 이충호	스콜라	2015	
57	역사의 나들목 여기는 항구	조성은	책과함께어린이	2015	*
58	왜 띄어 써야 돼?	박규빈	길벗어린이	2016	
59	우리 옛 직업	이영민, 김이솔	주니어 RHK	2014	
60	우리가 박물관을 바꿨어요!	배성호 지음, 홍수진 그림			
61	우리가 사는 자연	신혜원	휴먼어린이	2016	
62	우리랑 캠핑 여행	김향금, 강은경	그린북	2016	

no	서명	저자	출판사	년도	서평수록
63	우주여행 초대장	황도순 외 지음, 홍원표 그림	갈대상자(찰리북)		
64	운명아, 덤벼라!	강민경 지음, 정경심 그림, 강옥순 감수	한국고전번역원		
65	원더 가든	제니 브룩 글, 크리스토퍼나 윌리엄스 그림, 고수미 역, 이정모 감수	미세기	2015	
66	이오덕 선생님	이오덕 원작, 박건웅 만화	고인돌		
67	이중섭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최한중, 오승민	사계절		
68	일제 강점 보물찾기 3	곰돌이 co., 강경호	아이세움	2016	
69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페르닐라 스탈펠트	시금치	2016	
70	작은생물이야기	지태선	미래아이	2015	*
71	재미있는 건축의 세계 1, 2	디디에 코르니유 저, 이성엽 역, 오영옥 감수	톡	2015	
72	적금은 뭐고 펀드는 뭐야?	김경선	팜파스	2016	*
73	제주섬의 어머니산 한라산	김은하 글	웅진주니어	2012	
74	조국을 떠난 사람들	정명림 지음, 최현복 그림	우리교육		
75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권재원	창비	2015	
76	지구를 구하는 소비	강수돌, 문신기	나무야		
77	지구의 역사가 1년이라면	데이비드 J.스미스, 스티브 애덤스, 황세림	푸른숲주니어	2015	*
78	깊신 신고 도롱이 입고 동네 한 바퀴!	정인수 지음, 최선희 그림			
79	초등 토론영재 되기	이명자	연두세상		
80	초등학생을 위한 교과서 인물사전	정우영	시공주니어	2016	
81	최고의 서재를 찾아라	김주현, 지혜라	창비		
82	추사 김정희, 글씨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다	강창훈, 이부록	사계절		
83	친구 사이에 빨간불이 켜졌다면?	트레버 로맹, 정아영	라임	2016	
84	쿵! 중력은 즐거워!	정연경 글, 강지영 그림, 조니호 감수	길벗어린이	2015	
85	크로스 섹션	리처드 플라트, 스티븐 비스티, 최의신	진선아이	2016	
86	투표, 종이 한 장의 힘	김성호 지음, 나오미양 그림	사계절		
87	꽃꽂이 놀아요	박신영	사계절	2016	
88	프랭크 아인슈타인과 반물질 모터	존 세스카 지음, 브라이언 빅스 그림, 김명남 옮김	해나무		
89	피노키오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장수하늘소	아이세움	2016	
90	한 장 두 장 책의 비밀	이케가미 준이치, 세키구치 요시미, 강방화	한울수북	2016	*
91	한국사 보물찾기	김보민	어린이동아	2016	
92	행복한 대통령 호세 무히카	우현옥, 강혜영	책고래	2015	

## 색인

## 저자명

- 가에탕 도레뤼스 165  
 강하연 128  
 고상미 67  
 고정욱 136, 238  
 고향숙, 이도현 290  
 교회선 171  
 공문정 106  
 구도 나오키 48, 50  
 구오징 179  
 권윤덕 181  
 기무라 유이치 84  
 김경선 295  
 김기정 114  
 김명희 148  
 김삼현 159  
 김상근 70  
 김선우 272  
 김수희 213  
 김옥 204  
 김유 248  
 김윤정 112  
 김은경 140  
 김정훈 293  
 김혜원 183  
 김희경 110  
 노경실 76, 78, 230  
 다비드 칼리 41  
 다시마 세이조 37, 42, 137  
 데이비즈 J. 스미스 281  
 레미 쿠르중 134  
 로버트 배리 163  
 린지 매틱 217  
 마라 록클리프 73  
 마르셀라 마리노 크레이버 118  
 미야니시 타츠야 177  
 박미라 81  
 박민선 301  
 박서진 256  
 박연철 104  
 박완서 12, 14  
 박정연 192  
 박종채 125  
 박진홍 234  
 박혜선 275  
 백희나 152  
 벤자맹 쇼 18  
 소중애 261  
 송미경 228  
 송언 199  
 송정양 100  
 송혜원 116  
 스펀 누르드크비스트 52  
 신민재 161  
 신채연 254  
 아나 만소 102  
 아베 히로시 16  
 안병달 132  
 안드레아 비티 90  
 안오일 190  
 안젤리키 달라시 252  
 앙트아네트 포티스 76  
 양인자 263  
 양혜원 242  
 엠마누엘레 베르토시 25  
 오키도 297  
 요시타케 신스케 92  
 우현옥 269  
 원유순 236  
 유은실 258  
 유진 79  
 윤기현 246  
 윤아해 271  
 윤여림 31, 33, 232  
 윤지희 27  
 이가을 215  
 이노루 58  
 이사벨 미노스 마르틴스 156  
 이서운 240  
 이선미 23  
 이소을 144  
 이수연 64  
 이원천 244  
 이케가미 순이치 299  
 임지형 265  
 장석주 197  
 장성자 123  
 장세현 194  
 장수하늘소 194  
 쟈 편버러 250  
 지스틴 로버츠 98  
 진미화 44, 100  
 진은지 207, 209  
 정성훈 74  
 정진호 40, 60, 62  
 제인 구달 267  
 쟈 브라이언트 167  
 조명숙 201  
 조미영 54  
 조성은 286  
 존아노 로슨 155  
 지태선, 김찬희 284  
 짐 아일스워스 56  
 천유주 35  
 최수진 278  
 츠지무라 노리아키 130  
 칼라 모리스 20  
 코비 야마다 146  
 쿠루사 222  
 클라우디아 글리만 225  
 클레이 라이스 87  
 톤 텔레헨 219  
 패트리샤 폴라코 169  
 펠리시아 로 288  
 필립 드 케메테 150  
 하세가와 슈헤이 180  
 하재경 46  
 한이 195  
 허은미 121  
 허정윤 60, 62  
 홍영우 142

## 도서명

- 7년 동안의 잠 12,14  
거리에 핀 꽃 155  
건수 동생, 강건미 256  
곰의 노래 18  
과학은 쉽다! 똑 닮은 쥐랑 햄스터가 다른 동물이라고? 221  
펼쳐 없는 운동회 238  
나는 자라요 110  
나무 도장 181  
나와 우리 23  
난 수탉이 필요 없어 52  
내 꿈이 어때서! 211  
내 마음/ 팔랑팔랑 35  
너도 화가 났어? 39  
노란 장화 60, 62  
논어 들고 나타난 공자 귀신 290  
누구세요? 25  
눈부신 빨강 167  
다다의 의자 116  
달님의 산책 159  
대단하다 털렁 공주 199  
대추 한 알 29  
도깨비 방망이 142  
도서관이 키운 아이 20  
독수리와 굴뚝새 267  
돌 씹어 먹는 아이 228  
동물원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16  
두근두근 1학년을 부탁해 240  
두꺼비가 간다 125  
두더지의 고민 70  
드림 하우스/ 일수의 탄생 258  
또 형 거 쓰라고? 254  
막난 할미와 로봇 곰 털털 190  
만지지 마! 내 몸이야! 230  
맨날 맨날 화가 나! 242  
모르는 아이 197  
못된 녀석 252  
무어 사서 선생님과 어린이도서관에 갈래요! 250  
무지개 사과나무를 지켜라 201  
물고기 씨, 안녕하세요? 128  
미영이 44  
발명가 로지의 빛나는 실패작 90  
밤밤이와 안녕 할 시간 271  
방긋 아기사 27  
백수 삼촌을 부탁해요 275  
벌레가 기절했다 278  
벗지 말걸 그랬어 92, 96  
불만을 모으는 할아버지 73  
불만이 있어요 97, 175  
비밀은 내게 맡겨! 207  
빵집 의사의 인체 대담험 244  
사자가 작아졌어! 33  
사랑사랑 봄바람이 인사해요 140  
새벽이 오는 시간 144  
'생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46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269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그림 도둑 288  
세상일 공짜는 없더라 246  
소녀의 눈물 192  
소년 명탐정 정약용 195  
숲 할아버지의 비밀 137  
숲으로 간 코끼리 46  
신발 신은 강아지 67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 41  
씩어가는 환경 194  
아빠는 접속 중 150  
아빠의 마음에 감기가 걸렸어요 225  
안녕, 외톨이 161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297  
알뜰살뜰! 우리 집 경제 대장 나백원이 간다! 301  
알미운 내 꼬리 263  
어떤 가구가 필요하세요? 64  
얼굴 시장 265  
엄마, 잠깐만! 76  
엄마는 누구를 더 사랑해? 54  
엄마의 선물 112  
영똥한 크레파스 177  
영터리 집배원 213  
여름이를 찾아서 215  
역사의 나들목 여기는 항구 286  
열두 띠의 비밀: 우리 가족 띠 이야기 114  
영자 아줌마네 양장점 148  
외로운 그림자 87  
외톨이 꿈 58  
우리 가족 186  
우리 가족의 비밀102  
우리 집엔 할머니 한 마리가 산다 100  
우리에게겐 놀이터가 필요해요 222

웃음은 힘이 세다 108  
위니를 찾아서 217  
위를 봐요! 39  
이상한 엄마 152  
일편단심 책만 보는 매미 204  
읽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도서관 248  
작은 배추 48, 50  
작은 생물 이야기 284  
재미있게 먹는 법 79  
저, 할 말 있어요! 98  
적금은 뭐고 펀드는 뭐야? 295  
접시의 비밀 106  
존경합니다, 선생님 169  
죽음의 먼지가 내려와요 213  
지구의 역사가 1년이라면 281  
진짜 슈퍼맨 236  
진짜 투명인간 134  
진짜엄마 진짜아빠 104  
찬이가 가르쳐 준 것 121  
참 고마운 인생 수업 157  
천재 화가 구출 작전 234  
천천히 도마뱀 31  
친하태평 금금이의 치매 엄마 간병기 183  
친해질 수 있을까? 130  
커다란 크리스마스스트리가 있었는데 163  
콧물 빠는 할머니 81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 232  
딩 빈 냉장고 165  
하나만 골라 주세요 118  
한 장 두 장 책의 비밀 299  
할머니의 여름휴가 132  
할아버지의 코트 56  
해소녀 171  
해적: 바다에 살던 한 해적의 이야기 37  
혼자가 아닌 날 179  
흑기사 황보찬일 261  
흔들흔들 다리에서 84  
희망을 부르는 소녀 바리 272



